

충주 고구려비 발견 45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속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이해”

2024년 예성문화연구회 · 동아시아고대학회 공동학술세미나

- 일 시 : 2024. 10. 18 (금) 13:00~18:00
- 장 소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강의동 상허홀(101호) 건물번호 U11

사)예성문화연구회 · 동아시아고대학회

충주 고구려비 발견 45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아시아 속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이해”

2024년 예성문화연구회 · 동아시아고대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3:00~18:00

장소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강의동
상허홀(101호) 건물번호 U11

주최 : 예성문화연구회 · 동아시아고대학회

후원 : 충주시

일 정 표

시 간	내 용	참 여 자
12:30~13:00	참가자 등록	
13:00~13:20	개회사 및 환영사	길경택(예성문화연구회 회장) 홍성화(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기획 주제 발표 (교양강의동 상허홀 101호) 사회 : 허원기(예성문화연구회/동아시아고대학회 부회장)		
13:20~13:50	[기초강연] 충주 고구려비의 발견과 그 의의	장준식(국원문화유산연구원장)
13:50~14:20	[발표 1]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연구의 성과와 의의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이선철(충주박물관)
14:20~14:50	[발표 2] 高句麗 碑文의 선후 관계 재검토	이재환(중앙대학교)
	[토론]	이장웅(건국대학교)
14:50~15:00	휴식 및 장내 정리	
15:00~15:30	[발표 3]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4세기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이용현(전 경북대학교)
	[토론]	어경선(예성문화연구회)
15:30~16:00	[발표 4] 관련 사료를 통한 충주 고구려비 고찰 -우벌성과 고구려 진출로를 중심으로-	홍성화(건국대학교)
	[토론]	김희찬(예성문화연구회)
16:00~16:10	휴식 및 장내 정리	
16:10~17:30	종합토론	좌장 : 길경택(예성문화연구회) 발표자, 토론자 토론
자유 주제 발표 (교양강의동 401호) 사회 : 송완범(동아시아고대학회 평의원)		
15:00~15:30	[발표 1] 삼국시대 백제말 지역언어의 특수성과 문어교육에 대한 국어사적 이해	황국정(경상대학교)
	[토론]	송영대(건국대학교)
15:30~16:00	[발표 2] 쌍둥이 트릭스터로 본 <세경본풀이>	이지수(고려대학교)
	[토론]	김용선(선문대학교)
16:00~16:30	[발표 3] 儒家에서 法象 사유와 천인 관계의 구현 방안 - 「繫辭傳」의 法象者를 중심으로 -	지현주(부산대학교)
	[토론]	이동식(경북문화재단 이사)
16:30~17:00	[발표 4]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 형식 : 80년대 임진택 연출 <밥>의 틀거리	김종희(동국대학교)
	[토론]	이성재(충북대학교)

뒷 면

개 회 사

길 경 택 (사단법인 예성문화연구회장)

2024년 올해는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지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9년 2월 24일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에서 고비가 우리 예성문화연구회 선배들에 의해 발견되고 학계에 알려져, 그해 4월 8일 현장에서의 판독회를 거쳐 단국대학교 사학회에서 주관으로 학술대회를 주최하며 고구려에서 만든 고비임을 확정하였습니다.

1981년 국보 205호로 지정되었으며, 발견 20주년을 기념하여 고구려연구회와 ‘중원고구려비의 신조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구려비 발견40주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제약을 읽어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5년이 더 흘러 오늘은 우리 예성문화연구회와 동아시아고대학회가 공동으로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학술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약에 대한 발표 후 변화된 학계의 의견과 관심을 다시 한번 모아보고자, 관심을 일으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비가 발견된 후 1세대, 2세대 학자들의 의견보다는 과학적 기술과 접목하여 글자를 판독하는 3세대 젊은 학자들이 모여 또 다른 시각에서 충주고구려비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아무런 결론이 없을지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구려가 남긴 광개토태왕비와 집안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를 서로 비교하며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과보다 50주년에서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우리 예성문화연구회의 의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행복과 정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홍 성 화 (동아시아고대학회장)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고대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홍성화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인 충주 고구려비 발견 45주년을 맞아 동아시아고대학회와 사단법인 예성문화연구회가 ‘동아시아 속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동주최를 허락해주신 예성문화연구회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아시아고대학회 임원진 이하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년 창립된 동아시아고대학회는 동아시아권역 고대의 역사와 문화 등 동아시아의 고대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인문학회로서 그동안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아시아 인문학 연구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1979년 충주 고구려비를 처음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사단법인 예성문화연구회는 충주를 비롯한 중원의 역사 문화 연구에 있어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 명문사학회로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향토사학회입니다.

금번 이들 전통 명문의 두 학회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해서는 2019년에 비문에 대한 새로운 판독이 시도되어, 정면 상단 부분에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비의 제액(題額)이 새롭게 발견되었고 제액에서 ‘영락 7년’이라는 글자를 확인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락’은 광개토왕비에도 나오듯이 광개토왕의 연호로서 만약 제액이 확인되고 제액의 글자가 ‘영락’이 맞는다면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이 397년이나 그와 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다면 비석의 건립은 광개토왕 재위 시절까지 소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충주 고구려비 발견 45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학계 연구자 분들

과 충주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979년 충주 고구려비 발견 당시의 산증인이신 국원문화유산연구원 장준식 원장님께서 ‘충주 고구려비의 발견과 그 의의’라는 제목으로 기초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주제 발표로서 영락 7년의 제액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동북아역사재단의 고희의 연구위원님께서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연구의 성과와 의의’라는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충주 고구려비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주 고구려비, 지안 고구려비, 광개토왕비의 선후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대 이재환 교수님께서 ‘고구려 비문의 선후 관계 재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고구려비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해 주시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가 4세기말에 건립되었다고 한다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등 당시의 역사상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북대 이용현 교수님께서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4세기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라는 발표를 통해 당시의 역사상을 새롭게 조명해 주실 예정이며, 저 또한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충주 고구려비 고찰’이라는 발표에 참여하여 관련 사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우벌성’ 등 고구려의 진출로에 대해 고찰해 볼 예정입니다.

발표에 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임해주시는 충주박물관의 이선철 학예사님, 건국대 이장웅 선생님, 예성문화연구회의 어경선 고문님, 김희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를 맡아주신 건국대 허원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유발표를 해주시는 황국정, 이지수, 지현주, 김종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토론을 맡아주신 송영대, 김용선, 이동식, 이성재 선생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고려대 송완범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금번 학술대회 환영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조 길 형 (충주시장)

오늘 예성문화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35회 중원문화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예성문화연구회 길경택 회장님을 비롯한 예성문화연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학술회의를 위하여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해 주제발표를 해주실 고향의 박사님, 이재환 교수님, 이용현 교수님과 홍성화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충주의 역사를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5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시는 예성문화연구회 길경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가 「동아시아 속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이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충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에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성문화연구회는 충주의 대표적인 향토사 연구단체로서 지역의 역사문화 연구에 중심적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충주문화원 부설기관으로 운영 중인 충주학연구소와도 협업하여 충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충주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지역 향토학 연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처럼 이번 학술회의도 뜻깊은 성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낙 우 (충주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의장 김낙우입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충주에서 제35회 중원문화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길경택 예성문화연구회장님, 그리고 학술발표를 위해 충주를 방문해주신 교수님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35회를 맞이한 이번 중원문화학술회의는 충주고구려비 발견 45주년을 기념하며 ‘충주 고구려비의 새로운 이해’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충주고구려비는 한강 이남까지 진출한 고구려 남진 정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서 충주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드높여 왔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시아 최강국 고구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충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발전의 꿈과 국가번영의 희망을 향해 온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이 우리 지역에 남긴 고귀한 문화재를 심도 있게 발굴하고 조사하며 충주의 역사 연구와 문화 창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학술회의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함께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 기획 주제 발표	9
【기조강연】 충주고구려비의 발견과 그 의의	
발표 장준식(국원문화유산연구원장)	11
【발표 1】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연구의 성과와 의의	
발표 고팡의(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14
토론 이선철(충주박물관)	37
【발표 2】 高句麗 碑文의 선후 관계 재검토	
발표 이재환(중앙대학교)	38
토론 이장웅(건국대학교)	52
【발표 3】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4세기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발표 이용현(전 경북대학교)	56
토론 어경선(예성문화연구회)	86
【발표 4】 관련 사료를 통한 충주 고구려비 고찰 - 우벌성과 고구려 진출로를 중심으로	
발표 홍성화(건국대학교)	88
토론 김희찬(예성문화연구회)	107
■ 자유 주제 발표	113
【발표 1】 삼국시대 백제말 지역언어의 특수성과 문어교육에 대한 국어사적 이해	
발표 황국정(경상대학교)	115
토론 송영대(건국대학교)	126
【발표 2】 쌍둥이 트릭스터로 본 <세경본풀이>	
발표 이지수(고려대학교)	128
토론 김용선(선문대학교)	141
【발표 3】 儒家에서 法象 사유와 친인 관계의 구현 방안 - 「繫辭傳」의 法象者를 중심으로	
발표 지현주(부산대학교)	144
토론 이동식(경북문화재단 이사)	164
【발표 4】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 형식 : 80년대 임진택 연출 <밥>의 틀거리	
발표 김종희(동국대학교)	168
토론 이성재(충북대학교)	177

기획 주제 발표

뒷 면

【기조강연】

충주 고구려비의 발견과 그 의의

장준식(국원문화유산연구원장)

1. 고구려비와 예성동호회

1978년 8월 5일부터 충주지역의 문화재 애호가 몇 명이 모여서 매주 주말에 인근 지역을 답사하던 중, 그해 9월 2일 예성신방석을 찾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여 3일 뒤인 5일에 예성동호회를 발족하였다. 주로 폐사지에서 기와편들을 수습하던 아마추어들의 모임인 예성동호회가 다음해인 1979년 1월부터 갑자기 古碑 찾기에 주력하였다. 가금면의 탐평리와 누암리 일대, 금가면의 태고산, 장태산 일대 그리고 장미산 등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던 중 2월 24일 오후 늦게 입석마을에서 고구려비를 처음으로 친견하였고, 다음날 2차로 정밀조사하자고 하여 25일 오전에 현지에 갔는데 동네 주민인 정순덕 할머니가 비석의 꼭대기에 백설기를 올린 채 절하며 기원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날 회원들이 國土·土內·安城? 등 10여 자를 확인하여, 이 돌기둥이 입석(선돌)이 아닌 고비였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때는 고구려비인줄은 짐작조차 못한 채 古碑임이 분명하니 학계에 보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필자가 3월 초 개강이 되면서 지도교수를 뵈고 이 비석에 관하여 보고한 바 있다.

1개월 지난 4월 5일 아침, 정영호 교수가 집으로 전화하여 일인학자 2명과 황수영 박사가 전해에 발견된 양성면 봉황리에 위치한 마애불상군을 답사한다고 안내해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당일 12시경 서울에서 온 학자들과 예성회원들이 중원군청에 집결하여 봉황리로 가는 도중 입석마을에 들러 古碑를 잠시 둘러본 뒤, 황 박사와 일인학자 2명, 김예식을 비롯한 예성동호회원 4명은 봉황리로 가고, 입석마을엔 정영호 교수, 이노영 예성회원과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향토조사반 학생 2명이 남아서 탁본을 진행하였다.

봉황리 마애불 답사와 입석에서의 탁본을 마친 일행들이 합류하여 충주시내의 산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정영호 선생이 가져온 탁본을 병풍에 걸어놓고 글자를 확인하는데 비석 첫머리의 高麗大王을 眞興大王으로 읽어 이 비를 진흥대왕순수비로 잠정 확정하였다. 그 자리에서 이 비석의 정밀조사는 단국대학교박물관에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고, 4월 7일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도착하여 비석에 덮힌 청태와 이끼 등을 제거하면서 탁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완성된 탁본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석문과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날인 4월 8일 오후 늦게 조사단장인 정영호 관장이 이 비의 주체가 고구려이고 성격은 척경비류라고 발표하였다.

2. 고구려비와 국원성

고구려는 평양성과 집안의 국내성, 재령의 한성 등 3京이 운영되었다. 고구려에서 3京제도가 실시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중기 이전부터 別都를 설치하여 확대된 영토와 증가된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영락 9년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개토왕이 평양성에 행차하였으며, 그 이전에 고국원왕은 평양성에서 백제의 근초고왕과 전투를 펼치다 전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일 때 평양성은 고구려 남진경영의 거점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고구려 세력은 한반도 내륙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서 남진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주지역에 군사적 기능을 가진 ‘국원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주 지역은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계림령을 통하여 낙동강 유역과 연결되어, 고대부터 남북의 인마와 문물이 오고 가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고구려가 지속적인 남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주 지역에 거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충주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철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충주 지역에 別都의 기능을 가진 국원성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주 고구려비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구려비를 제외하면 충주 지역에 고구려 진출을 의미하는 유적이 없어서 국원성이 고구려의 남진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데 의문도 있어왔다. 그런데 2007년 대소원면 두정리에서 고구려 석실분 6기, 단야로 3기, 수혈유구 4기, 온돌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2호분은 벽면에 회칠 흔적도 보였다. 두정리의 고구려 고분군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중 한 곳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고구려 고분은 남한 지역에서 곳곳에 발견되지만, 대체로 1기나 2기 정도가 독립적으로 발견될 뿐 여러 기가 밀집되어 발견되지는 않는다. 성남 판교,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지에서 고구려토기를 부장한 석실분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1기만 발견되었다. 홍천 역내리 고분군에서는 신라 고분과 섞여서 1기의 고구려계 고분이 발견된 적이 있다. 춘천 방동리, 연천 신탄리 등에서는 고구려 고분 2기가 각각 발견되었다. 또한 진천 회죽리, 제천 교동과 같이 신라 고분에서 고구려계 이식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양상으로 보아 한 세대 이상 그 문화 현상이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분의 주인공도 고구려인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된 재지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충주에서 고구려 고분이 6기가 밀집되어 출토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두정리고분에서 보이는 추가장의 형태로 볼 때 적어도 2세대나 3세대에 걸쳐서 고구려의 고분문화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충주 지역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두정리 고분군의 주인공이 고구려인일지 아니면 재지세력 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6기 정도의 고분이 밀집된 것을 보면, 이 고분을 축조한 집단이 상당 기간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고분이 위치

한 충주시 대소원면 두정리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철산지로 운영되었고 고려시대의 다인철소가 있던 곳으로, 이 일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41기의 야철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충주에는 탄금대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철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확인되지만, 그 중에서도 대소원면 일대에 밀집도가 가장 높다.

두정리 고분군 주변에서 단야로가 발견된 것을 보면, 두정리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은 철생산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한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 고분이 밀집되어 조성된 배경도 고구려가 충주 지역의 철생산에 주목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충주 지역을 군수 거점으로 삼아 그 전방의 금강 유역이나 對신라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정리 고분 축조 세력과 제휴하였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을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하여 검토하면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배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고구려는 충주지역에 ‘국원성’을 설치하고 신라 매금을 불러서 형제관계를 표방하며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신라가 충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억제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연구의 성과와 의의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目 次〉

I. 머리말	III. 판독회
II. 과학적 조사	1. 공동 판독안
1. 3차원 스캐닝	2. 판독 성과
2. RTI 촬영	IV. 학술회의
3. 디지털 사진 촬영	V. 맺음말
4. 탁본 및 화상처리	

I. 머리말

1979년 2월 24일,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 입석마을(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어귀에 서 있던 입석에서 예성동호회가 글자를 확인하였다.¹⁾ 이어 4월 5일, 정영호, 황수영 등이 실견하고 최초로 탁본을 두 벌 하였다. 4월 7일에는 단국대학교 박물관이 학술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를 하였고 ‘高麗’를 읽음으로써 고구려비로 판명되었다. 비문에 ‘東夷寐錦’, ‘新羅土內幢主’를 비롯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如兄如弟’로 기술하고 있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는 ‘中原高句麗碑’로 명명되었으며 1981년 3월 18일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 발견지 부근에 비각을 세워 보호하다가 2012년 7월 비각 자리에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을 지어 전시하고 있다.

비의 종합적인 연구는 발견 당시²⁾와 약 20년이 지난 2000년³⁾에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해 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으나 여전히 판독이 불안정하여 연구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 발견 초기 조사 책임을 담당했던 정영호는 당시에 이미 육안이나 탁본으로도 판독이 불가능했다고 하며 “‘강한 빛’으로 촬영하여 글자를 가려내는 방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型을 떠서 글자의 흔적을 더듬는 방법이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하여 명문 판독을 우선 행하여야 할 것”⁴⁾이라 하며 보다 과학적인 방법 모색을 강조하였다.

1) 金禮植, 1979, 「中原 高句麗碑 發見經緯」, 『藥城文化』 創刊號, 藥城同好會, 33~37쪽.

2)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3) 고구려연구회, 2000, 『高句麗研究 10 : 中原高句麗碑 研究』, 학연문화사.

4) 鄭永鎬,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史學志』 제13집, 18~19·107~108쪽. 초기 조사단에 참여한 김광수도 전문해독팀 구성과 함께 연결 또는 경질의 모형을 떠내는 방법이나 정밀 촬영을 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좀 더 많은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121쪽).

이에 부응하여 2000년 고구려연구회 조사에서는 ‘적외선 촬영’과 ‘실리콘탁본’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종이 탁본과 촬영만 허가되었다. 적외선 촬영은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유물의 상태를 조사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칠해진 안료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적외선을 많이 흡수하는 경우는 검게, 반사가 많은 경우에는 백색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적외선 촬영은 금석문보다는 서화 작품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탁본으로 비면에 먹물이 묻어있는 충주 고구려비의 경우, 촬영하더라도 원래 글자 상태와는 다르게 왜곡될 소지가 있다. 당시 관독회에 제출된 적외선 사진⁵⁾의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2019년 비 발견 40주년을 맞아 동북아역사재단은 ‘충주 고구려비의 금석학적 연구(NAHF-2019-기획연구)’를 추진하였다.⁶⁾ 고구려고분벽화와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아트 궁전벽화의 디지털 연구 사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조사의 경험⁷⁾을 금석문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발표를 통해 수행한 연구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II. 과학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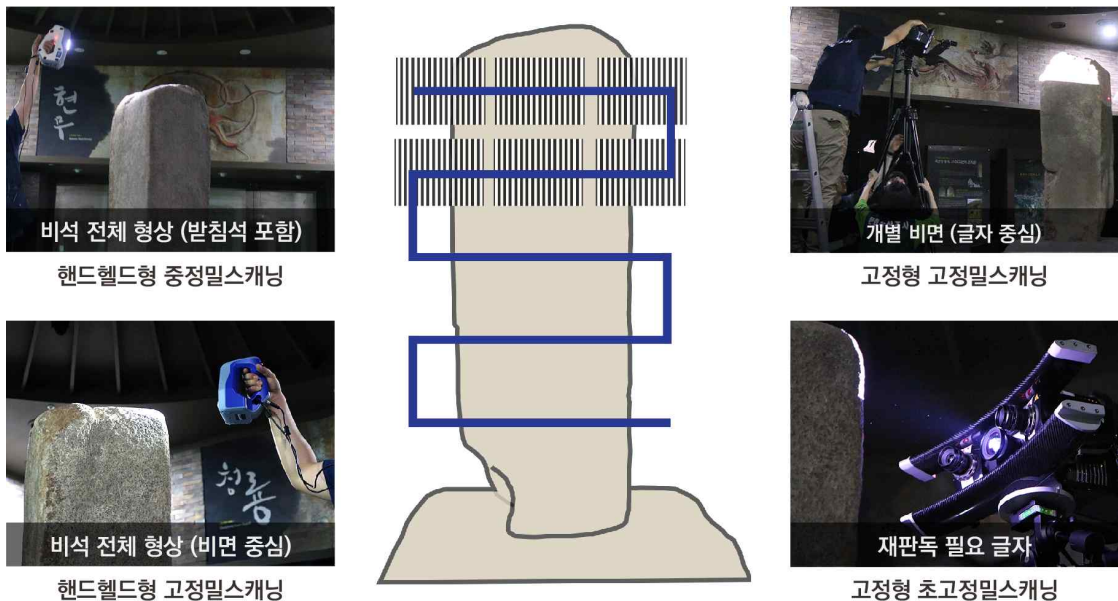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는 국내에 전하는 고대 금석문 중에서도 판독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석문의 새로운 판독 기법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⁸⁾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는 근적외선 반사촬영, 자외선 형광촬영, 반사율변환영상(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e, 이하 RIT) 촬영, 3차원 스캐닝(3D Scanning)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대상인 충주 고구려비가 석재이고 글자가

-
- 5) 徐吉洙, 2000,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워크샵과 국제학술회의」, 『高句麗研究 10 : 中原高句麗碑 研究』, 33~49·133쪽 각주 1). 필자는 당시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워크샵과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으로 참가하였다.
 - 6) 필자가 연구 책임을 맡고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영훈 부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1월 15일까지이다. 충주 고구려비의 탁본은 문화재청이 지원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수행한 ‘2019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였으며 채탁자는 홍선 스님이다. 비와 탁본의 초고해상도 디지털 촬영은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사진 및 디지털 이미지 전공) 신빛 겸임교수가, RTI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안재홍 초빙교수가 담당하였다. 연구보조원으로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과정 권다경이 참여하였다.
 - 7) 재단은 필자가 연구 책임을 맡아 2008~2012년까지 덕흥리고구려벽화고분, 안안3호분, 수산리벽화고분, 강서대묘의 디지털 복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3부터 2015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아트 궁전벽화에 대한 2D디지털 복원모사도 제작, 3D디지털 다국어 영상 제작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아프로시아트 박물관 내 영상실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서벽 사절도와 명문 인물 부분에 대한 실벽 복원모사도를 제작하여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 전시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러한 2D, 3D, VR, 동영상 및 복제품 제작은 충주 고구려비의 과학적 조사에 많은 계발을 주었다.
 - 8) D.V. Hahn, D.D. Duncan, K.C. Baldwin, J.D. Cohen, and B. Purnomo, “Digital Hammurabi: Design and Development of a 3D Scanner for Cuneiform Tablets.” Proceedings of SPIE-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6056, pp. 130-141, 2006. 디지털 함무라비 프로젝트는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이 진흥당이에 새겨진 수메르인의 췌기문자에 대한 글자 정보를 파악하고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DB) 작업을 수행한 연구이다. 문자의 판독을 위해 3차원 스캐닝을 실시하고 입체정보 기반의 렌더링(Rendering) 기법, 셰이딩(Shading) 기법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킨 연구이다.(최원호·고선우, 2017, 「평탄화 분석방법을 이용한 금석문판독 향상 방법」,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0권 3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음악인 점을 고려하여 3차원 스캐닝과 RIT 촬영을 우선 실시하고 아울러 초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촬영과 탁본 제작을 병행하였다.⁹⁾

1. 3차원 스캐닝

3차원 스캐닝은 레이저 또는 패턴광 등을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 또는 환경 정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 것이다. 충주 고구려비의 3D 스캐닝은 비석의 크기와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외형 정보와 비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문을 디지털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핸드헬드형 중정밀스캐너(Eva, Artec3D), 핸드헬드형 고정밀스캐너(Spider, Artec3D), 고정형 고정밀스캐너(HDI Advance R3X, LMI TECHNOLOGIES), 고정형 초고정밀스캐너(STEREO-SCAN NEO, HEXAGON) 등 4가지 방식의 3차원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비석과 글자의 입체정보를 구축하였다.¹⁰⁾ (<그림 1>)



<그림 1> 충주 고구려비 디지털 기록에 사용된 3차원 스캔 방식 및 점간격 해상도 결과
(『文化財』 제54권 제2호, 242쪽)

3차원 디지털 가시화는 스캔데이터 자체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복잡한 형상을 명암, 곡률, 음영 중 일부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컴퓨터그래픽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글자의 디지털 가시화를 위해 먼저 글자 영역을 설정하고, 가장자리 상·하·좌·우측의 높이가 유사하도록 기준축을 고정하였다. 그런 다음 기하정보를 매핑하여 심도맵, 곡률맵, 노말맵을 제작하였고, 엠비언트 오클루전(ambient occlusion, 이하 AO맵)과 래디언스 스케일링(radiance sc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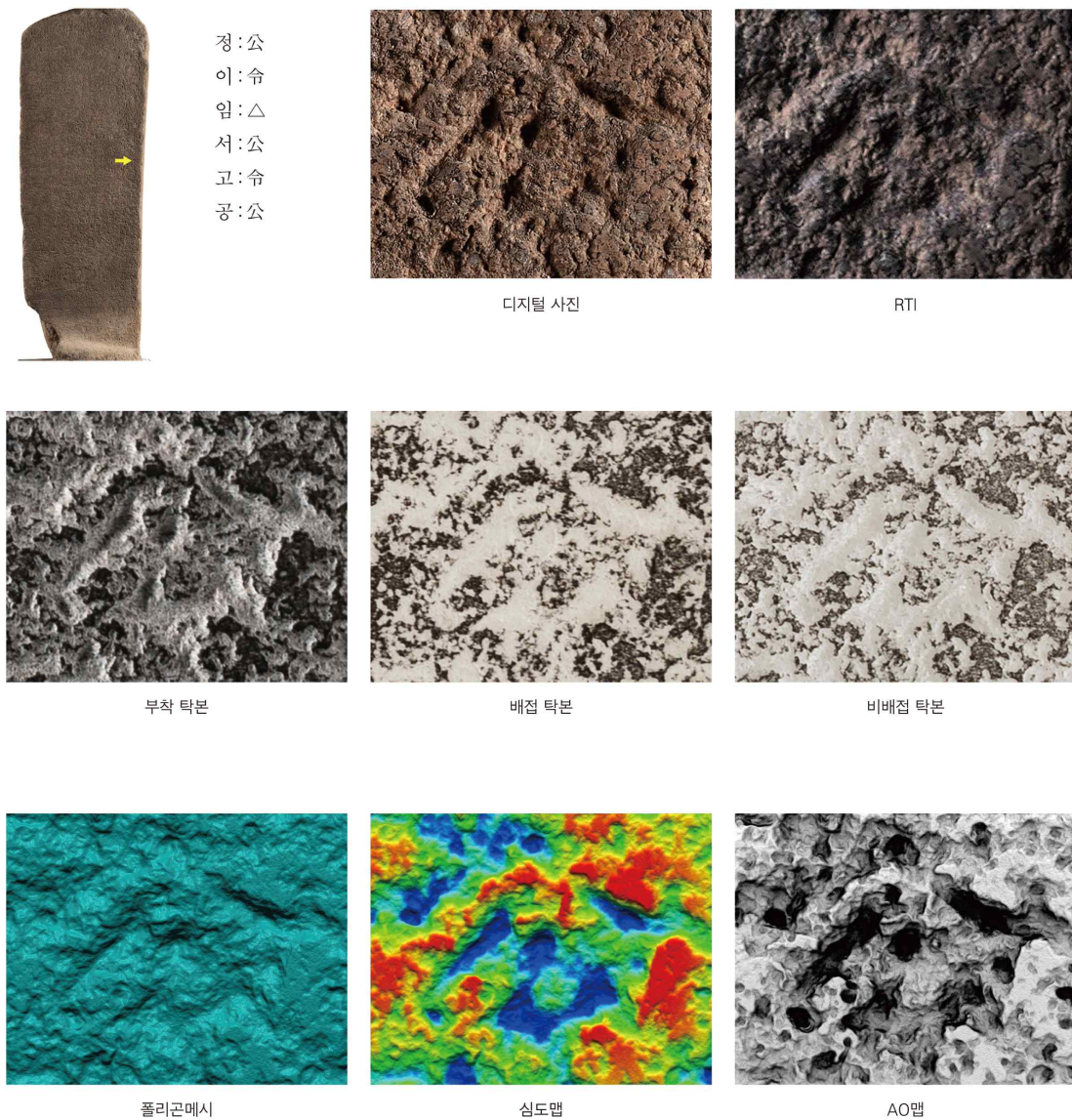
9) 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관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98, 53~63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9~215쪽.

10) 조영훈·권다경·안재홍·고광의, 2021,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 디지털 관독의 성과와 고찰」, 『文化財』 제54권 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42~243쪽.

이하 RS맵)의 렌더링을 적용하였다. 가시화 결과를 통해 글자를 교차 비교하고 각 영상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개별 글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였다.¹¹⁾

공동관독회에서 확인한 전면 238자, 좌측면 155자, 우측면 2자, 후면 1자 등 모두 396자에 대해 각 글자마다 폴리곤메시, 심도맵, AO맵 등으로 가시화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¹²⁾ (<그림 2>)

전면 1행 10자



<그림 2> 충주 고구려비 문자 이미지 비교 (전면 1행 10자 '公', 『忠州高句麗碑』 2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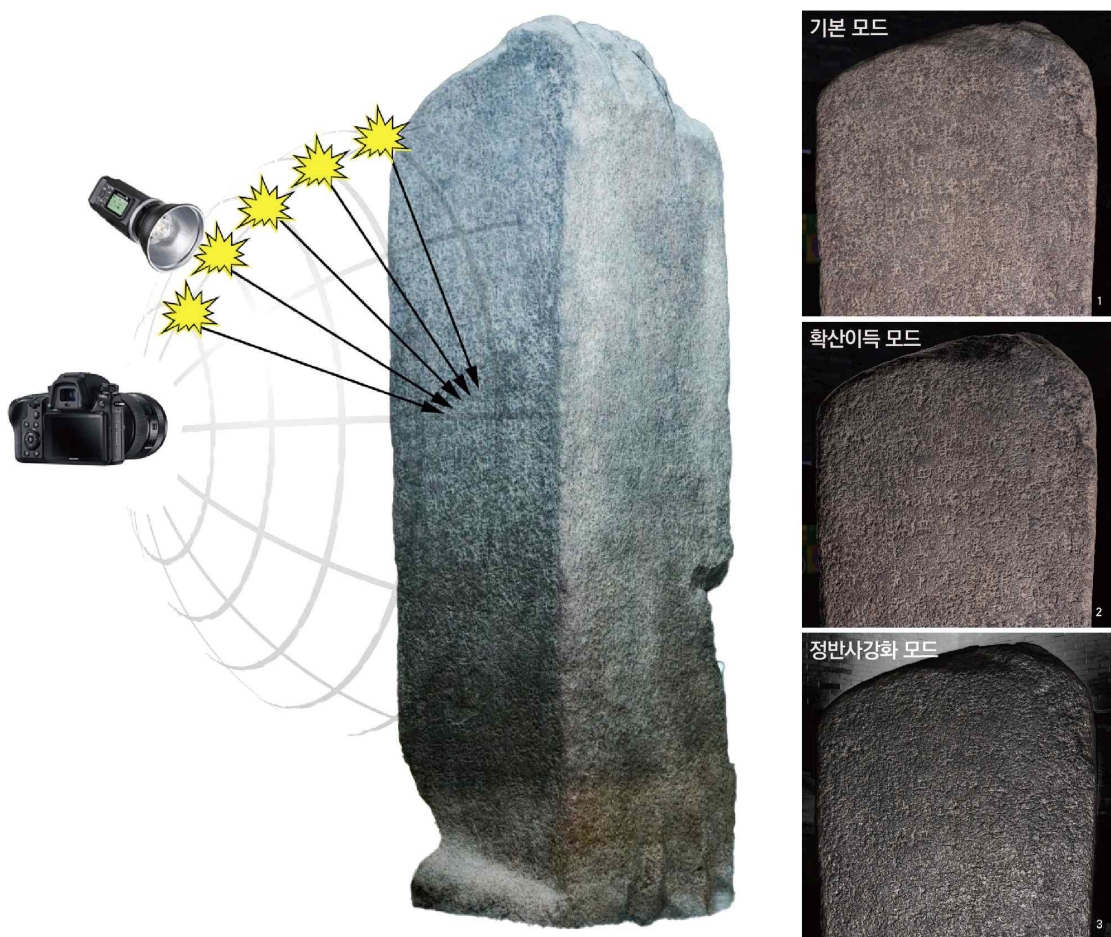
11) 조영훈·권다경·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의 적용 및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8, 9~45쪽.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217~611쪽.

3차원 스캐닝 자료는 관독뿐만 아니라 복제품 제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2020년 4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린 ‘고구려와 한강’ 특별전에 실물 크기로 3D 프린팅하여 전시하기도 하였다.¹³⁾

2. RTI 촬영

RTI는 다광원 이미징 기법의 일종으로, 문화유산 표면의 세밀한 형상을 가시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암각화, 벽화, 금석문, 고문서, 회화, 지류, 동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표면 형상분석, 보존상태 평가 및 모니터링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¹⁴⁾



<그림 3> H-RTI 방식 모식도 및 렌더링 모드 (『文化財』 제54권 제2호, 242쪽)

13) 동북아역사재단의 협조로 국립공주대학교 조영훈 교수 연구팀(문화재보존과학과 디지털보존술루션연구실)이 약 1.6m 크기의 충주 고구려비를 대형 3차원 프린터로 40일(1,000시간 정도) 동안 출력하여 복제하였다.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충주 고구려비의 재현은 기존의 접촉식 수작업 복제를 비접촉식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4) 신소연·김영민, 2013, 「RTI 촬영을 통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 명문 검토」, 『美術資料』 84, 76~99쪽.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에 사용된 RTI 촬영은 구형 반사체를 이용하는 하이라이트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3>) 비의 4면 중 폭이 넓은 전면과 후면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가로로 상·중·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촬영하고, 좌측면과 우측면은 상·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촬영하되 카메라의 방향을 90도 회전시켜 세로로 놓고 프레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화소 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산출된 RTI 파일은 가상 광원의 위치 제어 기능, 줌 기능, 랜더링 모드 변경 기능 등을 지원하는 전용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TI 촬영은 현장에서 조사자가 직접 조명을 비춰가며 비문을 관찰하던 제약을 덜어 준다.

3. 디지털 사진 촬영



<그림 4> 충주 고구려비의 디지털 사진 촬영 (2019. 5. 27.)

충주 고구려비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였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 이상의 100mm 비구면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여 영인본 제작 방식으로 분할 촬영하였다. 조명은 umbrella 디퓨저를 장착한 모노타입 600W 2개씩을 좌우에 각각 설치하여 비의 입체감을 살리면서 조명비에 따른 밝기의 차를 없게 하였다. 전시관 안에 있는 비석의 원래의 색을 구현하기 위해 사진용 조명을 사용하여 주광색(백색 태양광-5600°K)으로 맞추었다. 비의 뒷면에는 18% 반사율의 중간 회색 배경지를 설치하여 주변 배경색으로 인해 간섭되는 색번짐 현상을 차단하였다. 이 기법은 배경을 분리하고 비석만 표현하기 위한 촬영 방법이다. (<그림 4>)

비면은 먼저 4면의 각 면을 14컷으로 분할 촬영하고 이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스티치 합성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초고해상도 사진은 비면에서 인위적인 필획과 훼손 상태를 구분하는 등 비문 판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 고구려비의 실제 모습에 대한 최초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4. 탁본 및 화상처리



<그림 5> 충주 고구려비 전면의 각종 탁본

탁본은 2019년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탁본을 활용할 수 있었다. 전 시관 휴관일인 6월 17일과 24일, 2회에 걸쳐 탁본을 제작하였다. (<그림 5>) 채탁은 홍선스님 등이 수행하였으며 4면을 1벌로 모두 2벌을 제작하였다.

탁본 방식은 습식이며, 물 묻은 비면에 탁지가 부착된 상태에서 나타난 글자와 먹봉을 두드려 먹의 농담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나는 글자의 상태를 촬영하였다. 특히 탁지에 먹을 입힌 후 비면에서 떼어내지 않고 부착한 채로 조명을 처리해 가며 촬영한 사진에서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탁본 한 벌은 배접하고 다른 한 벌은 배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초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촬영을 하였다. 4면의 각 면을 14컷으로 분할 촬영하고 이를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스티치

합성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하였다. 초고해상도 탁본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서 ‘흑백’, ‘반전’ 등 다양하게 처리함으로써 비문의 판독을 위한 최상의 효과를 추구하였다. 이들 탁본 중 비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촬영한 탁본은 배접하여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배접하지 않은 나머지 한 벌은 문화재청에 납품되었다.

Ⅲ. 판독회

1. 공동 판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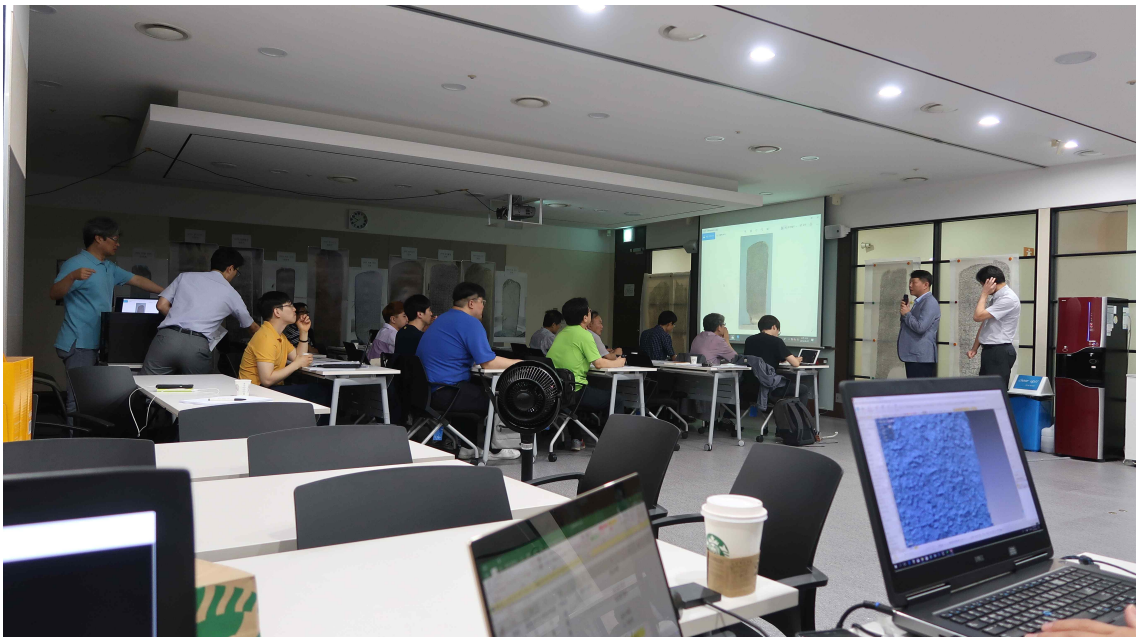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이 휴관인 매주 월요일을 이용해 과학적 조사를 하는 한편 학자들을 초청해 현장 보고회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6>) 보고회는 2019년 7월 22일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공석구(한밭대), 김창석(강원대),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안재홍(한국과학기술원), 여호규(한국외국어대), 이수훈(부산대), 이정빈(충북대), 임기환(서울교대),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영훈(공주대), 하일식(연세대) 등이다. 당일 조영훈이 ‘충주 중원고구려비 디지털 사진 및 3차원 스캐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전면 상단에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좌측면에서 기존에 ‘辛酉年’으로 판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6> 충주 고구려비 3D 스캐닝 현장 보고회 및 조사 (2019. 7. 22.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연구팀은 3차원 스캐닝 및 디지털 가시화, RTI 이미지 캡처, 초고해상 디지털 사진 촬영, 탁본의 화상처리 작업을 서둘러,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주관하는 공동 판독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는 2019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대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한국목간학회, 한국서예학회를 비롯하여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및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림 7>) 주요 참석자는 강진원(서원대), 고광의, 공석구, 김양동(계명대), 김창석, 노태돈, 박찬규, 서영교(중원대), 서영수(단국대), 여호규,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이수훈, 임기환, 장병진(연세대), 정호섭, 조영훈, 최연식(동국대) 등이다. 회의 녹취 및 정리는 양인호(동북아역사재단)와 고태진(서울대)가 담당하였다.



<그림 7> 충주 고구려비 제1차 공동 판독회 (2019. 8. 22.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제2차는 2019년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405호에서 11월 예정된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의 발표·토론·사회자와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고광의, 고태진, 공석구, 나유정(한국외대 박사과정), 안재홍(한국과학기술원), 양인호, 여호규, 이성제, 이수훈,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영훈. 공주대 및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다수이다. 회의 녹취 및 정리는 양인호(동북아역사재단)가 담당하였다.

제3차는 2020년 4월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좌측면, 후면, 우측면에 대해 판독하고 우측면과 후면도 행을 맞추어 글을 썼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공석구, 김영관(충북대), 김창석, 나유정, 여호규, 윤선태(동국대), 이성제, 임기환, 정호섭, 홍승우(경북대), 고태진 등이 참석하였다.

이상 3차에 걸친 판독회를 통해 합의된 공동 판독안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충주 고구려비 공동 판독안(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¹⁵⁾

10	9	8	7	6	5	4	3	2	1	
×	△?	△?	△?	△?	年?	七?	△?	△?	×	
△	<德>	夷	大	夷	伊?/用?	向	奴	上	五	①
<流>	△	寐	位	寐	者/有?	壑	主	下	月	②
奴	△	錦	諸	錦	賜	上	簿	相	中	③
扶?/抹?	△	上	位	還	之	共	貴	<知>	高	④
亻+△	△	下	上	還	隋	看	<德>	守	麗	⑤
△	募	至	下	來	恭?/去?	節	<句>	天	太/大	⑥
△	人	于	衣	節	諸	賜	<方+△>	東	王	⑦
蓋	三	伐	服	教	△	九?/太?	<王>	來	祖	⑧
盧	百	城	<兼>	賜	△	<霍>	<不>	之	王	⑨
共	新	教	受	寐	奴	鄒	<聆>	寐	公	⑩
△ +衣	羅	來	教	錦	客	教	△	錦	△	⑪
募	土	前	跪	土	人	食	去?/古?	忌	新	⑫
人	內	部	營	內	△	在?/于?	△	太/大	羅	⑬
新	幢	大/太	之	諸	教	東	△	子	寐	⑭
羅	主	使	十	衆	諸	夷	到	共	錦	⑮
土	下	者	二	本?/人?	位	寐	至	前	世	⑯
內	部	多	月	△	賜	錦	跪	部	世	⑰
衆	拔	于	廿	支	上	之	營	太/大	爲	⑱
人	位	桓	三?/七?	<告>	下	衣	<大>	使	願	⑲
兵?/先?	使	奴	<日>	<大>	<衣>	服	太	者	如	⑳
動	者	主	<甲>	王	服	建	子	多	兄	㉑
奪?	補	簿	寅	國	教	立	共	于/兮/丐	如	㉒
△	奴	貴	東	土	東	處	語?/諸?	桓	弟	㉓

<표 1> 충주 고구려비 전면 판독안

15) ‘<>’는 판독회에 참여자 다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글자, ‘?’는 추정된 글자, ‘△’는 판독 불능, ‘×’는 글자 없음.

7	6	5	4	3	2	1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子?/于?	△	△	△	△	△	<中>	④
△	△	△	△	△	△	△	⑤
古	△	△	△	△	△	△	⑥
牟	右	△	△	工+△? / △ 三? / △	△	△	⑦
婁	△	△	△	<百>	△	△	⑧
城	△	△	△	<六> <十>	刺	△	⑨
守	△	上	△	△ ×	功	不/求	⑩
事?	沙	有	△	亻+△	△	△	⑪
下	△	之?	△	△	△	△	⑫
部	斯	<辛>	△	<十>	射	村	⑬
大	邑	<酉>	△	△	△	舍	⑭
兄	△	△	△	△	△	△	⑮
△	大	△	△	△	△	△	⑯
△	古	△	△	< 十 >	△	△	⑰
×	鄒	△	△	△	△	月+△? / 日+△?	⑱
×	加	東	△	大	節	△	⑲
×	共	夷	△	王	人	優	⑳
×	軍	寐	△	國	刺	沙	㉑
×	至	錦	△	土	깨짐	깨짐	㉒
×	于	土	△	깨짐	깨짐	깨짐	㉓

<표 2> 충주 고구려비 좌측면 판독안

우측면에서는 1행 중하단부에 <前>, 部?자, 후면의 마지막행 중반부에서 巡?자를 확인하였다.

2. 판독 성과

충주 고구려비의 최초 판독문은 1979년 비가 발견된 지 약 2개월 후인 6월 9일에 열린 ‘中原高句麗碑 學術會議’¹⁶⁾에서 정영호, 이병도, 임창순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병도는 전면 상단의 본문 제1~2행 위치에서 ‘高□麗□’, 제3행과 제4행 사이의 위치에서 ‘建’, 제5행 위치에서 ‘興’, 제6행과 제7행 사이 위치에서 ‘四’, 제8행의 위치에서 ‘年?□’자를 읽고, 본문에서 211자, 좌측면에서는 62자의 판독문을 제시하였다. 정영호는 전면 상단의 본문 제7~8행 위치에서 ‘碑?銘?’을 읽고 본문에서는 208자, 좌측면에서는 62자의 판독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임창순은 본문과 좌측면에서 각각 174자와 42자의 판독문을 제시하였을 뿐 전면 상단 부분에서는 글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2000년 2월 고구려연구회가 주관한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 워크숍’에서는 전면 상단에서 ‘年’자를 확인함으로써 참석한 석문위원들이 이 비에 제약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면 210자, 좌측면에서 59자를 읽고 또한 이전에 읽지 못한 우측면과 후면에서도 글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몇 면 비인가 논란에 대해서 4면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¹⁷⁾고 발표하였다.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의 1~2차 공동 판독회 결과 소위 ‘題額’으로도 불렸던 ‘前面的 윗단 부분’에 대해, 글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는 합의하고 본문의 제4~5행 위치에서 ‘七?年?’으로 추정되는 글자를 인정하였다. 다만 글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비의 내용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알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¹⁸⁾

그동안 제시된 충주 고구려비의 전면 본문과 좌측면의 판독 성과¹⁹⁾를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자수/%)

16) ‘中原高句麗碑 學術會議’는 1979년 6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단국대학교 소강당에서 鄭永浩가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李丙燾가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李基白이 「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문제」, 邊太燮이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任昌淳이 「中原高句麗碑小考」를 발표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교수회의실로 옮겨 車文燮의 사회로 金哲堉, 金正基, 金光洙, 金貞培, 申滢植, 張慶浩, 秦弘燮, 崔永禧, 黃壽永이 참석하여 5시까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외에 방청객으로 박노춘, 李昊榮, 全海宗, 朴性鳳 그리고 藥城同好會의 柳昌宗, 金禮植, 張俊植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논의된 내용은 녹음하고 ‘中原高句麗碑 學術講談會錄’으로 정리하여 같은 해 11월에 檀國大學校 史學會가 발간한 『史學志』 第13輯에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살펴볼 자료는 檀國大學校 博物館 명의로 된 『中原高句麗碑 調査報告書』이다. 이 보고서는 권두 사진으로 ‘石碑의 前面 및 左側面 銘文拓本’, ‘石碑前面的 序頭 「高麗大王」 銘拓本 사진을 싣고 ‘中原高句麗碑 學術會議’와 ‘中原高句麗碑 學術討論會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모두 5편의 논고 실렸는데 李丙燾의 「高句麗碑에 대하여」를 제외한 나머지 4편은 학술회의에서의 발표자와 주제가 일치하고 내용 또한 논지 전개에 변화가 없는 일부 미세한 수정이 있을 뿐 『史學志』 第13輯의 것과 거의 같다. 당시 학학부 학생으로 비의 조사와 학술회의의 진행을 도왔던 김경식에 의하면 11월 『史學志』 第13輯 출간 이전에 학술회의 발표문과 토론회 녹취록을 실어 조사 경비를 지원한 학교 측에 결과보고서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한다.

17) 우측면에서 ‘前部大兄 1-10~13’이라는 관등명을 비롯하여 ‘禾+? 2-10’, ‘部 2-13’, ‘(小+?) 2-14’, ‘(泊) 2-17’, ‘(容) 3-10’, ‘守 5-2’, ‘(自) 5-3’자를 읽었고, 후면 왼쪽 마지막 행의 위에서 3분의 1정도 위치에서 ‘巡’자로 보이는 글자를 읽었다고 한다.(서길수, 2000,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워크숍과 국제학술대회」, 『中原高句麗碑 研究』, 학연문화사, 144~150쪽).

18) 한국고대사학회, 2020, 『韓國古代史研究』 98, 6쪽.

19)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651~659쪽.

년도		1979			2000	2019
관독 및 주관		정영호	이병도	임창순	고구려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대사학회
관독자수	전면	208/90.4	211/91.7	174/75.7	210/91.3	215/93.5
/관독률	좌측면	62/38.5	62/38.5	42/26.1	59/36.6	57/36.8

<표 3> 충주 고구려비 본문 관독 성과 비교

2019년 공동 관독회에서 비 표면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대부분 기존 관독이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비면의 훼손이 심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된 작업이 효과적이었다. 예컨대 기존에 관독되지 않았던 전면 6행 19자 ‘<告>’와 9행 1자 ‘<德>’, 좌측면 1행 20자 ‘優’와 3행 17자 <十一>이 새롭게 확정되었다.

전면과 좌측면에서 기존 관독과는 달리 상당수의 새로운 글자들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2019년 공동 관독안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글자는 총 28자이다.²⁰⁾ 전면에서는 3행 6자 ‘<句>’, 3행 7자 ‘<方+△>’, 3행 9자 ‘<不>’, 3행 10자 ‘<盼>’, 4행 8자 ‘九?’, 4행 13자 ‘于?’, 5행 2자 ‘有?’, 5행 6자 ‘恭?’, 5행 7자 ‘諸’, 6행 18자 ‘支’, 6행 19자 ‘<告>’, 7행 19자 ‘七?’, 9행 3자 ‘土?’, 10행 4자 ‘扶?/抹?’, 10행 5자 좌측 부분에서 ‘亻’, 10행 11자 하부의 ‘衣’, 10행 20자 ‘兵?/先?’, 10행 22자 ‘奪?’자 등 18자이다. 좌측면에서는 1행 10자 ‘求’, 3행 7자 부분에서 ‘工+△?’와 ‘二?’, 3행 8자 ‘<百>’, 3행 9자 부분에서 ‘<六>’자와 ‘<十>’, 3행 11자 ‘亻+△’, 3행 17자 부분에서 ‘<十>’자와 ‘<一>’, 6행 14자 ‘邑’자 등 10자이다. 이 중 전면 5행 7자 ‘諸’와 6행 18자 ‘支’, 좌측면 6행 14자 ‘邑’은 이견 없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글자는 추정하였거나 관독회 참여자 다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글자이다.

1979년과 2000년 선행 관독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글자 중 전면 68자와 좌측면 21자가 합의를 통해 한 글자로 확정되었다. 전면 5행 7자의 경우는 이병도(1979), 정영호(1979), 고구려연구회(2000)에 의해 ‘節’자로 관독되었으나, 재검토 과정에서 ‘諸’로 변경되었다. 1행 10자는 선행 관독문에서 탁본을 통해 글자 하단에서 ‘丨’획이 있는 것처럼 보여 ‘슈’자 또는 ‘公’자라는 이견이 있는 상태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가시화 결과, 상부는 뚜렷하게 ‘八’자의 형태를 보였지만, 하부에서 ‘슈’자로 볼 수 있는 세로획이 확인되지 않아 ‘公’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충주 고구려비의 관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약의 유무라 할 수 있다.²¹⁾ 이하 선학들의 제약에 대한 견해와 필자의 관독문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제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발견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다음은 1979년 6월 9일, ‘中原高句麗碑 學術會議’ 이후 토론회에서 이병도가 한 말이다.

“그리고 첫 꼭대기가 문제인데, 첫 꼭대기에 액전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도 인정

20) 2000년 고구려연구회 관독문에서는 새로 합의된 글자와 함께 ‘보조안’, ‘추정한 자’, ‘의견으로 제시된 글자’ 등을 함께 정리하였는데, ‘의견으로 제시된 글자’는 2019년 유형 분류를 위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2019년 관독에서 새롭게 제시된 글자를 판별할 때는 비교 대상을 삼았다. 따라서 전면 10행 2자 ‘<流>’, 전면 6행 16자 ‘本?’, 좌측면 1행 20자 ‘優’는 이미 2000년 관독회에서 의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된 글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21) 고평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관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98, 63~68쪽.

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일전에 내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建興 두 글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야, 아 눈이 번쩍 떠어가지고 전등불을 켜고 옆에 있는 탁본과 사진을 보니까, 그 글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興字가 예서로 옆으로 조금 비뚤어졌습니다. 대개보면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해도 아니되고 또 의심한 곳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안된다고 보아요.

좌우간 建興 두 글자는 年號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日帝時代에 中原, 즉 老隱面에서 발견된 小形金銅佛像光背에 「建興五年歲在丙辰」이라고 하였는데, 이 年號가 黃壽永교수는 百濟의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여기에 더욱 自信을 굳히는 동시에 建興앞에는 高麗 두 글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마멸된 것 같고, 또 建興四(四字까지는 어지간한데) 다음에는 年字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高麗建興四」이라고 풀고 本文 첫줄의 五月을 거기에 直結시키면 아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²²⁾

이병도는 비의 첫 꼭대기 즉 전면 상단 부분에 ‘額篆’²³⁾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병도는 꿈에 ‘建興’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나 탁본에서 확인했다는 일화를 말하며 ‘高麗建興四年’이라는 판독문을 제시하였다. 전면 상단에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발표에 참가한 ‘다른 분들’, 즉 임창순을 제외한 이기백, 변태섭, 정영호도 인정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문에서 이기백은 “면이 가장 넓은 뿐만 아니라 1行 23字로 된 비문이 새겨진 부분의 上欄에는 題字가 아닐까 의심되는 文字가 옆으로 새겨진 흔적을 찾을 수 있다”²⁴⁾고 하였다. 변태섭은 역시 이 부분을 ‘題銘’²⁵⁾으로 보았고 정영호는 ‘碑?銘?’²⁶⁾이라는 판독문을 제시하였다.

한편 발표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단국대학교 박물관 연구원으로 있던 이호영이 토론회에서 이병도가 제시한 판독문에 대해 코멘트를 하였다.

“斗溪박사님께서 高麗 建興四年이라고 읽으신 文章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더듬어 읽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建興은 읽을 수 없지만 적어도 四年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四字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탁본을 보았을 때에 四字 보다는 七字가 훨씬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을 修正했습니다. 왜냐하면 年字를 확실히 年字로 본다면 그 세 개 글자는 本文의 글자보다는 거칠고 가늘게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2)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114쪽. 이러한 언급은 보고서에 실린 발표문 「高句麗碑에 대하여」에서 “이 碑가 四面碑라고 한다면 본래의 前面, 다시 말해서 記事의 序頭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가 問題인데, 아무리 보아도 現在의 前面이 원래의 前面인 것 같다. 왜냐하면 「高麗大王」云々の 글짜가 새겨 있고, 또 나는 碑額面에 「建興四」三字의 橫書를 발견하였다. 이는 필시 「高麗建興四年」의 額字인데, 「高麗」二字와 「年」字가 磨滅된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나는 더욱 이面을 원래의 前面으로 認識하는 동시에 첫마리의 「五月中」은 바로 建興四年에 直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左側額面에도 이러한 橫書의 有無를 조사해 보았으나 전형 字形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李丙燾, 1979, 「高句麗碑에 대하여」, 『中原高句麗碑 調查報告書』, 檀國大學校 博物館, 39쪽)라고 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인다.

23) 논문에서는 ‘碑額’으로 지칭하였다(李丙燾, 1979, 「高句麗碑에 대하여」, 『中原高句麗碑 調查報告書』, 檀國大學校 博物館, 32쪽).

24) 李基白,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問題」, 『史學志』 제13집, 34쪽.

25)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志』 제13집, 41쪽.

26) 鄭永鎬,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研究展望」, 『史學志』 제13집, 14~5쪽 사이 ‘中原高句麗碑文’ 접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廣開土大王 長壽王 文咨王을 연결시켜서 내용을 檢討한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얘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建興四年이라고 읽으신 斗溪박사님 그 밑에 두 字가 더 있습니다. 그 두 字가 더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別陽(陽)字하고 언덕 원(原)字 陽原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때에 陽原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原字가 들어가는 王이 그 이후에 세분이 安原王 陽原王 平原王이 있는데 이 때에 新羅의 경우는 眞興王初期가 되고 陽原王初期에는 언간히 맞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문제성이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적어도 原字인 것 같이 느꼈습니다.”²⁷⁾

이호영은 이병도가 제시한 ‘高麗建興四年’에서 ‘高麗’는 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建興’ 부분은 글자는 인정하되 판독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四’자를 ‘七’자로 교정하였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陽原’ 두 글자가 더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비문의 내용을 ‘原’자가 들어가는 안원왕(531~545), 양원왕(545~559), 평원왕(559~590)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하지만 시기를 광개토왕(391~413), 장수왕(413~491), 문자왕(491~519)까지로 보는 분위기와 격차가 커 확정하기에는 주저하고 있다. 이후 이호영은 게재한 논문에서 판독을 수정하여 제시한다.

“이제 다시 필자가 新讀한 제액은, △熙七年歲辛△△인데, 마지막 8번째의 글자는 아래로 처진 것 같아 글자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들 글자는 비문 제 2행부터 9행까지 줄을 맞추어 왼쪽으로 한 줄로 새겨 있는 바 글자의 크기는 비문보다 약간 작은 편이다. 「熙」자는 火「灬」가 분명치 못하나 우측 己만은 확연하며, 「七年」은 異論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들어갈 글자를 干支·王名·地名 등으로 생각하고 보니, 종래의 「陽」은 「歲」로 「原」은 「辛」으로 보인다. 그 다음이 「酉」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²⁹⁾

위 기술에서 보면 제액에 횡서한 ‘△熙七年歲辛△△’의 8자가 있다고 하였다. 글자의 크기는 본문보다 약간 작으며 첫 번째 글자가 제2행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제9행까지 줄을 맞추어 이어졌다고 보았다. ‘熙’자는 일부 필획이 불분명하지만 가능성이 크고 ‘七年’은 명확하며 그다음의 ‘陽原’으로 보았던 부분은 간지를 포함한 ‘歲辛酉△’로 제시하고 있다. 글자 크기, 위치 및 전체적인 결구를 실제에 가깝게 파악한 것이다. 다만 마지막 글자를 본문의 제9행의 위치로 본 것이나 비교적 명확한 ‘在’자를 ‘辛’자로 본 것은 ‘酉’자로 인해 추측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래로 처진’ 부분에서 ‘酉’자를 추측한 것은 자형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와 과학적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액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라는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다.³⁰⁾ <그림 8> 이전에 비해 글자의 위치, 자수, 결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³¹⁾

27)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134-1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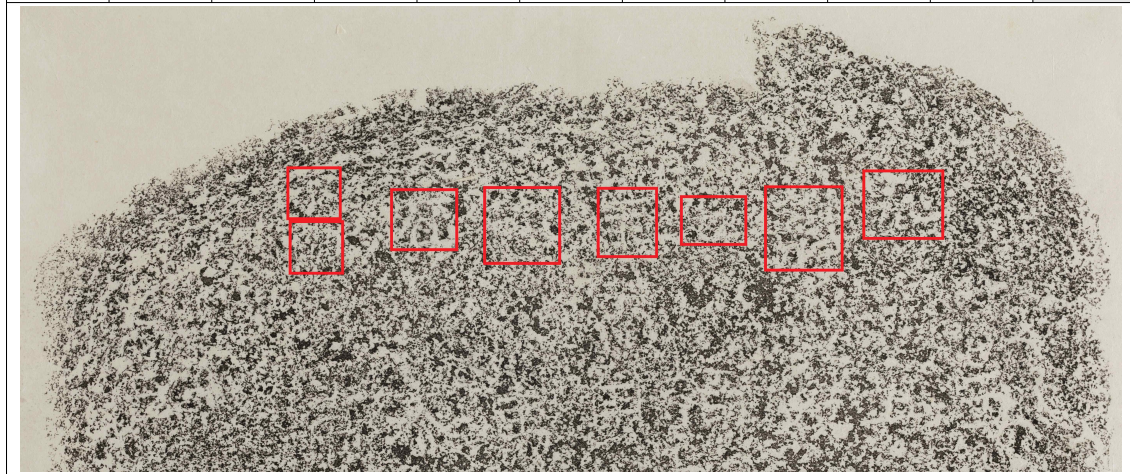
28)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 學術座談會議錄」, 『史學志』 제13집, 134~135쪽.

29) 李昊榮, 1979, 「中原高句麗碑의 題額의 新讀」, 『史學志』 제13집, 98~99쪽.

30) 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98, 47~95쪽; 고광의, 2023, 『고구려의 문자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38~140쪽.

31) 필자의 판독문이 발표됨으로 인해 충주 고구려비의 제액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고, ‘永樂七年歲在丁

10	9	8	7	6	5	4	3	2	1	
×	×	丁酉	在	歲	年	七	樂	永	×	題額
×	×	×	×	×	×	×	×	×	×	
△	德	夷	大	夷	伊/用	向	奴	上	五	①



<그림 8> 충주 고구려비 제액 판독 결과 (『韓國古代史研究』 98, 93쪽)

판독문에 의하면 그간 충주 고구려비 연구에서 논란이 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문의 시작 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액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라는 연간지가 확인되고 본문의 ‘五月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을 1면으로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충주 고구려비의 연대에 관해서는 5세기 이후 광개토태왕부터 6세기 문자왕때까지 다양하게 추정하였으나 ‘永樂七年’이라는 연대가 확인된 만큼 비는 397년 혹은 이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IV. 학술회의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2019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가 주관하여 공동 개최하였다.³²⁾ (<그림 9>)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동북

酉’에 동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李鎔賢, 2020, 「忠州 高句麗碑‘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80; 이재환, 2021, 「永樂 7年’ 판독에 기반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 지역의 接境性」, 『木簡과 文字』 27) 그리고 일부는 동의하지만 또 달리 새로운 판독문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충주 고구려비의 새 판독과 연대」, 『한국고대사탐구』 42). 반면에 여전히 제액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도 있다.(여호규, 2020,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韓國古代史研究』 98; 임기환, 2020,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寐錦」, 『韓國古代史研究』 98; 李成制, 2020,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98; 나유정, 2022, 「충주고구려비의 판독과 건립 목적」, 『충주학연구』 창간호). 중국 학계에도 새로운 연구 성과로 소개되었다(趙宇然, 2021, 「忠州高句麗碑研究新成果」, 『通化師範學院學報』 2021年 第1期).

32)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2019, 『학술회의 자료집: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4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1부는 개회식은 김현숙의 사회로 이수훈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이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였다. 제2부는 윤선태의 사회로 조영훈이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 고광의가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안재홍과 박찬규가 토론하였다. 3부는 정호섭의 사회로 여호규가 ‘충주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 임기환이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 이성제가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을 발표하고 장창은, 박찬홍, 정운용이 각각 이에 대해 토론하였다. 모든 주제 발표를 마치고 공식구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와 토론자 및 청중이 함께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회의의 구체적인 일정표는 <표 4>와 같다.



<그림 9>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11. 22.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의 당일 ‘2019년 <충주 고구려비> 공동 판독안’을 발표하고, 11월 26일에는 판독에 참조하였던 자료를 공개하였다. 자료는 비 4면의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2019년 채탁한 탁본 2종과 1979년 탁본 1종이다.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은 비석 뒷면에 중간 회색 배경지를 부착한 상태의 사진이다. 2019년 탁본은 배접한 탁본과 배접하지 않은 탁본의 4면을 한 것으로 촬영한 것과 탁본 시 비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촬영한 탁본 및 이를 Adobe Photoshop에서 반전한 것이다. 이외에도 1979년 5월 4일 단국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한 4차 조사 시 탁지를 비면에 부착한 상태에서 촬영한 전면과 좌측면의 컬러 사진도 함께 공개하였다. 자료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자료>자료집>학술자료집-181~183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제1부 개회식 사회 :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09:30	축사 : 이수훈(한국고대학회 회장, 부산대) 기조 발표 :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 장준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10:30	휴식
제2부 주제 발표 사회 : 윤선대(동국대학교)	
10:40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 조영훈(공주대학교)·안재홍(한국과학기술원)
11:20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토론 박찬규(단국대학교)
12:00	오찬
제3부 주제 발표 사회 : 정호섭(고려대학교)	
13:30	충주 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 여효규(한국외국어대학교)·장장은(제주대학교)
14:10	충주 고구려비의 高麗 太王과 新羅 寐錦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토론 박찬홍(국회도서관)
14:50	忠州 高句麗碑 건립 목적과 배경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정운용(고려대학교)
16:30	휴식
제4부 종합 토론 사회 : 공석구(한밭대학교)	
16:50	발표·토론자
18:00	폐회

<표 4>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일정표

각각의 주제별로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³³⁾

먼저 기조 발표자 나선 장준식은 1979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충주 고구려비를 학계에 최초 제보한 장본인으로서 당시를 회고하였다. 그동안 비의 문자 유무에 대한 파악이 4월 5일 정영호 교수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주 지역 문화재 애호가들의 모임인 예성동호회 회원들이 최초로 답사한 2월 24일에 이미 시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4월 5일 정영호 교수와 동행한 황수영 박사가 비를 실견하고 비면의 '高麗大王'을 '眞興大王'으로 판독하여 신라비로 오인함으로써 초기 판독에 혼란이 있었던 상황을 기술하는 등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들을 밝혔다.

이어 조영훈, 권다경, 고광의가 공동 집필한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의 적용 및 고찰」을 조영훈이 대표로 발표하였다. 비의 판독이 지금까지 주로 탁본을 이용하여 진행됨으로써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선행 판독 결과의 가치를

33)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0, 『충주고구려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11쪽 참조.

높이고 미판독 글자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3차원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영상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비의 디지털기록화에 적용된 3차원 스캐닝 기술은 총 5종류이다. 특히 비문 판독에 활용된 고정밀스캐닝 결과는 평균 0.05~0.12mm의 고해상도 점간격을 나타냈다. 이러한 스캐닝 모델을 기반으로 개별 글자의 디지털 판독을 위해 비사실적 가시화 렌더링과 기하정보 매핑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글자의 음각 깊이, 경계 및 필획의 상태가 드러났고 비문의 배열 특징 등 명문의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비문 판독에 있어 다학제간 융합연구와 인문학자와 과학자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판독 방법과 선행 결과를 개선하고 디지털 판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의의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제액(題額)과 간지(干支) 중심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전면 상단의 이른바 ‘題額’ 부분과 간지에 대해 기존의 판독을 재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전면 상단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를 읽어 제액의 존재를 확인하고, 본문에서 ‘十二月廿三(五)日甲寅’으로 판독되던 것을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읽었다. 또한 좌측면에서 ‘辛酉年’으로 판독하여 연대 추정의 단서로 삼았던 부분은 ‘功二百六十(四)’으로 수정 판독하였다.

이러한 판독은 비의 연구에서 그간 논란이 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액의 연간지가 본문의 ‘五月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을 시작 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의 건립연대는 그간 5세기 이후 광개토태왕부터 6세기 문자왕 때까지 다양하게 추정하였으나 ‘永樂七年’ 즉 397년 혹은 이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여호규는 「충주 고구려비의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라는 논고를 통해 충주 고구려비의 비문을 재판독하고, 단락 구성과 건립 시기를 고찰하였다. 2019년에 확보한 탁본 자료를 바탕으로 비문을 재판독하여 총 27자를 새롭게 판독했다. 단락 구성은 사건의 발생 시기와 장소, 행위주체 등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했다.

전면과 좌측면은 某年の 사건(I)과 辛酉年の 사건(II) 등 두 단락으로 구분했다. I 단락은 다시 某年 5월 사건(A)과 12월 23일 사건(B)으로 구분되는데, A문단은 고구려왕과 신라왕의 복속 의례, B문단은 그 후속 조치인 募人 활동을 기술했다. II 단락은 辛酉년에 大古鄒加 共이 신라의 于伐城 일대에서 전개한 군사 활동을 기술했다.

충주비의 건립주체는 高麗大王인 문자명왕이지만, I 단락의 사건 발생 시점은 문자명왕의 祖王인 장수왕대로 449년이다. 또한 II 단락의 사건 발생 시점도 辛酉年으로 장수왕 69년(481년)에 해당한다. I·II 단락 모두 장수왕대의 사건을 기술한 것이다.

충주비는 4면인데, 제1면(후면)에 문자명왕이 비석을 건립한 목적과 시기 등을 기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 다음 비석의 건립 목적과 관련한 과거 사건을 시기순으로 기술했는데, 전면과 좌측면의 I·II 단락도 그에 해당한다고 본다. 충주비는 4면비이지만 제1면과 다른 세 면을 구별한 ‘1+3면비’의 면모를 지녔다고 한다.

문자명왕이 충주비를 건립한 목적은 신라에 대해 고구려 중심의 차등적 외교관계를 관찰시키려는데 있다. 장수왕대에 이루어졌던 고구려왕과 신라 매금의 복속의례를 상세하게 기술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선친인 태자 공[조다]의 공적을 부각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노렸다고 파악했다.

임기환은 「충주 고구려비의 고려태왕(高麗大王)과 동이매금(東夷寐錦)」을 발표하였다. 2019년 한국고대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주관 충주 고구려비문에 대한 판독회의 결과물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문에 대한 검토는 현재 판독되는 글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내용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전면에 한정하였다. 전면에는 高麗大王과 新羅寐錦의 회맹의 과정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태왕에 의해 신라매금이 東夷寐錦으로 책봉되었으며, 의복 하사 등 복속 의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東夷寐錦을 고구려 태왕이 신라매금에게 준 책봉호로 보았다.

寐錦土內, 新羅土內의 구분에도 주목하였다. 新羅土內幢主가 고구려 太王에 속한 직명이라는 사례에서 ‘新羅土內衆人’ 역시 고구려 태왕에 소속된 衆人들로 파악하였으며, ‘寐錦土內諸衆人’은 신라측 지방민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라측 참여자로서 고려태왕으로부터 의복의 하사를 받은 대상이 新羅寐錦(東夷寐錦), 東夷寐錦上下, 寐錦土內諸衆人 등 3그룹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신라측 인물들에 대한 표현이 寐錦과 寐錦土內로 구분되고 있음에서 寐錦土內로 수식되는 인물들은 신라 영역 내 지방민 특히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의 지방민들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에도 고구려 지방민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몇몇 주요한 용어로 볼 때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국경에서 일어난 영역 문제 등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는 고려태왕과 신라매금의 회맹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회맹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맹의 시점으로부터 계속된 일련의 사건이 비를 세우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내용으로 보아 영역 분쟁과 관련된 비문으로 추정하였다.

이성제는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목적과 배경」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비문의 ‘5月中’ 이하의 기록은 양국 군주의 會盟에 관한 내용이라 보아 왔으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회맹의 구체적 장면이나 논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이 회합에 후속한 부대행사였을 의복 사여의 장면들만이 자세히 기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의복 사여 행사가 특기되었던 것은 그 대상자에 12월 23일 于伐城에 모였던 양국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新羅土內幢主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은 우벌성에 모여 300명의 신라인을 募人하였고, 당주의 주둔지를 위한 力役徵發은 그간 당주가 일방적으로 해오던 관행이었으나, 이때 이르러 신라 측의 협조 아래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기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의미하는 바로 보아, 이 같은 관행은 양국이 대면하고 있던 공간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하슬라성주의 고구려 변장 살해는 이러한 문제에서 빚어진 사건이었고, 고구려의 군사행동을 불러왔던 것으로 보아 눌지왕은 ‘卑辭謝之’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449년 5월 신라 매금이 고구려 영내인 충주까지 와야 하였고, 고구려왕이 주재한 의복 사여 행사에 참여해야 했던 연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하슬라성주의 고구려 변장 살해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전하는 사서의 기록은 양국 군주가 충주에서 만나게 되었던 배경과 경위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던 고구려 우위의 양국 관계는 좌면에 古鄒加 등의 군사행동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얼마 지나지 않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았으며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가 절대적이지 못하며, 신라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충주 지역은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는데 고구려로 보아서 신라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당장 시급한 일은 현지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며 비문에 양국의 차등적 관계를 거듭 부각하고, 모인 활동이 5월중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기술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양국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며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신라가 합의를 저버린 때문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이 비는 일종의 포고문에 해당하며 건립 시기는 눌지왕의 ‘卑辭謝之’로 보아 450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 보았다. 입비의 목적과 전달 내용은 후면과 우면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아마도 거기에는 불안해하는 현지민들을 달래기 위한 안무의 내용이 함께, 남방 경영이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돌에刊刻되었다는 점에서 미래까지도 포고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발표된 논고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비문의 과학적 조사와 판독, 이를 바탕으로 하는 비문의 단락 구성과 그 내용의 파악, 비의 건립 시기, 목적 및 배경 등에 관한 것들이다.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의된 가장 최신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문의 판독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 제시된 공동 판독안 또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V. 맺음말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맞아 수행한 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와 의의를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그간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은 주로 육안 관찰이나 탁본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비의 풍화와 인위적 훼손 등으로 글자의 형태 파악이 쉽지 않다. 이번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기획되었고 그 일환으로 최신 과학 기술을 적용한 3차원 스캐닝, RTI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탁본 제작 및 화상 처리 등을 실시하였다.

3차원 스캐닝을 통해 비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였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글자의 형상을 가시화하였다. 기존에 2차원적 분석에 의존했던 판독 방식을 개선하여 3차원 기반의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RTI 촬영은 선학들이 요청한 일종의 ‘강한 빛’을 활용한 기법으로 조명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글자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RTI 촬영 파일은 전용 뷰어를 통해 직접 제어할 수 있어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독문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의 초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은 실내에 전시된 비를 자연광 상태의 실물 크기로 출력할 수 있고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비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로 제작한 탁본 역시 스티치 합성 기술을 적용하여 초고해상도로 촬영함으로써 실물 크기로 비의 글자를 살펴

보는데 도움이 된다. 비와 탁본의 초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이 학계에 공개되어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다소 침체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었던 점은 학계와 함께 조사 결과물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3차에 걸쳐 판독회를 실시하여 공동 판독안을 도출한 것이다. 기존에 판독되지 않았던 4개 글자를 새롭게 확정하였고, 28개 글자가 처음 제시되었다. 1979년 최초 발견되었을 때의 판독문과 2000년 고구려연구회의 판독문에서 이견이 있던 전면의 68자와 좌측면의 20자가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각각 한 글자로 확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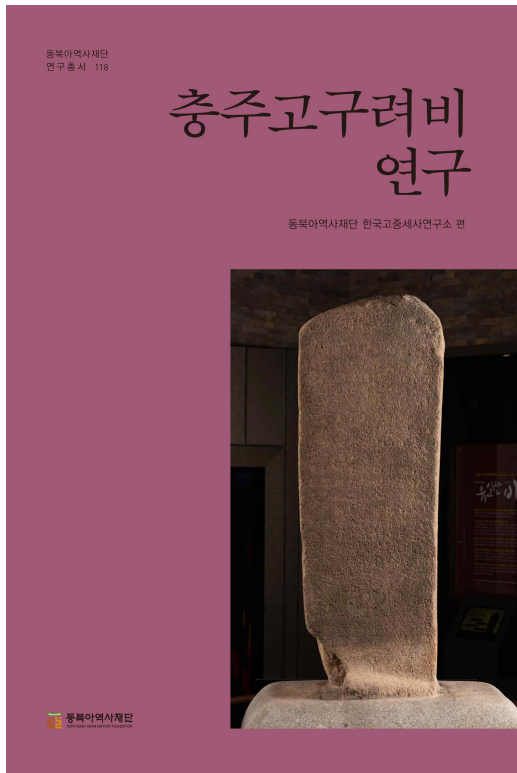
특히 전면 상단 부분에 글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七?年?△?△?△?△?’라는 판독문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전면의 상단 부분에서 글자의 존재는 그간 난제였던 충주 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필자는 ‘永樂七年歲在丁酉’로 판독하였다. 이를 일종의 제약으로 보아 본문의 ‘五月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을 비문의 시작 면으로 보았고, 비의 건립연대는 ‘永樂七年’이 확인된 만큼 397년 혹은 이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세워졌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편년에 의하면 그간 충주 고구려비의 연구를 통해 논의된 고구려 역사상은 물론 신라와의 관계 등 일정 부분에서 재검토가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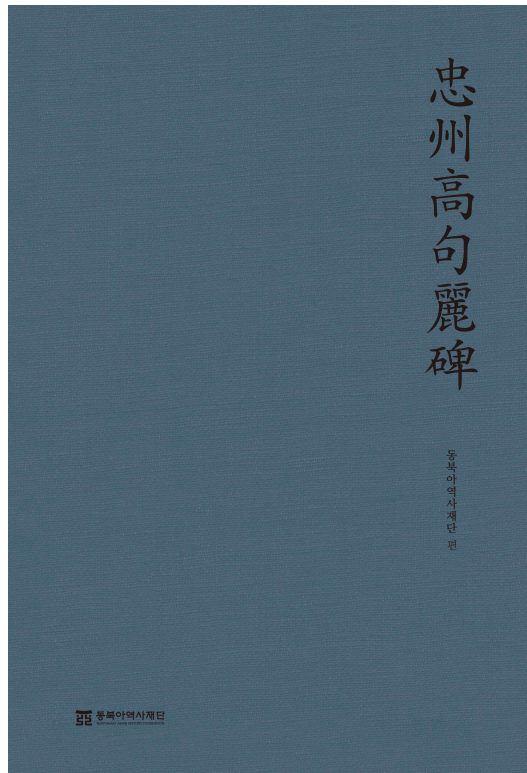
<그림 10>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그림 11>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한국고대사학회)



<그림 12> 『충주고구려비 연구』
(2020,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그림 13> 『忠州高句麗碑』
(2021, 동북아역사재단)

충주 고구려비는 발견 후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큰 가치가 있음에도 그동안 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모은 『忠州高句麗碑』(<그림 13>)는 발견된 지 40년이 지난 2019년 현재의 모습을 담은 기록이자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학술회의를 통해 6편의 논문이 추가로 발표되었고(<그림 10>) 이를 학술지에 수록하고(<그림 11>)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그림 12>)

이번 충주 고구려비의 연구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금석문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중국에 있는 광개토태왕비나 집안고구려비에 적용하는 한·중 공동 연구를 제안해 본다.

【토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연구의 성과와 의의」에 대한 토론

이선철(충주박물관)

저는 금석학이나 고구려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고, 전에는 십수년간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광의 선생님의 금번 발표문은 지난 2019년 11월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신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은 논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당시 저는 화제가 되었던 제액 판독부분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고광의 선생님께서 판독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당시 학술회의 현장에서 별도로 학회 의견을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광의 선생님이 충주 고구려비에 존재하는 제액을 판독했는데 그 내용은 ‘永樂七年歲在丁酉’라는 겁니다. 여러 첨단기법을 동원해서 이 글자를 읽어냈는데 2019년 당시 학술회의 현장의 분위기는 약간 미묘한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판독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주 고구려비의 제1면이 어디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또 해당 연대가 397년(광개토태왕 7년)이라면 우리나라 비문 중에서도 점제현 신사비를 제외하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비로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태왕비보다 17년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진 의문은 제액이 본문보다도 글자 크기가 작은데 이런 예가 다른 데 있는지, 그리고 제액이 ‘永樂七年歲在丁’까지는 左行하다가 ‘酉’자는 ‘丁’자 밑에 수직으로 새겼습니다. ‘酉’자를 ‘丁’자 좌측에 새길 공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예가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액이 첫째 문단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永樂七年歲在丁酉 五月中高麗大王)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비문을 새기는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14년(장수왕 3년)에 세운 광개토태왕비에는 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2012년에 발견되어 지안박물관에 전시된 지안고구려비는 윗부분이 남아있지 않아 논외로 함) 그렇다면 비문을 새기는 방식이 17년 만에 제액이 없는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高句麗 碑文의 선후 관계 재검토

이재환(중앙대학교)

〈目 次〉

- I. 머리말
- II. 형태와 서체에 따른 순서 파악의 한계
- III. <광개토왕비> 이전의 <충주 고구려비>
- IV. <지안고구려비>에서 <충주 고구려비>로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존하는 고구려 비는 <광개토왕비>와 <충주 고구려비>, <지안고구려비>의 3점이다. 그 중 가장 먼저 존재가 알려진 것은 <광개토왕비>이며, <충주 고구려비>와 <지안고구려비>는 각각 1979년과 2012년에 발견되었다. 광개토왕의 장례 과정에서 건립되었다고 생각되는 <광개토왕비>와 달리 <충주 고구려비>와 <지안고구려비>는 그 건립 연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충주 고구려비>의 연대에 대해서는 403년, 421년, 449~450년, 475년, 481년, 495년, 496~497년, 평원왕대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었다.¹⁾

여기에 더하여 2019년 비문 전면 상단부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를 읽어낸 판독안이 나오면서, 광개토왕 永樂 7년(397)이라는 새로운 내용 연대가 제기되었다.²⁾ 이후 해당 부분을 ‘□嘉七年己未’로 달리 판독하고 479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나왔으나,³⁾ 비문 전면 상단부의 명문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 하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

1) 각 연대를 주장한 개별 연구들의 목록은 이재환, 2021, 「永樂 7年’ 판독에 기반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 지역의 接境性」, 『목간과 문자』 27호, 12쪽을 참조.

2) 고광의, 2019,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8.

3)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충주 고구려비의 새 판독과 연대」, 『한국고대사탐구』 42.

4) 새로운 판독안에 부정적인 입장의 연구로서 전덕재, 2019, 「충주고구려비를 통해 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第65輯; 여호규, 2020,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임기환, 2020,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麻錦」, 『한국고대사연구』 98; 李成制, 2020, 「<忠州 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방용철, 2021, 「6~7세기 고구려 天下觀의 변천」, 『민족문화논총』 79; 나유정, 2022, 「「충주고구려비」의 판독과 건립 목적」, 『충주학연구』 창간호; 기경량, 2024, 「고구려 문자 자료에 대한 충실한 집성과 분석 -고광의, 『고구려의 문자문화』(동북아역사재단, 2023)-」, 『高句麗渤海研究』 第79輯, 284쪽; 전영우, 2024, 「충주 고구려비의 新羅土와 麻錦土의 분석과 麗羅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47 등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 입장임을 밝힌 연구는 李鎔鉉, 2020, 「忠州 高句麗碑 ‘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제80호와 이재환, 2021,

라도 상단 중간 부분에 ‘年’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좌·우로도 원석에 존재하던 요철이나 자연적인 풍화나 깨져 나감의 흔적이라고는 결코 보기 어려운 획들이 인정된다. ‘年’을 포함하는 문자들을 해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왜 거기에 이들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제기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치 아무 것도 없는 듯 논의를 펼쳐나간 경우가 많았다.⁵⁾

발표자는 전면 상단에 横書의 문자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의 판독안에서 ‘永’과 ‘七年’, ‘在’ 등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⁶⁾ 단, 두 번째 글자는 ‘樂’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永樂七年’이 ‘맞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정황’적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영락 7년(397)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남겨 둘 만함을 주장한 바 있다.⁷⁾

이에 따르면 <광개토왕비> 및 <지안고구려비>와의 선후 관계가 기존의 이해와 달라지게 된다. 2012년 <지안고구려비>의 발견 이후 <광개토왕비>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인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충주 고구려비>는 그들보다 뒤에 건립되었음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본 발표는 <충주 고구려비> 전면 상단의 연대를 영락 7년(397)으로 볼 경우, 이들 3비 건립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고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감이 있지만, 가능한 논의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II. 형태와 서체에 따른 순서 파악의 한계

세 비에서는 구체적인 건립 연대가 확인되지 않는다. <광개토왕비>에는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라는 연월일 기록에 이어 조금 뒤에 “於是立碑銘記勳績”이라는 말이 확인되므로 비의 건립과 관련된 날짜로 보기에 충분하지만, 정확하게는 立碑 자체가 아니라 “遷就山陵”에 해당한다.⁸⁾ <충주 고구려비>의 전면 상단을 ‘永樂 7年’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비

앞의 논문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 5) 부정의 이유가 제시된 경우는 임기환, 2020, 앞의 논문, 145쪽의 각주 7이 거의 유일한 듯하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① 비면의 해당 위치에 제액이 아닌 紀年을 쓰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② 비면 상단의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문과 동시에 새겨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③ 좌측면의 ‘辛酉年’이라는 기년 표기와 다르다는 점, ④ 좌측면이 문장의 최종면이라면 후면과 우측면이 독립된 내용이 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④ 좌측면이 문장의 최종면인지는 알 수 없으며, ③ 기존의 ‘辛酉年’ 판독은 부정되었고 별도의 ‘辛酉’는 年干支인지 확실하지 않다. ②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겨진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 있다(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앞의 논문, 491쪽).
- 6) ‘歲’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후의 문자를 인정한다면 추정 가능하며, 남아 있는 흔적들과 비교할 때 불가능하지 않다. 세로로 ‘丁酉’가 들어간다고 판독한 부분은 획이 희미하고 横書로 가다가 夾註처럼 縱書된 것이 특이하다는 점에서 아예 글자가 없다고 본 견해(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앞의 논문, 496쪽)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영락 7년의 간지와 일치함은 추독의 근거가 될 만하지만, 반대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또한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만, RTI 촬영 사진 및 배접 탁본 상 나타나는 일부 획들을 인정한다면 ‘丁酉’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앞의 글자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연구자 별로 달라질 수 있겠다.
- 7) 이재환, 2021, 앞의 논문.
- 8) 이에 비의 건립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415년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와 있다(주보돈, 2016, 「廣

건립 연대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안고구려비>의 경우 뒷면에 건비 연대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관독이 불가능하며, 앞면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의 건립 연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관련하여 비의 형태나 서체 등을 통해서 세 비의 건립 순서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四面의 石柱 형태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광개토왕비>와 <충주 고구려비>와 달리 圭首에 板形的 兩面碑인 <지안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그 차이점이 주목을 받았다. 대체로 중국에서 後漢代에 유행하였고 前秦代에도 만들어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圭形碑 형식이 <田丘儉紀功碑> 등을 통해 고구려에 영향을 미쳐 <지안고구려비>와 같은 형태가 먼저 세워어지다가, 다른 계통의 영향 혹은 고구려의 자체적 전통에 따른 石柱形 四面碑로서 <광개토왕릉비>가 만들어지자, <충주 고구려비>도 그와 같은 형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파악한 견해가 많았다.⁹⁾

한편 <지안고구려비>가 <광개토왕비> 이후에 건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圭首의 碑形이 자연석을 이용한 <광개토왕비>보다 진화된 것임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¹⁰⁾ 아울러 그 형태는 약 200년 전의 漢 문화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보다, 당시 교섭 중이던 前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다.¹¹⁾ 하지만 <지안고구려비>가 <광개토왕비>보다 늦게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前秦의 圭首碑인 <鄧太尉祠碑>는 36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광개토왕비>와 더 가까운 것이 된다. 아울러 <광개토왕비>의 건립 시점도 이미 前秦의 멸망(394년) 이후이므로, 前秦이 동시대의 교섭 대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또한 해당 견해에서는 세 비가 <광개토왕비> - <지안고구려비> - <충주 고구려비> 순으로 건립되었다고 간주하였는데, 이 경우 자연석을 활용한 두 비 사이에 규수비가 위치하므로 형태의 ‘진화’를 말하기는 어려워진다.

세 비의 건립 순서를 다른 방식으로 배열한다고 해도, 애초에 비의 형태에서 발전이나 진화의 경향을 읽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碑形의 결정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따른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주목된다.¹²⁾ 선택 과정에 시기적 유행이나 지역사회적 전통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비의 형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발전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건비 주체가 드러내고자 하였던 의도와 목적을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비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은 신라의 비석들에서도 확인된다. 6세기 전반기

開土王碑와 長壽王, 『목간과 문자』, 16호, 49쪽),

9) 耿鐵華, 2013b,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진위(眞僞)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70, 254~261쪽; 高光儀,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研究』 45; 조법중, 2015, 「광개토왕릉비의 四面碑 특성과 동북아시아적 전통 - 주변국가의 석비 및 기념물과의 비교-」, 『高句麗渤海研究』 51; 강진원, 2016a, 「고구려 석비문화의 전개와 변천 -비형(碑形)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3; 고헌의, 2017, 「고구려 碑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18호.

10) 정현숙, 2013,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書誌學研究』 第56輯, 311쪽.

11) 정현숙, 2014, 「<集安高句麗碑>의 서체와 그 영향」, 『書誌學研究』 第57輯, 231~232쪽.

12) 김병준, 2017, 「‘시각 문서’에서 ‘시각 석비’로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형태적 연원-」, 『목간과 문자』 18호, 132~133쪽.

여기서는 <지안고구려비>의 경우 神靈에 대한 守墓의 盟誓 의식을 전제로 규수형을 채택하였고, <광개토왕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 왕의 권위를 현창하려는 세속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석주형 사면비를 선택하였다고 보았다.

신라비가 모두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광개토왕비>와 <충주 고구려비>를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다.¹³⁾ 그러나 자연석을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6세기 신라 비들의 형태는 서로 크게 다르다. 고구려의 비들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석주형 사면비가 아니라 板形의 단면비이다. 503년의 <포항 냉수리 신라비>는 그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는데도 형태나 크기, 비율이 전혀 다르다. 앞·뒷면 외에 윗면에도 글자를 새긴 방식 또한 특이하여 고구려나 신라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보다 시기가 조금 뒤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石柱라고도 할 수 있을 형태이나, 하단부나 뒷면이 튀어나와 있어 고구려의 석주형과 다르며, 서사면도 한 면 뿐이다. 진흥왕대에 蓋石이 있는 순수비들이 등장하지만, 동왕대의 <단양 신라 적성비>와 <창녕 신라 진흥왕 적경비>는 그와 형태를 달리한다. 동일하게 순수비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板形의 두께를 가진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보다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의 두께가 두 배나 두껍다.

이러한 형태적 다양성은 일본 고대 비석들에서 역시 나타난다. 일본의 초기 석비들로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있는 ‘上野三碑’의 경우 형태적으로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고 있지만,¹⁴⁾ <山上碑>(681년)와 <金井澤碑>(726년)이 부정형의 자연적인 데 반해 <多胡碑>(711년)는 笠石을 올린 方形 角柱狀으로서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나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와 유사하다. 시간에 따른 변화나 지역적 특징이라기보다 각각 의도나 취향에 따라 비형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비를 前後로 하여 일본 전역에는 板石 형태나 직방체 형태, 方形柱 형태 등 더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비형을 결정하였다.¹⁵⁾

서체에 의한 건립 순서 파악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안고구려비> 발견 직후 그 서체를 ‘標準 隸書’로 간주한 데 반하여,¹⁶⁾ 예서가 팔분으로 완성된 이후 해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新隸體에 가깝다는 견해와,¹⁷⁾ 해서 필의가 있는 예서지만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고구려풍의 예서’라는 견해가 나왔다.¹⁸⁾ 이를 고구려에서 이미 예서의 발전 단계를 지나 해서로의 서체 변화 발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거나,¹⁹⁾ <광개토왕비>에서 <지안고구려비>를 거쳐 <충주 고구려비>에 이르는 흐름에서 古隸→隸書→楷書로 나아가는 고구려 서예의 변천 과정이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²⁰⁾

그러나 중국에서 이미 진행된 서체 변화를 고구려가 뒤늦게 순차적으로 밟아 나갔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구려인, 혹은 그 중 일부의 취향이나 고구려 내에서의 유행 등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테지만, ‘발전’이나 ‘진화’ 과정 속에 각각을 위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서체와 서풍의 선택지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취향이나 의도·목적에 따라 ‘선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 <충주 고구려비>가 예서의 필의가 많은 해서라고 해

13) 고광의, 2017, 앞의 논문, 29~30쪽.

14) 前澤和之 著/오택현 譯, 2017, 「日本 初期 石碑의 형태에 대한 검토」, 『목간과 문자』 18호 참조.

15) 위의 논문, 147쪽.

16) 耿鐵華, 2013b, 앞의 논문, 260쪽.

17) 高光儀, 2013, 앞의 논문, 66~73쪽.

18) 정현숙, 2014, 앞의 논문, 232쪽.

19) 高光儀, 2013, 앞의 논문, 73쪽.

20) 정현숙, 2014, 앞의 논문, 247쪽.

21) <광개토왕비>의 서체 풍격에 대해서 고구려의 독창적 ‘선택’이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高光儀, 2013,

서,²²⁾ <광개토왕비>와 <지안고구려비>보다 늦게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사실 기존에도 비의 형태나 서체가 세 비의 건립 순서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충주 고구려비>는 <광개토왕비>보다 늦게 만들어졌음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으며, <지안고구려비>의 경우 ‘丁卯歲刊石’ 혹은 ‘丁卯年刊石’ 관독의 인정 여부가 추정 시점을 결정지었고 형태와 서체는 방증 정도로 활용되었다고 하겠다. 결국 선후 관계를 추측할 근거는 각 비의 내용 속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Ⅲ. <광개토왕비> 이전의 <충주 고구려비>

세 비의 연대 파악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광개토왕비>이다. 전면 6행에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記勳績，以示後世焉。”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광개토왕 장례의 일환으로 비가 건립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甲寅年’은 414년에 해당한다. 단, ‘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가 ‘遷就山陵’의 시점이므로 立碑 자체가 그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遷就山陵’ 이후에도 장례의 최종적 마무리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면서,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글씨체를 가지고 ‘國崗上廣開土地好太王’의 壺杆임이 명시되어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에 ‘乙卯年’의 연대가 나옴을 근거로 415년에 <광개토왕비>와 ‘광개토왕’명 호우가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²³⁾

현재로서는 호우와 <광개토왕비>가 동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는지 확정짓기 어렵다. ‘於是立碑’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비의 건립이 ‘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로부터 아주 오랜 시일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414년~415년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광개토왕비>와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될까? 본 발표는 <충주 고구려비> 전면 상단에 연도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이를 ‘永樂 7年’으로 간주할 경우 문제가 없을지 살피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락 7년은 397년으로서 <광개토왕비>의 건립보다 20년 가깝게 이른다. 현재 확인 가능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을 397년의 일로 보더라도 <광개토왕비>와 특별히 충돌하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음은 이미 주장한 바 있다.²⁴⁾

그런데 이는 내용의 연대로서, 그 자체가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연대는 아니다. 내용 연대와 건립 연대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다고 보거나, 내용 자체를 특정 연도의 일로 일괄하여 파악하지 않는 견해들도 있었다. 일찍이 전면 상단에서 ‘建興四年’의 연대를 읽어내

앞의 논문, 73쪽).

22)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碑小考」, 『史學志』第13輯, 54쪽; 孫煥一, 2000, 「中原 高句麗碑의 書體」, 『高句麗研究』 제9집, 127쪽; 정현숙, 2014, 앞의 논문, 243쪽.

23) 주보돈, 2016, 앞의 논문, 49~50쪽.

24) 이재환, 2021, 앞의 논문.

고 장수왕 63년(475)로 파악한 연구에서, 비의 건립은 文咨明王代 초로 간주하면서 4면에는 문자명왕대의 일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⁵⁾ 전면에서 판독한 ‘十二月廿三日甲寅’은 449년, 좌측면의 ‘辛酉年’은 481년으로 각각 파악하고, 건립은 481년 또는 그 이후 수 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거나,²⁶⁾ 좌측면의 ‘辛酉年’ 판독은 부정하였지만, 전면의 ‘高麗太王祖王’ 표현에 주목하여 건비 주체는 문자명왕이라고 보면서, 전면과 좌측면의 내용은 역시 ‘十二月廿三日甲寅’에 근거하여 장수왕 37년인 449년의 일이라고 본 경우도 있었다.²⁷⁾ 문자명왕이 5세기 말 이 지역을 순수하고 비를 건립하면서 아버지 助多(태자/대고추가 공)의 장수왕대 활동을 두 면에 걸쳐 기록하였다는 견해 또한 나왔다.²⁸⁾

하지만 ‘建興四年’의 판독은 인정하기 어렵고, ‘十二月廿三日甲寅’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판독하면서 일간지가 397년의 12월 27일에 부합한다고 본 견해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三/七로 의견이 갈리는 글자는 그나 五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확정짓기 어렵고, 甲/寅의 경우도 한 쪽으로 결정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날짜와 일간지를 통해서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²⁹⁾ 기존에 ‘辛酉年’으로 읽었던 부분은 ‘功二百六十四’로 읽은 신 판독안이 유력하며, 좌측면 5행에서 ‘[辛][酉]’의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으나, 年干支인지가 확실하지 않다.³⁰⁾ ‘大王祖王’의 ‘太王의 할아버지왕’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판단되며, ‘할아버지왕’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문자명왕과 연결되어야 하는 표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발표자는 ‘太子’가 신라의 ‘太子’로서 고구려에 質子로 가 있었던 實聖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³¹⁾

비에 여러 왕대에 걸친 일들이 기록되었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諡號가 나와야 할 텐데, 현재 판독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왕의 시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독이 거의 되지 않는 후면과 우측면에 다른 왕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 왕 때의 일로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한편, 좌측면의 마지막 행 끝 부분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면에서 좌측면까지가 내용상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용상 단락이 아닌 특정 인물이나 어휘를 높이기 위해 改行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구려 비들에서는 大王 등의 어휘에서 공격이나 개행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후면과 우측면에 완전히 다른 시간대의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면 및 우측면의 판독이 극히 일부만 가능한 상태라 해당 부분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역시 우선은 전면과 좌측면의 내용에 기반하여 건비 연대를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면의 내용은 同年의 5월과 12월의 일로 보인다. 좌측면에서 새로운 연도가 확실히 판독된 것은 아니므로, 12월의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25)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24~25쪽.

26) 金英夏·韓相俊, 1983, 「中原高句麗碑의 建碑 年代」, 『教育研究誌』 25.

27) 金현숙, 2002,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6, 98~99쪽.

28) 최장열, 2004,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9)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앞의 논문, 490쪽.

30) 이재환, 2021, 앞의 논문, 16쪽.

31) 이재환, 2021, 앞의 논문, 22~23쪽.

전면 상단에 연도가 表題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연도임은 분명할 것이다. 전면의 본문은 ‘五月中’으로 시작하여, 상단부의 연도를 전제로 내용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내용 연대는 전면 상부의 연도로서 동일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건비 시점이 내용의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12월 20일 이후의 일까지 기록되었으므로, 건비 시점의 상한은 일러도 398년 초는 되어야 할 듯하다. 아울러, 내용이 ‘高麗大王’으로 시작하고, 諡號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용 상의 王이 생존해 있을 때 건립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겠다. 일단 398년으로부터 광개토왕이 사망하는 412년까지의 사이로 건립 시점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조금 더 시기를 좁혀볼 수는 없을까? 발표자는 <충주 고구려비>에 광개토왕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의식을 치른 일과 신라 매금이 ‘身來論事’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³²⁾ ‘論事’의 대상은 백제-왜-가야 연합군과의 대립 속에서 군사적 협력 관계의 구축 혹은 유지였을 것이다.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辛卯年(391)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三國史記』新羅本紀에도 393년부터 倭人の 신라 침략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영락 10년(400)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이 400년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400년의 사건 자체가 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백산맥을 넘어선 대규모 ‘南征’에 관련하여 비가 세워졌다면, 그 장소는 충주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97년으로부터 400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었다고 볼 경우, 전면 상단에 표제처럼 새겨졌다고 보고 있는 ‘영락 7년(397)’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의 건립이 400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시점은 398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IV. <지안고구려비>에서 <충주 고구려비>로

본 발표는 애초에 <충주 고구려비>의 전면 상단을 ‘영락 7년’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출발하였으므로, 그 건립이 <광개토왕비>보다 앞선다고 파악한 결론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안고구려비>의 건립 시점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지안고구려비>의 경우, <충주 고구려비>와의 선후 관계가 아닌 <광개토왕비>와의 선후 관계부터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광개토왕 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는 입장과,³³⁾ <광개토왕비> 건립 이후인 장수왕 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는 입장³⁴⁾이 대립하였

32) 위의 논문, 24~25쪽.

33) 集安市博物館 編著,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119~122쪽; 耿鐵華, 2013a, 「集安高句麗碑考釋」, 『通化師範學院學報』 2013-3, 5쪽; 耿鐵華·董峰, 2013, 「新發現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 『社會科學戰線』 2013-5, 10~11쪽; 孔錫龜,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5, 33~36쪽;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李成制, 2013, 앞의 논문; 鄭浩섭,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研究』 70, 131~132쪽; 趙宇然, 2013,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韓國古代史研究』 70, 148~150쪽;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다.³⁵⁾

장수왕 대 건립설 가운데 ‘修復’을 광개토왕 대에 세웠던 ‘墓上立碑’를 장수왕이 ‘修復’하면서 <지안고구려비>를 건립했다는 내용 파악에 기반한 견해도 있지만,³⁶⁾ ‘丁卯歲刊石’ 혹은 ‘丁卯年刊石’의 판독을 결정적 근거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개토왕 대 건립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해당 부분을 ‘好太聖王曰’ 등으로 판독하고 있다. 발표자는 현재 어느 쪽으로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해당 부분은 미상으로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내용으로 추정할 때는 광개토왕 대의 일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各於□□□□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後世。自今以後，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賣。□□違令者，後□□嗣□□，看其碑文，與其罪過，”이라는 내용이 <광개토왕비>의 “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에 대응됨이 분명한데, <광개토왕비>에서는 해당 내용의 주체가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시 <지안고구려비>의 성격은 <광개토왕비>에 언급된 광개토왕의 守墓 관련 조치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도 <지안고구려비> 자체를 모든 祖先王의 墓上에 세운 비 중의 하나로 간주하거나,³⁷⁾ 그와는 별개로 보더라도 광개토왕의 수묘제 정비와 관련된 비로 파악한 경우가 많다.³⁸⁾

이에 따를 경우 <지안고구려비>는 414년 혹은 415년에 건립되었다고 추정된 <광개토왕비>보다 앞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398년에서 4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 <충주 고구려비>와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될까? 관련하여 <광개토왕비>의 수묘제 관련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教言，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羸劣。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② 言教如此，是以如教令，取韓穢二百廿人。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213~214쪽; 강진원, 2016b,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83, 211쪽; 안정준, 2020,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목간과 문자』 25호, 58~62쪽.

34) 張福有,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 『社會科學戰線』 2013-5; 孫仁杰, 2013, 「集安高句麗碑文識讀」, 『東北史地』 2013-3, 53쪽;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2, 22~23쪽; 정현숙, 2013, 앞의 논문; 權仁瀚, 2016, 「集安高句麗碑文의 판독과 해석」, 『목간과 문자』 16, 300쪽; 이천우, 2016, 「집안고구려비’의 수묘인 ‘차착(差着)’ 문제를 통해 본 건립 시기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2, 63~66쪽; 武田幸男, 2014, 「集安·高句麗二碑の研究に寄せて」, 『プロジェクト研究』 9, 早稻田大學 総合研究機構, 128~129쪽

35) ‘墓上立碑’ 자체이거나 그 단계의 수묘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비의 건립이 장수왕 대 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남겨둔 견해 또한 있다(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2, 112쪽).

36) 김현숙, 2013, 앞의 논문, 24쪽.

37) 孔錫龜, 2013, 앞의 논문, 43~44쪽; 여호규, 2013, 앞의 논문, 95쪽;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88쪽;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91~92쪽; 안정준, 2020, 앞의 논문, 62~63쪽.

38) 李成制, 2013, 앞의 논문; 정호섭, 2013, 앞의 논문; 趙宇然, 2013, 앞의 논문;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15~216쪽; 강진원, 2016b, 앞의 논문, 212~216쪽.

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③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唯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④ 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수묘제 관련 내용은 광개토왕이 생존해 있을 때 내린 敎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舊民의 轉當羸劣이 염려되므로 자신이 직접 略取해 온 ‘韓穢’에게 守墓를 맡기라는 명령이었다. <광개토왕비>의 수묘인연호 명단 중 ‘新來韓穢’의 출신지명 대부분은 丙申年(396)條에서 得했다고 하는 58城村 중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吾躬巡所略來韓穢’를 언급한 存時敎의 시점은 396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안고구려비>가 이러한 명령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면 <충주 고구려비>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늦게 건비되었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광개토왕비>의 수묘제 관련 내용은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시점에서 내렸던 교령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⁹⁾ 그 중 ②는 ‘新來韓穢’에게 守墓를 맡기라고 한 ①의 광개토왕 存時敎를 따르는 데 더하여, 그들이 법칙을 모를 것을 염려한 장수왕이 舊民을 추가한 것이다. ①과 ②는 <지안 고구려비>에서 대응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장수왕 대의 조치인 ②는 물론이요, 광개토왕의 敎인 ① 또한 <지안 고구려비>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①의 조치는 祖王先王이 원근에서 취하여 수묘를 맡겨오던 舊民의 轉當羸劣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舊民의 轉當羸劣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慮’로 해석된다.⁴⁰⁾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경우, 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은 조치의 시점을 자신의 사망 이후(若吾萬年之後)로 잡고 있다. 특히 祖王先王의 陵들에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자신의 사망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舊民의 轉當羸劣은 광개토왕의 사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며, 그 해결 조치 또한 모든 祖王先王의 무덤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舊民의 羸劣은 ③의 差着이나 ④의 賣買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문제이다.⁴¹⁾ 舊民을 ‘新來韓穢’로 교체한다고 해서 差着이나 賣買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조치로서는 ‘墓上立碑’와 賣買者에 대한 처벌이 각각 언급되어 있다.

광개토왕 사망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舊民을 羸劣하게 만들 만한 요인을 떠올려 본다면, 왕이 사망할 때마다 새롭게 陵이 조영되고 그에 따라 守墓人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祖王先王의 守墓人을 차출해 왔던 舊民들에게만 계속해서 추가로 守墓烟戶 차출의 짐을 더해 나간다면 그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확보한 ‘韓穢’들로 수묘 인력을 충당하게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39)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05~109쪽; 김창석, 2015, 앞의 논문, 90~94쪽.

40) 이천우, 2016, 앞의 논문, 50쪽. 참고로 ②에서 장수왕이 韓穢의 ‘不知法則’을 ‘慮’한 것 또한 미래에 발생할 사태에 대한 염려·걱정이다.

41) 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32쪽.

이 경우 ‘新來韓穢’로 수묘인을 증당하라는 명령은 祖·先王의 기존 수묘연호들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 자신의 무덤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⁴²⁾ ③에 따르면 祖·先王의 수묘연호들은 이미 광개토왕이 墓上에 세운 碑에 그 烟戶를 새겨 差錯하지 않게 해 두었다. <지안고구려비>에서는 이것이 “各於□□□□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으로 표현되었다. ‘□示後世’는 石碑에 새긴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기존에 <지안고구려비>의 뒷면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보고에 따라,⁴³⁾ 수묘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을 다한 ‘묘상비’ 혹은 ‘묘상비’와 ‘수묘율령비’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의도적 폐기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⁴⁴⁾ 그러나 광개토왕이 후세에 길이 보이기 위하여 돌에 새겨 둔 것을 스스로 폐기하였다면, 이는 ‘差錯’에 대응한 자신의 조치가 불완전한 것이거나 실패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물론 그러한 실패의 인정과 보완 조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다면 실패한 ‘墓上立碑’ 조치를 굳이 <광개토왕비>에 왕의 업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게 된다.

수묘제의 2차 개편 시점을 광개토왕 대가 아니라 장수왕 대 초로 상정하더라도, <광개토왕비>에 해당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짐은 동일하다. 만일 광개토왕의 조치를 수정·보완하면서 기존의 수묘인 명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해도, 先王의 이미 세워 두었고, 건립 자체가 업적이라고 여겨지던 碑를 일부러 훼손하여 폐기하여야 했을지 의문이다. <지안고구려비> 뒷면의 인위적 훼손이나 의도적 폐기를 인정하더라도, 광개토왕 당대나 장수왕 대 초의 일로는 보기는 어렵다. 장수왕에게 있어서 ‘墓上立碑’와 買賣 禁止令, ‘新來韓穢’로 수묘인을 편성하라는 명령은 모두 碑에 새길 만한 先王의 위대한 업적이었다. <지안고구려비>는 그 중 ‘묘상입비’와 매매 금지에 관련한 비로서, 관련 조치와 명단은 적어도 <광개토왕비> 건립 당시까지는 유효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지안고구려비>의 건립 시점은 ‘묘상입비’ 및 매매 금지령을 반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 것으로 여겨진다. 千秋塚에서 출토된 ‘□未在永樂’명 기와편을 광개토왕이 행한 修陵 活動의 흔적으로 보면서, ‘□未’를 丁未年(407)으로 간주하고, 광개토왕 대 후반인 407년에서 412년 사이에 修陵 活動의 일환으로 ‘守墓烟戶碑’인 <지안고구려비>를 건립했다는 견해가 있었다.⁴⁵⁾ 하지만 <지안고구려비>에 기록된 ‘묘상입비’령과 매매 금지령은 ‘韓穢’의 ‘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는 <광개토왕비>의 ①보다 앞서 내려졌다고 생각된다. ①이 396년 이후에 내려진 명령이라면, 그보다는 이를 가능성이 크다. 광개토왕의 치세 중 후반이라기보다는 초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42)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新來韓穢’ 수묘연호 220家が 모두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담당하는 인원이었고, 장수왕에 의해 여기에 舊民 110家が 더해지기까지 하였다면 하나의 왕릉에 배치된 수묘연호의 수가 너무 많다고 여겨질 수 있다. 기존에 國烟을 ‘國’으로 徙民되어 실질적 수묘 업무를 담당하는 家戶로, ‘看烟’은 원래의 거주지 혹은 집단 사민지에 머물면서 國烟에 대한 지원·보조를 담당한 烟戶로 간주한 견해들이 있었다(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 213~218쪽; 李道學,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 -被征服民 施策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28, 96~97쪽). 이를 따를 경우, <지안고구려비>의 ‘烟戶頭’ 20家와도 충돌하지 않게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43) 集安市博物館, 2013, 앞의 책, 9쪽.

44) 홍승우, 2013, 앞의 논문, 110~111쪽; 기경량, 2014, 앞의 논문, 233쪽.

45) 王飛峰, 2014, 「關於集安高句麗碑的幾個問題」, 『集安麻線高句麗碑』, 張福有 編著, 文物出版社.

군이 추정을 더해 보자면, 전반적 守墓制의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으로 적당한 것은 先王의 사망 직후 葬禮를 치르고, 새롭게 守墓人을 편성할 때라고 여겨진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故國壤王 9年(392)에 有司에 命하여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修하게 하였다고 한다.⁴⁶⁾ 『三國史記』와 1년의 시차가 확인되는 <광개토왕비>를 기준으로 하면 광개토왕 즉위 이후로서, 永樂 2년에 해당한다. 이를 실제로는 광개토왕이 했던 일로 간주할 경우, 선왕의 장례와 더불어 국가 제사 체계의 정비를 진행하였던 것이 된다. 守墓制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立碑와 買賣 금지의 조치를 내린 것 또한 그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파악하면 어색하지 않다.⁴⁷⁾ <지안고구려비>의 건립 시점은 광개토왕 대 초로 추정해 볼 있다. 앞서 398년에서 400년 사이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본 <충주 고구려비>보다 앞선 시점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개의 고구려비가 건립된 순서를 <지안고구려비> - <충주 고구려비> - <광개토왕비> 순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충주 고구려비>의 전면 상단을 永樂 7年으로 전제하고 출발한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순서 파악은 기존의 다수 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후 관계를 파악할 때 세 비의 관계는 더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지안고구려비>는 ‘묘상입비’령과 매매 금지령을 기록하였다. 선왕들의 陵에 대한 ‘守墓’와 관련된 碑라고 하겠다. <충주 고구려비>의 성격은 수묘제와는 무관하다. 광개토왕이 충주 지역을 방문하여 가졌던 의식과 그에 따른 신라와의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내용 중 신라 매금이 등장하여, 곧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신라 매금의 ‘身來論事’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백제-가야-倭 연합과의 공동 대응과 관련된 군사적 협조 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한 바 있다.⁴⁸⁾

<광개토왕비>는 “銘記勳績，以示後世焉。”이라고 하여, 광개토왕의 勳績을 기록한 것임을 명시하였는데, <지안고구려비>와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이 모두 勳績의 일부로서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광개토왕비>에서 광개토왕의 諡號는 鄒牟王 이래의 계보 다음에 “遷至十七世孫，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號爲永樂大王。”이라고 하여 처음 등장한다. 이후 “其詞曰”부터는 ‘王’으로 간략하게 지칭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이라는 諡號가 등장하는 것이 10년 경자조의 마지막 부분이다. 해당 부분에서는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라고 하여 유래 없던 新羅寐錦의 ‘新來論事’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충주 고구려비>와 연관된다고 판단한 내용 부분에서 광개토왕의 ‘풀네임’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王’으로 축약된 호칭으로 돌아갔다가 수묘제와 관련된 광개토왕의 敎가 인

46)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9年 3月, “命有司, 立國社, 修宗廟.”

47) <지안고구려비>에서 ‘自戊子定律’의 관독을 받아들이고 388년으로 비정할 경우, 수묘 관련 규정의 마련이나 제사 체계 정비 등은 고국양왕 말년부터 시작된 것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48) 이재환, 2021, 앞의 논문, 25쪽.

용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다시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이라는 諡號가 나타난다. 敎의 주체로서 ‘풀 네임’이 언급되었다고 하겠다. 동시에 祖王先王이 하지 않았던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해당 敎의 내용임이 유의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인용이 아닌 ‘墓上立碑’의 주체로서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가 나온다. 여기에서도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하였는데 오직 광개토왕만이 모든 祖先王을 위해서 墓上에 碑를 세웠다고 하여, 전례 없는 위엄임을 강조할 때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이라는 ‘풀 네임’이 사용됨을 보여준다. 이 내용은 곧 <지안고구려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후세에 길이 남길 만한 광개토왕의 중요한 업적의 순간들이 <지안고구려비>와 <충주 고구려비>로 남겨졌고, 최종적으로 <광개토왕비>에 집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개토왕이 직접 건립하였거나,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가 현존하는 고구려 비의 전 부라 하겠다. 현재까지 남게 된 사정은 광개토왕의 의도와 무관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땅을 넓혔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만한 광개토왕의 업적은 이처럼 소중한 기록물을 만들어 주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참고 문헌

- 集安市博物館 編著,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 강진원, 2016a, 「고구려 석비문화의 전개와 변천 - 비형(碑形)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3.
- 강진원, 2016b,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83.
- 高光儀,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研究』 45.
- 고광의, 2017, 「고구려 碑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18호.
- 고광의, 2019,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 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8.
- 權仁瀚, 2016, 「集安高句麗碑文의 판독과 해석」, 『목간과 문자』 16.
- 孔錫龜,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5.
- 금경숙, 2013, 「새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 71.
-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 기경량, 2024, 「고구려 문자 자료에 대한 충실한 집성과 분석 - 고광의, 『고구려의 문자문화』(동북아역사재단, 2023)-」, 『高句麗渤海研究』 第79輯.
- 김병준, 2017, 「‘시각 문서’에서 ‘시각 석비’로 -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형태적 연원-」, 『목간과 문자』 18호.
- 金英夏·韓相俊, 1983, 「中原高句麗碑의 建碑 年代」, 『教育研究誌』 2.
- 김현숙, 2002,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6.
-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2.
- 나유정, 2022, 「‘충주고구려비’의 판독과 건립 목적」, 『충주학연구』 창간호.
- 방용철, 2021, 「6~7세기 고구려 天下觀의 변천」, 『민족문화논총』 79.
- 孫煥一, 2000, 「中原 高句麗碑의 書體」, 『高句麗研究』 제9집.
- 안정준, 2020, 「『集安高句麗碑』의 建立 목적과 守墓制」, 『목간과 문자』 25호.
- 여호규, 2020,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 李道學,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성격에 대한 再檢討 -被征服民 施策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28.
-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 李成制, 2020, 「<忠州 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 이용현, 2013, 「신발견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비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 李鎔鉉, 2020, 「忠州 高句麗碑 ‘ㄹ’·‘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제80호.
- 이재환, 2021, 「‘永樂 7年’ 판독에 기반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 지역의 接境性」, 『목간과 문자』 27호.
- 이천우, 2016, 「‘집안고구려비’의 수묘인 ‘차착(差着)’ 문제를 통해 본 건립 시기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2.
-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 임기환, 2020,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寐錦」, 『한국고대사연구』 98.

- 任昌淳, 1979, 「中原高句麗碑小考」, 『史學志』 第13輯.
- 전덕재, 2019,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高句麗渤海研究』 第65輯.
- 전영우, 2024, 「충주 고구려비의 新羅土와 寐錦土의 분석과 麗羅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47.
- 정현숙, 2013,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書誌學研究』 第56輯.
- 정현숙, 2014, 「<集安高句麗碑>의 서체와 그 영향」, 『書誌學研究』 第57輯.
-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研究』 70.
-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
- 조범중, 2013, 「집안 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
- 조범중, 2015, 「광개토왕릉비의 四面碑 특성과 동북아시아적 진통 -주변국가의 석비 및 기념물과의 비교-」, 『高句麗渤海研究』 51.
- 趙宇然, 2013,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韓國古代史研究』 70.
- 주보돈, 2016, 「廣開土王碑와 長壽王」, 『목간과 문자』, 16호.
- 최장열, 2004,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2.
- 耿鐵華, 2013a, 「集安高句麗碑考釋」, 『通化師範學院學報』 2013-3.
- 耿鐵華, 2013b,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진위(眞僞)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70.
- 耿鐵華·董峰, 2013, 「新發現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 『社會科學戰線』 2013-5.
- 孫仁杰, 2013, 「集安高句麗碑文識讀」, 『東北史地』 2013-3.
- 王飛峰, 2014, 「關於集安高句麗碑的幾個問題」, 『集安麻線高句麗碑』, 張福有 編著, 文物出版社..
- 張福有,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 『社會科學戰線』 2013-5.
- 武田幸男, 2014, 「集安·高句麗二碑の研究に寄せて」, 『プロジェクト研究』 9, 早稻田大學 総合研究機構.
- 前澤和之 著/오택현 譯, 2017, 「日本 初期 石碑의 형태에 대한 검토」, 『목간과 문자』 18호.
-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충주 고구려비의 새 판독과 연대」, 『한국고대사연구』 42.

【토론】

「高句麗 碑文의 선후 관계 재검토」에 대한 토론

이장웅(건국대학교)

이재환 선생님은 2019년 비문 전면 상단부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로 볼 수 있는 ‘年額’을 인정하면서, <광개토왕비>의 건립보다 이른 永樂 7년(397)의 상황을 현재 확인 가능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음을 살핀 논문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후속 작업으로 고구려 3비의 선후 관계를 살피면서 후세에 길이 남길 만한 광개토왕의 중요한 업적의 순간들이 <지안고구려비>와 <충주 고구려비>로 남겨졌고, 최종적으로 <광개토왕비>에 집적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곧, 10년 경자조의 마지막 부분에 ‘國罔上廣開土境好太王’ 諡號가 등장하면서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라고 한 부분은 <충주 고구려비>와 연관되며, 수묘제와 관련된 조치를 내리는 광개토왕의 敎와 ‘墓上立碑’의 주체 부분에 ‘國罔上廣開土境好太王’ 諡號가 등장하는 부분은 <지안고구려비>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충주 고구려비> 전면 상단에 橫書의 문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계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마치 아무 것도 없는 듯 논의를 펼쳐나가는 데 대한 선생님의 경중에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마 고구려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론자가 선정된 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최측의 의도와 관련된 듯하다. 이에 토론자는 고구려사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나가는 방향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A. 5월에 高麗 大王은 祖王 때부터 널리 新羅 寐錦과 交하여 世世토록 兄弟처럼 上下가 서로 알고 守天하며 동쪽에서 오기를 원했다. 寐錦이 꺼리니, 太子가 前部 大使者 多弓桓奴, 主簿 貴德, …과 함께 跪營에 이르렀다. 어린 太子가 함께 말하기를, “壁上을 함께 보자”고 하고, 이때 太霍鄒를 사여하였다. 敎를 내려 東夷 寐錦의 衣服 建立處에 사용할 음식을 하사하고, 諸交交과 奴客人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였다. 이때 敎를 내려 諸位에게 上下의 의복을 하사하게 하였다. 敎를 내려 東夷 寐錦이 돌아오게 하였다. 이때 敎를 내려 寐錦土內 諸衆人과 交支에게 大王國土의 大位와 諸位 上下의 衣服을 만들게 하였으며, 겸하여 跪營에서 敎를 받도록 하였다. 12월 27일 庚寅에 東夷 寐錦과 上下가 于伐城에 왔다. 敎를 내려, 와 있던 前部 太使者 多弓桓奴, 主簿 貴德, …에게 …三百을 募人하도록 하고, 新羅土內의 幢主人 下部 拔位使者 補奴와 交交奴와 交位使者인 盖盧로 하여금 함께 交하여 新羅土內의 衆人을 募人하도록 하였다. … 太王國土의 … 東夷 寐錦土內의 … 함께 軍이 于伐城에 이르렀다. 지키는 자는 古牟婁城 守事인 下部 大兄 躬央. (<충주 고구려비>)

1. <충주 고구려비> 건립 시기의 상황과 5월에 신라 매금이 오기를 꺼린 이유

전면 상단에 연도가 表題처럼 자리하고, 전면의 본문은 ‘五月中’으로 시작하면서 그 내용

은 同年의 5월과 12월의 일이 연이어 기록되었으므로, 건립 시기는 398년에서 광개토왕이 사망하는 412년까지의 사이로 잡았다. 그리고 영락 10년(400)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소백산맥을 넘어선 대규모 ‘南征’에 관련하여 비가 세워졌다면 그 장소는 충주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충주 고구려비> 건립은 그 이전인 398년에서 400년 사이로 좁혀보았다.

신라는 奈勿尼師今 37년(392)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자 實聖을 인질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393년 倭人이 金城을 5일간 포위했다. 영락 6년(396) 광개토왕은 백제 王城을 親征하여 왕의 항복과 영원히 奴客이 되겠다는 복종 맹세[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를 받고 58城 700村을 얻어 돌아갔다. 그러므로 신라는 이 당시에 이미 倭 혹은 百濟-倭-加耶 연합군과의 대립 속에서 고구려와의 군사적 협력 관계 유지가 절실히 필요했다. <충주 고구려비> 영락 7년(397)의 상황은 영락 10년(400)의 대규모 군사 파견을 가능하게 한 중간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선생님의 기존 발표 논문을 포함하여 궁금한 점은 397년 5월에 고려 대왕이 동쪽으로 충주 지역까지 행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매금은 이곳에 오기를 꺼렸고, 태자가 중재한 이후 고려 대왕이 이미 수도로 돌아간 12월에야 충주 지역의 營에 온 이유는 무엇인지? 선생님도 중요하게 언급한 <광개토왕비> 영락 9년(399)의 집적된 기록에서는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國上廣開土境好太王”라고 하여, 광개토왕이 남쪽으로 순행하자 신라는 다급하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신라 매금도 직접 조공한 상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주 고구려비>의 ‘東來之’를 新羅 寐錦을 주어로 보아 ‘동쪽에서 오기를(신라 매금이 실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오기를 원함)’로 해석하지 않고 고려 대왕이 동쪽으로 온 것으로 본 이유도 궁금하다. 또한, 고려 대왕이 충주 지역에 행차했음에도 불구하고 太子가 前部 大使者 多 丕桓奴, 主簿 貴德 등과 함께 營에 와서 고려 대왕이 있는 곳을 뜻한다고 보이는 “壑上을 함께 보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2.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太子의 실체와 고구려 관등

선생님은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太子가 신라의 太子이며 392년에 質子로 고구려에 파견되었다가 402년에 신라왕이 된 實聖으로 보았다. 그가 新羅 寐錦을 대신하여 고구려 왕이 기획한 의례에 참여하고, 新羅 寐錦이 高麗 大王의 소환에 응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長壽王이 太子로 冊立되는 것은 광개토왕 18년(409)이고 397년 당시 王子 장수왕은 4-5세의 어린 나이였다.

新羅 寐錦과 兄弟 관계를 대대로 원했던 것은 과거의 祖王 시기이며, 비문 내용 당시 新羅 寐錦은 東夷로 표현되면서 營으로 소환하고 寐錦을 포함한 신라인들에게 의복을 사여하는 복속 의례와 같은 상황이 보인다. 이러한 의례에 참여시키기 위해 고구려에 인질로 온 신라의 실력자 實聖을 중재자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자가 5월에는 太子, 前部 大使者 多 丕桓奴, 主簿 貴德로 보이는데, 정작 신라 매금이 敎에 응해서

은 12월에는 태자가 보이지 않고 前部 太使者 多弓桓奴, 主簿 貴德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 두 번째 태자 부분의 관독이 “夭太子”라면(이용현), 어린 태자로 보아 어린 왕자 장수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추가적으로 고구려 관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4세기 말 고구려에서 태자에 이어 前部 大使者(『한원』의 6관등) 多弓桓奴, 主簿(『한원』의 3관등 울절) 貴德의 순서로 인명이 기재된 이유도 궁금하다.

3. <지안고구려비>의 건립 연대와 <광개토왕비> 비교

선생님은 형태와 서체에 따른 순서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고구려 3비 건립의 선후 관계를 <지안고구려비>(392년경) <충주 고구려비>(398-400년) <광개토왕비>(414년경)로 파악하였다. <지안고구려비>는 광개토왕이 丁□年(397년 또는 407년)에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戊子年(388년)의 律에 근거하여 守墓制 修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역대 선왕의 王陵에 건립한 여러 守墓碑 중 하나이다. 토론자가 이해한 두 비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 각각 墓의 烟戶는 이 하천의 물로 四時에 祭祀를 거행하였다. 그렇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烟戶 守□□, 烟戶가 “열악해지고 쇠약해져, 팔리거나 되팔리는 자가 많아졌다. 이에 守墓者를 □□하여 □□에 새겼다. □□□王(미천왕), 國岡上太王(고국원왕), 國平安太王(소수림왕 또는 고국양왕) 등의 神位가 망실되어, 東西 □□□□ 世室(宗廟)을 作興하고, 先聖의 功勳이 아주 높고 매우 빛나며 古人之 勳을 의지를 계승하였다”라고 追述하였다. 丁□年(397 또는 407년)에 好太聖王이 이르기를, “戊子年(388년)에 律을 制定한 이래로 조정에 敎하여 令을 발하여, 다시 修復하였다. 각 先王의 墓上에 碑를 건립하고, 烟戶頭 20인의 명단을 새겨 후세에 전하여 보인다. 지금 이후로, 守墓하는 民을 함부로 사거나 다시 되팔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라도 買賣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令을 어긴 자는 후세에도 □□를 繼嗣하도록 하고, 碑文을 보아 罪過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지안고구려비>)

C. ① 國罽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敎를 내려 말씀하시길, “祖王과 先王들께서는 단지 遠近의 舊民들만을 데려다가 守墓하고 청소하게 하셨다. 나는 舊民들이 피폐해질 것이 염려된다. 만약 내가 죽은 뒤에 평안하게 守墓하는 자를 둔다면, 내가 몸소 다니며 略取해 온 韓穢만을 데려다가 청소를 준비하게 하라”고 하였다. ② 말씀으로 敎한 바가 이와 같았으므로 이것을 敎令과 같이 하여 韓穢 220家を 뽑았다. 이들이 法則을 모를까 염려되어 다시 舊民 110家を 뽑았다. 新·舊 守墓戶를 합치니 國烟이 30家이고 看烟이 300家로 도합 330家이다. ③ 祖先王 이래 墓上에 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守墓人 烟戶가 어긋나게 되었다. 오직 國罽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祖先王을 위해 진력하셔서 墓上에 碑를 세우고 그 烟戶를 새겨서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다. ④ 또한 制하시기를, “守墓人을 지금 이후로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광개토왕비>)

광개토왕이 내린 敎는 舊民들이 피폐해질 것이 염려되어 자신이 직접 略取해 온 韓穢에게 守墓를 맡기라는 명령이다. 新來韓穢의 출신지명 대부분이 丙申年(396)에 得했다고 한 58城村 중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는 396년 이후의 敎이며, 新來韓穢에게 守墓를 맡기라고 한 광개토왕의 敎에 더하여 그들이 법칙을 모를 것을 염려한 장수왕이 舊民을 추가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발표자는 이 부분(①과 ②)을 <지안 고구려비>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지안 고구려비>가 그 이전이면서 ‘墓上立碑’와 買賣 禁止令을 반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三國史記』 故國壤王 9年(392) 3월 기록에는 敎를 내려 佛法를 숭상하게 하면서 有司에 命하여 國社을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게 하였다. 선생님은 이 기사가 <광개토왕비>에서는 永樂 2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실제로는 광개토왕이 했던 일로 간주하여 선왕의 장례와 더불어 국가 제사 체계의 정비를 진행한 것이고, 守墓制와 관련하여 立碑와 買賣 금지의 조치를 내린 것 또한 그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戊子年(388년)에 律을 制定”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고국양왕 시기에 이미 율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삼국사기』 고국양왕 9년 기록일 수 있다. 그렇다면, 광개토왕이 丁□年(397 또는 407년)에 다시 敎를 내린 후에 <지안 고구려비>를 건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충주 고구려비>가 가장 이른 비일 가능성도 있다.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4세기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이용현(전 경북대학교)

〈目 次〉

- I. 문제의 소재
- II. 기년론과 3면비설
- III. 신라왕에 대한 東來요구와 거절 - 5월의 “前置文”격
- IV. 태자의 跪營 행차와 중앙 관료의 파견 - 5월조의 본론
- V. 관복 외교와 下敎외교 - 5월의 敎
- VI. 募人과 신라왕의 于伐城 도래 - 12월 상황의 전개 (1)
- VII. 募人의 목적과 활동 - 12월 상황의 전개 (2)
- VIII. 餘言과 前望 - 國原城, 倭, 永樂七年397年

I. 문제의 소재

1978년 예성문화연구회(구명 예성동호회)에 의해¹⁾ 발견된 충주고구려비(구명 중원고구려비)²⁾는 남한에서는 유일한 고구려비석으로, 발견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뤄져왔다. 1979년 단대박물관과 단대사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2000년 고구려연구회와 예성문화연구회(구명 예성동호회)에 의한 판독보완 및 비교연구가 이뤄졌다. 높이 2.02m, 너비 0.55m의 사면체의 이 비는 후면과 우면의 마모가 극심하여 글자를 거의 확인하지 못하고, 좌면과 전면의 글자를 통해 고구려가 신라를 종속시키려 했던 사정을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었다. 고구려왕을 “大王”으로, 신라왕을 “東夷麻錦”으로 호칭, 고구려가 매금 이하 관료에게 의복을 하사하고, 신라 영토내에서 3백인을 징발하여 고구려군관의 지휘아래 두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이는 통상 장수왕 시대의 것으로 오래도록 인지되어 왔다. 2019년 동북아재단에 의한 RTI등 사진촬영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판독보완과 연구가 진행되었다.³⁾ 여기서 양질의 영상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비면의 마모 극심이라는 환경을 한걸음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불확실한 글자 중 일부를 확정하게 됨으로써 불확

1) 金禮植, 1979, 「중원고구려비 발견 경위」, 『藥城文化』 창간호, 예성동호회(현재 “예성문화연구회”로 개명).
2) 중원군이 충주시로 1995년 개명됨에 따라 발견 이래 당시까지 ‘중원고구려비’로 통칭되다가 그 후부터 ‘충주고구려비’로 변경되었다. 비석이 발견된 위치는 中原郡(현재의 忠州市) 中央塔面 龍田里 입석부락 입구로, 비각에 있다가 2012년 전시관이 건립되어 격납전시되어 오늘에 이른다.
3) 3단계 연구 관련 상세는 기존 줄고의 정리로 미룬다(줄고, 2020, 「忠州 高句麗碑 ‘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80, 高麗史學會, 9-10쪽).

실성을 좀더 지울 수 있게 되었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고광의 박사에 의해 앞면 위쪽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를 판독하고, 좌측면의 <甲寅>을 <庚寅>으로 수정된 판독이 제출된 것이었다.⁴⁾ 이러한 기년명 해독제안으로 인해, 비석 발견 이래 40년간 정황론에 입각했던 연대설정은 근본적 재검토의 기로에 섰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소생, 그리고 이재환 교수가 기년부분의 판독을 수용하였으며, 하시모토 시게루 교수는 글자의 존재에는 동의했지만 판독에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중요한 점은 앞면 머리쪽의 글자를 인정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상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존 연구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시각에서 내용과 구조를 재검토함으로써 4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소묘하고자 한다. 질정을 바란다.

2. 기년론과 3면비설

기존 연구의 기년론은, 비문 중에 나오는 “十二月廿三(혹은 五)日甲寅”과 “辛酉年”을 조합하여 도출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전제로 한 뒤, 비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각각의 정확 이해를 기준으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편년안들이었다. 결과 약 십종의 편년안이 제출된 바, 대체로 5세기 전반설, 후반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방법과는 달리, “高麗”란 국호 혹은 “太子”에 주목, 그를 기준으로 한 편년도 제안되었다. 아울러 “祖王”이란 단어를 기반으로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석이 건립된 시기를 분리하여 보는 2중 연대안이 가정된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⁵⁾ 사건이 벌어진 뒤 50여년 뒤에 그 사건에 대해 비석을 세웠다는 해석이 가장 기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학의 노력들은 모두 비면에 기년이 없었던 데서 연유한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실 전면 머리부분의 글자에 대해서는 연구 초기인 1979년 이병도, 이호영 선생에 의해서 글자의 존재가 제기되었는데⁶⁾, 꿈의 해프닝으로 전개되어 조용히 학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대신 그 부분에는 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앞서 새롭게 제기된 <永樂七年>(397년)안에 이어 하시모토 교수에 의해 <延嘉七年己未>(479년)안이 제출되었다. 물론 여전히 글자가 없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⁷⁾ 공개된 양질 사진을 볼 때, 어떻게 판독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차치하고, 더 이상 이 부분의 글자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⁸⁾ <七年>이란 글자는 명백하고, 앞의 글자와 뒷 글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다.

4) 고광의, 2019,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이 논고는 수정없이 그대로 아래에 게재되었다 : 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8, 한국고대사학회. 양자가 동일하므로, 본고에서는 간행연도가 빠른 전자를 인용해야 하나, 편의상 후자를 인용한다.

5) 편년에 대한 연구사는 아래 논문 참조. 시노하라 히로카타, 1979, 「중원고구려비의 석독과 내용의 의의」, 『사충』 51, 고려대학교사학회, 29쪽. 국호를 근거로 한 편년은 李殿福, 2000, 「중원군 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명 변천」, 『고구려연구』 10, 고구려연구회.

6) 이병도, 1979,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사학지』 13, 단국대학교사학회 ; 이호영, 1979, 「중원고구려비 제액의 신독」, 『사학지』 13, 단국대학교사학회.

7)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충주 고구려비의 새 판독과 연대」, 『한국고대사탐구』 4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8) 앞면 머리나 우측면에는 글자가 없다고 판단한 견해도 적지 않다(이규호, 2024, 「고구려의 對 신라 관

기년이어야 할 앞의 2자는 “永樂”설과 “□嘉”설이 나온 것이다. 두 번째 글자는 획수가 많아 樂과 嘉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글자 하부는 加인 듯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부에서 <吉+亠>란 복잡한 획을 설정하기란 어렵고, 樂의 상부에 가깝다. 延자로의 추독에도 불구하고, “永”에 매우 가깝다는 것이 소생의 판단이다. 또 “己未”보다 “國在”쪽에 손을 들고자 한다.⁹⁾ 알려진 고구려 금석문 자료들에서는 기년표기에서 “연호+몇년+歲在+간지”를 갖고 있는 바, 歲在가 누락된 “연호+몇년+간지”양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셋트가 되는 비문 다른 곳의 “十二月廿七日庚寅”은 永樂 七年(丁酉年)과 그 일간지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점도 영락7년 설의 강점이다. 하시모토 교수는 “十二月廿七日庚寅”을 “七”을 “三”으로 보고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¹⁰⁾ 이렇듯 의견차가 상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머리부분에 기년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전면의 비문 시작인 <五月中>과도 호응하여 “몇년 몇월”의 기재는 지극히 자연스럽다.¹¹⁾

전면의 상부에 기년을 기록한 것은 확실히 독특한 서법으로 유래가 없다. 이 부분 글자를 부정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4면비설과 연동된다. 일찍이 비석에 대해서는 처음 연구될 때 이미 이기백 선생에 의해 4면비설과 함께 3면비설이 고려된 적이 있었다. 좌측면 최말단에 글자가 끝까지 채워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 좌측면이 마지막면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는 공통의 인식이었다. 4면비설은 광개토왕비와 같을 것이라는 추정에 입각한 것이다. 필자도 과거 그 생각에 동조했었다.¹²⁾ 3면비설은 뒷면의 하단의 관찰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단의 돌 상태가 다른 면과 달리 하단이 돌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글자를 새겼을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앞면과 좌·우측면의 3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다.¹³⁾ 이 지적은 전면 상단에 기년이 확인되기 이전의 추정이었지만, 기년이 확인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적이며, 기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또 내용의 전개상, 필자는 3면비설로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⁴⁾ 다른 면과 달리 전면 위쪽에 기년을 특별히 기재하였다는 것은 전면을 중시한 서법이며, 광개토왕비를 보더라도 4면 중 넓은 면을 제1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4면비가 아니라 3면비라면 전면이 제1면이 되어야 할 것이고, 좌면이 마지막면이기 때문에 전면(제1면)→우면(제2면)→좌면(제3면)이 된다. 이 같이 4면체 중 넓은 면이 제1면이 되어 있는 사례는 창녕 인양사비에도 보인다.¹⁵⁾ 머리에 위치한 글자를 통상은 題額이라고 한다. 이마에

계와 충주 고구려비], 『(자료집)제81차 국내학술대회: 4-5세기 고구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중층성』(2024년6월15일), 77-79쪽.

9) 동북아역사재단, 2020, 『충주고구려비』, 224쪽.

10) 동북아역사재단, 2020, 위의 책, 382쪽.

11) 이 점은 2000년 고구려연구회 관독회 때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정영호 발언: 「중원고구려비 신석문 국제워크숍 녹취」, 『고구려연구10 -중원고구려비 특집호-』, 고구려연구회, 167쪽).

12) 줄고, 2000, 「중원고구려비와 신라의 제비」, 『고구려연구10 -중원고구려비 특집호-』, 고구려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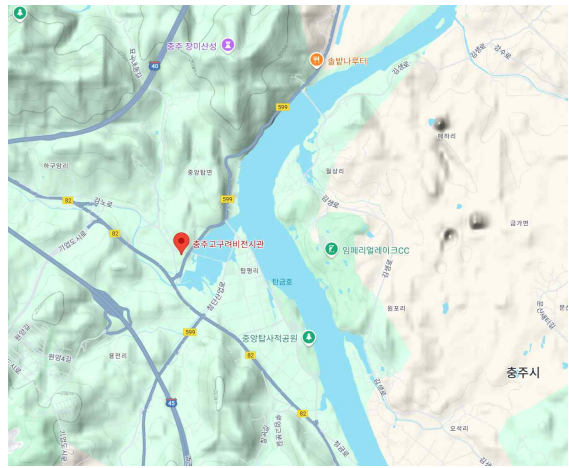
13) 비석이 3면인가 4면인가 하는 점을 깊게 고구한 것은 이기백이었다. 이기백은 (1)[후면->우측면->전면->좌측면]순 혹은 (2)[우측면->전면->좌측면->후면]의 4면비, (3)[우측면->전면->좌측면]의 3면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좌측면이 가장 끝이 되는 것의 전제는 그 末行의 글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며, (2)(3)이 제안된 것은 후면의 하단이 돌출되어 다른 면들과는 다른 점에 있었다. (2)처럼 그 후면을 마지막 면으로 본 것은 원래 (3)처럼 3면비로 썼다고 후면에 추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다.(이기백, 1979, 「중원 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 『사학지』13, 단국대학교사학회, 46쪽.) 물론 이기백은 결론은 광개토왕비에 이끌리어 (1)로 내렸지만, 제기한 가능성은 시사성이 크다. 단 이기백이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전면이 제1면일 가능성이었다.

14) 필자는 2000년 이래 최근까지 4면비로 추정하여 왔으나 이를 수정한다. 줄고, 2000, 「중원고구려비와 신라의 제비」, 『고구려연구10』, 고구려연구회 참조.

적은 제목이라고 할까, 통상 비석의 제목을 적는다, “누구의 비” “어떤 비” 같은 내용을 적는데, 본문 글자와는 달리 매우 크게 적는 것이 기본이고 전서체로 적기도 한다. 전서체는 통상 신비한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의 비석 중 다른 2개의 비석에는 “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안고구려비의 경우에는 제액은 없지만 규두로 되어 있다. 즉 머리쪽이 뾰족하다. 경주 신라 호우층에서 묻힌 고구려 제작품인 호우 명문의 상단부 이마에는 주술적 기호 “#”가 자리한다. (<그림 1>) 명문 이마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념과 인식에 기인하여 특별히 글자를 새긴 것이며, 그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광개토왕 호우 명문 (상단 “#”)



<그림 2> 비석의 입지
전시관은 원래 비석 출토지에 건립되었다.

그 점에서 비문 찬자와 조영자가 강조하려 했던 것은 “영락7년 세재정유”는 해를 특별히 기념하고 의미부여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락”이란 광개토왕의 연호로, 그의 시대임을 상징하며, 歲在丁酉라는 표기는 干支 기반의 曆法에 기반한 서법으로, 天體의 운행과 관련있으며 음양 기반의 점복으로도 활용되었다.¹⁵⁾ 요컨대, “영락7년 세재정유”를 머리에 쓴 것은 역법 기년으로 신비성, 주술성, 공권력과 함께 광개토왕을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¹⁷⁾ 전형적인 제액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액 자리에 오는 이 기년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입석마을 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년이 새겨진 전면이 애초부터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⁸⁾ 비석은 東夷 신라를 의식하고 있는데다가, 동쪽에 남한강을

15) 시대와 국적은 다르지만 810년 창녕 인양사비가 3면비인데, 넓은면→우측면→좌측면 순으로 되어 있다. 인양사비의 경우 뒤쪽의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다른 넓은면에는 인물이 부조되어 있다(국립경주박물관, 2017, 『신라문자자료2』(소생 집필, 구성) 도판 참조).

16) 태어난 간지에 따라 액년이 정해진다는 삼재 인식도 그 중 하나다. 삼재는 계유생일 경우, 해(亥)에 들어와 자(子)에 묵고 축(丑)에 나가고, 갑술생은 신(申)에 들어와 유(酉)에 묵고 술(戌)에 나간다. 374년 생인 광개토왕은 계유생 혹은 갑술생이다.

17) 상정 가능한 가능성은 4면설을 기반으로 기년은 <오월중>의 앞 즉 우면이나 후면에 이미 한 번 나왔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면 머리의 <기년>은 추기로 해석되거나, 낙서나 관계없는 부분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추기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은 곤란하고, 낙서로 볼 확률 역시 불투명하며, 더군다나 관계없는 글자로 취급하거나 글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더욱 비학문적이다.

18) 단국대학교 박물관, 1979, 「중원고구려비 학술토론회의록」, 『중원고구려비 조사보고서』 중 정영호의

바라보는 방향으로, 비석 정면의 방향에 걸맞는다. (<그림 2> 참조)

Ⅲ. 신라왕에 대한 東來요구와 거절 - 5월의 “前置文”격

비문은 “<몇년>+<5월중>+기사+<12월27일>+기사”로 구성된다. 즉 같은 해 5월과 12월의 사건을 나누어 편년체(편월체)로 기록하였다. 각각 해당 月에 일어난 일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비문 작성이나 비석 건립 시점은 좌측면에서 다른 기년이나 간지일이 나오지 않는 한 <12월27일>이후가 되어야 한다. 즉 아주 빠리는 그 해 말이거나, 혹은 이듬해 그리 멀지 않은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5월은 비문작성과 비석건립 시점에서는 12월보다는 먼 과거다. 내용상 5월이 그 해에 벌어진 사건의 발단이고 12월이 매듭이란 인상이다. 日干支를 <12월27일 경인(일)>로 상세히 기재한 반면에 <5월중>이라고 간단히 정리한 것은 그러한 연유로 추정된다. 머리부분의 <년+월>이후의 내용은, 문장구조가 전형적인 한문이라고 보기에는 생경하다.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려면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나중에 상세히 다룬다.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흐릿하게는 “고려대왕”과 “신라매금(신라왕)”의 상호 회합과 회견 관련인 듯하다. 世世나 願과 같이 불교용어가 두드러지는 것도 용어의 특징이다. 爲願은 “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고구려식 용법으로 보인다. 相知는 서로 안다는 것으로 정부를 공유하는 것을 이르는 듯 하고, 守天은 하늘을 지킨다는 것으로 통합에 준하는 화합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구려(고려대왕)와 신라(매금)가 함께 원하는 바인 것처럼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가 신라에게 요구한 것인데, 그 구체적 요구 행동은 “東來”였다. “동래”란 “동으로 오다”와 “동에서 오다” 양방향의 가능한 것 처럼도 보인다. 그런데 중국에서 쓰인 “동래”의 용례를 보면 전자는 전혀 없고, “동에서 오다”뿐이다. 전자의 의미처럼 쓰여 우리에게 익은 “기자동래설” 즉 기자가 동으로 왔다는 것은 현대에 만들어진 용어에 불과하다.¹⁹⁾ 이렇게 되면, “동래”의 주체는 신라다. 비문을 비롯 광개토왕비에서 신라를 “東夷”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또 『周書(고구려전)』에서 “其地, 東至新羅: 그(=고구려의) 땅은 동으로는 신라에 이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동방은 신라였다. 아울러, 兄弟와 上下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통설이 된 바와 같이, 上과 兄은 고구려이고, 下와 弟는 신라를 지칭한다.²⁰⁾ 주어가 한문풍에서는 고려태왕과 조왕인 듯이도 보이는데, 그 보다는 조왕을 부사적으로 보아 “조왕 때부터”로 보고 주어를 “고려태왕” 단독으로 봄이 적절해보인다. 아울러

발언, 103쪽.

19) (1)於是毀宋太極殿 以其材構明堂十二間 基準太廟.以中央六間安六座 悉南向.東來第一青帝 第二赤帝 第三黃帝 第四白帝 第五黑帝.配帝總配享五帝 在階階東上 西向.: (《隋書》志,凡三十卷,卷六,志第一,禮儀一,明堂): (2)道規 (중략)曰「(중략)吾東來文武 足以濟事.若欲去者 本不相禁」: 東에서 (문관과 무관을 데리고)왔다. : (《宋書》列傳,凡六十卷,卷五十一,列傳第十一,宗室,臨川烈武王道規): (3)京都地震 從東來 隱隱有聲 搖屋瓦.: (《晉書》志,凡二十卷,卷二十九,志第十九,五行下,思心不容,地震): (4)羅立言率府中從人自東來 李孝本率臺中從人自西來 : (《唐書》列傳,凡一百五十卷,卷一百六十九,列傳第一百一十九,李訓) 예문 (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東來는 “동에서 오다”는 뜻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3)(4)와 같이 從이나 自와 같은 부사를 집어넣는다.

20) 이기백, 1979, 「중원고구려비의 몇가지 문제」, 『사학지』 13, 단국대학교 사학회, 38쪽. 이래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公_{新羅寐錦}”은 “공공연하게/공식적으로 신라매금과 함께”로 보아두어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은 “고려태왕은 조왕 때부터 공공연하게 신라매금과 세세로 원했던 것은 형제와 같이 하고, 상하가 서로 알며 하늘을 지키고, [그들이=아마도 신라매금]동에서 오는 것이었다.”로 풀이하는 안을 내놓는다. 이 부분은 중국풍의 문장구성이라기 보다는 한국식 즉 고구려식의 문장, 즉 고구려식 변격 한문이라 판단한다. 이 점이 광개토왕비문의 문체와 다른 특색 중 하나다.

다음은 守天에 대해서다. 기존 성과에 언급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고구려가 신라에게 충성과 책무를 요구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즉 “수천”이란 하늘,천륜,천명을 (함께)지키자는 뜻으로, 여기서 하늘의 고구려의 하늘로 보인다. 守天이란 일반적으로는 천문현상을 관측, 자연법칙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天道 하늘의 이치와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이며, 고구려는 국가차원에서 天을 섬겼다.²¹⁾ 다음으로 충주비에는 모두 3곳에 “來”가 보이며, 서두의 용례를 제외한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12) “教:東夷寐錦 遷還來”(5월조)동이매금이 이어 돌아오도록. (13) “教:來前部太使者多弓桓奴 主簿 貴_土 募人三百” 와 있던 전부 태사자다우환노… (12월조)

먼저 (12)(13)에서 來의 대상은 각각 東夷寐錦(신라)과 前部 太使者(고구려)등 관료였다. (12)의 來오다의 목적지는 비석 건립지 이곳 혹은 그 주변으로 보인다. (13) 역시 (12)와 같이 보인다. 앞면 머리부분에 보이는 “東來”의 “來” 즉 동이매금이 오기를 바라는 목적지는, 막연하지만, 좁게는 비석 건립지를 포함한 부근 지역, 넓게는 고구려, 특히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신라왕이 고구려에 대해 직접 來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비에서는 “身來論事 즉 매금이 직접 와서 정사를 논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단계까지를 요구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광개토왕비에서는 “昔 新羅寐錦 未有身來 論事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勾□□□朝貢 : 옛날에 신라매금이 직접 와서 정사를 논한 적이 없었다. (하략)(광비, 영락10년(400)庚子조)”라고 보여 단순히 來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論事까지 연결되고 있다. 즉 비문의 “相知”, “東來”는, 광개토왕비의 “論

21) (5)「官人守天而自為守道也。」《荀子·天論》 : (6)王從本言而不前之.於是夫人瞋怨天神.由禮汝故使王見薄.若有天力何不護我. 後壞天祠令平如地.守天祠神.悲惱至宮欲 傷王宮.天神遮不聽入.有一仙人住止山中.法苑珠林 (No. 2122 道世撰 in Vol. 53) : 天祠神을 지키다. (7)魏略曰 高麗俗(중략)跪拜曳一腳,以十月祭天國中大會 名曰東盟,有軍事 亦各祭天殺牛觀蹄 以占吉凶 (《翰苑》) : 梁書는 東盟을 東明으로 기록 : (8)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三國志》 高句麗) : (9)太和十五年(491), 璉死, 年百餘歲. 高祖舉哀於東郊, 遣謁者僕射李安上策贈車騎大將軍·太傅·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諡曰康. 又遣大鴻臚拜璉孫雲使持節·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賜衣冠服物車旗之飾, 又詔雲遣世子入朝, 令及郊丘之禮. 雲上書辭疾, 惟遣其從叔升于隨使詣闕, (《魏書》) : (10)天下四方(牽頭婁婁) : (11)必授天道,自承元王. 始祖鄒牟王之創基也.(集安 고구려비). 《荀子(天論)》에서는 “수천”은 관리의 의무였다 (5). 불교에서는 “수천”은 보이지 않고, “천사신 즉 하늘을 담당하는 신을 지키다”는 용례만 보일 뿐이다(6). 고구려에서는 하늘 제사를 지냈다. 10월에 나라전체에서 크게 모여 “東盟”이란 제천행사를 하였으며 이 때 소를 죽여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고 전한다(7)(8). 이는 후대 즉 늦어도 5세기말에는 郊丘之禮로 이행된 듯하다(9). 제천행사 외에도 고구려 자료에는 “天”이 언급되는데, “천하사방”은 고구려적 세계관이고(10), “天道”도 보인다(11). 守天에 대해서는 이병도가 “자연의 도리를 지키다”로 처음 해석하였으며(1979, 전개논문, 28쪽), 시노하라 히로가타는 “고구려 왕권과 직결된 하늘을 지키다”로 해석하였다.(1979, 전개논문, 16쪽). 탁견이다.

事”, “身來”와 그 내용이 유사해보이긴 하는데, 표현은 매우 순화되어 있고 “論事” 즉 논의 하여 모종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相知” 즉 상호 상황과악에 방점이 있어 설령 “논사”를 노렸다 하더라도 표현상 강도와 단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하다.

다음은 문구 구사에 보이는 비문 찬자의 성향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世世”“願”은 불교용어다.²²⁾ “高麗太王, 祖王, 公 新羅寐錦 世世爲願: (중략) 之.”의 문장 구성 자체가 중국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토착적, 즉 고구려적 문투다. “고려대왕이 조왕 때부터 신라매금과”라는 기술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도 그렇고, “爲願의 … 之” 즉 “원하는 바는(爲願) …이다(之)”라는 표기가 그것이다. 요컨대 비문은 전형적 한문이 아닌 변격한문이어서 찬자는 한문구사가 본토 중국만큼 완벽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고구려인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비 문장이 대부분 수려한 중국식인 것과는 다른데, 이것이 중앙과 지방의 차이거나, 내티브와 토착인의 차이거나 등의 배경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한문 습득도의 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찬자는 불교지식이 풍부한 고구려지식인으로 보인다. 이상 부분은,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요구였고 그 핵심에 신라 매금의 “東來”가 있었다. 그러한 고구려의 강한 요구에 대한 신라의 답변은 거부였다.

寐錦忌 매금은 이를 피하였다.

[忌]란 “피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삼가다 등”의 의미가 있다.²³⁾ 특히 不吉하다고 생각되는 것, 緣起가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경우가 많다.²⁴⁾ 옛적부터 종교적·정신적인 의미도 강하다. 더러움이나 불결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행위나 사물, 일을 피하고 삼가는 것, 삼가하여 불결 불길한 것을 피하는 것, 금기taboo(禁忌)시하는 것과 통한다. 이를 테면 금기를 피하기 위해 두문불출하거나 몸을 정결히 하는 것 등의 류가 된다. 여기서 신라 매금이 취한 태도 忌는 단순히 꺼렸다는 부정적 대답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보면, 종교적 이유를 들어 이를 금기시한 것으로 이해해야할 듯하다. 요컨대 실제 거부의 이유가 싫어서라 하더라도 외교, 정치의 장에서는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가 보다는, 종교적 의례적 이유를 들어 완곡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忌는 그런 면에서 신라가 명분을 내세워 피한 것이었고 고구려측은 이를 구구절절 적지않고 간략히 한 단어 “忌”로 정리한 것이다. 요컨대 이로써 고구려의 바램은 즉시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신라왕의 거절은, 이를 명분으로 하여 이어지는 고구려의 대응행동으로 연결된다. 이어 고구려는 태자와 이를 수행하는 관료들이 충주에 오게 된다, 와서는 몇 가지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요컨대 앞부분의 고구려의 요구와 신라의 거절이 고구려 태자와 관리의 충주 행차의 배경,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논리, 명분은 광개토왕비에서도 보였다. 즉 고구려왕은 불합리한 사정이나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 대응을 취한다는

22) 줄고, 2020, 전계 논문.

23) 《康熙字典》에서는 “증오하다. 꺼리다. 금기하다.”로 풀고 있다. : 「忌 憎惡也。」《說文》, 「又憚也。《左傳·昭六年》民知有辟 則不忌於上。」, 「又戒也。《書·呂刑》敬忌罔有擇言在身。《注》忌之言戒也。」, 禁忌 : 「公室卑則忌直言。」《韓非子·外儲說左下》, 忌怒 則能害己。《韓非子·說疑》

24) 漢以火德, 忌水。(《史記》項羽本紀第七), 此固大易所著, 道家所忌也。(《三國志·魏書》諸夏侯曹傳第九, 夏侯尚 子玄)

논법이다.²⁵⁾ 요컨대 <5월조>에는 뒷부분 태자의 행차와 下敎가 중심이고, 그 앞부분 즉 고구려의 요구와 신라의 거부는 이 본론 기사의 전제로서, 마치 광개토왕비 6년 병신조의 前置文과 같은 성격이다. 고구려 왕권의 대응을 유발한 명분을 기록한 기사, 즉 전치문은 시점으로 본론인 5월보다 이전이 된다. 그 점에서 광개토왕비 영락6년 병신조의 전치문의 시점 문구“以辛卯年來”에 상응하는 충주비 5월조의 단어는 “祖王”이다.

IV. 태자의 跪營 행차와 중앙 관료의 파견 - 5월조의 본론

명분론에 입각한 고구려의 행동을 그린 충주비문의 서법은 광개토왕비문과 同工이다. 즉 원인제공은 신라로 “寐錦忌”이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은 우선 태자와 관료들의 <궐영> 당도였다.

太子共 前部大使者多亏桓奴/主簿貴德 到至跪營.

共을 태자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는 비문에 보이는 共의 용례에 비취볼 때 성립하기 어려우며, “함께”라는 부로 앞을 받기도 하고 뒤를 받기도 한다.²⁶⁾ 즉 위 문장은 첫째, “태자와 함께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 등”이거나, 둘째, “태자가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 등과 함께”의 양방향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셋째 “태자가 함께 다우환노 등과”도 같은 맥락이 된다. 둘째가 중국적인 어순이고, 첫째나 셋째는 고구려적 어순에 해당한다. 이러한 共의 용법이 6세기 초기 신라금석문 자료에서 보이는데, 이번 충주비 용례로 보아, 고구려적 표현이 신라에 스며든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共은 불교자료에도 자주 보이는 것이기도 해서²⁷⁾ 앞서 지적한 비문 찬자의 불교적 성향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이 태자를 신라의 태자로 보기도 하지만 후에 상세히 서술할 바와 같이, 비문을 관통하는 用字법으로 볼 때 고구려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다음은 고구려 태자와 고구려 관리들이 온 곳인 “跪營”을 고찰해보자.

跪營 무릎꿇어 인사하는 예법으로 『삼국지(동이전)』에 보면 고구려에 보이는 예법이며, 신라나 백제의 전신인 韓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예법이었다. 즉 본래 신라에 없었던 고구려식 예법이다. “궐영”이란 글자로 미뤄보건대 그러한 고구려예법을 행하는 營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營에 대해서는 武田幸男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군영·경역 등을 의미하며, 군대 주둔지의 중요거점이기도 하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는 營戶가 兵戶, 軍戶와 함께 존재했다. 또 광개토왕비에는 395년(영락5년) 稗麗를 토벌하고 깨뜨린 부락 중에 “六七百營”이 보인다. 여기서 보이는 營은 村으로 환산이 가능한 규모로 稗麗(거란) 토착사회의 취

25) 百殘違誓 與倭和通王巡下平穰(9년기해, 399), 東夫餘 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王躬率往討(20년경술, 410), 王以稗麗不□□久躬率往討(중략) 破其三部洛/六七百營(영락5년을미조, 395),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破百殘東□新羅 以爲臣民. 以 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6년병신, 396) : 광개토왕비

26) 줄고, 2022, 전개논문.

27) 줄고, 2020, 전개논문.

락인데, 수렵 유목 위주의 비정주적 이동가능한 둔영적 취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⁸⁾ 이러한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營을 대입해보면, 충주비에 보이는 跪營 역시 이동가능한 비정주적 군영시설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규모 역시 村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임시적 시설이란 점이 시설이 영구적이 아니라 특수목적에 단기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의미한다. 비문에서는 5월조에 고구려가 신라에 敎를 내리면서 이 敎 즉 고구려 최고권자 국왕의 명령을 “궤영”에서 수령토록 하였으니, 국가간 정치 외교와 의례의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跪拜하는 것은 신라, 받는 것은 고구려였다. 고구려가 주장한 양국간의 “兄弟”를 넘어 “上下”관계를 가시화하는 의례의 공간이자 명령을 수수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태자와 관료가 왕립한 곳, 또 신라가 敎를 수령해야 할 “궤영”은, 위치로 보나 맥락으로 보나, 비석이 자리하고 있는 현 위치, 충주시 감노로 2319(용전리 280-11) 고구려비 전시관, 구 행정구역면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을 중심으로 한 부근, 좀더 넓게는 충주지역으로, 그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광개토왕비에 따르면 396년 영락6년 병신조에 고구려는 백제로부터 跪王 즉 궤배의 예를 받으면서 奴客이 될것임을 맹세받았는데, 신라에게도 그러한 궤배를 받기위한 실질적 의례의 향상적 장소로서 “궤영”을 가설한 것으로 보인다. “궤영” 설치와 운영은 고구려적 질서와 요구를 백제에 이어 신라에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제에게는 전쟁을 통해, 신라에게는 외교를 통해 강요한 것이다.

“營”자체가 이동성 군영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하므로, 군사적 요충로서 충주에 착안하여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 백제가 장악했을 남한강 상류를 장악하는 것은 다방면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건립된 비석은 주변 지역민(충주)과 이곳을 경유하는 주변인, 또 관계자에게 고구려의 위력과 함께, 신라가 고구려와 형제상하 관계임을 널리알리기 위한 광고탑이었다.

태자와 관료들이 이곳 “궤영”에 왔는데, 먼저 태자는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태곽추’라는 물건을 하사했다. “夭太子共語”는 “어린 태자가 함께 말하였다”는 것이고, 말씀 “尙壁上共□看”은 “전상 즉 대왕을 숭상하여 함께 뵈시다”로 해석할 수 있다. 尙은 ‘숭상하다’, 壁上은 ‘殿上’ 즉 임금을 뜻하며, 共은 ‘함께’라는 뜻이다.²⁹⁾ 看은 “방문하다, 뵈다”와 “돌보다, 주시하다”는 뜻이 있다.³⁰⁾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守墓人烟戶 중 “看烟”이란 후자의 뜻이다.³¹⁾ 광개토왕비에서의 수묘호의 기본임무는 “守墓洒掃” 즉 묘를 지키고 청소하며 간수하는 것이다. 감안하면 충주비의 “看”에는 “뵈는다”는 기본적 의미 속에 “지키자, 호위하자”는 함의가 중첩되어 있을 법하다. 비문에서는 호칭에 있어 신라에 대해서 봉평비나 냉수리비에 보이는 “매금왕”도 아니고 그냥 “매금”이라고만 하여 王의 칭호를 극구 금하였는 점, “東夷”로 규정했던 점에서, “태자”는 고구려의 태자로 보인다.³²⁾ 太子에 수식어 夭를 붙인 것은 특

28) 武田幸男, 1989, 「新領域の種族支配」, 『高句麗史と東アジア』, 64-65쪽.

29) 拙稿, 2020, 전개논문.

30) 방문 visit, 배망(拜望)=뵈다 : 荀巨伯遠看友人疾 《世說新語·德行》(5세기) 순거백이 멀리서(와)친구의 병을 살펴보았다. ; 돌보다 take care of, 주시하다 look out : 出門看火伴 《樂府詩集·木蘭詩》(북송) 밖에 나가 불을 지키는 동료들 돌보다, 살펴보다.

31) 집안고구려비에도 “看其碑文”이란 표현도 있다. 여기서는 “보다”, “준거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32) 木村誠는 “고려태왕”, “신라매금”이란 표기를 보면 고구려의 태자로 판단된다고 했다(2000, 「中原高句麗碑の立碑年次について」, 『고구려연구』 10, 298쪽).

이한테 이는 나이가 어렸음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前部/大使者/多亏桓奴,主簿/貴圖으로 함께 간 관료를 특기한 것은 그들의 역할 비중을 말해주며, 그 중 하나는 어린 태자를 보필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이다. 《高麗記》 기준으로, 전체 13관등 중 大使者는 제6위, 主簿는 제3위다. 관등제는 서열이 생명인데 비문에서 기재 순은 역전되어 있다. 이는 이 무렵 관등제가 아직 철저히 관철되고 있지 못했음을 반영할 거나, 하급자인 다우환노의 역할이 관등을 넘어설 정도로 중시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 의미한다. 두 사람 간, 현지에서의 업무 및 지휘관계의 비중을 강조했다거나, 혹은 같은 部 내에서의 연장자였다거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多亏桓奴는 音借표기로 고구려 인명임에 비해 貴德은 중국풍의 한자다.³³⁾ 혹여 토착인과 유입외래인 출신으로, 主簿란 행정실무에 특화된 문서 능력을 가진 특채라할 경우 관직을 부여하긴 했지만 본토인이 우위에 있었을 수 있다. 후술될 <12년조>에서도 대사자 다우환노가 주부 귀덕보다 앞에 기록되고 있어, 등장한 2회 모두 같은 양식이 관철되고 있다. 2번이나 다우환노가 앞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수행관료 중 필두였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2인 1세트로 기록된 것은 1인 단독 지휘 체계가 아니라 복수인 조직체로서 기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사자는 使者계열의 관등,관직으로 국왕,중앙의 명령을 전달하는 매개자에서 비롯되었다. “주부”는 중국식 표현이며, 고구려식 표현은 烏拙, 鬱折로 《신당서》에 그 임무가 “主圖簿者지도와 장부를 주관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 바, 지도와 장부 즉 국가통치에 가장 중요한 자료다. 아마도 기록·문서·회계·재정·작전 등을 담당했을만한 행정실무의 본령이었을 것이다.

태자가 하사한 “太霍鄒.”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데, 외교 취지에 적합한 물품이었을 테지만, 상징에 관한 구체적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의례적으로 태자 주체의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광개토태왕비에서 주변 제국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은 “躬率”“巡下”와 “教遣”의 두 가지 형태로 대분되며, 전자는 왕의 직접 행차, 후자는 관리의 파견이다.³⁴⁾ 이러한 기준을 두고 보면, 충주비의 5월의 대응은 왕이 행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교견”의 예에 속하고 그 주체는 태자와 대사자 다우환노 등이다. 아울러 태자가 국왕의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국왕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하”와 “교견”의 사이에 해당할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는 통상의 관리 파견보다는 격이 높은 행사였던 셈이고, 그것은 고구려가 이 행사에 기울이는 비중이 컸음을 말한다.

V. 관복 외교와 下敎외교 - 5월의 敎

5월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敎라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구려는 어린 태자를 내세워 신라측에게 매금의 東來를 재차 요구하고, 敎라는 문서로서 재차 종용한 것이었다. 앞선 줄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敎 부분은 “敎… 節敎… 敎… 節敎… 之.”의 구조를

33) 이런 중국풍의 “德”이 들어가는 이름은 일본서기에 보면 若德, 俊德, 德富과 같이 7세기 고구려에서 유행했던 듯하다. 백제에서 쓰이던 관등 어미의 德도 상기되는데, 德이란 유교에서 강조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34) 浜田耕策

취하고 있다. 이는 “敎… 節敎…”을 1組로 보면 2조 총 4건의 교로 구성되어 있다. “A… 節 A…”의 구조는 단양 신라적성비에 보이는 바, 충주비의 이 건과 함께 보면, 이는 고구려의 문서 양식 중 하나이고, 그것이 신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³⁵⁾ 이하 졸고의 성과에 의해 아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敎:食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用者,賜之

隨去諸_支奴客人.

2節敎:諸位 賜上下衣服

3敎:東夷寐錦 遷還來

4節敎:賜寐錦土內諸衆人_支, 造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

兼受敎跪營之.

이들 교의 내용은 “1 교하기를, 동이매금의 의복 건립처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식량을 하사토록하라, 여러 (결락)노객인들을 따라가게 하라. 2 관위를 가진 자들에게 교하노니, 상하의 의복을 하사하라. 3 동이매금에게 교하노니 오도록 하라. 4 매금토내(=신라영내) 여러 중인과 _支에게 대왕국토(=고구려 영토)의 대위와 제위(=고관,관리) 상하의 의복을 만들도록 하라, 아울러 궤영에서 교를 수령토록 하라.”로 파악된다.³⁶⁾

교1은 “동이매금의 의복 건립처”에 관한 조처다. “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用者”자는 ‘在…處用者’로 ‘…곳에 있으면서(…곳에서) 사용하는 자’로 해석될 것이다. 建立이란 고대 중국문의 용법으로 制定,설치이나 건설, 세운다는 뜻이 있다. 태자나 국군을 세운다거나, 건물을 건설하거나, 법을 제정하거나 기관을 설치할 때 建立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건립”이란 그 대상으로 건물 뿐 아니라, 사람,법도,서책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³⁷⁾ 따라서 의복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하지는 않다. 處는 명사가 되어 “곳,부문”의 뜻이 되고 “동이매금의 의복을 제정하는 곳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 전형적 중국 한문 용법에서는 약간 어색한데, 비문 찬자가 고구려 재지 토착인임을 말해주는 증좌 중 하나다. 식량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충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징발과건되어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왕의 의복을 제작하는 이라면 고급 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혹여 왕궁 혹 왕경 소속의 소속이라면 더 그렇다. 동이매금의 의복제정과 관련한 교에 “隨因諸_支奴客人.”이란 문구가 딸려 있다. “노객”은 모두루묘지와 광개토왕비를 보면, 고구려의 內臣이며 특별히 국제관계 속에서 주변 여러나라 가운데 백제왕을 지칭하기도 했다. 고구려 관리로 고구려왕과의 인격적 군신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³⁸⁾ 따라서 奴客人은 奴客 그 자체거나 그 노객에 소속된 인원들을 가리킨다고

35) 졸고, 2022, 「고구려 석비의 敎」,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36) 졸고, 2022, 「고구려 석비의 敎」,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37) 중국 용법 중에 본비의 용례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書·洪範》“稽疑, 擇建立卜筮人, 乃命卜筮.”의심이 있으면, 점치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워두고(설치하여), 점을 치게 하였다. ; 《漢書·劉歆傳》“及歆親近, 欲建立《左氏春秋》及《毛詩》, 《逸禮》, 《古文尚書》, 皆立於學官.” 유희이 친근하게 되자, 좌씨춘추와 모시, 일례, 고문상서를 고양하여 모두 학관을 세우고자 하였다. ; 漢 荀悅 《漢紀·成帝紀》“時有司不能廣宣主恩, 建立法度, 徒學細微小事以塞詔書而已.” 당시에 관리들은 황제의 은혜를 널리 퍼지 못하고, 법도를 세우지 못했으며, 오직 자질구레한 작은 일들만 배워서 조서를 채우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38) 武田幸男, 1989, 전계서, 142쪽.

볼 수 있다. 즉 고구려 관리 내지 그 수하를 딸려가게 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의복 제정과 관련된 파견 인원에게는 식량 조달 등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는 바, 노객인은 그들의 지원 내지 통솔하는 전담 인원으로 추정된다. 신라왕의 의복 제정을 위한 조직의 설치로, 고구려가 의복 제작 하사에 매우 역점을 두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교2는 “敎 諸位 賜上下衣服”는 제위 아마도 고구려의 관리에게 명하여 상하에게 의복을 (혹은 상하의 의복을)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의복이란 당연히 고구려 의복·관복일 것인데, 사여 받는 上下는 막연한 표기다. 上下라는 표현은 비문내에 “東夷寐錦上下”로 한번 더 보이는데, 거기서는 신라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2의 상하 역시 일정 지위 이상의 사람들일 것인 바, 이전까지 고구려 의복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른 아닌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일대의 사람들이 상정된다. 요컨대, 교2에서 諸位에게 그 실행을 책임지운 의복 사여 대상인 “上下”란 최대로는 신라 관리를 포함하여 기존에 고구려의 제도권, 영향권에 들지 않았던 충주 지역 혹 그 인근의 인원, 특히 지역 지배자들을 일컫는다고 생각된다. 396년 백제의 58성을 타격 획득한 직후, 충주를 중심으로 한 신 편입 지역, 직전까지 백제의 영역이던 일부 지역, 그리고 대 신라 방면을 경영하려 할 즈음에, 지역에 이전까지 고구려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지역 수장과 지배층들에게 고구려의 관복을 수여하는 것이었다. 고대 한국의 사례에서 특정 국가의 의복 사여나 착용은 직접적 그 체제로의 편입, 영향력화를 의미하였다. 진영 소속을 표시하는 가시적 효과가 컸던 만큼 당대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였음이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라와 가야 간에 신라의복의 가야내 확산을 이유로 양국 간 전쟁으로 비화된 일도 있다.³⁹⁾ 신라가 동북해안을 경영할 때 최전선 군사에게 특별히 의복을 사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⁴⁰⁾ 이는 구호인 측면도 있지만 변경지역에서 의복을 통한 영향력 과시라는 측면을 놓칠 수 없다. 이처럼 가시성이 두드러진 고구려 의복 특히 관복은 깃발, 휘장 등과 함께 고구려 왕권의 표상이었을 것이다. 의복의 사여는 고구려와 신라간 관계의 설정을 의례화하고, 의복의 착용을 통해 해당 지역 사회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가시화하는 크나큰 파급효과가 기대되었을 것이다. 이상 敎 1조 2건의 교 즉 교1과 교2에서 명령을 받은 대상 즉 명령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된 주체는 고구려의 관리관, 관련부처다. 그와 달리 교 2조의 2건 즉 교3과 교4는 신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3 “敎:東夷寐錦, 逕還來.”는 동이매금 즉 신라왕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오는 것을 상례화할 것을 문서전달한 것이다. 逕은 “...逕至國罷上廣開土地好太聖王”, “...逕...”(牟頭婁묘지:5세기 추정), 大朱留王 紹承基業逕至十七世孫國罷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광개토왕비, 424년)에 보이며, 고구려 식자층에서 “면면히 이어진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던 글자다. 그것이 시기적인 표현이라면, 물리적으로 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빈번히 왕래하는 모습을 나타내며⁴¹⁾

39) 加羅王 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 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懸,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翻欲還女曰「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加羅已富利知伽未詳報云「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遂於所經, 拔刀伽·古跋·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일본서기》 繼體기 23년 3월 시월조)

40) (소지마립간) 3년(481) 봄 2월에 (소지마립간이) 比列城을 순행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솜을넣어 만든 군복(征袍)을 내려주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

41) 逕: 《前漢·劉向傳》雜選衆賢, 罔不肅和. 《曹植·洛神賦》衆靈雜逕. 又《玉篇》途逕, 行相及也. 《古詩》

충주비문 이곳에서의 의미는 그것이다. 還이란 “다시”라는 의미인데, 來의 당위성을 강조한 표현일 것이다. 요컨대 매금에게 오라는 것을, 그것도 빈번히 자주 올 것을 명한 것이다. 敎는 고구려에서 국왕의 명령으로 쓰인 문서 형식이다. 중국에서는 한 대를 중심으로 제후나 군사, 자사의 명령에 쓰였다.⁴²⁾ 교4는 “節敎:賜 寐錦土內 諸衆人·支, 造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 兼受敎跪營之.”로, 신라 상층부 지배자에게 고구려 고관대작의 의복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다. 아울러 궤영에서 교를 받아가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寐錦土內 諸衆人·支”관련하여 “諸衆人·支”는 인명이라기 보다는 직명으로 보인다. 이들이 “궤영”에서 敎를 수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 관인이다. 支로 끝나는 신라 칭호 중에는 干支가 있으며, 이는 지역 수장의 칭호다. 교4는 “이 때 교를 내려, 매금토내의 제중인과 간지들에게 대왕국토의 대위와 제위 상하의 의복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겸하여 궤영에서 교를 수령토록 하였다.”로 해석된다. 衆人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 후술한다. 비문찬자는 賜를 즐겨 썼다. 賜란 “준다, 은혜를 베푼다”는 뜻인데 명령, 요청할 때 경칭, 겸손어로도 쓰인다.⁴³⁾ 신라시대 이 두에서는 “하시다, 이시다”의 “시”로 쓰이게 되는데, 그 연원의 자료가 충주비의 이 대목들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의복은 고구려의 의복일 것이다. 즉 신라에게 “大王國土大位諸位上下”란 “대왕국토 즉 고구려의 대위 즉 고관과 제위 즉 여러 관직자 상하”일 것이므로, 신라에게 만들게 한 것은 고구려 관직자의 의복이었다. 요컨대 고구려는 신라매금의 의복을 만들어 매금에게 하사하고, 대신 신라는 고구려 관료들의 의복을 제작해 바치게 하는 것이었다. 신라에서 고구려 관복을 제작케 하는 것은, 영토 넘어 타국에서 노력과 자원 동원이라는 징발권의 확대는 물론, 제작 과정에서 신라내에서 고구려 문화의 영향 확대를 강요하는 일종의 고구려流 정책이다. 의복 제작 및 상호 교환은 일견 상호호혜적인 형식인 듯 하지만, 실상은 양쪽 모두 고구려 의복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중심의 일방통행이었다. 이러한 의복 외교 외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궤영”에서 고구려 교서를 신라 관리가 수령토록한 명령이다. 명실상부하게 궤영을 통한 下敎체계를 확립하여 정치적으로도 上下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한 것이다.

5월초의 기사는 고구려가 신라와 상하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신라매금이 동래하여 고구려에 오기를 요구했으나 신라매금=신라왕이 기피하였기에, 고구려가 그에 대한 대응책, 즉 동래의 이행 요구 및 하교를 통한 명령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궤영”은 즉 고구려와 신라 간 소통의 공간인데, 여기서 漢과 고구려 간 “憤溝婁”가 연상된다. “책구루”는 漢나라의 조복과 衣幘을 고구려에 전달하는 장소였다.⁴⁴⁾ 고구려는 자국의 이러한 선협적 피경험을 응용하여

迨選高飛莫安宿。《王褒·洞簫賦》驚合選以詭譎。《注》合選，盛多貌。又駁選。《陸機·文賦》紛葳蕤以駁選。《注》文辭壯奮也。：《正韻》에서는 '복잡하게 섞이다'라는 의미。《前漢·劉向傳》"많은 현자들이 섞여 있으나 모두 엄숙하고 조화롭다", 《曹植·洛神賦》"여러 신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玉篇》에서 "迨選"란 '서로 행하며 미치다'라는 뜻。《古詩》"높이 날며 안정되게 머물지 못하다"。《王褒·洞簫賦》에서 "합쳐져서 복잡하게 되며 기괴한 상태에 이르다"는 표현이 있다。《注》"合選"는 '성대하고 많은 모습'。"駁選"을 《陸機·文賦》에서는 "무성하게 장대하게 말들(마차)이 이어지고 있다"。選至란 "빈번하게 이르다" "꼬리를 물고 연이어 오다"는 뜻이다。

42) 줄고, 2022, 전개논문.

43) 賜 【說文】予也。【篇海】錫也。【禮·曲禮】三賜不及車馬。【註】三賜，三命也。【疏】受命即受賜。【公羊傳·僖二年】虞郭之相救，非相爲賜。【註】賜，猶惠也。《儀禮·士相見禮》某不足以辱命，請終賜見。：천박한 제가 감히 당신의 명령에 누를 끼치기에도 부족하오나, 제가 끝내 당신을 뵈기를 청합니다.

44) 漢時 賜鼓吹伎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麗令主其名籍。後稍驕恣，不復詣郡，于東界築小城，置朝服衣

그 입장을 바꿔 신라와의 관계에 적용한 것에 다름아니다. 즉 “궤영”은 고구려관 “책구루”로 이곳을 고구려-신라 간 소통과 교역의 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5월의 교서는 물론, 제작 의복이 12월 전에 완성되었다면, 아마도 역시 “궤영”을 통해 상호 전달되었을 것이다.

VI. 募人과 신라왕의 于伐城 도래 - 12월 상황의 전개 (1)

十二月廿七日庚寅

東夷寐錦上下至于伐城.

教：來 前部太使者多弓桓奴,主簿貴, 募人三百,

新羅土內幢主 下部拔位使者 補奴, 位使者 盖盧 共募人⁴⁵⁾

12월 27일 경인일에 동이매금과 상하는 우벌성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5월조에서 교3에서 고구려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신라의 대응이다. 동이매금은 신라왕이고, 上下는 신라왕을 수행한 신라 측 관료들이다. 이들이 당도한 우벌성은 어디였을까.⁴⁶⁾ 초기에는 비석이 발견된 충주로 보았다.⁴⁷⁾ 그 후 손영중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伊伐支縣”에 주목하여, “于”와 “伊”는 음으로 통하고, “城”과 “支”는 뜻으로 통한다고 보고, 순흥으로 비정하였다. 武田幸男은 우벌성의 “伐”에 착안하여 이것을 죽령이남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음이 비슷한 곳들을 찾아, 손영중과 같이, 伊伐支縣(풍기 부근, 인풍현)을 들고, 나아가, 虞風縣(울산 : 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웅촌면과 양산시 웅산면)과 伊火兮縣(안동 부근 緣武縣 : 현지명은 청송 안덕면)을 들었고, 서영일 역시 영주 풍기읍으로 비정하였다.⁴⁸⁾ 伐에 착안한 것은 탁견이다. 한편 홍성화는 이벌지현의 신라 때 이름이 隣豐縣인데, 소백산맥의 伐嶺과 맞닿은 영현 중 이와 이름이 유사한 殷豐縣에 주목하고 그곳의 伐嶺(벌재)에 비정하였다.⁴⁹⁾ 새로운 사료를 발굴한 것은 혜안이다.

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漣. 溝漣者, 句麗名城也. 漢나라 때에 북과 피리와 樂工을 하사하였으며, 항상 玄菟郡에 나아가 [한나라의] 朝服과 衣幘을 받아갔는데, [현도군의] 高句麗令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그 뒤에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玄菟]郡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상에 작은 城을 쌓고서 朝服과 衣幘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幘溝漣라 부른다. 溝漣란 [고]구려 사람들이 城을 부르는 말이다.

45) 이전 줄고(2020, 전계논문)에서 이 부분 관독과 표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전략)募人新羅土內衆人, 幘動(후략)”[수정전]을 “(전략)募人. 新羅土內衆人 兵動(후략)”[수정후]으로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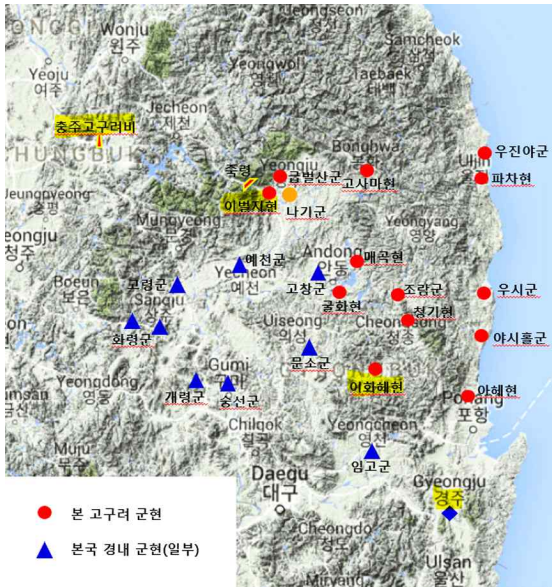
46) 우벌성 비정에 대한 연구사는 홍성화, 2023, 「6세기 신라의 忠州 진출과 娘城」, 『동아시아고대학』 69, 동아시아고대학회, 134~135쪽.

47) 변태섭, 1979, 전계논문, 43~45쪽 ; 김정배, 1979, 「중원고구려비의 몇 가지 문제점」, 『사학지』 13, 88쪽 ; 신형식, 1979, 「중원고구려비의 일고찰」, 『사학지』 13, 75~76쪽 ; 그 외 ‘伐城’으로 보아 신라 도성인 徐羅伐城, 徐伐城이라는 견해도 있었다(이병도, 1979, 전계논문,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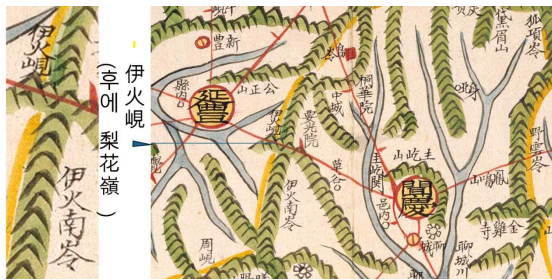
48) 손영중,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30쪽 ; 武田幸男, 1980,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19쪽 ; 武田幸男, 1991,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231쪽 ; 서영일, 2000, 「중원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성과 관방체계 -우벌성과 고모루성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0, 501쪽..

49) 홍성화, 2023, 전계논문, 135쪽. 관련 사료는 殷正縣 本赤牙縣 景德王改名 今殷豐縣.(《三國史記》地理 1 尙州조)

이렇듯 기존설의 공통점은 소백산맥 이남 혹은 이동에서 찾되 음이 비슷한 곳이라는 점이다. 한편, 《동여도》에 보면, 문경에서 괴산 사이 이화령(梨花嶺)의 고명이 伊火峴으로 나와 있어 새로운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라에서 火는 訓借로 伐의 音借와 통용된 바 있다.⁵⁰⁾ 이들 몇 개 후보들이 “우벌성”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그치고자 하며, 상론은 별도로 미룬다.



<그림 3> 《삼국사기》 지리지에 “본고구려”지와 이별지·이화혜 (도면은 장병진, 2022에서 전재·각색)



<그림 4> 《동여도》 伊火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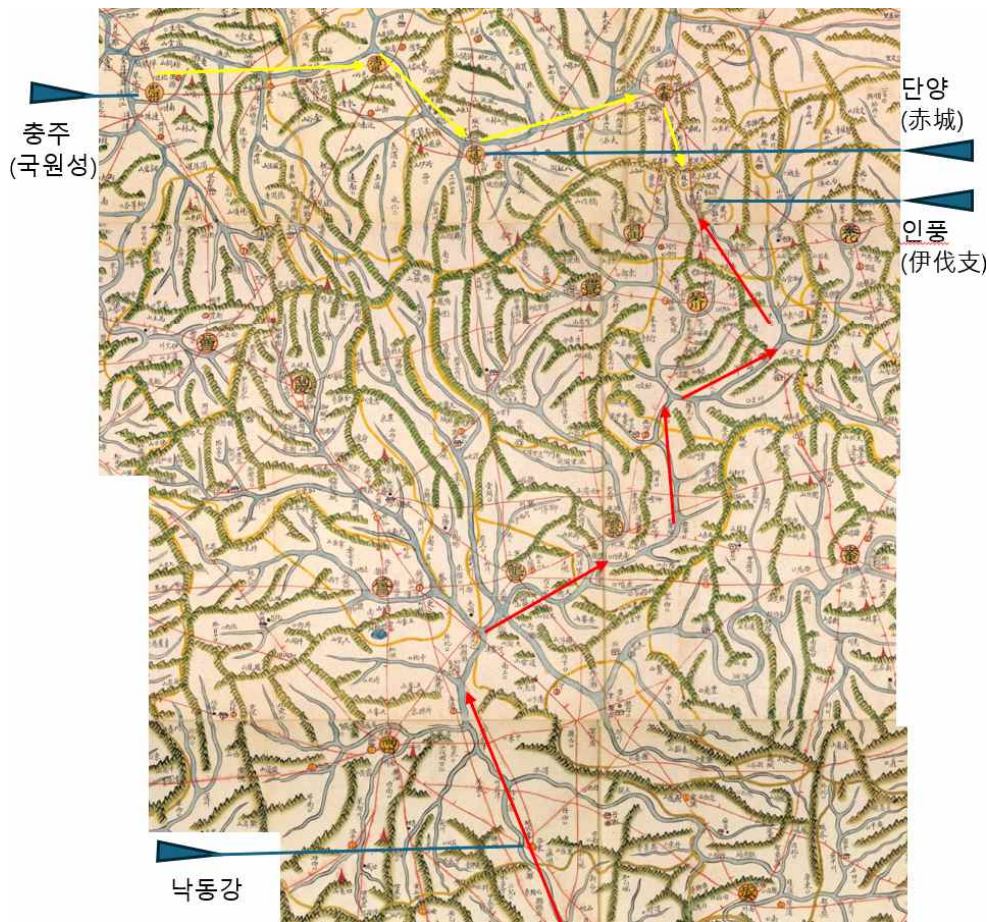


<그림 5> 경주에서 청송(伊火峴)까지 경로

다음, 분명 고구려의 5월 교에서는 교서를 충주 비석 건립지 근방이 유력한 <궤영>에서 교서를 수령할 것을 지목했지만, 신라왕이 당도한 곳은 <궤영>이 아니라 <우벌성>이었다. 이름이나 정황으로 앞서 추정된 <궤영>설치의 취지에 따르면 응당 <궤영>이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궤영>(충주)가 아니라 소백산맥 이남 <우벌성>(영주 부석면, 영주 풍기읍, 은풍 벌령, 청송 안덕면, 이화령 부근)으로 신라왕이 오게 된 것은 양국간 교섭과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다. 신라왕의 “**ㄹ**” 避가 교섭 조건에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新羅土內’는

50) 월지(안압지) 신라 목간에서는 “가오리”를 “加火魚”로 표기하고 있다. 줄고, 2007,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생활」,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128-129쪽. 火는 訓借, 伐은 音借로 통용되고 있다. 火王郡, 本比自火郡, 一云比斯伐(삼국사기 지리지).

소백산맥 이남 지역으로 보기도 하는데⁵¹⁾ 伐이 신라지명어미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충주비 시점에서 우벌성은 신라의 영토가 되는 셈이다. 기왕에 우벌성에 비정되는 곳들 중에 이벌지현(영주 풍기,부석면 설)과 이화혜현(청송 안덕면), 우풍현(울산)은 모두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원래 고구려땅으로 나오며, 소백산맥 이남이다. 이곳이 언제 고구려령이 되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적어도 충주비 단계에서는 아니었던 셈이 된다. 이 ‘본래 고구려(소속)’ 지역에 대해서는 고구려 당주가 주재했던 곳이라고 보는데,⁵²⁾ 그 지배의 실상은 고구려의 군현제 편성이 아니라 재지 신라 수장의 지배가 온존되는 가운데 경제군사적 부담을 지게 하는 형태였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어,⁵³⁾ 고구려로의 완전편입이 아니라 제한적 영향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짙다. 즉 우벌성은 신라왕 도래 당시는 신라영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석 말미에 일련의 사람 모집과 군사활동 이후, 마지막으로 우벌성에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그 후 우벌성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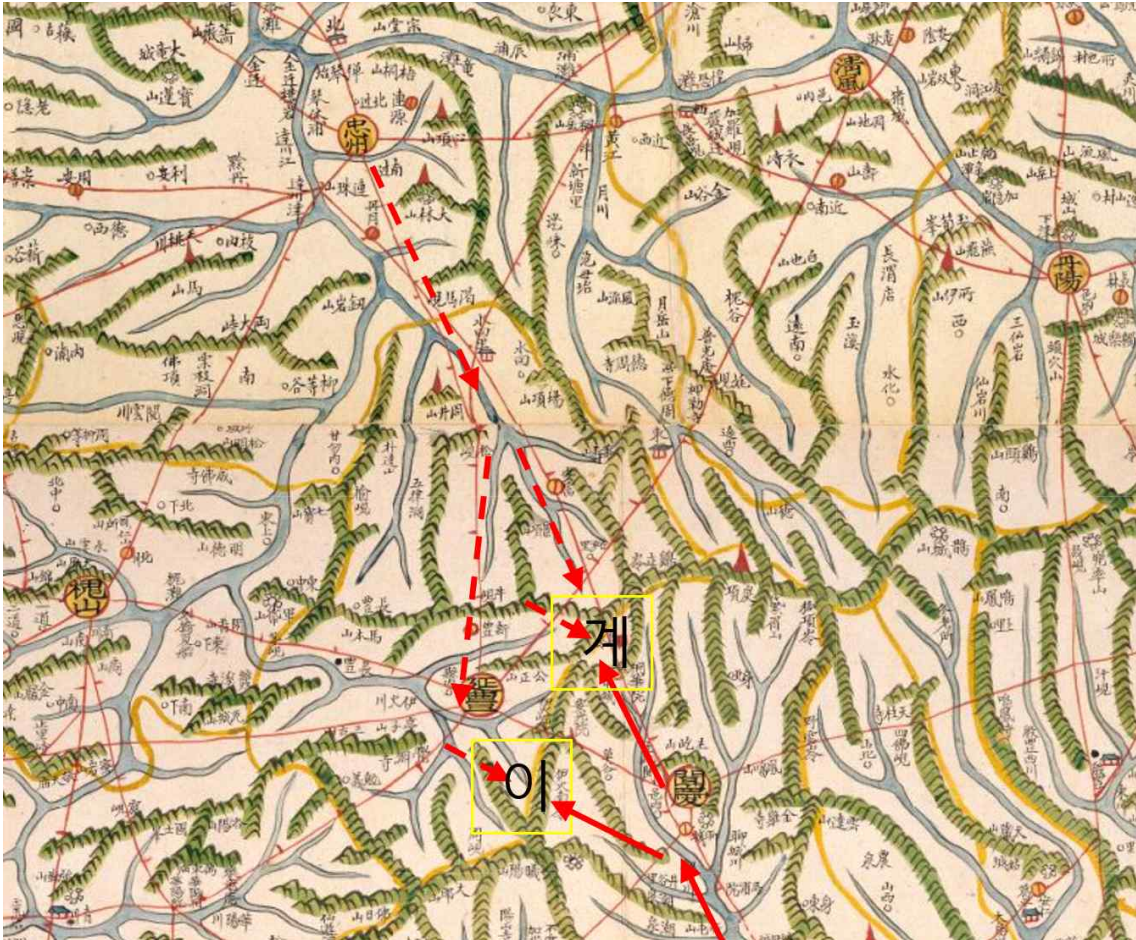


<그림 6> 순흥 인풍[伊伐支]와 충주(고구려)와 낙동강(신라)에서의 경로

51) 이기백, 1979, 전계논문, 38~39쪽 ; 鄭雲龍, 1989,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7~27쪽.

52) 鄭雲龍, 1989, 전계논문, 22~23쪽.

53) 관련 연구사에 대한 정리는 아래 논문 참조. 장병진, 2022, 「5세기 고구려의 영남 북부 지역 지배에 관한 새로운 접근」, 『고구려발해연구』 71, 고구려발해학회.



<그림 7> 이화현(伊火峴)[=이화령],계립령과 충주(고구려방면) 및 문경(신라방면)에서의 경로

경북 영주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본래 고구려 捺已(奈已)縣이었다고 되어 있는 만큼 초 접경 지역 최전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이 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주는 500년 소지마립간이 행차하여 토착세력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捺已郡(奈已郡)이었다. 순흥면에는 고구려 영향이 농후한 지역 수장의 벽화고분이 유명하다. 읍내리 고분에서는 己亥(年)명(419,479,531년설) 목서 벽화가 발견된 바 있고, 태장리 어숙묘에서도 乙卯年(595년)명 목서가 알려져 있다. 6세기 후반 혹은 말기로 추정되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지명은, 경북 문경시 산양면, 예천군 은풍면,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안동 고창군과 그 아래 일직현, 의성군 옥산면과 비안면, 안계면, 단밀면,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옥천군 이내면 이원리, 충주시 대소산면과 주덕읍이 보인다.⁵⁴⁾ 신라는 낙동강을 통해 상류 지역 구석까지 교통하였는데, 영주를 포함하여, 우벌성 대부분의 후보지는 그 교통로 속에 위치한다. 아울러 청송 역시 상기 여러 후보지보다 훨씬 남쪽이고, 울산은 경주에 매우 근접해 있다.

광개토태왕비에서 백제의 경우 跪王이라 특기한 것과 달리 충주비에서는 跪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고 <궤영>에 간 것도 아니었다. 이 점에 주목하면, 우벌성에 온 신라왕의 跪拜 의식

54) 줄고, 2021, 「성산산성 목간에 보이는 신라의 지방경영과 곡물 인력 관리」, 『동서인문』17.

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왕은 이렇듯 고구려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來”를 실행하기는 하되 고구려의 본영인 <궤영>에는 가지 않고, 대신 소백산맥 이남 아직 고구려의 영향권이 높지 않은 신라 최북단의 성(혹은 내륙의 성)에 가는 것으로 타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궤영>에 가지 않았으므로 궤배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이어지는 문장에 보이는 下敎의 장소로는 <궤영><우벌성>을 모두 상정해볼 수 있다. 5월에 내려진 敎는 <궤영>에서 받으라고 한 敎가 관철되었다면 <궤영>이다. 이 때 신라왕의 도래 요구가 애당초 <궤배>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과 연계되는 생각은 후술한다. 신라왕이 우벌성에 행차할 때는 당연 신하를 대동하였을 것이고, 그 점에서 12월에는 下敎를 그 자리에서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보인다.

이윽고 고구려는 敎를 내려서, 전부 태사자 다우환노와 주부 귀(덕)등으로 하여금 3백인을 모집케 하였다. 즉 동시에 신라토내 즉 신라영내에 있던 당주들로 하여금 사람을 모집토록 하였다. 그 당주 이하 관독은 “下部拔位使者補奴·躬疏奴·起圍·圍荷·盖盧 共衷募人.”으로, 해석은 “하부의 발위사자인 補奴·躬疏奴·起圍·圍荷·盖盧가 함께 충심으로 사람을 모집토록 하다”로 보아둔다. 다우환노와 귀덕은 이미 5월에 태자와 함께 왔던 관료들인데, 12월에 다시 왔거나 줄곧 남아 근무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앞에 얹혀진 “來”는 “와있던”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아, 후자를 택한다.⁵⁵⁾ 즉 태자는 귀환하고 실질 책임자인 이들이 남아 충주 국원성에서의 업무를 지속해오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하부 발위사자인 補奴 등 5인(혹은 4인)이 함께 사람을 모집하도록 한 것이다. “신라토내 당주”라는 표기로 보아서 신라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우환노 등이 인원 3백을 모집한 곳이 고구려영내였는지, 신라 영내였는지는 명확치 않은데, 다우환노가 모집한 것과 나누어 기록한 것을 보면, 고구려 영내 특히 충주 지역 인근이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고구려는 각각 크게 두 개의 모집 단위로 나뉘어 충주와 그 부근의 고구려 영내에서 3백인을, 또 신라 영내에서 불특정 인원을 모집한 것이다. “신라토내”에 제주하던 幢主라는 관직은 중국 남북조시대와 신라에도 보인다. 幢이란 깃발, 방패, 지휘봉 등의 뜻이고 漢대 자료에서부터 보여 그 유래가 오래다.⁵⁶⁾ 당주란 본래 旗主, 旗頭란 뜻이기도 한데, 北魏의 宿衛領兵官의 관직에 보이며 宿衛 혹은 統兵의 책임을 맡은 무관이었다.⁵⁷⁾ 1幢은 보통 5백명을 단위로 하니,⁵⁸⁾ 당주는 5백명을 이끄는 군사령관인 셈이다. 고구려의 당주와 관련해서는 다른 문헌이나 문자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충주비가 유일하다. 신라의 당주는 幢主란 군관직은 6세기 중엽으로 보이는 단양 신라 적성비와 561년 신라 진흥왕 창녕 칙경비 시대부터 보인다.⁵⁹⁾ 충주와 비교적 근접한

55) 줄고, 2020, 전개논문.

56) 幢: 《說文》旌旗之屬. 깃발의 종류, 《揚子·方言》翻幢, 翳也. 楚曰翻, 關西關東皆曰幢. 도장(翻幢)은 방패다. 초(楚) 지방에서는 이를 도(翻)라 하고, 관서(關西)와 관동(關東)에서는 모두 당(幢)이라고 부른다. 《前漢·韓延壽傳》建幢檠, 植羽葆. 《注》晉灼曰: 幢, 旌幢也. 師古曰: 幢, 麾也. 깃발과 기를 세우고, 깃털로 덮은 보호막을 세웠다. <주>진작(晉灼)이 말하길, 당(幢)은 정당(旌幢)이다. 사고(師古)가 말하길, 당(幢)은 지휘봉이다.

57) 《資治通鑑·宋明帝泰始二年》幢主楊仲懷將五百人居前. 당주 양중회가 5백명을 이끌고 앞에 나섰다.

58) 《宋書·索虜傳》汝陽城內有虜一幢, 馬步五百. 여양성 안에 오랑캐 한 부대가 있고, 기병과 보병이 5백명이었다.

59) 신라의 幢에 대한 정리는 아래 논문 참조,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門題』, 東京: 東洋文庫: 武田幸男, 2020, 新羅の法幢軍団とその展開, 新羅中古期の史的展開, 勉誠出版, 초출 1981

단양적성비에서는 “鄒文村(지금의 의성)幢主”“勿思伐城幢主”가 보인다. 통일신라 때까지 포함하여 자료가 비교적 많은 신라의 사례로 보면 당주는 軍官이었다. 중국,신라의 사례로 보나, 글자의 뜻으로 보나, 고구려의 당주 역시 군관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는 이들 당주의 사람 모집은 軍事와 관련되는 일임을 짐작케 해준다. 충주비에 보이는 신라토내 당주 3인은 모두 고구려 관등을 가진 왕경 출신의 고구려인들이었다. 당주 3인 모두 下部 출신이다. “하부”는 원래 “消奴部”로 국왕을 배출하던 유력부였다.⁶⁰⁾ 북위의 사례를 보면 당주는 1당의 지휘관으로 1당은 5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고구려 당주들이 모집하는 인원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기존 군단 “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창설하거나 혹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둔다. 요컨대 군대 및 관련 역역 관련 징발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연동하여 동시에 모집을 감행한 대사자 다우환노 그룹의 3백명 역시 같은 맥락으로 추론한다.

VII. 募人의 목적과 활동 - 12월 상황의 전개(2)

12월 敎 이후 후속 문장은 아래와 같다.

新羅土內衆人 兵動(이상 전면)

우선 전면의 마지막 문장인 이 부분의 주어는 “新羅土內衆人”이다. “衆人”은 불교용어이기도 한데, 비문에서는 신라토내에서만 한정되어 기재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 중국 고래의 의미는 (1)은주시대 농업생산자, 하층평민, (2)일반인, 군중, (3)모두란 뜻을 가진다.⁶¹⁾ 불교에서는 “諸衆”이란 “여러무리, 중생”을, “諸衆生”이란 “모든 중생”을, “諸衆會”란 “여러 대중 모임, 교단, 수행공동체”를 의미한다.⁶²⁾ 불교에서 “衆人”은 번뇌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며, “衆生”은 인간 뿐아니라 동물까지 포함된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다. 이들은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도록 구제해야되는 대상이다. 신라 백성은 고구려가 혹은 고구려왕이 구제해야할 대상이란 이념과 사상이 깃든 용어다. 이는 고구려왕이 “聖王”으로 일컬어진 것과 맥락이 단는다. 불교에서 “성왕”이란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며 지혜로운 왕이다. 轉輪聖王이 그 예다. 牟頭婁모지에서는 광개토왕을 “國罡上廣(土)地好太聖王”으로, 고국원왕을 “國罡上聖太王”으로, 시조 추모왕을 “河泊之孫日月之子鄒牟聖王”“河泊之孫日月之子,聖王”으로 일컫고 있다. 즉 충주비문에서 衆人은 신라인을 가리킨다. 아울러 5월조에 “寐錦土內 諸衆人·田支”의 표기로 볼 때, 또 이들이 “궤영”에서 교를 수령하는 존재인 점으로 볼 때, “중인”이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60) 《한원》인용 《고려기》에 따르면, 下部는 西部,右部,白部,消(涓)奴部로 불리었다. 《삼국지》(고구려)에 “本消奴部為王 稍微弱 桂婁部代之 五部皆貴人之族也.”라 해서 하부의 전신인 소노부는 원래는 국왕을 배출한 유력부였다.

61) 《老子·第二〇章》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 《晉書·卷六六·陶侃傳》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

62) 《論語·子罕》諸衆刑罰, 不如一夫. : 불경에서의 용례는 부지기수라 열거는 생략한다. 도쿄대학 대장경 검색 사이트 “SAT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2018(u-tokyo.ac.jp)”를 참조바람.

일정 지위를 가진 귀족이나 재지수장에 해당한다. 비문에서 신라의 관리를 표기할 때는 이처럼 “제중인”“간지”“상하”“중인”과 같이 구체적 관직이나 이름을 열거함 없이 막연하고 흐릿한 칭호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이는 신라를 “東夷”로 취급하는 고구려 중심 이념을 기반으로 한 의도적 필법이다. 敎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는 결락부가 많고, 앞면 하단 다음에 좌측면으로 연결되는가 우측면으로 연결되는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蓋廬共衷募人”까지는 확실하다 볼 수 있다. “兵動”은 병사나 군대의 출동을 일컫는다⁶³⁾. 즉 이 대목은 “신라토내 중인”이 주체가 되어 군대를 출동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12월 敎에서 모집한 인원 3백이상은 이 “兵動”의 “兵”으로도 충원되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⁶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면 중심의 3면비일 경우 “전면→우측면→좌측면”이 된다. 우측면에서는 “…前部…”가 읽힐 뿐이어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없어, 그 이상 기술이 어렵다. 우측면에서 겨우 확인되는 “前部”는 전면에서 2회 보이는 大使者 多弓桓奴·主簿貴圖 일행의 소속부와 같다. 전면 내용으로 보는 한, 이들이 고구려의 충주 경영의 중심그룹이다. 요컨대 충주 경영에는 왕경 前部 사람들이 중심이었다고 추정해둔다.

좌측면은 결락으로 시작된다. 미판독 결자가 많아 표점이 용이하지 않은데, 고립된 단어를 유추하여 맥락을 추정해볼 수 밖에 없다. 판독과 표점 시안은 아래와 같다.

百城村舍敢復抄法, 刺功百, 射功九十, 益節人, 判功二百六十四, 倭十太王國土黃慎力陽架上有親東夷寐錦土方裙欲沙斯邑古 共軍至于伐城守. 于時,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躬央.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躬央” 앞의 하시모토 교수의 판독 “于時”가 옳다고 생각하여,⁶⁵⁾ 이에 따른다. “…城村舍…”에서는 “城”과 “村”이 주목되는데, 이는 광개토태왕비에서 지역을 파악하는 기본 단위였다.⁶⁶⁾ 어떤 성의 무슨 촌이거나, 성과 촌에 어떤 행위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상정할 수 있다. “舍”에는 집, 숙소, 객사, 군영 등의 뜻이 있다.⁶⁷⁾ 신라에 관직에 舍人이 보이는 바, 거기서 舍는 官司 官舍류로 보이며, 백제 출토자료에도 “舍”가 보이는 바, 軍舍·官署·官舍·客舍 혹은 宿所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⁶⁸⁾ 중국자료에서 一舍는 30리이기도 하고,⁶⁹⁾ 舍는 또한 동사로 “쉬다”는 의미도 있다.⁷⁰⁾ 충주비에서 표점에 따라 村舍 즉 “村的

63) 《後漢書 / 列傳 凡八十卷 / 卷二十四 馬援列傳》 兵動有功, 師進輒克. 軍대가 출동할 때마다 공이 있고, 군사가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다.

64) 앞서 줄고에서는 12월의 모집인원이 5월 교에서 발령된 의복제작을 위한 인원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정했던 바, 실고였다. 판독 수정과 맥락 해석 수정을 바탕으로 이전 논지를 본고와 같이 수정한다. 줄고, 2020, 전개논문, 48-49쪽.

65) 하시모토 시게루, 2022, 전개논문.

66) 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20년경술(410)조 뒤), 於是 得五十八城村七百(6년병신(396)조).

67) 집house 《禮記·曲禮上》將適舍, 求毋固.; 숙소, 여관, 객사 inn, tavern 《周禮·天官·掌舍》掌舍掌王之會同之舍.; 군영 barracks 《公羊傳·宣公十二年》莊公親手旌, 左右攜軍, 退舍七里.

68) 김근영, 2024, 「北舍'명 토기로 본 백제의 '舍'에 대한 기초적 검토」, 『한국목간학회 제48회 정기발표회 자료집(2024년10월11일)』, 한국목간학회, 31~43쪽.

69) 《左傳·僖公二十五年》晉侯圍原, 命三日之糧, 原不降, 命去之. 退一舍而原降. 《左傳·僖公二十八年》退三舍辟之.[晉杜預注: 一舍三十里].

숨”로 볼 수도 있다. “…城,求[]村,숨…”로 끊으면 숨는 “(30리를 가서) 머물러 쉬고”로 붙여지도 생긴다. 결자가 많아 단언이 어렵지만, 결국 城과 村에 관한 일련의 군사 혹은 관리활동을 하면서 전개되는 맥락에서 등장되는 것으로 休息까지 포함하여 進軍 혹은 進行을 나타내는 단어일 것이다. “抄”는 광개토왕비에 “抄得莫[]羅城加太羅谷”(8년무술조:398년)에도 보이듯 “抄掠하다,약취하다”는 뜻이므로,⁷¹⁾ “復抄…”는 “다시 …을 초략하고”이므로 “…”에는 초략의 대상이 된 곳이 적혀있을 터이나 읽을 수 없다. 적대세력에 대한 공격을 기술한 대목이다.

이어 오는 문구는 “刺功百[]·射功九[十][]·益節人 刺[]·[]功二百六十四[]”인데, 이는 “刺功이 백(몇십몇), 射功이 90몇, … 또 이 때 사람이 刺[]이 몇, []功이 264[]”로 풀이된다. 여기에 보이는 “功”에 대해서 소생은 “功夫 즉 노동인부”설을 주창하고, “찌르는 공(동원자)이 百…화살을 쏘고[射]”로 해석한 바 있다.⁷²⁾ “도검 관련 功夫, 활 관련 功夫”란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⁷³⁾ 이에 대해 “공적(공훈,공로)”설이 제기되었다.⁷⁴⁾ 공적설은 월성해자 목간의 “功以受波玆日 煞功十二 … 受一伐”를 근거로 하여 煞功은 “전투에서 적병을 죽인 공”이듯, 충주비의 “刺功”은 “찔러 세운 공”, “射功”은 “활로 쏘아 세운 공”으로 해석하였다.⁷⁵⁾ 煞功은 “(적병을)죽인 공적”로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숫자에 대한 해석이다. “자공+몇”, “사공+몇”은 결국 (칼이나 창으로)찔러 죽인 적병이 몇 명, (활로)쏘아 죽인 적병이 몇 명이냐에 대한 공적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전장에서 공적을 논할 때 죽인 숫자를 가지고 전공을 논할 뿐이지,⁷⁶⁾ 죽인 도구와 방법에 따라 전공을 구분해 논한다는 것은 실제 전장에서 실효성이 낮아보인다. 따라서 “煞功+몇”의 예만 등장하는 월성해자 목간의 경우는 죽인 공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충주비에서 “刺功+몇”“射功+몇”가 동시에 보이는 사례에 적용은 따르기가 저어진다. 또 이를 刺射之具를 제작하는 공정에 동원된 인력, 즉 刺具와 射具를 만드는 동원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⁷⁾ “刺”는 “찌르다,죽이다”의 뜻이고, “射”는 “쏘다”는 뜻이다. 刺(刺)射가 함께 쓰이면서 찌르고 쏘며 공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⁷⁸⁾ 즉 刺와 射는 고대 이래 적을 상대하는 전형적 전투 혹은 제압 방법을 수식하는 용어로 쓰였다. 功이란 役⁷⁹⁾이고 功役 즉 力役에는 축성 등 노력동원과 함께 군역이 필수 항목이다. 이에 이를 前稿와 같은 선상에서 功은 功力이 기본의미로, 여기서는 功夫의 의미로 쓰인

70) 光武自薊東南馳 晨夜草舍 [舍, 止息也]. 광무제가 계(薊)에서 남동쪽으로 달려가면서 밤낮으로 풀로 지은 집에서 쉬었다.[숨는 머물러쉬는 것] 《後漢書》馮岑賈列傳(馮異)

71) 抄：《廣韻》略取也 《魏志·太祖紀注》抄略諸郡

72) 줄고, 2020, 전계 논문, 42쪽.

73) 여호규, 2020, 앞의 논문, 126쪽.

74) 하시모토, 2022, 전계 논문, 503,507쪽.

75) 하시모토, 2022, 전계 논문, 506~507쪽.

76) 《戰國策·秦策三》大破二國之軍, 流血漂鹵, 斬首二十四萬. 《後漢書·朱祐傳》以克定城邑為本,不存首級之功.

77) 나유정, 2024, 『고구려의 대민편제와 수취체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박사논문, 1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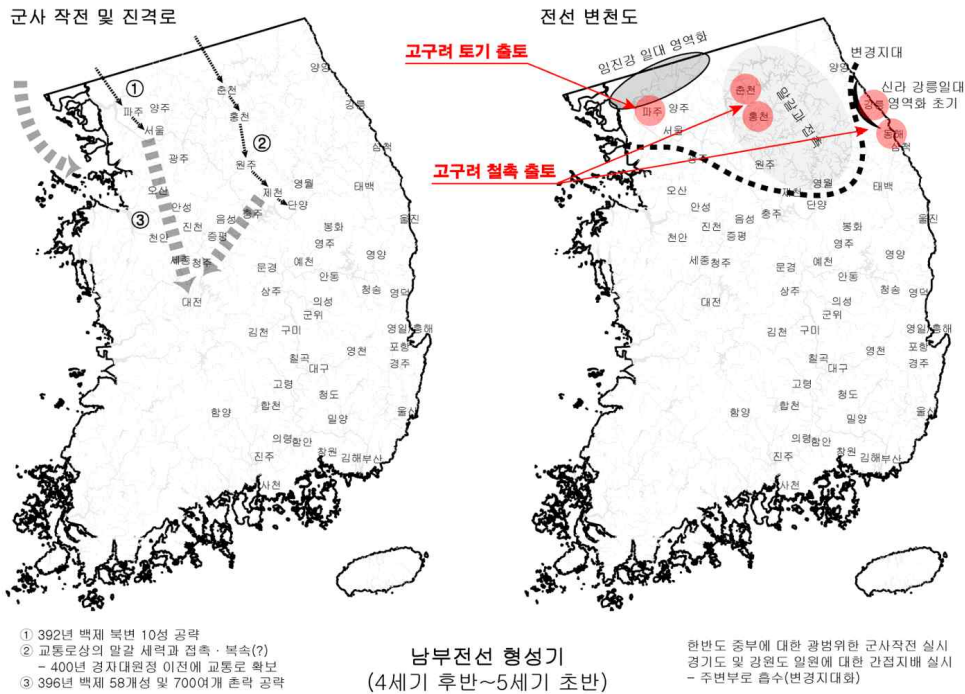
78) 虎食其背,火燒兩足,琖魔羅卒遠刺射之. 호랑이가 그의 등을 먹고, 불이 그의 두 발을 태웠으며, 엄마라(엄라대왕의 줄개)가 멀리서 창으로 그를 찔러 쏘았다. 《大正新脩大藏經(大乘集菩薩學論·空品之二)》: 日進以單騎馳之, 士二百踵進, 左右擊刺射 皆應弦仆, 虜大驚辟易. 일진(日進)은 홀로 말을 타고 달려나가니, 병사 200명이 뒤따라 진격하였다. 좌우에서 창으로 찌르고 활을 쏘았는데, 화살을 쏘자마자 적들이 모두 쓰러졌다. 적군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新唐書(吐蕃上)》

79) 자료를 모은 고증은 나유정, 2024, 전계논문 참조.



것으로 파악하여, “찌르는 功夫가 몇 사람”, “쏘는 功夫가 몇 사람”인 것으로 파악해두고자 한다. “**刺功百**射功九[十]益節人**刺**二百六十四”구간의 문장에서 “(刺功+몇)+(射功+몇)…, 益節人**刺**…(…功+몇)”인 점으로 “무슨 공+몇”이 연속되는 점, 또 益이 “또, 더하여”란 뜻이란 점에서, “무슨 功+몇”의 나열 기재로 보아, “[**刺功+百**]+[**射功+九**][十], 益節人, [**刺**]+…[**功+二百六十四**]”로 추정하고자 한다. “찌르는 功夫가 백 몇 (사람), 쏘는 공부(사람)가 구십몇(사람), 더하여(혹 또) 이 때⁸⁰⁾ 사람이 찌르는 공부가 몇, … 무슨 공부가 2백6십4”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節은 비문 5월조에서 “**教…節教…**, **教…節教…**”와 같이 내용이 반복될 때 사용된 전례가 있다. 益 역시 “**丁廿二**, **益丁四** : 정 22(인), 또 정 4(인)”(함안 성산산성 목간 : 가야1602 : <그림 8>⁸¹⁾에서 보이는 바, 丁의 추가, 합산 시 사용되고 있다. 한편 “功+몇”은 이렇듯 지적인 사료의 “丁+몇”과 함께 본 충주비 “**募人三百**”의 “人+三百”과도 同工이다. 즉 칼, 창, 화살 같은 인명살상관련 도구를 다루는

<그림 8> 함안 기능자의 수를 종류별, 조직별, 혹은 회차수별로, 나열 기재한 대목이다. 결국 성산산성 목간 이는 기능에 따른 인원의 편성을 기록한 내용이며, 이 문장 앞에 “法”이란 판독이 틀리지 않다면, 이 편성과 관련된 준거된 관련법에 관한 글자와 문구라 추정해둔다.



<그림 9> 4세기 말 고구려 유물 출토 범위

(신광철, 2022, 『관방체계를 통해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353쪽. 전체)

80) 節에는 “이 때”, “지휘하다”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후자를 택해 節人을 지휘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유정, 2024, 앞의 논문, 142쪽.

8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의의』, 121쪽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한국의 고대목간』, 154쪽(도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현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원의 당시 명칭이다.

이러 “太王國土”와 “東夷寐錦土圀”(東夷寐錦土圀)가 보이는 바, 사건전개의 공간적 배경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은 “…共軍至于伐城守。于時,古牟婁城守事·下部 大兄 躬央.”로 맺어진다. 이는 “…가 군과 함께 우벌성에 와서 지켰다.” 혹은 “ …과 함께 군이 우벌성에 와서 지켰다.”가 될 것이며, “이 때 고모루성 수사 하부 대형 여왕(이다).”이다. 우벌성 守城으로 비문은 매듭을 짓게 된다. 우벌성은 신라왕이 12월에 도래한 곳이기도 하다. 우벌성을 지키는 주체는 앞부분 마멸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비문에서 “함께”란 글자는 예외없이 고구려측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로 고구려 군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즉 비문의 일련의 긴 기록 속에서 우벌성이 결국은 고구려의 점령이 확인되는 형국으로 결과되었던 것이다. 앞서 추정과 같이 신라왕이 당도할 무렵에는 신라영내로 추정되었던 그곳에 결국에는 고구려군이 진주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군의 구성은 고구려 당주 아래 신라에서 모집한 인원으로 구성된 인원이었을 것이다. 즉 고구려 幢主를 중심으로 신라인으로 구성된 幢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에 고모루성 수사를 기록한 것은 그가 비문과 관련하여 이 방면의 임무를 맡았던 지휘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⁸²⁾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초기 비문 특히 524년 울진 봉평비의 사례를 보면, 비석은 居伐牟羅 男弥只村으로 여겨지는 울진 봉평에 세워졌는데, 비문 가장 말미에는 거벌모라의 상급 행정단위로 여겨지는 悉支(지금의 삼척)의 책임자인 軍主의 이름과 그 수하인 居伐牟羅(지금의 울진)의 수장인 下干支가 새겨져 있다.⁸³⁾ 즉 충주지역은 당시 고모루성수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古牟婁城守事는 충주지역에서 일어난 비문에 보이는 일련의 행사, 즉 태자와 그 수행자인 대사자 다우환노 등 왕경에서 파견되어온 이들에 대한 영접,의전을 비롯,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체 업무와 관련, 그 지역 내 최고 책임자였을 것이다. 결국, 12월 3백인 이상의 募人은 여러 기능의 전투 부대 편성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지역 城과 村 보위나 점유에 활용된 듯 하다. 그 무대는 고구려와 신라 영토에 걸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얻은 것은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진주시킴으로써 우벌성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완성한 것이었다. 이 대목은 6세기 전반에 신라의 위협을 받고 있던 가야에게 구원을 명분으로 군대의 진주 및 지속 유지를 도모했던 사건을 연상케 한다.⁸⁴⁾ 방어를 명분으로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82) 고모루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한 기존설의 정리는 다음이 참조된다. 박중서, 2022, 『고구려 남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71쪽 : 본고에서 고모루성에 대한 상세한 추론은 생략하는 바, 신광철의 연구를 참조하여 필자는 남한강 상류 방면이라 보고 있으며, 기존 비정 가운데 후에 신라의 복원경이 되는 원주가 좋은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9>) 신광철, 2022,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353쪽.

83) 503년 포항 신라 냉수리비는 珍而麻村을 배경으로 敎를 내리는 내용인데 비문 말미에 촌의 수장인 村主가 기록되고 있으며, 그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524년 울진 봉평 신라비는 居伐牟羅 男弥只村을 대상으로 敎를 내리는 비석인데, 비문 말미에는 거벌모라 남미지촌의 상부 행정구역의 장으로 여겨지는 悉支軍主를 먼저 특기하고 그 아래 居伐牟羅의 수장인 下干支가 기록되었다. 6세기대 신라비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깊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이를 충주고구려비 고찰의 비교자료로 삼을 수 있다.

84) 일본서기 계제기 25년 (531년)분주 取百濟本記,爲文.其文云「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營乞乙城. 백제 본기를 취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그 문장에 일컫기를 “태세 신해 3월에 (백제)군이 나아가 안라에 이르러 걸탁성을 조영했다.”라 한다. : 일본서기 흙명기 5년(541년) 11월 聖明王謂之曰「任那之國與吾百濟,自古以來約爲子弟.(중략) 竊聞, 新羅·安羅兩國之境有大江水, 要害之地也. 吾欲據此修繕六城, 謹請天皇三千兵士每城充以五百并我兵士勿使作田而逼惱者, 久禮山之五城庶自投兵降首. 卓淳之國亦復當興. 所請兵士, 吾給衣糧. 欲奏天皇其策一也. 猶於南韓置郡令·城主者, 豈欲違背天皇遮斷貢調之路.(중략) 若不置南韓郡領·

삼국시대 자주 보이는 양상이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12월조의 敎의 내용은 충주를 중심으로 한 부근 고구려지역과 신라지역에서 고구려 관리와 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3백인 이상을 모집하고, 그 인원을 기능별로 당주 등이 지휘하는 군조직 아래 편성한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해당지역의 성과 촌을 보위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신라 영내에 적어도 3명의 고구려 당주가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영내에 군사조직 幢이 적어도 3개 존재했던 것이다. 12월 이전에 파견된 당주 휘하에는 당연 고구려군사가 파견되어 있었을 터인데, 그 군사를 보충 편성함에 있어, 충주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와 신라 영토 내에서 사람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VIII. 餘言과 前望 - 國原城, 倭, 永樂七年397年

마지막으로 餘言을 덧붙인다.

첫째, 永樂七年으로 읽을 때 역사상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다. 영락7년=397년을 전제로 할 경우, 고려태왕은 광개토왕이 되고, 祖王은 조상왕일 수도 있고 특정하여야 한다면 고국원왕이 된다. 태자는 후의 장수왕 璉이다. 397년을 대입하면 고려태왕은 광개토왕으로 18세에 등극했으므로 이 때 나이 24살이다. 광개토왕의 태자라면 훗날 장수왕이 되는 璉(혹 巨連·巨璉)이다. 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그 위에 태자를 상정할 다른 왕자는 없었다. 이 때 련의 나이는 중국사서에 의하면 7세 이상이고 《삼국사기》 기준으로 하면 4세였다.⁸⁵⁾ 그 점에서 비문에서 “어리다”는 수식어를 특별히 붙인 것과도 부합된다. 태자 어린 것은 당시에 충분히 인지되고 있던 점이었고, 수행한 대사자 다우환노와 주부귀덕 등이 5월부터 12월에 현지에 남아 실무를 이행한 것은 태자의 어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왕이 407년에 태자를 책봉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광개토왕기의 자료는 광개토왕비와의 대조를 통해 보면, 광개토왕비에 있는 기사가 빠져있거나, 편년에서 2-5년의 차이가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⁸⁶⁾ 본고의 추론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고구려가 대 신라 외교의 무대에 차기 왕위계승예정자인 태자를 등장시켜 신라 혹은 신라왕을 상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며,⁸⁷⁾ 이것이 태자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관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신라에 대한 “上下”관계 설정에 고구려가 진심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때 신라왕은 나물마립간이며 이 때 재위 47년째의 해로, 생년이 불분명하므로 정확

城主修理防護,不可以禦此強敵,亦不可以制新羅.(중략)其策二也.] 성명왕(=백제 성왕)이 (가야왕들에게) 말했다.“임나(=가야)는 우리 백제와 자고이래로 자제가 되기로 약조했다.(중략) 삼가 듣건대, 신라와 안라 양국의 국경에는 큰 강이 있어 요충지다. 우리가 이곳에 자리잡아 6성을 수선하고, 천황(=>왜)에게 병사 3천명을 요청하여 우리(=백제)병사와 함께 매성 마다 5백명을 충원하여 압박하면, 구례산의 5성은 절로 병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이며, 탁순국 또한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이 천황께 아뢴(=>왜와 등지고) 조공로(=>교섭로)를 차단하는 것이겠는가.(중략)만약 남한의 군령과 성주를 두고서 수리 방호하지 않으면 이 강적(=고구려)를 방어할 수 없으며, 신라도 통제할 수 없다.(중략) 이것이 두 번째 계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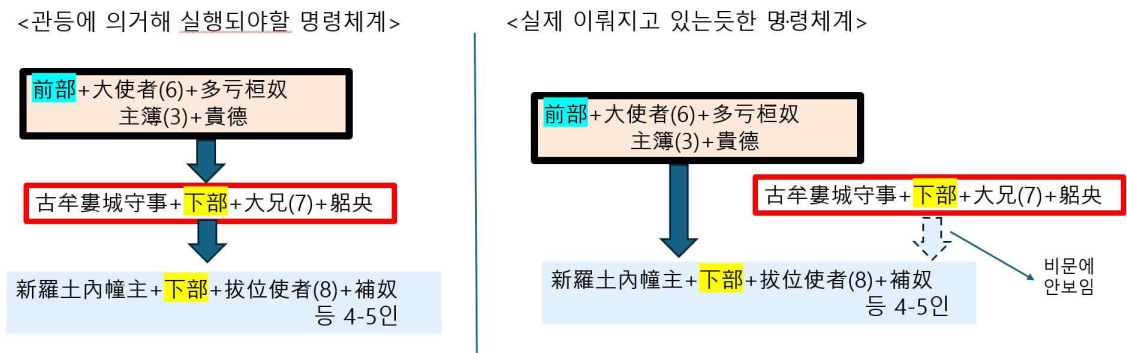
85) 즉 《魏書》《資治通鑑》에 따르면, 련이 491년에 서거했을 때 나이가 백여세였다고 하고, 《삼국사기》에서는 98세에 서거했다고 한다.

86) 武田幸男, 1989, 「三國史記廣開土王本紀の國際關係」, 전게서.

87) 木村誠, 2000, 전게논문

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고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400년 이전까지 신라매금 즉 신라왕은 고구려에 와서 정사를 논의한 일이 없었다. 충주비문에서는 12월에 신라매금이 우벌성에 행차하는 것이 보이는데, 광개토왕비의 영락10년경자(400)조에서는 400년에 신라왕이 고구려에 온 것이 처음이었다고 특별히 기록하였다. 우벌성은 왕래 당시는 신라성이었으므로 광개토왕비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399년 신라의 고구려 견사, 왜의 침입 호소 및 군원원조, 400년 고구려의 대대적 구원 사실, 392년 신라가 고구려에 인질을 보낸 사실 속에, 충주비에 보이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 관계를 397년에 대입하여 모순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399년과 400년의 사건은 397년의 양국 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10> 비문에 보이는 고구려 관리의 명령체계 추정

다음 관료의 기재 순서와 部に 관한 것이다. 《한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사자가 6위, 주부가 3위인데 비문서는 2회 모두 대사자를 주부보다 앞에 두었다. 주부는 6세기를 반영한다는 《주서》 《수서》에서는 토착어“오졸”로 표기된 데 비해 3세기를 반영한다는 《삼국지》에는 중국식 표기 “주부”로 되어 있다. 편년 397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다. 6세기를 반영한다는 《주서》 《수서》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意侯奢, 太大使者, 大使者”는 3세기대를 반영하는 《삼국지》의 “使者”에서 분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⁸⁸⁾ 397년은 시기상 중간으로 모순이 없다. 한걸음 나아가 397년에 이미 “대사자”가 존재하고, 《주서》 단계의 분화가 이뤄져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당시 관등 서열이 주부보다 대사자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前部는 《翰苑》에서 인용된 《高麗記》에 의하면, 왕경 5부의 하나인 灌奴部의 후신으로 南部, 赤部란 이칭을 갖고 있다. 397년 무렵 “관노부”류의 족제적 칭호를 탈각하고 방향·방위명을 호칭하여 관료제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충주의 고구려 점유 시기 관련이다. 충주비문에 보이는 고모루성은 광개토왕비문도 보이며, 396년 백제 공략을 통해 획득된 58성 중에 보인다. 397년에 고구려는 고모루성에 지방장관 혹은 사령관인 守事를 두고 있다. 고모루성을 거점으로 397년에 충주에 진입했다고 보아 모순이 없다. 397년에 점유한 충주에 고구려는 “계영”을 두고 있다. 불과 몇 달전인 396

88) 김철준, 1975, 「고구려·신라의 관계조직의 성립과정」,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지식산업사.

년에 고구려왕은 백제왕에게 “跪王” 즉 跪拜를 받은 적이 있다.⁸⁹⁾ 백제를 정복하고, 58성을 획득한 직후, 곧바로 고구려는 신라에게도 “궤배”를 강요하기 위해 “궤영”을 설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광개토왕비에 400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신라왕이 고구려에 “身來論事”했다고 한다. 397년 신라왕이 내방한 <우벌성>의 점유자 측이 고구려인지 신라인지는 단언이 어렵다. 광개토왕비의 기사를 신빙한다면, 당시는 고구려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아울러 12월 군대 진주 역시 지배가 완전지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그와 관련하여 앞서 기술한 장병진의 해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⁹⁰⁾

둘째, 충주는 고구려의 국원성인데, 비문에는 국원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이는 고구려가 충주의 지정학적 위치에 착안하여 들어는 왔지만 아직 “국원성”이 성립되지 않은 전야단계였다고 해석가능하다. 충주에는 “궤영”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이곳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사 “국원성수사”가 아니고 배후의 “고모루성수사”였다. 이는 397년 편년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396년 백제의 58성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영 확대를 노리는 과정에서 고모루성을 베이스로 하여 다음해 397년에 충주에 진주하고 “궤영”을 설치했다. 충주 진출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다. 훗날 국원성 설치는 신라영내 당주의 활동과 우벌성 진주 등 성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며, 국원성이 고모루성을 능가하며 동방 즉 신라경영의 전진기지가 되는 토대가 397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석가능하다. 한편, 충주비에 등장하는 고구려 관리들의 명령체계는 관등으로 볼 때, <충주에 있는 전부 대사자(6위) 다우환노 → 고모루성 수사 대형(7위) 여양 → 신라토내 당주 발위사자(8위) 보노 등 4-5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 비문에서는 고모루성수사 여양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고, 대사자 다우환노의 활동만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 시점의 충주가 고모루성의 수하에 있으면서도 중앙에서 파견된 대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던 것에 다름아니다. 태자와 함께 내려온 왕경 대사자가 직할 혹은 관리하는 모습인 인상이다. 이는 그대로 후에 충주가 국원성이 되는 초석이 되었을 것이며, 다른 아닌 그곳에 비석이 세워진 것 역시 고구려가 충주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비문 좌측면 3행의 글자 倭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그림7) 이 관독이 문제가 없다면, 倭는 12월에 벌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는 신라와 백제에게는 적대적 세력이었다. 이는 비문에서의 인원모집과 군대편성, 수비 활동 등의 배경 중 하나에 倭가 있었음을 말할 것이다. 397년을 전후한 시기 신라에 대한 왜의 침입은 393년에 보인다.⁹¹⁾ 물론 이 무렵 신라의 외적의 침입은 395년 “말갈”도 있어⁹²⁾, 왜 일변도는 아니었다. 광개토왕비에서는 왜에 대해 크게 특필하고 있는데, 합쳐 생각해보면, 신라 영내에 깊숙이 간여하기 위해서는 남방의 왜에 대한 수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고구려의 신라 간여가 용이해졌을 것이다.

한편, 이미 392년에 고구려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는데, 이에 내물마립간은 실성을 볼모로 고구려에 보내게 된다. 고구려가 강성했기 때문이었다.⁹³⁾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89) 跪王自誓 “從今以後,永爲奴客.” : 광개토왕비 영락 6년 병신조(396년)

90) 주55 장병진, 2022, 전개 논문.

91)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이사금기 38년

92)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이사금기 40년

바 있다. 신라는 남으로는 가야, 동으로는 왜, 동북에서는 예(“말갈”)과 상쟁하고 있었다. 서북쪽의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신라와 손잡으려 하였지만 신라는 백제를 택하지 않고 그보다 더 “强盛”한 고구려와 손잡은 것이다. 충주비문 397년 입장에서 보면, 비문의 “태왕”인 광개토왕의 “조왕”에 해당하는 고국원왕(재위 331-371) 때부터 신라에게 협력을 종용했던 것이다.[충주비] 그것이 양국 협력과 우호가 처음 실현되는 것은 앞서 서술한 392년부터였다.[《삼국사기》] 이래로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압박과 요구는 고조되게 된 듯 하다. 상하관계의 종용과 볼모가 아닌 신라왕의 직접 내조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내물마립간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忌”를 지속하였는데[충주비], 고구려는 396년 백제를 공략하여 58성을 획득하고[광개토왕비] 눈을 신라로 돌려 이듬해 397년에 충주를 거점으로 하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신라와의 “상하”관계 설정을 본격화하였다. 신라토내에 고구려 당주가 파견되기도 하고, 모병이 이뤄지고 전투부대가 편성되기도 하였다.[충주비] 여기에는 왜나 말갈, 가야 같은 신라 변방의 신라에 대한 위협 요소가 쌍방간에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본다. 위협이 격화될수록 사방으로 고립외교를 자처한 신라는 고구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고구려는 한걸음 나아가 원조를 명분으로 신라 내 영향력을 확대해 갔을 것이다. 이어 399년 왜가 신라에 대거 침입하고 그에 대해 신라가 구원을 요청하자, 400년 대대적인 군원을 통해 왜를 격퇴해주게 된다.[광개토왕비] 이 때 비로소 신라왕이 처음으로 고구려에 입조하여 정사를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광개토왕비] 이후 급속히 양국 간 관계는 가파른 상하관계로 치달리기 시작한 듯 하다. 이후 고구려는 신라 왕위 계승까지 간여하여 신라 왕실 귀족 간의 경쟁 관계도 활용하면서, 417년 신라왕을 내물에서 실성으로 교체하는 거사를 단행하게 된다. 고구려는 볼모로 와 있던 실성을 후원하여 내물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삼국유사》], 이로써 신라 내에서 친고구려 정책은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종래 충주고구려비 5세기 후반설의 정황 증거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던 것은 일본서기 雄略 8년조의 기사다. 신라가 고구려와 우호를 맺게 되고 이에 고구려군이 신라를 지켜 주기 위해 정병100인을 보냈는데, 고구려가 거짓으로 지켜주고 있음을 신라가 알게 되어 신라 내에 있던 고구려인을 몰살시켰다는 내용이다. 이에 고구려가 신라에 보복태세를 취하자 신라는 “임나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는 전개다.⁹⁴⁾ 이 기사가 일본서기에 실리게 된 것은 말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93)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이사금기 37년

94) 新羅國(중략)脩好於高麗.由是,高麗王 遣精兵一百人守新羅. 有頃, 高麗軍士一人, 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此云于麻柯毗]而顧謂之曰「汝國爲吾國所破,非久矣.」[一本云「汝國果成吾土,非久矣.」]其典馬聞之,陽患其腹退而在後,遂逃入國,說其所語. 於是,新羅王 乃知高麗僞守,遣使馳,告國人曰「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國人知意,盡殺國內所有高麗人.惟有遣高麗一人,乘間得脫,逃入其國,皆具爲說之.高麗王 卽發軍兵,屯聚筑足流域[或本云,都久斯岐城], 遂歌舞興樂.於是,新羅王 夜聞高麗軍四面歌舞,知賊盡入新羅地,乃使人於任那王曰「高麗王征伐我國,當此之時,若綴旒然,國之危殆,過於累卵,命之脩短,太所不計.伏請教於日本府行軍元帥等.」신라국은...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왕은 정병 100명을 보내 신라를 지켰다. 얼마 후, 고구려 군사 중 한 명이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였고, 그때 신라인을 ‘전마(典馬)’로 삼았는데 [전마는 ‘우마가이(于麻柯毗)’라 부른다.]. 그가 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너희 나라는 결국 우리나라의 종이가 될 것이요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 전마는 이 말을 듣고, 배가 아픈 척하며 뒤로 물러나 도망쳐 자기 나라로 들어가 그 말을 전하였다. 이로 인해 신라 왕은 비로소 고구려가 신라를 거짓으로 방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사신을 보내 나라 사람들에게 알렸다.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수탉을 죽여라.” 나라 사람들이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나라 안에 있던 모든 고구려인을 죽였다. 오직 한 명의 고구려인만이

말미부분의 임나왕,일본부행군원수 운운의 기사는 작위성이 짙어 신빙하기 어려우나, 그 위의 전개는 사실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온 것이다. 이에 이를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신라영내에 고구려 당주가 존재하는 상황과 연결짓고, 웅략 8년은 서기로 환산하여 47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시기가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잘보면 기사는 고구려와 신라 관계의 파탄된 것이 그 중점이다. 관계파탄과 종식 단계의 내용이다. 반면 충주비 내용은 고구려와 신라 관계가 형제-상하관계로 진입,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삼국사기》에는 450년 고구려의 변방 장수를 신라가 살해하고, 이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⁹⁵⁾, 《일본서기》의 기사는 그 기사와 닮아 있다. 즉 450년에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는 균열이 갔던 것이다. 이어 468년(자비마립간11년)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 북쪽 변경 悉直城(지금의 삼척)을 습격하고 있으며,⁹⁶⁾ 481년은 신라가 백제와 손잡고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있다.[《삼국사기》]97) 5세기 후반은 이미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결렬된 시기다.⁹⁸⁾ 고로 웅략기 기사를 정황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450년 《삼국사기》 고구려 변방 살해 기사를 기준으로 삼아 양국간 밀월의 시기를 450년 이전으로 소급시킴이 옳다.⁹⁹⁾ 새로운 판독에 의거할 때, 비석의 연대는 397년이고 여타 제 사료 및 자료와의 비교에서 모순되는 점은 그다지 없으며, 오히려 더 설명이 순탄해진다. 고구려와 신라의 밀월의 시작은 392년 신라의 인질 파견으로 시작되서 399년 왜의 침입에 따라 위기에 봉착한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여 400년 고구려가 구원군을 파견함으로써 정점에 치달게 된다. 이해 신라는 최초로 국왕이 고구려에 입조하여 국사를 논하게 된다. 충주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신라와 형제-상하관계를 추구하면서 충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구하며 신라국왕의 동태를 지속 요구하여 입조까지는 아니지만 변경까지의 내왕을 얻어낸 국면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392년과 400년 상황의 사이인 397년에 자리해서 이상할 것이 없으며 매우 자연스럽다. 즉 내용적으로나 비문글자 판독 양면에서 부합된다.

틈을 타 탈출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알렸다. 고구려 왕은 즉시 군대를 일으켜 축족류성(築足流城)[혹은 다른 기록에서는 ‘도쿠스키성(都久斯岐城)’]이라 불리는 곳에 주둔하게 하고, 노래와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다. 이때 신라 왕은 밤에 고구려 군이 사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적군이 신라 땅에 완전히 들어왔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임나(任那) 왕에게 말했다. “고구려 왕이 우리나라를 정벌하러 왔으니,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것과도 같아서, 나라가 위태롭기 그지없어, 명줄이 짧고 길음을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일본부(日本府)의 행군 원수들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일본서기》 雄略紀 8년 2월조와 時歲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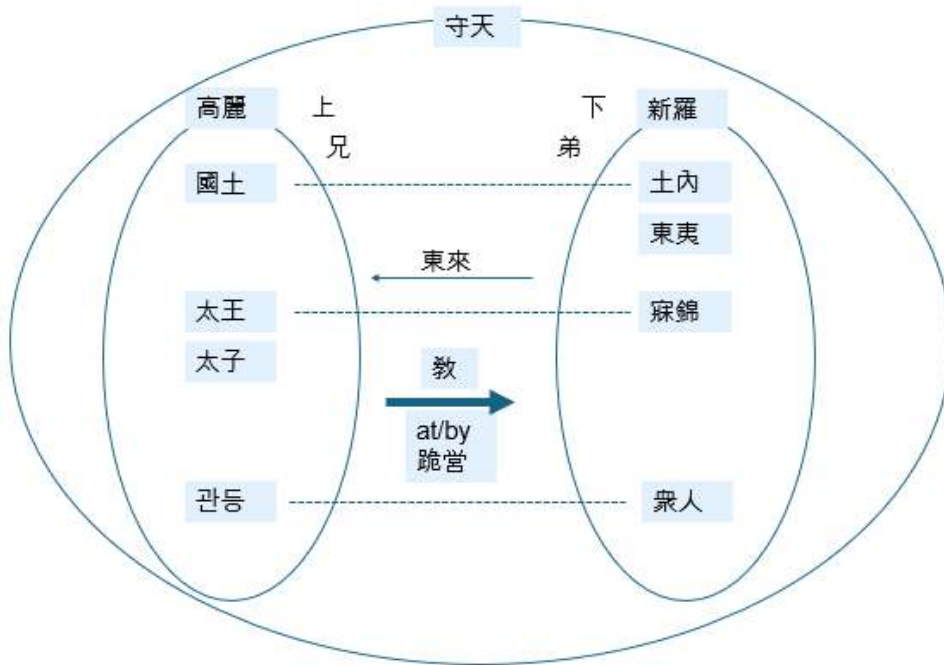
95) (눌지마립간) 34년 7월 고구려 변경의 장수가 실직의 별관에서 사냥하고 있었다. 하슬라 성주 三直이 군사를 내어 그를 급습하여 죽였다. 고구려왕이 이를 듣고 분노하여 사신을 보내 알리길 “나와 내왕이 친선을 도모하여 지극히 기쁘게 생각하였으나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 변경 장수를 죽였으니 이것이 어찌 의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이에 군사를 보내 서쪽 변경을 침공했다. 왕이 자신을 낮추어 사죄하니 곧 군사를 돌렸다.(《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

96) 《삼국사기》,신라본기,자비마립간 3년.

97) (소지마립간) 3년(481)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북쪽 변경[北邊]에 쳐들어와 狐鳴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彌秩夫로 진군해왔다. 우리(신라) 군사와 百濟, 加耶의 구원병이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泥河 서쪽까지 추격하여 (고구려군을)격파하였고,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삼국사기》,신라본기,소지마립간 3년)

98) 이 시기 고구려 신라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논문이 있지만, 일단 아래를 참조바란다. : 윤성호, 2019, 「5세기 중후반 신라 소지마립간대의 대고구려 관계」, 『한국학논총』 51.

99) 이 같은 주장을 포함 양국관계를 잘 정리한 기존 성과로 아래 논문 참조 : 정운용, 1994, 「5-6세기 신라 고구려 관계의 추이」,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신라의 대외관계)』,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그림 11> 충주비에 보이는 호칭과 용어

마지막으로 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칭호는 철저한 원칙 하에 불리우고 있다. 신라왕을 왕이라 칭하지 않고, 신라의 고위자를 관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國은 오로지 고구려 뿐이며 신라를 國이라 칭하지 않는다. 신라는 고구려의 東夷로서 신라매금은 東來하여 입조해야 할 존재였다. 고구려와 신라는 教를 내리고 받드는 “上下”관계였고, 신라는 고구려의 “궤영”에서 跪拜해야 하는 존재였다.(그림9) 兄弟와 上下관계 설정을 동시에 운운하였지만, 고구려의 내심은 수직적 상하관계였고, 신라매금과 우벌성에서 회견한 것은 이후 벌어지는 신라 영내에서의 募人활동과 그 안에서 고구려 군사지휘관 당주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 혹은 강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삼국사기》지리지에 보이는 영남지역 동부의 “본 고구려 (땅)”의 실체는 아마도 이러한 국면에서 활동하게 된 고구려 당주의 신라 내 활동의 결과와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당주 활동을 사실상 고구려의 지배로 인식한 결과물이라 보인다. 충주고구려비는 397년 고구려가 신라에 진출을 본격화한 초동기 양국 관계와 고구려의 추진과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4세기 말 양국 관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다.

비석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길 18(탑평리 56-1)에 위치한다. 이는 1979년 발견당시 이래다. 비석은 남한강을 바로 앞에 둔 평지에 위치한다. 충주시내 쪽에서 합류한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이곳을 지나 북으로 향한다. 잔적층이 대부분이 주변 산지와 달리, 충적층 강안 바투에 자리하는데,¹⁰⁰⁾(그림12) 이는 남한강의 수로를 의식한 교통·군사의 요지다. 江岸에 위치한 도시 내 무덤가에 입지한 광개토왕비와, 강안이란 점에서 공통되나, 좀더 강안이

100) 농촌진흥청 흙도람 토양환경지도(<http://soil.rda.go.kr/geoweb/soilmain.do>)

바투 있고, 무덤과 공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입지나 추후 살펴볼 내용으로 볼 때, 비석은 건립당시 비석이 있는 입석마을과 주변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닐 것이다. 남한강-낙동강을 연결하는 남한강 최남단 상류 지점의 인간과 물류가 교통하는 최대의 교통요지·군사요지에서, 상주하는 인구와 재지사회는 물론, 상당한 왕래와 교통량을 보이며 이곳을 경유하였을 다중의 인간을 대상으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즉 비석은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최적지에 조영되었다. 충주와 비석 인근지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수로와 육로 양면에 주요 결절지였다. 남한강 수로는 단양-충주-양평을 거쳐 서울에 이르게 된다. 육로 역시 조선시대 영남대로로 대변되는 교통의 결절지이며, 최영준에 따르면 직접적으로는 영남좌로에 위치하여, 남으로는 죽령을 넘어 안동, 경주로, 북으로는 여주를 거쳐 서울에 당도한다.¹⁰¹⁾ 비석은 신라 방면을 상징하며, 남한강을 바라보는 동쪽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비석에 새겨진 고구려와 신라의 上下관계 수립의 경위와 우벌성 진주, 및 신라영내에서 고구려 군사활동을 특기함으로써, 397년 단기간에 이뤄진 업적을 기념하고, 나아가 주변민과 신라인을 포함한 통행인 등을 대상으로 그러한 고구려 신라 관계를 홍보하여 향후 지속적 신라 경영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림 12> 비석 건립지 주변의 도양환경 (농촌진흥청 자료 제공)

종래 충주고구려비의 편년은 장수왕 대 즉 5세기 전반, 5세기 후반으로 설정되고, 그를 바탕으로 40여년간 모든 해석이 맞춰져 왔다. 압도적 양의 선행 연구가 문헌이든 고고학이든 그를 전제로 생산되었다. 기존 성과를 계승은 하되 편년 관련은 2020년 새로운 판독을 계기로 연구는 새롭게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며, 광개토왕 대 조영이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틀을 짜나갈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기존 연구 성과 중 충주비를 광개토왕대의 것으로 보았던 木村誠의 업적 역시 재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101) 최영준, 2004, 『嶺南大路 -한국의 옛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토론】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4세기 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토론

어경선(예성문화연구원)

충주고구려비는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국보 제205호로 1981년 3월 18일 지정되었습니다.

그 발견 경위를 살펴보면, 1979년 2월 24일 예성동호회(현 예성문화연구원)는 ‘아주 특별한’ 답사길에 올랐다. 동호회 창립의 산파역을 맡은 유창중 검사가 의정부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답사 과정에 입석마을을 지나가다가 “잠깐만요. 저기 (입석마을의) 저 돌 보이시죠. 저 돌 때문에 입석마을이라 하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일전에 제가 보았을 때는 백비(白碑) 같았는데…”

일행이 우르르 내려 비석을 살펴보았다. 눈을 비벼가며 비석을 살펴보는 순간 “아 !”하는 감탄사가 일제히 터졌다. 눈에 불을 켜고 손으로 더듬어보니 삼면에 글자가 뿔뿔이 새겨져 있었다. … 4월 5일 낮 12시에 황수영 교수는 일본인 학자 2명, 그리고 정영호 단국대 교수와 동행했다. 황 교수가 석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인 정영호 교수에게 연락하여 “함께 가보자”고 한 것이다.

그날 오후, 예성동호회는 황수영 교수 일행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충주의 ‘山 다실’에 들렀다. “우리는 다방에서 정영호 교수가 입석리 비석에서 해운 탁본 1 장을 펴서 다방 실내 장식용 병풍에 걸었다. 정영호 교수는 탁본 1 장을 일행에게 주고는 친지를 만난다고 나갔다…”

아! 글썄, 신라토내(新羅土內), 당주(幢主), 대왕(大王), 국(國), 태자(太子)와 같은 글자가 읽히지 않는가. 황수영 교수와 일인학자 둘, 예성동호회 김풍식, 장기덕, 최영익, 이노영, 허인욱과 김예식 등 9명은 흥분감에 몸을 떨었다.

이상은 충주고구려비 발견 경위를 살펴봄으로써 그간에 세상에 떠도는 ‘충주고구려비는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함이다.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맡긴 것은 본인이 충주에 살고 있고 평소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감안한 듯한데, 솔직히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학문적 소양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발표문을 읽고 몇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2. 비석의 입지와 앞면 머리> 부분의 첫줄 ‘비석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길 18(탑평리 56-1)에 위치한다. 이는 1972년 발견 당시 이래다. 비석은 남한강을 바로 옆에 둔 평지에 위치한다.’와 <3. 고구려태자의 궤영 행차와 관료의 수행>의 31째줄 ‘태자와 관료가 왕립한

곳. 또 신라가 敎를 수행해야 할 <궤영>은 위치적으로나 맥락적으로 비석이 있는 충주시 감노로 2319(용전리280-11) 고구려비전시관, 구 행정구역명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 좀 더 넓게는 충주 지역으로,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에서 고구려비의 위치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 데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발표문에서 '남한강'이란 명칭이 몇 군데 나오는데 충주는 한강 본류의 중류에 해당합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지칭할 때 낙동강 상류라고 하면서 충주를 흐르는 강을 '남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 <5. 12월 신라매금의 于伐城 도래와 募人 敎書>의 넷째 줄에 나오는 우벌성(于伐城)에 대한 위치 문제입니다.

본고에서는 우벌성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비정하였습니다. 소백산맥 아래 지역을 지칭했습니다. 고 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수국장께서는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우성마을 일대에 비정하였고 문경과 단양 사이 '벌재(伐城)'에 비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4) 1915년 충주시 노은면 절터에서 '건흥(建興) 5년명 금동불광배'가 발견되었는데, '건흥5년 병진(建興五年丙辰)'에서 '건흥'이란 연호는 우리 역사서에는 보이지 않아 '병진(丙辰)'에 집중하여 불상 양식에 의해 '536년설', '596년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흥(建興)'이란 연호를 사용한 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있었으나 후연의 성무제 때 사용한 것이 386~396년간입니다. 이에 고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충주 고구려비 고찰

- 于伐城과 고구려 진출로를 중심으로 -

洪 性 和(건국대학교)

〈目 次〉

- I. 머리말
- II. 충주 고구려비의 제액과 비문의 내용
- III. 광개토왕비를 통한 충주 고구려비의 분석
- IV. 『日本書紀』를 통한 고구려의 진출로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충주 고구려비는 1979년 2월 24일 예성동호회(현 예성문화연구회)¹⁾의 조사를 통해 당시 용전리 입석마을에 서 있는 입석에 글자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단순한 입석이 아닌 석비임을 알게 되었다.²⁾

이후 제보를 받은 단국대 박물관에서 1979년 4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7차에 걸친 공식 조사를 진행하였다.³⁾ 이 과정에서 비석이 고구려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공식 학술대회를 통해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

2000년에 들어 고구려연구회를 중심으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동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⁵⁾ 이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題額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비에 대한 전반적인 판독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되는 해인 2019년에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를 중심으로 7월 22일 충주고구려비 전시관에서 현장보고회가 열렸으며, 8월 22일과 10월 17일 그리고 2020년 4월 24일에 공동판독회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1월 22일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⁶⁾ 그 자리에서 3차원 스캐

1) 1978년 9월 5일 발족한 예성동호회는 1996년 1월 10일 예성문화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2) 당시 발견 경위와 관련해서는 金禮植, 「中原 高句麗碑 發見經緯」, 『藥城文化』 創刊號, 藥城同好會, 1979, 33-37쪽 ; 장준식,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2019, 7-8쪽 참조

3) 檀國大學校博物館, 『中原高句麗碑 調查報告書』, 1979

4) 단국사학회, 『史學志』 13, 1979

5) 사)高句麗研究會, 『中原高句麗碑 新照明』, 제6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2000

닝, RTI 촬영 등의 판독을 통해 충주 고구려비에 제액이 있으며 이를 ‘永樂七年歲在丁酉’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⁷⁾

충주 고구려비의 ‘永樂七年’이라는 판독은 고구려의 충주 진출이 4세기말이라는 시기로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기에 기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이 판독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을 광개토왕비문과 『일본서기』 등 관련 사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永樂七年’으로서의 충주 고구려비가 4세기말~5세기초의 역사상에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고,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于伐城’의 위치 비정을 통해 당시 고구려의 진출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충주 고구려비의 제액과 비문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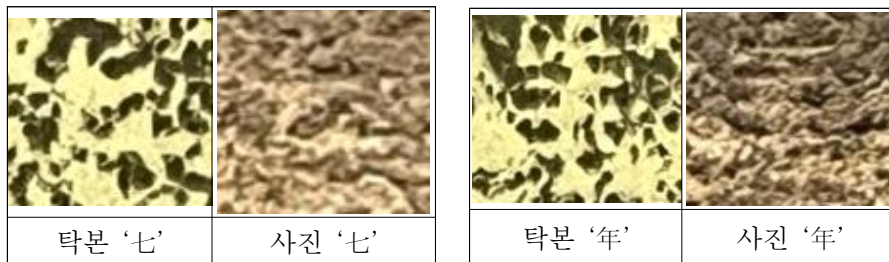
2019년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충주 고구려비에 題額이 판독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題額에 대한 제기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다.

題額과 관련해서는 1979년 이병도가 ‘建興四年’이라는 글자가 보였다고 하는 언급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다.⁸⁾ 이 당시 토론 중에 이호영은 ‘四年’이 아닌 ‘七年’으로 보았는데, 이후 ‘□熙七年’으로 판독하기도 했다.⁹⁾

2000년에 실시된 충주 고구려비 조사 결과에서는 비면 상단에 제액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비의 맨 위쪽에서 ‘年’자를 확인하였다는 석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액의 존재가 인정되기도 하였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題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초창기 이병도가 제액을 꿈에서 보았다는 해프닝으로 인한 선입관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액과 관련해서는 충주 고구려비전시관의 탁본과 발표자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도 상단부에 ‘七年’의 글자는 확인되고 있다.



<사진 1> 충주 고구려비전시관의 탁본과 사진

6)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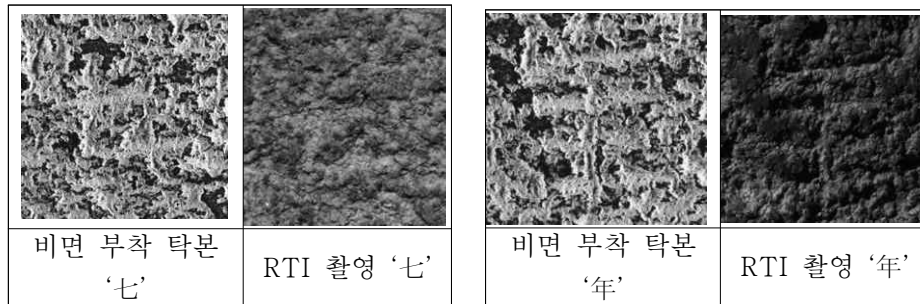
7) 고광의,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2019 :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8) 李丙燾,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1979, 22쪽

9) 李昊榮,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長壽王代의 年號 推論-」, 『史學志』 13, 1979, 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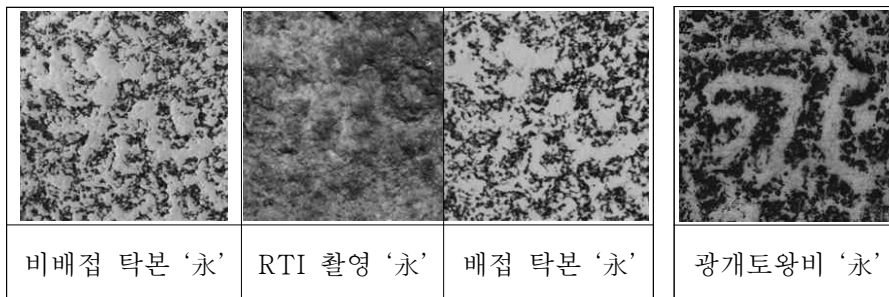
10) 徐吉洙, 「中原高句麗碑 新釋文(2000年 2月 26日) 結果」, 『中原高句麗碑 新照明』 제6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2000, 38-39쪽

이들 글자는 2019년에 조사된 비면 부착 탁본과 비면 RTI 촬영에서 선명하게 확인된다. 때문에 ‘七年’의 글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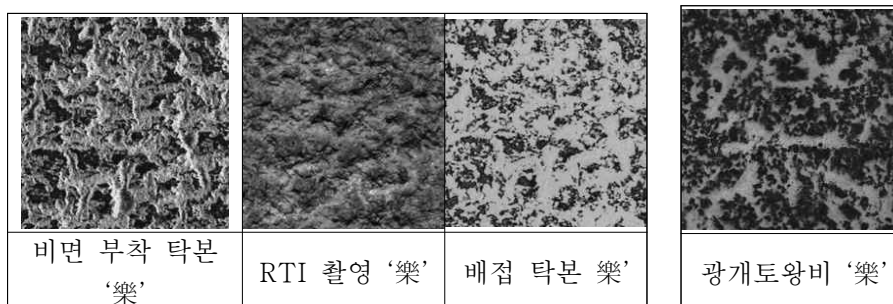
<사진 2>¹¹⁾

2019년 조사에서는 ‘七年’의 앞 부분에도 글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상단부 제액의 첫 번째 글자를 ‘永’으로 판독하고 있다. 실제 이를 광개토왕비에 나타나는 ‘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진 3>

다만 제액의 두 번째 글자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 ‘樂’으로 판독하였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광개토왕비의 ‘樂’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비문이 뭉개져서 어떤 글자인지 확인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사진 4>

11) 이후 충주 고구려비의 RTI 촬영 및 탁본에 대해서는 고헌의, 앞의 논문, 2019 참조

일단 상단부에 보이는 제액의 앞 부분은 ‘永□七年’으로서 ‘永□’은 고구려의 연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永’으로 시작되는 고구려의 연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광개토왕비의 ‘永樂’과 평양 평천리 출토 금동광배의 ‘永康七年’, 안악 3호분의 묵서 중 ‘永和’가 있다. 하지만, ‘永康七年’의 경우 이후 간지 부분의 마멸로 ‘甲□’, ‘辛□’ 등으로 판독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충주 고구려비 판독안의 ‘丁酉’를 인정한다면 같은 연도로 보기 어려우며, ‘永和’의 경우도 東晉 穆帝의 연호로 추정되고 있다.¹²⁾

따라서 광개토왕비 ‘永樂’의 사례만이 남는데, 두 번째 글자를 ‘樂’으로 본다고 하면 永樂 7년은 397년이 되고 이때의 간지가 ‘丁酉’에 해당하므로 충주 고구려비 제액의 연호는 광개토왕의 연호인 ‘永樂’일 가능성이 높다.

충주 고구려비는 4면비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면부 및 상단부와 좌측면의 일부 글자만이 확인된다. 우측면과 후면부는 마멸이 심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2019년에 조사된 공동판독안에 기반하여 발표자가 판독한 충주 고구려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단부) 永[樂]七年[歲]在[丁][酉]
- (전면부1) 五月中 高麗大王 祖王公□新羅寐錦 世世爲願如兄如弟
- (전면부2) 上下相知守天 東來之 寐錦忌 太子共前部太使者多耆桓
- (전면부3) 奴主簿貴[德]□□□□[聆]□□□□ 到至跪營 [大]太子共[語]
- (전면부4) 向[鑿]上共看 節賜□ [霍]鄒 教食[在]東夷寐錦之衣服建立處
- (전면부5) [伊]者賜之 隨□諸□□奴客人□ 教諸位 賜上下[衣]服 教東
- (전면부6) 夷寐錦還來 節教 賜寐錦土內諸衆[人]□[支][告][大]王國土
- (전면부7) 大位諸位上下衣服 [兼]受教跪營之 十二月廿[七]日[庚]寅東
- (전면부8) 夷寐錦上下至于伐城 教來 前部大使者多[耆]桓奴主簿貴
- (전면부9) [德] □□□□ 募人三百 新羅土內幢主 下部拔位使者補奴
- (전면부10) □□奴□□□□盖盧 共□募人 新羅土內衆人 □動□□
- (좌측면1) □□□[中]□□□[伐]城[不]□□村舍□□□□□□沙□□
- (좌측면2) □□□□□□□□[刺]功□□射□□□□□□節人□□□
- (좌측면3) □□□□□□功二[百]六[十]□□□[十]□□□□□□大王國土□
- (좌측면4) □□□□□□□□□□□□□□□□□□□□□□□□□□□□
- (좌측면5) □□□□□□□□□□上有[之][辛]□□□□□□東夷寐錦土
- (좌측면6) □□□□□□[右]□□□□沙□斯[色]□□古鄒加共軍至于
- (좌측면7) [伐][城]□[于]□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

일단 판독된 전면부와 좌측면의 글자를 통해 충주 고구려비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크게는 5월조와 12월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재환, 「‘永樂 7年’ 판독에 기반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 지역의 接境性」, 『목간과 문자』 27, 2021, 16쪽

5월조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면부1) 4~9자에서 高麗大王이 나오고 祖王으로 이어진다. 이때의 祖王에 대해서는 특정 왕을 가리킨다는 견해¹³⁾와 祖王=高麗大王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¹⁴⁾ 하지만, 지안 고구려비나 광개토왕비에서 祖에 해당하는 특정 왕의 경우 諡號를 썼던 사례가 보이고 있으며, 광개토왕비에 ‘祖王先王’, ‘祖先王’이란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先祖 내지는 祖上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祖王의 경우도 大王의 先祖王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¹⁵⁾

따라서 (전면부1)은 10~11자인 ‘公口’의 경우 해석이 난해하지만 (전면부2) 1~6자와 더불어 ‘5월에 高麗大王은 先祖王부터...新羅寐錦과 대대로 형제처럼 上下가 서로 알고 守天하기를 원했다’로 해석될 수 있다.

(전면부2) 12자에 나오는 ‘忌’와 관련해서는 寐錦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⁶⁾ 하지만, 신라 왕의 이름 가운데 ‘忌’와 비슷한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개토왕비에서도 新羅寐錦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 인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忌’는 ‘寐錦’을 주체로 하는 서술어로서 ‘꺼렸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¹⁷⁾

따라서 (전면부2) 10~23자와 (전면부3) 1~18자의 내용은 중간에 관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寐錦이 꺼려서 太子가 前部 大使者 多丕桓奴, 主簿 貴德과 함께.....營에 이르렀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의 내용은 敎로 이어진다. 이 또한 중간에 관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敎하여 東夷寐錦의 衣服 建立處에서 식사하도록 함’, ‘敎하여 上下에게 의복을 내려주도록 함’, ‘敎하여 東夷寐錦에 돌아오도록 함’, ‘敎하여 寐錦土內 諸衆人에게 하사하고 大王國土 大位·諸位上下에게 告하여 衣服을 입고 敎를 받도록 함’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전면부7) 15자부터 12월조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전면부7) 15~23자와 (전면부8) 1~9자의 경우 ‘12월 27일 [庚]寅에 東夷寐錦 上下가 于伐城에 이르렀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에 敎로 이어진다. 이곳도 관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면부8) 10~23자와 (전면

13) 李丙燾, 앞의 논문, 1979, 28쪽 ; 손영중,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5-2, 1985 ; 南豊鉉,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그 吏讀의性格」, 『高句麗研究』 10, 2000 ; 김현숙, 「4~6세기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 76, 2010, 217쪽 ; 서지영, 「5세기 羅·麗 관계변화와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114쪽

14) 김철준, 「學術座談會錄」, 『史學志』 13, 1979 ; 朴眞奭, 「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 考証」, 『高句麗研究』 10, 2000, 324쪽

15) 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高句麗研究』 10, 2000, 276쪽 ; 전덕재, 「충주고구려비를 통해 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65, 2019, 141쪽 ; 이재환, 앞의 논문, 2021, 18쪽 ; 李鎔賢, 「忠州 高句麗碑 ‘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80, 2020, 37쪽

16) 金昌鎬, 「中原高句麗碑의 재검토」, 『韓國學報』 47, 1987, 140-142쪽 ; 朴眞奭, 앞의 논문, 2000, 317-318쪽 ; 林起煥,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高句麗研究』 10, 2000, 420쪽 ;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의의」, 『史叢』 51, 2000, 10쪽 ; 張彰恩, 「中原高句麗碑의 관독과 해석」, 『新羅史學報』 5, 2005, 278쪽 ; 전덕재, 앞의 논문, 2019, 143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114-115쪽 ; 李成制,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182쪽

17) 邊太燮,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志』 13, 1979, 45쪽 ; 이도학, 앞의 논문, 2000, 277-279쪽 ; 南豊鉉, 앞의 논문, 2000, 371쪽 ; 박성현, 앞의 논문, 2010, 219쪽 ; 이용현, 앞의 논문, 2020, 29-30쪽, 이재환, 앞의 논문, 2021, 19쪽

부9) 9자를 통해 ‘敎하여 前部 大使者 多耆桓奴, 主簿 貴德으로,,,300명을 募人하도록 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면부10) 12~19자에 보이는 글자를 통해 ‘新羅土內 衆人을 모집하도록 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월조의 내용은 좌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좌측면의 내용은 관독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만 (좌측면6) 17~23자와 (좌측면7) 1~2자 및 6~15자를 통해 ‘古鄒加와 함께 (고구려) 군대가 于伐城에 이르렀다,,,古牟婁城守事 下部 大兄..’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Ⅲ. 광개토왕비를 통한 충주 고구려비의 분석

앞서 검토했듯이 충주 고구려비를 永樂 7년(397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이에 따른 관련 사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廣開土王碑의 永樂 6년조 및 永樂 8년조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ㄱ) 廣開土王碑 永樂 6年 丙申(396년)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南 攻取壹八城 白模盧城 各模盧城 幹氏利城 □□城 閣彌城 牟盧城 彌沙城 □舍蔦城 阿旦城 古利城 □利城 雜[珍]城 奧利城 勾牟城 古須耶羅城 莫□□ □□城 □而耶羅[城] 瑀城 於利城 □□[城] 豆奴城 沸[城] 比利城 彌鄒城 也利城 大山韓城 掃加城 敦拔城 □□□城 婁賣城 散□城 那旦城 細城 牟婁城 于婁城 蘇灰城 燕婁城 析支利城 巖門□城 [林]城 □□□□□ □利城 就鄒城 □拔城 古牟婁城 閏奴城 貫奴城 彡穰城 □□城 □□盧城 仇天城 □□□□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歸穴 □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 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

(ㄴ) 廣開土王碑 永樂 8年 戊戌(398년)

敎遣偏師觀帛愼土谷 因便抄得莫□羅城 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ㄱ)과 (ㄴ)의 내용을 통해 보면 고구려는 永樂 6년(396년)에 백제의 58城과 700村을 공취한 후, 永樂 8년(398년) 군대를 帛愼土谷에 보내어 동정을 살피고 莫□羅城, 加太羅谷을 획득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廣開土王碑文 永樂 6년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攻取했던 것으로 나오는 58城 700村에 대해서는 임진강과 한강 사이의 경기도 북부 지방에 비정하거나,¹⁸⁾ 충청도와 경기도 서해안 일대로 확대한 견해,¹⁹⁾ 북한강 유역까지 점유하였다는 견해,²⁰⁾ 남한강²¹⁾ 상류까지 확

18)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歴史地理』 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李丙燾, 「廣開土王之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82쪽 ; 李仁哲, 「廣開土好太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守墓人烟戶條와 그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2,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1996

19) 酒井改藏, 「好太王碑面の地名について」, 『朝鮮學報』 8, 1955, 54-60쪽 ; 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1979, 10쪽

20)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188-200쪽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186쪽

대하여 본 견해²²⁾ 등이 있다.

일단 고구려가 공취했던 58城 중에 나오는 古牟婁城이 충주 고구려비에도 보이기 때문에²³⁾ 남한강 상류까지 고구려가 점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충주도 포함되었던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원주의 범천리에서 백제의 고분이 5세기대까지 계속 축조되었던 것을 근거로 5세기초까지는 고구려가 충주 지역을 점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²⁴⁾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충주 지역의 발굴 결과 충주 탐평리 유적의 백제 주거지가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²⁵⁾ 최근 발굴된 백제 황새머리고분군의 토기 편년을 4세기 중후반부터 5세기 전엽까지 보는 견해,²⁶⁾ 장미산성의 취사 관련 시설 주변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보도가 있다.²⁷⁾

하지만 이러한 것이 4세기말에 고구려가 충주 지역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4세기말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비를 통해서도 永樂 14년(404년)에 백제와 왜가 帶方界까지 공격했던 상황을 보더라도²⁸⁾ 5세기초까지 고구려와 백제는 한반도 중부에서 치열한 전투 상황에 있었다. 고구려가 주요한 거점성의 장악을 통해 교통로를 확보하였다고 해도 백제와의 전선이 유동적인 경계 지역이었기에 5세기초엽의 백제계 유물이 출토되었을 수 있다.

『三國史記』 398년조에 백제가 쌍현성을 쌓고 한산 북쪽의 목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어²⁹⁾ 고구려가 58城을 공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이북에서 임진강 유역의 일부를 백제가

21) 한강의 분류는 남한강이기 때문에 남한강이 아닌 한강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토지리원의 공식 명칭도 한강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북한강과 구별하여 지역을 명확히 해야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 남한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2) 이도학, 「永樂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韓國史學論叢(孫寶基博士停年紀念)』, 1988 ; 임기환, 「고구려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3-5쪽 ; 文安植, 「백제 한성기 北界와 東界의 변천」, 『百濟研究』 44, 2006, 23-25쪽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 2014, 115쪽

23) 古牟婁城에 대해서는 충남 덕산철(酒井改藏, 앞의 논문, 59쪽)과 충북 음성 高山城(손영중, 앞의 논문, 1985, 31쪽), 경기도 포천 고모리 산성(최근영, 중앙일보 1984년 6월 18일자), 춘천, 원주 등지(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于伐城과 古牟婁城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0, 2000, 506-507쪽)에 비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비에 新來韓穢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충주 고구려비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 인근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성경용, 「4~5세기 백제의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24, 2001

25)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충주 탐평리유적(중원경주정지) 발굴조사보고서(본문)』, 2017

26) 전혁기·신지향, 「충주 탐평리 황새머리 백제고분군의 양상과 그 의의」, 『고조선단군학』 51, 2023, 204쪽

27) 국립중앙문화유산연구소, 「중원역사문화권 대표 국가유산,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성과 공개」 보도자료, 2024

28) 廣開土王碑 永樂14年 甲辰(4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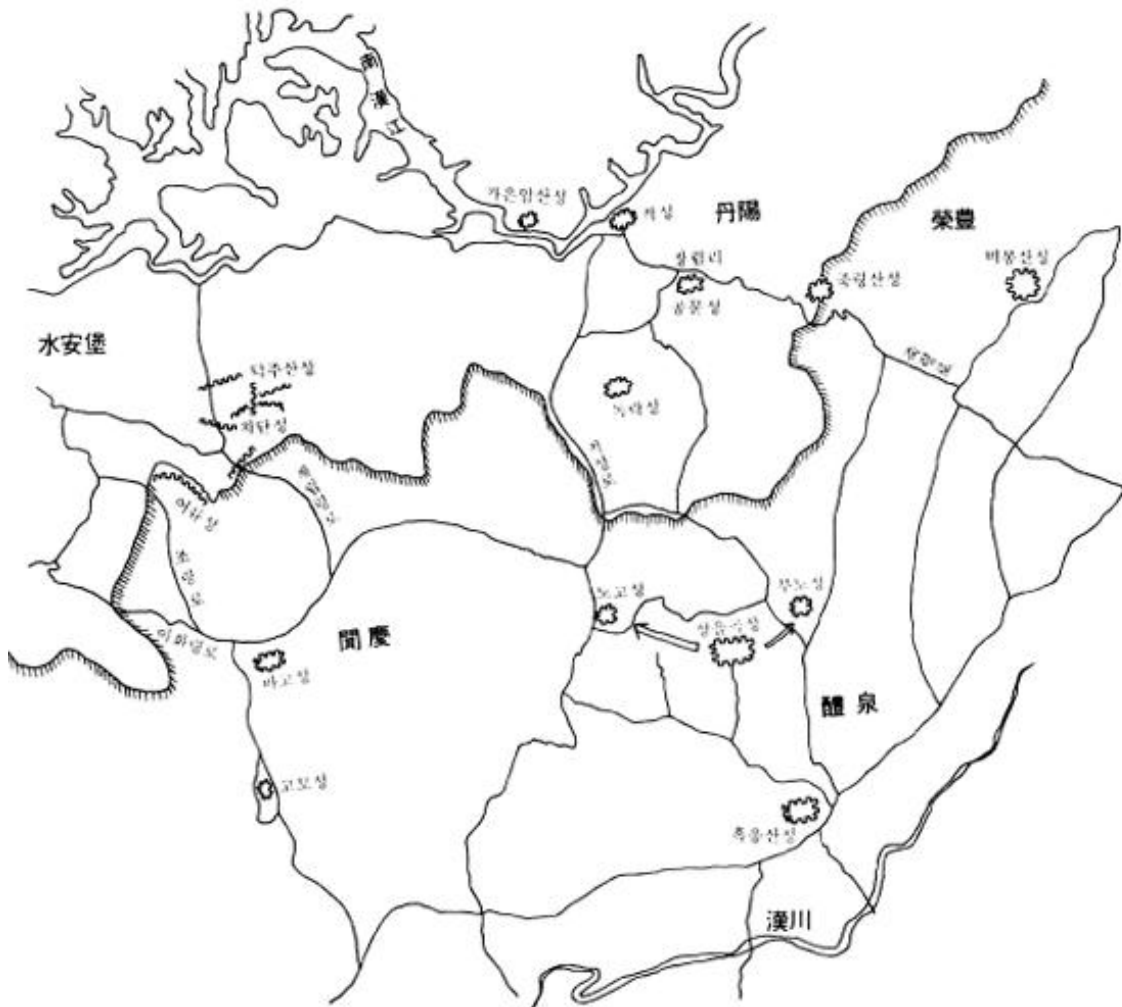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 □連船□□□ 王躬率□□ 從平穰 □□□鋒相遇 王幢要截濫刺 倭寇潰敗 斬殺無數

이때 倭가 帶方界까지 올라 갈 수 있었던 것은 倭의 단독 작전이 아니라 백제와의 합동 작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倭가 황해도 지역인 帶方界까지 침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남부와 중부를 통과해야 했으므로 지리적으로 보아도 백제의 협조 없는 공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김현구,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倭의 實體」 『日本歷史研究』 29, 2009) 뿐만 아니라 비문의 제3면 3행 23-24번째 글자를 ‘殘兵’으로 보게 되면 이는 백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백제와 왜의 공동작전으로 볼 수 있다.(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29) 『三國史記』 卷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7年

三月 築雙峴城

요청하는 내용이다. (ㄷ)은 고구려가 기보병 5만을 보내 왜를 공격하여 任那加羅의 從拔城까지 회복하면서 신라를 구원하는 장면이다. 이들 기록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한반도의 동남부 방면까지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소백산맥 일대 성곽 배치도³⁶⁾

이때의 진출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단양을 거쳐 남으로 내려가는 죽령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것은 단양의 赤城에서 남으로 가는 루트는 죽령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양에서 소백산맥 남쪽의 문경, 예천으로 이어지는 루트로서 伐嶺(伐峙)가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伐嶺路(伐峙路)는 가파르고 험준한 죽령로보다는 남쪽 예천 방면으로 완만하고 평탄한 길이 이어지는 고개이다. 더욱이 다른 교통로보다도 赤城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賁文城, 獨樂山城, 老姑城 등의 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賁文城에서 출토된 기와와 토기편이 신라계보다 백제나 고구려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고,³⁷⁾ 獨樂山城이나

36) 李道學, 『體泉의 上乙谷城考-신라의 소백산맥 以北 進出據點과 관련하여-』, 『慶州史學』 8, 1989 참조

37) 충청대학교 박물관, 『丹陽赤城地表調査報告書』, 1991, 125쪽

老姑城에서는 바깥 성벽에 수직으로 홈이 나 있는 구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구려의 城의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³⁸⁾

(L)에 보이는 帛愼土谷 등의 지역은 동쪽으로 소백산맥 이남과 연결되는 고구려의 진출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신라로 진입하기 위한 진출로로서 별재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于伐城과 연결될 수 있다.³⁹⁾ 충주 고구려비 永樂 7년 12월 조에 ‘東夷寐錦 上下가 于伐城에 이르렀다’, ‘古鄒加와 함께 (고구려) 군대가 于伐城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을 통해 별재 부근의 于伐城에 도착했던 고구려가 永樂 8년 별재가 포함되는 소백산맥 일원의 帛愼土谷 등을 장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별재의 북쪽에는 단양읍 伐川리가 있으며 伐川리에는 별재에서 발원하여 마을 앞을 지나가는 별내라는 하천이 있다. 별은 불로서 불다(밝다, 불다)의 어근이다. 따라서 단양 赤城의 경우도 별재와 연관성이 있으며 赤城 또한 별재로부터 비롯된 명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찍이 별재(伐嶺, 伐峙)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성격으로서 충주 고구려비에 등장하는 于伐城은 별재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日本書紀』를 통한 고구려의 진출로 분석

다음으로는 충주 고구려비에 나타난 현황을 『日本書紀』 관련 기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永樂 7년에 해당하는 397년의 기사로는 『日本書紀』 應神 8年條의 기록이 있다.

(㉔) 『日本書紀』 卷第10 應神 8年(397년) 春3月

百濟人來朝【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

(㉔)은 기년을 2주갑 수정하면 397년이 되며, 우선 『日本書紀』 찬자에 의한 蕃國史觀으로 윤색된 기사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百濟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색된 근거에는 백제계 사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㉔)은 阿花王이 王子인 直支를 왜국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三國史記』 阿莘王 6년(397년)에서 태자였던 腆支를 왜국에 보냈다는 기사로 나타나고 있으며⁴⁰⁾ 또한 廣開土王 碑를 통해서도 앞서 (㉔) 永樂 9년(399년)의 ‘百殘違誓 與倭和通’이라는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의 경우에는 아신왕 6년(397년)에 왜와 結好를 하면서 太子 전지가 ‘質’로서 갔

38) 車勇杰, 「竹嶺路와 그 부근 嶺路沿邊의 古城址 調査研究」, 『國史館論叢』 16, 1990, 242-244쪽

39) 만약 ‘至于伐城’의 ‘于’를 어조사로 본다고 하면 伐城으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없지 않다.

40) 『三國史記』 卷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6年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에 보이는 ‘質’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듯 상하, 복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⁴¹⁾

또한 石上神宮에 보관되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七支刀의 銘文 분석을 통해 전지왕 시기 백제가 왜 보다 우위에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⁴²⁾ 때문에 『三國史記』에 쓰인 ‘質’은 후대의 質과는 다른 인식의 표현이거나 또는 후대 신라 중심의 역사 의식에서 표출된 윤색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과 (㉡)에 보이는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백제는 倭에 군사 지원을 요구할 의도로 腆支를 보내 和通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日本書紀』에서는 백제가 왜국에 예의를 잃어서 왜국이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를 빼앗아 直支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어 파견 목적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日本書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백제왕의 무례라는 것이 廣開土王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려에 침탈당했던 백제 阿莘王(阿花王)의 소극적인 대고구려정책을 일컫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⁴³⁾ 하지만, 고구려의 공세를 받고 있는 백제에게 원군을 파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백제의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며 倭가 백제의 땅을 침탈했다는 어떤 역사적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이 기록은 「百濟記」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百濟記」와 관련해서는 그 근거의 역사적 사실은 백제계 사료에 두고 있지만 후대 『日本書紀』 찬자에 의해 윤색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학계에서는 이 기사를 윤색된 기사로만 치부할 뿐,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윤색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해왔다.

그렇다면 (㉢)은 본래 「百濟記」의 어떠한 내용이 후대 『日本書紀』의 찬자에 의해서 윤색된 것일까? 이는 廣開土王碑를 통한 일련의 기사 속에서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百濟記」의 기록 중에 ‘无禮於貴國’은 ‘貴國’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찬자가 후대의 蕃國史觀에 입각하여 삽입한 문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후는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奪’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장을 앞 문장과 연결되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倭를 주어로 해서 해석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전지가 倭에 파견된 이유는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침탈당하자 倭에 원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인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 「百濟記」 기록 중 ‘奪’의 주어를 고구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마 『日本書紀』 찬자에 의해 고구려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1) 羅幸柱,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特に百濟の「質」の派遣目的を中心として」, 『史觀』 134, 1996

42) 洪性和, 「石上神宮 七支刀에 대한 一考察」, 『韓日關係史研究』 34, 2009 : 『칠지도와 일본서기』, 경인문화사, 2021

43)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1962, 217-218쪽

이후 『日本書紀』應神 16年の 기록에는 東韓之地를 왜국이 백제에 사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h) 『日本書紀』卷第10 應神 16年(405년)

是歲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 是也.】

『三國史記』에는 405년 전지가 백제로 돌아와 왕으로 즉위하는 기록이 있어⁴⁴⁾ 阿花王이 죽자 直支가 왕으로 즉위하는 (h)의 기사는 2주갑 수정 연대로 보면 405년과 일치한다. 하지만, 東韓之地를 사여하고 전지왕이 왜왕에 의해 즉위한 것처럼 쓰인 『日本書紀』의 기록 또한 『日本書紀』에 흔히 보이는 윤색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日本書紀』繼體 6年條와 7年條에는 왜가 任那 4현이나 己汶, 帶沙를 백제에 사여했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하여 백제가 확보한 영역을 마치 왜가 준 것처럼 기술한 『日本書紀』의 전형적인 윤색의 형태이다.

따라서 (a)과 (h)의 기록도 이러한 蕃國史觀에 따라 왜국이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식으로 윤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가 고구려에게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 등을 빼앗겼다가 東韓之地를 회복했던 내용을 오히려 왜가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식으로 『百濟記』의 내용을 왜곡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東韓之地 등의 지역은 廣開土王碑 永樂 6년 조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공취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⁵⁾

더욱이 東韓之地에 대해서는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東韓之地에 대해 지명 비정이 시도된 바 있었지만, 제설이 분분한 데다가 당시의 역사상과 맞지 않아 실제로는 지명 비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찍이 이에 대한 비정은 일본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鮎貝房之進은 東韓之地를 전북 함열, 충남 대흥, 전남 곡성 일대로 보았고,⁴⁶⁾ 末松保和의 경우는 東韓之地를 錦江의南岸, 萬頃江 일대로 보면서 枕彌多禮를 康津, 谷那를 谷城으로 보아 이들 지역이 廣開土王碑

44) 『三國史記』卷第25 百濟本紀 第3 腆支王 元年

腆支王【或土直支.】梁書名映 阿莘之元子 阿莘在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十四年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太子還國 季弟磔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奔世 王弟磔禮 殺兄自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磔禮 迎腆支即位. 妃八瀆夫人 生子久尔辛.

45) 통상적으로 枕彌多禮를 『日本書紀』神功紀에 나오는 南蠻沈彌多禮와 같은 지명으로 보고 대개 전라남도도 지명 비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 고지명의 분석을 하다 보면 유사한 지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동일한 지명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타 사료의 비교, 검토를 통한 당시의 역사상을 도외시키고 音相似로만 지명 비정을 할 경우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南蠻沈彌多禮의 경우 굳이 방향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枕彌多禮와는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붙여졌을 것이다. 東韓之地와 관련해서는 洪性和, 『『日本書紀』應神紀 東韓之地에 대한 고찰』, 『日本歷史研究』 30, 2009 : 『칠지도와 일본서기』, 경인문화사, 2021 참조

46) 鮎貝房之進, 『雜攷』 7, 上卷,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163-168쪽

에서 왜가 대방계를 공격하기 위해 한반도 南岸에서 西岸으로 북상하는 海路 부근 지역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⁴⁷⁾

이는 한국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東韓之地를 전라도 내륙의 요지로 보거나⁴⁸⁾ 입실, 남원, 곡성이라고 하는 섬진강 상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지명 비정의 오류는 당시의 역사상을 도외시한 채 『三國史記』 地理志나 『三國志』 東夷傳 등에 나오는 지명의 音相似로만 지명 비정을 실시한 것에 기인한다.

최근에는 東韓之地 중에 한 곳인 爾林이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가야와의 관계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仍忽縣, 仍斤內郡인 충북 음성 또는 괴산설⁵⁰⁾이 제기된 이후 음성⁵¹⁾이나 청주, 청원설,⁵²⁾ 대전, 옥천설⁵³⁾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東韓之地라고 하는 방위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명 비정이다. 또한 (㉑)의 397년과 (㉒)의 405년에 해당하는 東韓之地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爾林에 대해 비정한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韓之地는 그 명칭만으로도 廣開土王碑에서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공취했던 지역 중에서 동쪽 지역의 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고구려군이 신라로 진입하는 동쪽 진출로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발표자는 일찍이 爾林城, 甘羅城, 高難城에 해당하는 東韓之地와 관련하여 伐嶺路의 獨樂山城과 예천군의 甘泉 지역 및 하리, 풍기 일원으로 지명 비정한 바 있다.⁵⁴⁾

이는 앞서 분석한 于伐城의 경우도 東韓之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爾林의 경우는 『日本書紀』 顯宗 3年條⁵⁵⁾와 欽明 11年(550년)條⁵⁶⁾에도 등장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顯宗 3年條는 爾林이 고구려의 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단 고구려와 백제의 상쟁 지역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日本書紀』의 기년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타의 사료

47)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73-77쪽

48)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145쪽

49) 李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 27, 1997, 58-59쪽

50) 李鎔賢, 「5世紀末における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顯宗3年紀是歲條の検討」, 『東アジア古代文化』 90, 1997, 81-83쪽

51)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140쪽 ; 강중원, 「성왕의 대외정책과 551년 전쟁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70쪽

52) 양기석,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2007, 54-56쪽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百濟文化』 48, 2013, 143-144쪽

53) 김영심,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과 섬진강유역」,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307-308쪽 ; 정재윤,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위의 책, 2008, 247-249쪽

54) 洪性和, 「5세기대 木氏를 중심으로 한 百濟와 倭의 고찰」, 『東아시아古代學』 39, 2015 : 『칠지도와 일본서기』, 경인문화사, 2021, 261-262쪽

55) 『日本書紀』 卷第15 顯宗 3年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 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56) 『日本書紀』 卷第19 欽明 11年(550년)

因獻高麗奴六口. 別贈王人奴一口【皆攻爾林 所禽奴也】 百濟遣中部奈率皮久斤 下部施德灼干那等 獻狗虜十口

를 통해 비교, 검증이 힘들다.

반면, 欽明 11年條의 경우는 550년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했던 城으로 나오기 때문에 『三國史記』를 통해 검토하면 6세기 신라가 북진하여 한강 유역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道薩城과 같은 지역으로 판단된다.⁵⁷⁾

道薩城과 관련해서는 일찍이 충주의 서남방으로 보은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보거나⁵⁸⁾ 충북 淸安⁵⁹⁾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천안의 古號인 兜率과 音相似하여 천안⁶⁰⁾으로 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목천읍 목천토성이라는 견해⁶¹⁾도 있었다.

최근에는 고구려의 道西縣과 道薩城이 音相似한 것을 근거로 증평 도안면으로 비정하면 서⁶²⁾ 대체적으로 증평의 이성산성(추성산성)과 경계에 있는 진천의 두타산성 일대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 통설과 같이 되어 있다⁶³⁾.

하지만, 道薩城의 경우도 『日本書紀』에 나오는 爾林城이라는 것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지명 비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爾林을 포함하고 있는 東韓之地는 앞서 분석했듯이 4세기말 고구려가 공취했던 동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고구려가 신라로 진입하는 진출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즉, 이들 지역은 4세기말에 고구려가 신라로 진입했던 ‘고구려의 진출로’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6세기 중반에 들어와서는 신라가 북방으로 진입했던 ‘신라의 진출로’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충주 고구려비에 보이는 于伐城의 경우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하여 『三國史記』 地理志에 고구려의 영현으로 나오는 ‘伊伐支縣’에 비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伊伐支縣의 지명 비정과 관련해서는 손영중의 견해에 따라 경북 순흥 일원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⁶⁴⁾

그러나 순흥은 고려시대에 興州로서 『三國史記』 地理志에 及伐山郡으로 기록되어 있어 伊伐支縣을 순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⁶⁵⁾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伊伐支縣의 경우는 경덕왕 때 隣豐縣으로 바꾸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면서 미상의 지명으로 남아 있다.⁶⁶⁾

57) 『三國史記』 卷第26 百濟本紀 第4 聖王 28年

春正月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兵圍金峴城.

58) 津田左右吉, 『眞興王征服地域考』, 앞의 책, 1913, 104쪽

59) 申采浩, 『朝鮮上古史』, 鐘路書院, 1947, 237-239쪽

60)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上, 乙酉文化社, 1983, 87쪽

61) 成周鐸, 「百濟末期 國境線에 대한 考察」, 『百濟研究』 21, 1990 ; 『百濟城址研究-續編』, 2004, 139쪽

62)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1970, 40쪽

63) 閔德植,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史學研究』 36, 한국사학회, 1983, 47쪽 ;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85쪽 ;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慶州史學』 23, 2004, 22-23쪽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 2009, 105-106쪽 ; 양기석,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2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58쪽 ; 윤성호,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2017, 237쪽

64) 손영중, 앞의 논문, 1985, 30쪽 ; 徐榮一, 앞의 논문, 2000, 501쪽 ; 장창은, 앞의 책, 17쪽

65) 『三國史記』 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朔州

嶽山郡 本高句麗及伐山郡 景德王改名 今興州 領縣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 伊伐支縣을 영주시 부석면 일대로 비정해 놓으면서 이를 따르는 연구자들도 있지만,⁶⁷⁾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三國史記』地理志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본래 고구려의 伊伐支縣에 대한 신라 때의 명칭은 隣豐縣이고, 이와 유사한 지명이 소백산맥의 벌재(伐嶺)와 맞닿은 영현으로 殷豐縣(殷正縣)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⁶⁸⁾

殷豐縣은 본래 赤牙縣인데 경덕왕 때 殷正縣으로 개명되었다가 고려 태조 때 殷豐縣으로 바뀌었다. 현재 예천군 은풍면을 중심으로 한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伊伐支縣인 隣豐縣의 경우는 殷豐縣(殷正縣)과의 인접 지역에서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隣豐縣인 고구려의 伊伐支縣은 벌재(伐嶺)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일대에 비정될 수 있을 것이다.⁶⁹⁾

또한 伊伐支라는 명칭을 통해 『日本書紀』에 東韓之地 중에 한 곳으로 나오는 爾林이 벌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충주 고구려비에 등장하는 于伐城 또한 벌재를 중심으로 동쪽 신라로 진입하는 고구려 진출로상의 爾林城 부근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伊伐支縣의 지명 비정

66) 『三國史記』卷第35 雜志 第4 地理2 朔州
隣豐縣 本高句麗伊伐支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67)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75-276쪽

68) 『三國史記』卷第34 雜志 第3 地理1 尙州
殷正縣 本赤牙縣 景德王改名 今殷豐縣

69) 홍성화, 「6세기 신라의 忠州 진출과 娘城」, 『東아시아古代學』 69, 2023, 134-135쪽

V. 맺음말

지금까지 새로이 판독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을 광개토왕비문과 『일본서기』 등 관련 사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을 통해 제액으로 ‘永樂七年’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광개토왕대의 비문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충주 고구려비의 永樂 7년은 광개토왕비의 永樂 6년과 永樂 8년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고구려가 永樂 6년(396년)에 백제의 58城과 700村을 공취한 후, 永樂 7년(397년)에 충주로부터 于伐城에 이르렀으며, 永樂 8년(398년)에 군대를 帛愼土谷에 보내 동정을 살피고 莫口羅城, 加太羅谷을 획득했던 사실과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于伐城’의 경우 고구려가 신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성격으로서 벌재(伐嶺, 伐峙) 인근이 유력하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해석되지 못했던 『日本書紀』의 東韓之地 관련 기사와 爾林城의 지명을 분석하면, 『三國史記』 地理志에 고구려의 영현으로 나오는 ‘伊伐支縣’과의 관련성이 부각되며 고구려의 진출로상에 있는 于伐城 또한 이 지역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日本書紀』

廣開土王碑

충주 고구려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주 탑평리유적(중원경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본문)』, 2017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중원역사문화권 대표 국가유산,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성과 공개」 보도자료, 2024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檀國大學校博物館, 『中原高句麗碑 調査報告書』, 1979

단국사학회, 『史學志』 13, 1979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武田幸男, 『高句麗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사)高句麗研究會, 『中原高句麗碑 新照明』, 제6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2000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1962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成周鐸, 『百濟城址研究-續編』, 2004

申采浩, 『朝鮮上古史』, 鐘路書院, 1947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 上, 乙酉文化社, 1983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鮎貝房之進, 『雜攷』 7, 上卷,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千寬宇, 『加耶史研究』, 일조각, 1991

青江秀, 『東夫餘永樂太王碑名之解』, 國會圖書館藏, 1884

충북대학교 박물관, 『丹陽赤城地表調査報告書』, 1991

홍성화, 『칠지도와 일본서기 : 4~6세기 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21

강종원, 「성왕의 대외정책과 551년 전쟁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고광의, 「충주 고구려비 관독문 재검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대사학회, 2019 :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김영심,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과 섬진강유역」,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金禮植, 「中原 高句麗碑 發見經緯」, 『藥城文化』 創刊號, 藥城同好會, 1979

金昌鎬, 「中原高句麗碑의 재검토」, 『韓國學報』 47, 1987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김현구,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倭의 實體」 『日本歷史研究』 29, 2009

김현숙, 「4~6세기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 羅幸柱,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質」の意味-特に百濟の「質」の派遣目的を中心として」, 『史觀』 134, 1996
- 南豊鉉,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그 史讀의 性格」, 『高句麗研究』 10, 2000
-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 확장」, 『慶州史學』 23, 2004
- 文安植, 「백제 한성기 北界와 東界의 변천」, 『百濟研究』 44, 2006
- 閔德植,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史學研究』 36, 한국사학회, 1983
- 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 『韓國史研究』 27, 1979
-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 76, 2010
- 朴眞奭, 「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 考証」, 『高句麗研究』 10, 2000
- 邊太燮,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志』 13, 1979
- 濱田耕策,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1974
- 徐吉洙, 「中原高句麗碑 新釋文(2000年 2月 26日) 結果」, 『中原高句麗碑 新照明』 제6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2000
-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于伐城과 古牟婁城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0, 2000
- 서지영, 「5세기 羅·麗 관계변화와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 성정용, 「4~5세기 백제의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 24, 2001
- 成周鐸, 「百濟末期 國境線에 대한 考察」, 『百濟研究』 21, 1990 ; 『百濟城址研究-續編』, 2004
- 손영중,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5-2, 1985
-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中原高句麗碑>의 釋讀과 內容의 의의」, 『史叢』 51, 2000
- 양기석,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2007
- 양기석,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2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百濟文化』 48, 2013
- 여호규,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 윤성호,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한국고대사연구』 87, 2017
- 李根雨, 「熊津時代 百濟의 南方境域에 대하여」, 『百濟研究』 27, 1997
- 이도학, 「永樂6년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韓國史學論叢(孫寶基博士停年紀念)』, 1988
- 李道學, 「高句麗의 洛東江流域進出과 新羅伽倻經營」, 『國學研究』 2, 1988
- 李道學, 「體泉의 上乙谷城考-신라의 소백산맥 以北 進出據點과 관련하여-」, 『慶州史學』 8, 1989
- 李道學,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전쟁 기사의 분석」, 『高句麗研究』 2, 1996
- 이도학,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高句麗研究』 10, 2000
- 李丙燾,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李丙燾,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1979
- 李成制,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98, 2020
- 李鎔賢, 「5世紀末における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顯宗3年紀是歲條の檢討」, 『東アジア古代文化』 90, 1997
- 李鎔賢, 「忠州 高句麗碑 ‘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80, 2020
- 李仁哲, 「廣開土好太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守墓人烟戶條와 그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

- 高句麗研究』2,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1996
- 이재환, 「'永樂 7年' 관독에 기반한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 지역의 接境性」, 『목간과 문자』 27, 2021
- 李昊榮,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長壽王代의 年號 推論-」, 『史學志』 13, 1979
- 林起煥,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高句麗研究』 10, 2000
- 임기환, 「고구려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 장준식,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와 전망」,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2019
- 張彰恩, 「中原高句麗碑의 관독과 해석」, 『新羅史學報』 5, 2005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 2014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 73, 2009
- 전덕재, 「충주고구려비를 통해 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65, 2019
-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85
- 전혁기·신지향, 「충주 탑평리 황새머리 백제고분군의 양상과 그 의의」, 『고조선단군학』 51, 2023
- 정재윤,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2008
- 酒井改藏, 「好太王碑面の地名について」, 『朝鮮學報』 8, 1955
-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1970
-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津田左右吉, 「眞興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千寬宇, 「廣開土王碑文 再論-廣開土王의 '廣開土境」, 『加耶史研究』, 일조각, 1991
- 洪性和, 「石上神宮 七支刀에 대한 一考察」, 『韓日關係史研究』 34, 2009
- 洪性和, 「『日本書紀』 應神紀 東韓之地에 대한 고찰」, 『日本歷史研究』 30, 2009
- 洪性和, 「5세기대 木氏를 중심으로 한 百濟와 倭의 고찰」, 『東아시아古代學』 39, 2015
- 홍성화, 「6세기 신라의 忠州 진출과 娘城」, 『東아시아古代學』 69, 2023

【토론】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충주 고구려비 고찰 -于伐城과 고구려 진출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김희찬(예성문화연구회)

평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통일신라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충주목의 건치 연혁에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이다. 신라가 빼앗아 진흥왕이 소경(小京)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중원경(中原京)으로 고쳤다.”는 기록 외에는 큰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千里忠州>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충주의 범위 내에서 매달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 걸으며 충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었고, 올해는 <연원도 따라가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원역(連原驛)을 중심으로 인근 군현에 있었던 14개 역과 그 너머의 접속역을 확인하면서 충주가 가졌던 지역적인 위상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35회 중원문화학술회의를 맞아 홍성화 교수님의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충주 고구려비 고찰’에 대한 토론자로서 글을 읽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문외한인지라 깊은 이해는 못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과 답사를 하면서 가지게 된 몇 가지 생각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1. 전제 : 충주 고구려비의 제액 ‘永樂七年歲在丁酉’에 대한 동의

1978년에 예성동회회가 결성된 이듬해인 1979년에 발견해 학계에 소개된 ‘충주 고구려비’의 의미와 가치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학술회의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 2019년에 고광의 선생님이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에서 전면 상단의 제액을 판독한 결과는 당시의 주요 뉴스였으며, 현재도 논의가 계속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제액의 존재와 판독의 합리성에 동의하시고 이번 발표문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의 제액 판독 결과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2. 397년의 고모루성(古牟婁城)의 위치

‘광개토왕비를 통한 충주 고구려비의 분석’에서 396년의 기사와 398년의 기사를 분석하며, ‘4세기 말에 고구려가 충주 지역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4세기 말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충주 일원은 5세기 초까지 격전지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 지대 혹은 경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맥을 경계로 갈리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고개 중에 ‘벌재’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연원도 따라가기> 첫 일정으로 벌재와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의 할미성으로 부르는 ‘老姑城’을 교수님의 안내로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뒷정리를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① 고모성을 광개토왕비와 충주 고구려비에 등장하는 ‘古牟婁城’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까?

②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의 姑母城과 마성면 신현리의 姑母城, 충주 남산성은 ‘漢美山城’으로 적는데, 그것이 모두 ‘할미성’으로 읽히는 점에서 두 비석에 등장하는 ‘고모루성’을 어디로 보아야 할까?

③ 광개토왕비 끝 부분에,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 계실 때에 교(敎)를 내려 말씀하시길, “조왕(祖王)과 선왕(先王)들께서는 단지 멀고 가까운 곳의 구민(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청소를 하게 하셨다. 나는 구민들이 피폐해지고 고단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자를 두면, 내가 몸소 다니며 노략해 온 한(韓)과 예(穢)[사람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의 수호·소재를 준비하게 하라”고 하였다. 말씀으로 교(敎)하신 바가 이와 같았으므로 이것을 교령(敎令)과 같이 하며 한(韓)과 예(穢)의 220가를 뽑았다. 그러나 이들이 [수묘의] 법칙을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뽑아왔다. 신·구 수묘호를 합치니, 국연이 30가이고 간연이 300가로 도합 330가이다.’라고 하였다. 그 중에 ‘신래한예(新來韓穢)의 연호(烟戶)’ 중에 ‘고모루성의 국연(國烟)이 2가(家), 간연(看烟)이 8가’이다. 수묘호에 등장하는 ‘고모루성’이 충주 고구려비 좌측면 7행에 새긴 ‘古牟婁城’과 같은 것일까?

광개토대왕이 생전에 내린 교(敎)에 따라 뽑은 수묘호(守墓戶)는 ‘내가 몸소 다니며 노략해 온 한(韓)과 예(穢)만을 데려다가’ 삼은 것이고, 그것이 397년에 세운 ‘충주 고구려비’에 등장하는 고모루성과 광개토대왕비에 등장하는 고모루성이 같은 것이면, 광개토대왕비의 396년 기록에 ‘58성 700촌을 얻고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군사를 돌려 도성으로 귀환하셨다.’에서 공취한 58성 중의 하나인 고모루성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발표자께서는 충주 고구려비에 등장하는 ‘우벌성(于伐城)’에 주목하여, 문경시 동로면의 벌재를 ‘이는 충주 고구려비에 나오는 우벌성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모루성’이 ‘고모성 또는 할미산성’으로 기록된 성 중의 한 곳이라고 본다면, ‘할미성’의 위치를 가리는 것이 ‘우벌성’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일본서기』를 통한 고구려의 진출로

충주에 관한 지지류의 연혁 기록에는 고구려를 시작으로 기술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396년에 광개토대왕이 ‘몸소 … 군사를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였다.’는 광개토대왕비문과 연결지어 397년에 충주 고구려비를 세운 것까지 2년간의 고구려의 백제 토벌 사실(史實)과 관련된 결과, 고구려가 충주를 주로 점령했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관독되는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을 보면, ‘新羅寐錦’이 등장하며 백제와의 관계보다는 신라와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해당 시기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백제 본기를 보면 두 나라 사이의 공방이 반세기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전선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나라의 대치 상황이 한성백제 시기에서 웅진백제 시기로 전환되면서 충주 지역은 고구려의 국원성(國原城) 또는 미을성(未乙省), 완장성(蕪長城), 난장성(亂長城)으로 굳혀지며 진흥왕이 북진하기까지 1세기 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충주의 건치 연혁 첫 머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각종 발굴 성과를 통해 백제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백제 시기의 충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의해 충주의 건치 연혁에서 백제가 첫 머리에 놓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금 길지만 충주 어림(御林)에 대한 전설을 인용하겠습니다.

충주시 성내동에서 마즈막재를 향해 약 1km 지점에 이르면 계명산 동남 기슭의 안림동 관할에 어림(御林)이라는 마을이 있다.

백제 개로왕(蓋鹵王) 20년(고구려 장수왕 62년 AD 474) 국토확장을 위한 삼국의 국경충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때에 백제 21대 개로왕은 바둑(碁)을 몹시 좋아해서 전쟁터에서도 틈만 나면 신하 재상들과 더불어 바둑을 두는 것을 더없는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 바둑만 잘 둔다면 왕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고구려 왕실에서 죄를 짓고 도망했다는 스님 하나가 개로왕을 배알하고 백제 백성으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니 이곳에서 목숨을 이어 가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이에 개로왕이 받아들일 것을 허용하자 도승은 “소승이 평소 바둑을 즐기고 있었는데 황송하오나 허락하여 주신다면 묘수 한 수를 보여 드리겠나이다.”라고 말을 했다. 왕이 기뻐해서 즉시 한 수를 대국한 바 그 숨씨가 절묘한 바가 있었다. 왕이 놀라고 또 한 편으로 반가와하며 이름을 묻자 도림(道琳)이라고 했다. 왕은 다시 한 번 놀랐다. 그것은 삼국 정립 시대에 고구려의 바둑의 고수로 도림이라고 하면 기계(碁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은 도림을 상객으로 대접하고 날마다 궁실을 무상출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를 신임하면서 때로는 국정에 관한 일까지도 자문을 얻을 정도였고 그럴 적마다 도림은 있는 지혜를 다해서 왕을 보좌하는데 정성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날 도림은 은밀히 왕에게 아뢰었다. “소신은 적국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소원(疏遠)하지 않으시고 바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그 황망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신은 무엇 한 가지 나라를 위해 도움되는 몸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

은 말이 있사온데 허용해 주시겠사옵니까”라고 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쾌히 무슨 말이든 해보라 하고 승낙을 했다. 그러자 도림은 “소신이 이곳에 몸을 담고 그동안 짝막한 시일이었으나 국세(國勢)를 살펴본 바 대왕의 국토는 스스로 천연지새(天然之塞)를 이루어 어떠한 적이든 감히 침범하기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오나 이것은 천험(天險)일 뿐 이 곳에 보태어 부업(富業)을 쌓고 위업을 더하면 반드시 국가만대의 영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신이 살피건대 지금 성은 허물어진 그대로며 궁실도 초라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궁성을 보축(補築)하시어 대왕의 위업을 갖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아뢰었다.

그런 일이 있는 뒤 얼마 안가서 개로왕은 나라안의 장정을 모조리 징발해서 돌을 깨고 나무를 베어 휘황찬란한 궁전을 세웠다. 그리고 나자 숨돌릴 사이도 없이 이번에는 성청(城廳)을 보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이어서 전왕(前王)의 능묘를 손질하는데 수백리 먼 곳으로부터 돌을 운반하는 등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노역을 강요했다. 이와 같은 일이 어언 한 해를 통해 춘하추동 쉴 사이 없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피로하고 기력이 탈진했으며 점차 왕을 원망하는 원성이 일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소요스러움을 알자 도림은 몰래 고구려로 빠져나가 때의 장수왕에게 고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지금 백제의 민심은 나라를 이탈해서 누구 하나 왕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림의 말을 듣고 장수왕은 급히 대군을 이끌고 일거에 백제를 쳐들어 갔다.

도림이야말로 미리 고구려 장수왕의 내명을 받고 백제에 숨어 들어간 첩자였다.

백제왕은 느닷없이 쳐들어온 고구려의 대군을 맞이해서 대경실색하면서 이에 대처했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다. 오랜 노역으로 해서 장정들의 힘은 극도로 소모되다가 사기마저 저하되어 적을 맞아 싸울 아무런 기력도 없었다. 백제왕은 비로소 도림의 계략에 빠졌구나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토록 많은 재화 인력을 소비해서 만든 궁성은 삼시간에 고구려군의 말발굽 아래 유린되고 개로왕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태자는 직신(直臣)들의 도움을 받아 한산(漢山) 위례성(慰禮城)을 빠져나와 충주 계족산(鷄足山)으로 난을 피했는데 이가 곧 백제 22대 문주왕(文周王)이다.

문주왕은 계족산에서 난을 피하면서 힘을 길러 권토중래(捲土重來)를 획책하고 있었는데 계족산에서 바라다 보는 충주의 지세가 양강(兩江, 한강과 달천강)에 응위되어 가히 도읍지로서 적격함을 알고 신하들과 의견을 모아 산기슭으로 내려가 이 곳에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고을 이름은 소경(小京)이라 칭하고 역사(役事)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목공수와 석공수들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자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왕은 잔술밭에 장막을 두르고 가행궁(假幸宮)을 삼아 궁성 재건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오랜 침묵을 깨고 만리재(萬里峙) 넘어 송림과 사천개 넘어 갈매기들(白鷗坪) 일대에 연장 소리와 함께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고 왕도가 들어선다는 바람에 충주 백성들은 궁지와 자랑에 설레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왕은 가행궁에서 잠을 자다가 백도포(白道袍)에 몸을 감고 은색 백발을 느린 스물한 명의 신령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연로한 신령이 양 쪽에 열 사람씩의 옹위를 받으며 다가오더니 “이곳은 왕도로서의 적지가 아니니 남쪽 백강(白江)이 에워싸인 곳에 곰나루(熊津)를 찾아 석초(石礎)를 세움이 좋으리라. 나는 너의 시조이니 현몽함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속히 원수를 갚아 숙원을 설분하도록 하라.”하고 안개 속으로 흔적을 감추었다. 잠에서 깬 문주왕은 그 꿈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왕위를 스물두 번째로 이어받았으니 스물한 명의 신령들이 분명 그의 조상임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문주왕은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신하들을 재촉해서 백강(錦江)으로 내려가 곰나루(公州)를 찾아 그곳에 왕도를 정하니 이곳이 바로 오늘날 공주 공산성(公山城)이다.

이렇게 해서 잠시 왕도의 꿈을 안은 계족산하 별관은 다시 옛 정적으로 되돌아 가고 들판에는 석공들이 다듬다 버린 왕궁주초만이 무심히 나뭇글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은 이 곳에 “왕이 납시어 장막을 치고 가행궁을 차린 숲판”이라는 뜻에서 어림(御林)이라 불러 오늘에 전해오고 있다.

제공자 : 충주시 안림동 류민영 · 김창제 · 추일준
(충청북도, 『전설지』, 1982. pp.73~76. 전문)

전설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이 이야기는 백제와 관련해 충주에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일 것임이다. ‘어림(爾林)’과 ‘어림(御林)’을 비슷한 음을 가졌다고 해서 억측할 수도 있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공방하던 상황의 결말과 관련된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충주가 백제의 세력권에 들었던 시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발표자께서 『일본서기』에 기록된 동한지지(東韓之地)에 주목하여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킨 이후,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논의를 전개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명(地名)의 변화에 담긴 역사적 흔적을 추적하고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기존에 죽령과 조령을 중심으로 논의해온 상황에서 벌재에 주목하고 ‘동한지지’의 한 곳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확장시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뒷 면

자유 주제 발표

뒷 면

삼국시대 백제말 지역언어의 특수성과 문어교육에 대한 국어사적 이해

황국정(경상대학교)

〈目 次〉

- I. 백제언어의 현실한자음의 반영과 고어 기층의 문제
- II. 상층부의 백제언어의 중원어음의 독음법
- III. 고대 절운음의 중고한음과 고려초기 석독구결의 문자표기와 표음 문제
- IV. 삼국음의 백제 지역언어의 설음과 치음의 혼용 표기
- V. 백제 지역의 충주말 특성
- VI. 방언 인접 경계 사이의 음운 형태적 교량의 문화

I. 백제언어의 현실한자음의 반영과 고어 기층의 문제

고대국어의 백제말 연구는 향가 해독과 제문연구, 비문판독으로 이어지는 고유어의 우리말 되살리기 교육에서 선행연구를 볼 수 있다. 김민수(1965), 김완진(1980), 이기문(1961, 1978), 남풍현(1993), 김무림(2022)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문어교육에 대한 국어사적 고어 연구의 이해는 삼국시대 백제말 지역언어의 교육적 자료가 풍부하도록 언어사료의 해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자언어의 교육적 가치로 보이는 중원고구려비문의 해석에서 난해어로 보이는 몇 이두 글자에 대한 백제말 언어의 특수적 가치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또한, 단어의 사전적 문제를 방언교육에서 살리는 문헌 성립이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논증 과정에 형태와 통사 교육에서 구어 문법이 사라져가고 있는 국어사의 독서 교육도 이와 맞물려 있다.

고어 교육은 옛말을 보존하는 문화교육에 음절 표현이 두드러지는 백제 지역언어의 특수한 해석법도 우리말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하다. 종교, 철학, 사상, 역사, 언어의 배합과 한글 교육이 어우러져 사라져가는 충북 방언의 백제말 구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중, 충주말의 액센트 강세는 구어의 거성과 연결되어서 고어 음절교육의 이두와 구결의 구분이 고구려 시대에서부터 발해를 거쳐 삼국의 역사를 이어져 이두식 표현이 문장으로 이어져 온다. 오늘날 표준언어 중, 말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백제 지역언어의 순수우리말식 충남 방언의 형태와 교육용 어휘 교육은 국어교과서 중 구어의 문어작문이 국어교과서와 한문의 영향이 필요하며, 백제 지역언어의 고전적 성조의 문제, 향가식 표현, 작문의 시가 운율 해독, 서사 문장 작문 교육의 시가 언어 차이를 나타내는 문헌 교육의 형성이 형태적 이유를 발현한다.

고려가요 중 백제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도천수관음가의 음절 해석이 한자음의 구결의 기원과 계보 가운데 절운의 운회 교육을 되살려 준다. 이처럼 고어의 백제언어를 표준음으로 승화시키는 충주말의 백제구어의 교육은 국어사에서 우리말 어휘 교육에 초등 유아 성립에 중요한 교과과정을 지니고 있다.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음의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상고음 之음의 설두음 위치에서 조음점이 뒤로 좁혀지면서 후설성을 가지는 정치음의 경우, 설두음과 설전음의 기류가 가야지역 금동과편, 약간의 토기 속 황혈식 석실묘 테두리의 옥전 M11호 고분은 가야의 다라국의 실체를 알려주며, 고분의 유물 중 외래계 요소가 서한의 문왕 글 속에서 읽혀지는 일부 사기 동한음과 서경의 일부가 전반적으로 중고음의 기층을 갖는다. 이것은 중세국어 한자음과의 동질성이 적게 잡아도 67%를 웃돌기 때문이다.

중고한어사의 상고기층의 한어식 우리말 고어 중고음과 한음 상고음 기층에 대한 연구사 및 구결한자독법에서 석독구결자와 음독구결, 부호구결의 계보에 대한 기존의 업적들을 살펴보고 몇몇 미해독 구결자들의 정확한 발음을 한자음의 기층을 달리하는 중고한음의 발음과 절운계 한자 어휘의 성격을 토대로, 상고음의 계보가 어떤 영향을 끼쳐 고려 구결의 한자 독법에(안병희()) 조선 중기 한자음운학이 발전한 16세기 남명학과의 절운한자음을 연구하면서(이상필()) 경서번역 및 한글 언해에 주력하게 된다. 고려말, 남명집 구결문의 특이어형과 난해음의 독법이 경남음운론의 어식 및 주해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다.

II. 상층부의 백제언어의 중원아음의 독음법

구결의 독법을 한어 상층부의 중세 고려 초기 상거평성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기한어 중기 중고음을 기반으로 한 구결 독법 가능성을 찾아보고, 상고음의 저변에 깔려 있는 한자의 기층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는 구결한자음 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음은 구결자에 대한 자형과 부수, 서체의 종류 및 자형변화를 수용하면서 유경, 역사, 언어학, 경학, 불교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음의 독음처리방식에 대한 해석과 수절운계 상고음의 기층 문제를 다시 해석해 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석독구결자료 가운데 금광명경 권3의 자형 부분에 대해서 구역인왕경은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고구려의 고대국어 음운설정에 있어 유기음의 음소 문제는 구결자를 해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역인왕경의 운모 발음에 역독 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重攝, 衆뉴의 성모를 모으는 운모 체계를 정리해내는 발음 기준이 되는 한어음운학의 기초를 만들어 내고, 동국정운, 사성통고 한자 어휘를 정리, 수집하게 된다.

고려속요는 남명집에 수록된 고려 중기 이두체의 구어 고려말 중, 구결음의 석독법이 정착되어지기 전에 성리학 음독이 완성하게 되는 교화책이 성립되었다. 구결남명집 언해에 대한 조선초기 고어말이 한어음운학이 수준 높게 기준이 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돈주(1995)) 한어음이 중세국어와 고려 초기 중엽에 이르는 음독구결에 도달하는 처격조사의 과

정이 여격과 부사격으로 완성되는 12세기 말, 국문 문법이 완성한다.

고대국어 가사 중에 혜성가, 도솔가, 처용가의 해독에서 주술문학의 음독이 구결에 독자적 글자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처용가의 ‘東京’의 독음은 9세기 화엄경소의 독음법으로 이어지며, 장안음의 중고한음과 고려초기 957년 균여향가 제작 시에 도입된 중국 속음의 한자 어휘의 도입이 한국전승한자음에 영향을 끼치면서 고려 구결의 독음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금광명경>에서 거론되는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로 보이는데, 범망경의 표기자체가 도구격의 미분화시기에 대한 문법사적인 의미를 드러내며, 한자어휘와 고유어말의 어휘사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Ⅲ. 고대 절운음의 중고한음과 고려초기 석독구결의 문자표기와 표음 문제

자운류와 어휘사전의 차이는 천자문의 몇 글자가 백제 구결음에서 한자음의 한국식 이두음으로 보이는 다음 구결한자系列의 발달 추이를 보면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음과 같다.

1. 경음과 격음 계열의 두 부류

격음 계열의 성립은 통일신라 이후 치음 계열을 시작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설음, 순음, 아음 등의 순차적 발달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김무림 2004: 54~62). 고대국어 한자음의 재구음에서 격음 계열을 의혹 없이 확인하기는 어렵다.¹⁾

① [*to/도~*tu/두]

投[中/투/平, 流/開1/平/侯/定/度侯/dəu, 侯/do :]²⁾

② [*tson/존~tsin/즌]

寸[中/촌/上, 臻/合1/去/恩/淸/倉困/tsʰuən, 文/shu : ns]

③ [*pa/파](高)(統)

波[中/파/平, 果/合1/平/戈/幫/博禾/pua, 歌/pa : l]

④ [*tsi/지~*tsh/치]

次[中/츠/上, 去, 止/開3/去/至/淸/七四/tsh, 脂/snʰis]

2. 遇攝 魚韻 莊組의 원순모음화 반영 여부

舌音과 齒音(精組/照二系와 章組/照三系)이 [-여]로 반영되지만, 치음 중에서 莊組(照二系) 계열만은 [-오]로 반영되어 차이가 있다. ‘所’와 ‘助’의 재구음이 시사하는 바는 핵모의 원순

1) 고대국어 표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중세국어의 ‘딤치’에 해당하는 한자어 ‘沈菜’에서도 ‘沈’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中/딤]과 [中/심]이다. ‘딤치’를 참조할 때, 중세국어 이전의 ‘沈’의 한자음으로 [딤]을 재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沈’의 중고음 성모는 설상음 澄母[d]와 정치음(照三系) 書母[c]이므로, 한자음 [딤]은 澄母[d]에 잘 대응하며, 한자음 [심]은 書母에 잘 대응한다.

2) ‘投, 必, 活’ 등의 재구음 성모는 바로 중고음으로 해석되므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모음화 단계는 통일신라 시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① [*tsə/저](高)(統)

助[中/조/上,去, 遇/合3/去/御/崇/牀據/dʒiə, 魚/zras]

3. 止攝 齒音 韻母의 [i/이]와 [ʌ/으]

지섭(止攝)의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 2等字(照二/莊系)의 중성이 주로 [-으](부분적으로 [-의])로 나타나는 것은 正齒音 3等字(照三系/章系)의 中聲이 [-이]로 나타나는 것에 대조되는 반영 양상이다. 이것은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 2等字의 권설성에 의하여 모음이 [ɪ]나 [i]로 변하는 설첨화(舌尖化)에 의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은 中古音 이후의 漢語音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는 止攝의 齒頭音과 正齒音 2等字(照二/莊系)의 中聲이 [-i/-이]로 재구되므로, 고대국어 한자음은 止攝의 齒音에 있어서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① [*si/시](新)(統)

賜[中/스/上,去, 止/開3/去/寘/心/斯義/sie, 賜/sle : gs]

② [*si/시 ~ (*zi/시 ~ *tsi/지)](高)(百)(新)(統)

士[中/스/上,去, 止/開3/上/止/崇/鉏里/dʒiə, 之/zruʔ]

之[中/지/平, 止/開3/平/之/章/止而/teĩə, 之/tju]

次[中/츠/上,去, 止/開3/去/至/淸/七四/tsʰi, 脂/snʰis]

兒[中/스(으)/平, 止/開3/平/支/日/汝移/riə, 支/ŋje]

[-----, 蟹/開4/平/齊/疑/五稽/ŋei(>ŋiei), 支/ŋe :]

중세국어 한자음은 이 단계의 漢音을 반영했다고 이해된다. 상고음 고구려 기층의 6-8세기 신라 중후반 江攝의 핵모는 평순 저모음인 [-아]보다는 원순적이며 중모음에 가까운 [-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江攝 覺韻의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유추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學[中/학]’이 있다. 바로 이 한자음이 고대국어 한자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활음과 요음의 격음계열 분화와 구어의 분화 성립 과정

① [*pʌk/복](新)

朴[中/박/去, 江/開2/入/覺/滂/匹覺/pʰək, 屋/pʰro : g/po : gbo : g]

4등운에서 [j]의 발생은 3,4 등 등운 가운데 절운의 4等韻(齊韻·先韻·蕭韻·靑韻·添韻)은 전기 중고음 시기에 개음 [j]가 없었으나, 후기 중고음에서 [j]가 생겼다. 중세국어 한자음의 4등운에 모두 介音 [j]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후기 중고음을 반영한 뚜렷한 증거이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先銑霰屑韻인 ‘鐵’이 개음이 없는 [tʰəl/털]로 재구되는 것은 전기 중고음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신라 이후의 한자음에서는 ‘齊[저], 借[적]’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등운에 개음 [j]가 반영되어 있어서 시대 차이를 드러낸다. 즉 4등운에서 [j]의 발생과 반영을 기준으로 하면 삼국의 한자음과 통일신라의 한자음이 구분된다.

① [*tʰəl/털(təl/털)](高)

鐵[中/털/去, 山/開4/入/屑/透/他結/tʰet(>tʰiet), 質/lʰi:g, lʰi:d]

한문음독한 유가사지론 34~44 위치의 사선(‘ㄴ 1 ㅅ’[흔삿]에 대응)으로 보았던 동음이문법 33~44 위치(‘ㄴ ㅅ’[스더])에 대응한 점으로 읽으면서, 44 위치 사선의 대응 구결자는 ‘ㄴ 1 ㅅ’[흔긔]에서 ‘ㄴ 1 ㅅ +’[흔의긔]로 수정하였다. 생략표기의 점부호는 역독의 금광명경에서 읽히지 않는 언해자의 석독문으로 다시 읽으면서 쓸 수 있다. 가야 구문에서 보이는 부사적 언어 품사류의 고문의 언해 및 번역의 특성은 이질문화의 다양성이 직역과 의역에서 두드러지는 이음의 변천과정과 언어음의 자연언어적 지리 형태가 이 지역 언어의 특이성으로 한글 언간의 출현이 가능하다.

IV. 삼국음의 백제 지역언어의 설음과 치음의 혼용 표기

동아시아 한국 국자의 한글 표기와 한문혼용의 이중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고려시대 문헌 중, 석독구결로 알려진 유가사지론 [초조]대장경 (권5)의 점선 <각필 표기>와 {유가사지론} (권 5/8)에 나타나는 점과 선은 부호도 아니고 문자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흥미 있는 것은 한글의 자모와 비슷한 것이 많아 또 하나의 한글 기원설을 태동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점토 구결 부호의 점, 직선, 직각선, 곡선의 넷이 있고 하위 분류도 가능하다. 고려가요 중, 비문과 달리 희귀자가 많은 구문에서 보이는 고문 해독에서 어절과 구문의 변질성이 고려 초기 한문보다 덜한 순우리말 글의 기초적 토조사(-로)와 문장의 융합 표기를 이두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법 형태의 음운론적 형태 배합은 동음어의 융합적 이표기, 이음식 동음표기(어미 ‘ㄴ/거/리/다, 야/히/도’), 어절의 구형태 절 구분, 문장 형태 동형어의 이음식 어절 표기 문제를 문장과 어절 구분으로 한문 어투의 문장 형태에 대해 한글의 문자 형성과 기원에 대한 가야어의 고대한자음 기층으로 구분해낼 수 있게 만들었다. 고아시아 문자 해석에 대한 양주동(1955)의 한계 부여언어의 특징 중, 남한 지역어를 반영하는 충북 경계 지역의 삼국말 중, 자료가 희귀한 백제 신라 언어의 삼국 문화에 대한 지역적 언어 기반이 한글 문화보다 한자 한문의 고음성이 저음보다는 한글의 우수성을 발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X자합부선의 보조사 위치와 기능은 유가사지론 권제5의 번역글에 나타나기도 한다. 각필 구결자료 유가사지론의 이두문의 번역적 성격의 반영에 불교사, 자토 석독구결 서체의 현토

교육에 읽기를 위한 부호 점토구결, 읽기 교육용 자토구결의 문자사 규율의 혼합된 문장 교육으로 승화한다. 이두 한자문의 번역어는 구어를 반영하면서도 번역체의 특이한 글말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이전의 경우 찬술자의 연대와 시기가 신라말보다 고려 초로 잡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고려 초기 한자어의 가야언어의 반영 양상은 용감수경의 운서를 통해서 보면, 11세기말 고려한자음의 구어가 한역된 글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어체 문학의 가야음을 구어문학, 설화체 전기 문학으로 수용한다. 구어체의 고려한시 성조에 대한 번역과 한글을 구분하여 배달말의 순우리말을 경남문화와 접목하여 지역언어의 순수한 말을 지켜내야 삼국의 언어 문화가 가야 언어의 직역 언어를 문어로 고어를 유지할 수 있다. 삼국문화의 정체성은 한자 번역어의 문어를 고수해야 한다. 번역말의 한글화를 이중언어사용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고대 고어교육에서 가르치는 강학의 철학이 배이도록 이두문과 한자 직역문을 구어 쓰기 훈련을 교육해야 한다.

1. 두음법칙의 예외

가. 日母의 [n/ㄴ]과 [z/ㅈ]의 발음은 조선 초기,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日母의 정상적인 반영은 [ㅈ/z]이다. 그러나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日母는 [ㄴ/n]으로 반영되어 그 차이가 확연하다.

① [*njəl/닐~(*nil/닐)](高)(百)(新)

熱[中/열/去, 山/開3/入/薛/日/如列/ɾjət, 月/njed]

日[中/일/去, 臻/開3/入/質/日/人質/ɾjət, 質/njig]

② [*njə/녀](統)

如[中/여(여)/平, 遇/合3/平/魚/日/人諸/ɾjo, 魚/nja, njas]

女[中/녀, 여(여)/去, 上, 遇/合3/上/語/泥/尼呂/njo, 魚/nas, naʔ]

2. 내사의 재구적 형태

충청도 방언의 혼합과 역사적 형태에 대한 문말 형태와 어조사 재구는 동이족의 고증하도록 발음되는 문헌의 경음과 평음/격음의 삼분지 언어를 개모음과 한어 4평음의 고조를 둘로 나눌 수 있도록 문증하는 고서 읽기 방법. 유기음이나 치음의 격음계열은 지역어마다 고른 평4조의 설음계열 속에서 방언이 분기된다.

① [*to/도~*tu/두]

投[流/開1/平/度侯/dəu]

② [*tson/존~tsin/즌]

寸[中/, 臻/合3/倉困/tsʰuən, 文/shu : ns]

③ [*pa/파](高)

波[中/과/平, 果/合]

④ [*tshi/치]

次[中/츠/上,去, 止/開3/去/至/清/七四/tshi, 脂/snhis]

중세국어 ‘所’와 ‘助’의 재구음이 시사하는 바는 핵모의 원순모음화 단계는 통일신라 시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는 止攝의 齒頭音과 正齒音 2等字(照二/莊系)의 中聲이 [-i/-이]로 재구되므로, 고대국어 한자음은 止攝의 齒音에 있어서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3)

3. 지역어의 이두식 표현

백제말 구어교육은 의태부사, 첩어, 반복합성어(의성의태어) 한음과 한자성구 중 번역의 음독이 가장 정교한 진주 한어를 이두식으로 고치며, 특이한 어두음 ‘ㄹ’, ‘ㅈ’, ‘ㄱ’의 약음에 대한 속어의 기준이 다르다고 본다. 가야어의 기준 중 ‘·’의 저평조를 낮게 낮추어 소리내는 방식은 아래의 한자음의 평성조의 고저 장단을 늘이는 일종의 화법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상 재구는 고어보다 근대음에서 더 활발하게 보인다.

ㄱ. 兒[中/ㄹ(ㄹ)/平, 止/開3/平/支/日/汝移/tŕe, 支/njel]

중세국어 한자음은 이 단계의 漢音을 반영했다고 이해된다. 상고음 고구려 기층의 6-8세기 신라 중후반 江攝의 핵모는 평순 저모음인 [-아]보다는 원순적이며 중모음에 가까운 [-ㄹ]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외적인 ‘學[中/학]’이 있다. 바로 이 한자음이 고대국어 한자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ㄴ. 朴[中/박/去, 江/開2/入/覺/滂/匹覺/pʰɔk, 屋/pʰro : g/po : gbo : g]

4등운에서 [j]의 발생은 3,4 등 등운 가운데 절운의 4等韻(齊韻·先韻·蕭韻·青韻·添韻)은 전기 중고음 시기에 개음 [j]가 없었으나, 후기 중고음에서 [j]가 생겼다. 중세국어 한자음의 4등운에 모두 介音 [j]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후기 중고음을 반영한 뚜렷한 증거이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先銑霰屑韻인 ‘鐵’이 개음이 없는 [tʰal/탈]로 재구되는 것은 전기 중고음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신라 이후의 한자음에서는 ‘齊[저], 借[적]’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등운에 개음 [j]가 반영되어 있어서 시대 차이를 드러낸다. 즉 4등운에서 [j]의 발생과 반영을 기준으로 하면 삼국의 한자음과 통일신라의 한자음이 구분된다.

즉, 고려는 정희 한문 음독한 {유가사지론} 34~44 위치의 사선(‘ㄷ 1 ㅈ’[훈보]에 대응)으로 보았던 동음이문법 33~44 위치(‘ㄷ ㅈ’[사대])에 대응한 점으로 읽으면서, 44 위치 사선의 대응 구결자는 ‘ㄷ 1 ㅈ’[훈보]에서 ‘ㄷ 1 ㅈ’[훈의괴]로 수정하였다. 생략표기의 점부호는 역독의 금광명경에서 읽히지 않는 언해자의 석독문으로 다시 읽으면서 쓸 수 있다. 가야 구문

3) 자료로 검증되는 구어의 형태는 학교교육의 문어 교육과 차이가 있다.

에서 보이는 부사적 언어 품사류의 고문의 언해 및 번역의 특성은 이질문화의 다양성이 직역과 의역에서 두드러지는 이음의 변천과정과 언어음의 자연언어적 지리 형태가 이 지역 언어의 특이성으로 한글 언간의 출현이 가능하다. 조선 언간의 변별은 한글과 한문 서간체의 형식과 형성에서 문건보다 자연언어 처리의 인공데이터 수준의 기술언어학적 한문언어의 구문 언어의 한문 복합 형성에서 번역의 의고성이 관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 종결형의 발달을 가져온다. 가야 문말어미의 오래된 전통적 언어는 중국 백화문의 통역음에서보다 중고 한음 기층의 상고적 고어 문제를 가야고분의 유물 벽화의 고어 해석에서 구문에서 돌아보게 된다.

V. 백제 지역의 충주말 특성

백제 언어는 6세기 화엄경의 도래 이후, 신라 향가가 번역되면서 두 인접 언어 사이에 번역어의 이두 반영이 보인다. 그 예로 도경 사상이 나타나 있는 도참 사상의 고어 문학 중, 교열과 번역이 나타나는 시가 번역문학의 불교철학과 도가사상, 유교의 정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균여 보현시원가의 한역시에 대한 대장경 화엄사상 문학은 가야 언어의 맥을 잇게 하였으며, 경남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디지털화하여 구어와 생활 속 교양언어의 역할이 서민문학과 민중문학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직역과 의역을 중시하는 풍속언어의 발전과 동일하게 우리말 고유어 및 한말의 배달말 교육에서 배운 한문식 이두와 한글의 자연언어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순화용 매체 교육이 중요하다. 직역된 한자말의 가야식 발음을 잘 전달하는 균여 향가의 고려 고구려언어의 계승언어와 신라 언어의 삼국식 발음은 {합부}금광 명경과 법화경 문헌에 잘 드러난다. 번역의 글을 통해 입말과 글교육을 자리매김하며, 인공언어시대의 바른 언어 표기 역시 경남 언어의 순화된 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자 교육에 대한 이두 번역문의 한글과 지역말의 혼합적 섞임 현상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동음어, 동의어 등 어원적 고증 역시 삼국의 언어 혼합이 한자의 발달 및 신라사의 방언을 가야언어와 신라말을 다르지 않게 섞일 수 있게 한다.

VI. 방언 인접 경계 사이의 음운 형태적 교량의 문화

백제 구어의 교육적 영향은 인간의 말뭉치 형태 사이에서 모음의 인접동화, 이음화, 연음 경계 두기가 활발한다. 표준언어 중, 제천, 충주, 영동을 경계로 하는 충북 방언 중, 백제언어를 간직하고 있는 표준 어휘 방언권에 반영하고 있다. 이 중, 표준문법의 문어 교육에 속하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등장되는 백제 지역어의 중부 방언 모음 자이는 사서언해의 고어 계층 중 송대 개봉은의 고려 방언과 명칭 교체기의 일부 북방계 중원음 한자언어 사이의 교접관계가 보인다. 15세기 표준한자음의 정착이 고려말 비문 판독과 고려 어휘의 교섭이 분화와 기점을 달리하는 13세기 음독법의 일부 형태를 보유하는 충북 영동 지역에서 가

장 두드러진다. 특히, 거창 의령, 대구, 안동 합천, 울산, 부산 특수 계층의 표준말 구어식 표준언어 K-map 지리는 방언권을 서남, 경남 동부(중부) 방언, 동북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방언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리 두기의 교육방법론이 적합할 수 있다. 고어교육의 한자말이 구어식 구결토의 간소화된 지역언어(어미 일부, 직설법어미<의문형, 청유형>)에 나타난다.

또한, 일부분의 번역되지 않는 난해자를 가진 백제 언어의 교육 중 구어의 일부 형태가 소멸되기도 한다. 없어진 어휘를 되살리는 교육은 일기보다는 시가문학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 한자 문제에서 표준말과 성조의 거리두기식 조화는 모음의 일부 경계 지역에서 하향이 중모음이 특징적인 충청도 백제말 지역의 언어적 현상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순음의 계열 중, 윗입술의 형태를 오므리지 못하는 활음의 화장, 창가, 이창해 식의 한국식 표현에서 동일 어형의 '창'의 길이가 표준어휘고어의 한자음 길이의 중간적 형태이다. 혼합음 중, 어두음절에서 잘 나타나는 원순성 순적 조화의 계열인 중모음의 [W]는 '화장, 원활, 환면' 한자 이음절 어절에서 나타난다. 서법 가운데 구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두 판독문에서는 종결형태가 두드러지지 않는 충북 지역언어에서 명사문의 기원을 보여주는 명령문의 서법 관계를 형태적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이것이 현재 백제말 구어를 보이는 충주 말 보유지역 방언 형태이다.

서법 5문형 중, 구어의 현재말 표현 가운데 국어사에서 문어형태로 나타나는 백제 제어형태의 일부 어말어미의 <之> 어말어미와 청유형 종결형태의 첨사류는 특징이 조금 나타나기도 한다. 명령형과 청유형의 경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⁴⁾

전라도 생성적 복합음으로 보이는 현재 디지털 챗봇식 교육화된 AI인공음의 진화에 맞춰 한글의 표준화를 위한 언어교육을 위해 표준 경남 지역 방언음을 고쳐서, 6세기 고대 상고음 고유한 서부방언 합천 옥전과 두락리 마을의 한문식 토기 고분군으로 찍어낸 목관활자 출순화어의 한자음과 한문 한자 어휘의 교육발화음을 준수하기 위한 말뭉치의 구축이 의사소통에 글쓰기가 호환적 경계 지역, 구역의 해석보다 충주방언에서 운율을 지키는 현재말의 언어 현상도 중요하다. 금산지역어의 충주 지역어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판독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진주, 거제, 남해 언어의 문학적 요소가 가야언어를 나타내는 구어표현에 남겨지듯, 구어를 아끼는 충청 이남의 충주, 보령, 송월 지역어의 음운 활음 경계도 특징적이다. 동부 경남방언 중, 서부 지역언어의 교육적 말이 한자음의 이중 포함어를 가지고 있는 구결 표현의 순우리말 한문 형태, 지역언어의 방언을 고유언어로 접합된 교육용 한자로 보이는 이두 독음법의 형태, 삼국시가 지명표기에 나타나는 성조와 운율의 방언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순우리말의 정감 있는 백제언어의 구어의 특징은 한자어에 고스란히 간직하여서, 경기방언과 유사한 특징을 문법적으로 보이거나 문어 어휘의 성질을 형용사, 일부 감탄사의 구수한 이두어의 고전표현에만 남겨질 수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두언어의 백제말은 구수한 정겨운 방언식 사투리를 백제말의 전통적 교육용으로 발표된 보은지역어, 예산, 진천어의 교육에도 보여진다. 온화하고 성경에 가까운 구수한 방언의 사투리를 백제 지배민족언어의 융합 운적 상생 관계라고 국어사에서 해석한다. 음절마다 달라지는 한자말의 이음절식 장단을 교육은 성조가 사라져 가고 있는 오늘날, 표준방언음의 형성과 과정에서 또다른 국어사의 해석을 이용하는 교육자들이 있다.

VII. 결론

본고에서 살펴본 언어학적 백제말 지역언어의 기층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백제 지역의 현실 구어 방언 중, 문헌 고어 계림유사 판독 중, 방언에서 보이는 판독문 이두형태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진 한문 어순에서 종결형태로 나타나는 어조사 {之}에서 백제말 ‘熊[고마느르] 夫餘郡 本百濟所夫里郡, 陵城縣本百濟亦陵夫里郡 등. 이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말의 어말모음 보존 현상으로 후대의 기록에 남겨진 ‘熊津’이 용비어천가에 ‘고마느르’로 나타나는 거성의 ‘마’ 음 표기에 차나의 형성이 보여진다. 이 ‘고마’는 중세국어의 ‘곰(웅)’에 대응되는 고형이다. 이 대응은 성조에 있어서까지 완전한 것이다. 백제어 어휘는 신라어(및 중세국어)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가령 ‘石山縣本百濟珍惡山縣’에서 石을 의미하는 백제어 단어가 ‘돌악’(珍惡)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珍’은 새김으로 ‘돌’이라 읽는다. ‘馬突郡一云馬珍’등 참고. 한편 백제어에는 ‘사 沙(新)’, ‘모랑 毛良(高) 등이 있었음이 드러나는데 이들은 중세국어의 ‘새’, ‘뭍-’, ‘막(棟)’ 등에 대응되는 것이다. 백제어 상층부의 상하계급을 보여주는 이두식 어휘의 하나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고구려의 계통 중, 이두의 기원으로 보이고 피지배민족의 사회언어학적 특징으로서 구어의 문어식 표현의 일종인 삼국시대 이두의 한 문장식 이두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고구려 전통음을 계승한 삼국시대 문법의 일부 이두식 표현에서 한문의 특수어절 중, 고어식 구결문의 작습 형태이다. 이 가운데, 종결형태가 현재 중부 일부 방언에 보이는 표준한자음의 계열인 음독 문헌의 일부 형태로 석독음독의 차이를 구분한다. 이것이 현재 충주말 고어 형태로 보이는 수사, 관형사, 형용사 일부 문장 형태에서 구어의 전통적 관습이 옛말로 이어지는 역사형태로 고증된다. 백제말의 구어식 형태와 문장 작습의 교육적 문제는 석독 구문에서 격생략과 어순재배열이 단어와 어휘의 오래된 관습에서 비롯되는 언어 선택의 외사적 교육이다. 백제말의 비문 판독이 언어학적 고증 안에서 문자, 표기음운, 구결의 언어적 고증이 결부된 백제지역어의 차차 독법은 구어를 간직하고 있는 일부 충북 방언의 일반명사 해석이 조선현실한자음 중, 법화계열의 ‘구급방언해, 삼단시식문언해’ 복본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

구결과 죽간 점토 부호의 차이 역시 백제 언어의 향가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 비문 어휘의 특성은 중원고구려비문 해독에서 종결형의 이두식 어휘를 선택하는 특수계통 고려식 한자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 또한, 국어사 교육에서 고구려와 백제언어의 간접 관계를 충남 관계 문헌의 현실한자음 언어 교육에 적용되는 현실적 이어 관계 속에서 고유어 전통의 문장 영향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고려시대 이두 해석의 그간의 연구 성과는 참고 문헌에서 보여주었다.

3) 구결문과 석독구결의 차이가 죽간에서 드러나는 어휘 일부 명사 불교식 어명 표기 문어식 교육은 구어의 조선 현실한자음을 반영한 ‘삼단시식문언해’의 치음계열의 중원음을 표

기했다고 보이는 백제어 어휘 계통으로 남겨진 예기류의 경서 중, 16세기 사서언해 인용어절 중 일부구문)의 말투와 민요조의 언간체를 유지하면서, 고서의 교화용 제문 속 안부체의 이두와 한글자료, 한글 외교법전, 공문서, 한글용 공식 이두문, 사서문집 중 시가문의 가사문으로 발전하게 된 한글의 기억으로 고전은 현대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예로 조선 후기 {도산십이곡}의 노랫말이 있어서, 유가사지론의 법화 사상은 현대의 가야지역에도 반영되고 있다.

【토론】

「삼국시대 백제말 지역언어의 특수성과 문어교육에 대한 국어사적 이해」 토론문

송영대(건국대학교)

언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물론 동일한 문화권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고대사 연구자로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 대한 토론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황국정 선생님께서는 여러모로 고생하셔서 논문을 쓰시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후학으로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선생님의 연구에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고자 하여, 부족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백제말 지역언어의 특수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백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백제의 언어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야지역 금동과편, 약간의 토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백제 언어를 연구하실 때, 백제의 목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선생님의 논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백제 목간에 대한 자료가 여러모로 확보·연구된 결과, 2023년에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 목간 특별전을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목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파악한 상황이지만, 아직 언어학적인 부분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시면서 백제의 언어를 탐구하셔서 연구에 반영하시면,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백제 당대의 자료보다는 백제 후대의 자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백제 언어에 대한 연구인지, 백제계 언어에 대한 연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지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본 논문의 의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연구에서 백제와 관련하여 확실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 과정에서의 혼동 때문인지, 발표문 기준으로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중반까지의 내용과, 6페이지 중반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시고, 본 논문을 보완하면 독자들에게 본 논문의 목적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글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언어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가독성을 위해 한자 표기를 현재보다 더 많이 활용하여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토론문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 트릭스터로 본 <세경본풀이> -박봉춘 구연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이지수(고려대학교)

〈目 次〉

- I. 들어가며
- II. ‘트릭(trick)’과 ‘트릭스터(trickster)’ 개념 재설정
- III.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 양상
- IV. <세경본풀이>에서 발견되는 쌍둥이 트릭스터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본고는 박봉춘 구연 <세경본풀이>에 등장한 삼세경을 ‘쌍둥이 트릭스터’로 파악하고, 이들이 지닌 트릭스터의 성격과 신화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세경본풀이’는 말 그대로 농경신 세경의 내력에 대한 본풀이로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 각각 ‘밖세경’, ‘안세경’, ‘하세경’이라는 삼세경의 신직¹⁾을 부여받은 내력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세경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서사구조, 신화적 의미, 등장인물의 특성 등 다양한 연구²⁾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세경본풀이>가 지닌 흥미성, 신화성에 근거한 결과로 파악된다.

자청비는 서사의 중심을 이끌어나가는 인물로, 한편으로 문도령과의 애정 서사를, 다른 한편으로 정수남과의 트릭 서사를 구축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경본풀이> 인물 연구를 비롯한 많은 관심은 주인공 자청비의 특이한 삶에 집중되어 있다. 문도령과 함께하기 위

1) <세경본풀이>의 삼세경은 각 심방본에 따라 ‘상세경-중세경-하세경’ 혹은 ‘밖세경-안세경-하세경’으로 명명된다. 본고에서는 박봉춘 심방 구연본에 따라 ‘밖세경-안세경-하세경’이라는 삼세경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강진욱,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2009.; 박경신,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서대석, 『韓國巫歌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2.;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해 남장을 선택한 자청비의 도전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일조한 자청비의 트릭, 과거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자청비의 지혜, 자청비와 하인 정수남의 속고 속이는 행위를 통한 재미, 옥황의 난을 막는 자청비의 용맹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흥미성이 서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축이 된다면, 다른 한 축은 신화성이라 할 수 있다.

신동훈이 지적하였듯, <세경본풀이>에서 서사와 신직의 연결고리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³⁾ 이에 신동훈을 비롯하여 <세경본풀이>의 서사와 신직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려는 일련의 시도가 등장하였다. 강진옥⁴⁾과 김재용⁵⁾이 자청비의 재생 능력에 집중하여 자청비의 신직에 대한 논의를 풀어냈다면, 정인혁⁶⁾은 희생과 포용이라는 자청비의 성격에 집중하여 자청비가 박세경(상세경)인 문도령과 하세경인 정수남의 중간에 위치하게 된 이유를 살폈다. 나아가 신동훈은 삼세경이 각각 신성(神性), 인성(人性), 수성(獸性)을 담지하며, 이는 天-地-人을 표상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논의는 <세경본풀이>의 세 인물이 세경신이라는 신직을 부여받아 신성성을 획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왜 세경신이 한 인물이 아닌 세 인물로 나누어져 작품 속에 제시되었는지, 다시 말해 세경신이 셋으로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세경본풀이>의 이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경신의 논의로 시작하였다. 논자는⁸⁾ 다섯 이본을 비교·분석하여 서사구조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안사인 심방 구연본을 선본(善本)으로 제시하였다. 그 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안사인 심방 구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박봉춘 심방 구연본 <세경본풀이> 속 주요 인물인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의 성격을 쌍둥이 트릭스터에 기대어 살펴본 후, 왜 세경신이 박세경·안세경·하세경으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트릭’과 ‘트릭스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 <세경본풀이>의 트릭 양상을 살핀 후, 4장에서 <세경본풀이> 속 트릭스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트릭(trick)’과 ‘트릭스터(trickster)’ 개념 재설정

설화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트릭(trick)’과 ‘트릭스터(trickster)’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 듯하다.

‘트릭(trick)’은 우리말로 ‘속임수’ 치환할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트릭스터(trickster)’는 ‘문화 인류학에서, 도덕과 관습을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화 속 인물이나 동물 따위를 이르는 말’로 규정되어 있다.⁹⁾ 이러한 개념 설정은 단지 트

3) 신동훈, 앞의 논문, 121면.

4) 강진옥, 앞의 논문.

5) 김재용, 앞의 논문.

6) 정인혁, 앞의 논문.

7) 신동훈, 앞의 논문.

8) 박경신, 앞의 논문.

9)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96619&searchKeyword)

력을 행하는 인물을 트릭스터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트릭스터는 서사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도덕과 관습을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그것이다. 트릭스터는 서사 내에서 기존 질서에 반동적 역할을 하는 인물 혹은 동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릭스터의 반동적 행위가 작품 내에서 부정적으로만 그려지는가? 그렇지 않다. 앞서 조희웅이 지적했듯 트릭스터는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가치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중성’이라는 트릭스터의 특징과 맞닿는다. 물론, 향유자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이들 인물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은 쉽게 가치 평가될 수 없다.

학계의 트릭스터 연구¹⁰⁾는 트릭스터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에서 트릭스터 연구의 선편을 잡은 조희웅은 트릭스터의 양가적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¹¹⁾ 이는 단순히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로 트릭스터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수호¹²⁾는 한국 설화 속 트릭스터의 ‘경계성’을 살피며, 역사가 흐름에 따라 트릭스터담이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각 향유 집단에 의해 조정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트릭스터는 트릭스터담의 향유자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뀐다. 나수호가 지적한 트릭스터에 대한 관점은 트릭스터라는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주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는 연구자마다 트릭과 트릭스터의 개념을 다르게 설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트릭스터에 대한 개념, 트릭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트릭스터의 트릭이 수행되기 위해선 트릭에 당하는 ‘듀프’라는 인물 혹은 동물이 필요하다. 즉 트릭의 기본 요건은 트릭스터-듀프의 관계 성립이다. 트릭의 세계는 바로 이 트릭스터-듀프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들 관계가 다양한 사건 속에 유지되고 변화되는 자장을 이룬다. 이들 관계는 ‘정보의 격차’로 인해 결정되는데, 트릭스터의 트릭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으로 듀프보다 많은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릭스터는 반드시 듀프보다 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트릭은 성사되지 않는다. 한편, 이는 트릭스터담의 한 유형 중 ‘속고 속이기’와 연관되는데, 정보의 격차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뒤바뀔 수 있다. 이 경우 트릭스터와 듀프의 관계가 역전될 가능성을 보인다.

To=3)

10) 트릭스터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기호, 「한국트릭스터담 연구-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기호,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회』 42, 한민족어문학회, 2003.;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류정월, 「전(傳) 양식에 나타난 문화기호학적 고찰 - 트릭스터담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2004.; 임주영, 「한국트릭스터담의 유형 및 성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희웅, 「트릭스터(Trickster)담 연구」, 『어문학논총』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11) 조희웅, 위의 논문, 85면.

12)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 양상

작품에 나타난 트릭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서사 단락을 트릭을 중심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트릭 서사의 구조는 ① 배경 ② 목적(발생 동기: Trickster:Dupe 설정) ③ 트릭 발생 ④ 트릭의 결과 및 평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³⁾

<표 1> 1번째 트릭	
① 배경	자청비가 정수덕의 손이 아름답다고 칭찬함
② 목적(Trickster:Dupe)	상전을 골리려 함(정수덕:자청비)
③ 트릭 발생	빨래를 하면 손이 아름다워진다고 속임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하녀 정수덕 대신에 자청비가 빨래함

<세경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트릭은 하인인 정수덕이 상전인 자청비를 속이는 것이다. 자청비는 정수덕의 손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데, 이때 정수덕은 자신의 상전을 골리기 위해 빨래를 하면 손이 아름다워진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자청비는 정수덕 대신 연못가에 가 빨래를 하게 된다. 여기서 자청비는 하녀인 정수덕의 속임수에 넘어간 무지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뒤에 이어지는 서사를 보면 자청비는 결코 무지한 인물이 아니다.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설화적 세계에서 영민한 트릭스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첫 번째 트릭에서 자청비가 정수덕의 단순한 속임수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표 2> 2번째 트릭	
① 배경	자청비가 정수덕 대신 빨래를 함 → 지나가는 문도령을 보고 반함
② 목적(Trickster:Dupe)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기 위함(자청비:문도령)
③ 트릭 발생	남북하고 문도령을 속임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문도령과 함께 주청당에 가서 삼 년동안 수학함 → 주청당에서 퇴소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청비가 정체를 밝힘 → 삼 개월 동안 함께 삶

그다음 이어지는 서사에서 자청비는 우연히 만난 문도령에게 반하게 된다. 문도령은 글공부를 하기 위해 서당에 가는 길이었고,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가기 위해 남장을 한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속일 수 있게 된 이유는 문도령의 앞으로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속임수의 기반은 트릭스터와 듀프의 정보 격차에 있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남장을 하여 함께 주청당에 갈 수 있는 속임수를 행할 수 있었으며, 자청비

13) 류정월은 Richard Bauman의 속임수 구조를 차용하여 트릭스터담을 ①배경 ②모의 ③속임수 사건 ④속임수가 밝혀지는 부분, 4단계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4단계의 구조를 설정하였다. (류정월, 앞의 논문.)

의 남동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문도령은 이러한 정보 격차에 의해 속임수에 당한 것이다. 남장을 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주청당에서 동거를 하며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여자임이 밝혀질 위기마다 뛰어난 속임수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 결국 문도령은 삼 년동안 자청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주청당에서 퇴소를 하는데, 이때 자청비가 스스로 자신의 트릭을 밝힌다. 이 부분은 <세경본풀이>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트릭구조로, 트릭스터가 직접 듀프에게 자신의 속임수를 밝힌다. 이러한 트릭은 듀프와 함께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듀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그 결과로 자청비와 문도령은 삼 개월 동안 함께 살게 된다.

<표 3> 3번째 트릭	
① 배경	정수남이 일을 안 하고 낮잠을 잠 → 자청비가 일을 시키니 우마(牛馬)를 몰고 나무하러 감
② 목적(Trickster:Dupe)	낮잠 자는 동안 우마가 죽은 것을 숨기기 위함(정수남:자청비)
③ 트릭 발생	문도령을 보다 우마를 잃었다고 속임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보러 가자고 요구함

세 번째 트릭은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등장하는 정수남은 자청비의 하인으로, 이들은 주인-하인이라는 신분 계급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정수남은 앞선 정수덕과 같이 자청비를 끌리기 위해 속임수를 행하는데, 속이고 속이는 관계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트릭과 차이가 있다. 정수남은 소와 말이 죽은 것을 숨기기 위해 자청비에게 문도령을 봤다고 속인다. 이때, 정수남은 자청비와의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한 욕망을 품고 있었고 4번째 트릭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도령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게 된다. 이는 정수남이 자청비가 문도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자청비는 하염없이 문도령을 그리워했기에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표 4> 4번째 트릭	
① 배경	자청비가 목이 마르다고 함
② 목적(Trickster:Dupe)	자청비와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함(정수남:자청비)
③ 트릭 발생	물을 마시려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속임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자청비가 옷을 벗고 물을 마시자 정수남이 옷을 숨김

3번째 트릭의 연쇄작용으로 4번째 트릭이 이루어지는데, 문도령을 찾으러 가는 길에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갈증을 표출한다. 정수남은 자청비와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혹은 자청비를 끌리기 위해 물을 마시려면 옷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물을 마시던 중, 정수남은 자청비의 옷을 몰래 숨기는데 이는 자청비의 나체를 보고자 하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3·4번째 트릭은 트릭스터인 정수남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연쇄작용으로 트릭을 행했다는 점에서 앞선 1번째 트릭과 다른 결을 띤다.

<표 5> 5번째 트릭	
① 배경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속은 사실을 알
② 목적(Trickster:Dupe)	정수남을 골리기 위함(자청비:정수남)
③ 트릭 발생	정수남에게 움막을 지으라 함 → 자청비는 움막 안에서 구멍을 계속 뚫으며 정수남에게 밖에서 구멍을 막으라고 시킴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정수남이 화를 냄

5번째 트릭은 앞선 3·4번째 트릭의 트릭스터와 듀프과 역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자청비는 연이은 정수남의 트릭에 속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역으로 정수남을 골리기 위해 트릭을 행한다. 자청비는 정수남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움막이 필요하다 하며, 정수남에게 움막을 지으라고 한다. 이때, 자청비는 정수남의 성적 욕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를 활용해 트릭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정수남은 움막을 다 지은 후 자청비와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 다급히 움막을 짓는데,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움막의 구멍을 다 막은 후 움막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자청비는 정수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구멍을 뚫게 되는데,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정수남은 움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트릭의 결과 정수남은 자청비가 자신에게 트릭을 수행했음을 알고 화를 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6번째 트릭과 연결된다.

<표 6> 6번째 트릭	
① 배경	정수남이 속은 사실을 알고 화를 냄
② 목적(Trickster:Dupe)	정수남을 다른 꾀로 골리기 위함(자청비:정수남)
③ 트릭 발생	정수남에게 이를 잡아준다고 무릎에 누으라고 함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함 ¹⁴⁾

자청비는 정수남이 5번째 트릭으로 인해 화를 내자, 다시 정수남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척 또 다른 트릭을 행한다.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이를 잡아주겠다고 자신의 무릎에 누우라고 한다. 자청비의 살결을 느끼고 싶은 정수남은 화를 가라앉히고 제안을 수락하는데, 자청비는 정수남의 이를 잡아주며 머릿결을 쓰다듬고 이에 정수남이 잠들어 버린다. 자청비는 정수남의 귀에 뽀족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정수남을 죽인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인 후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여 정수남의 부정한 행동으로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자청비에게 자청비의 부모는 “나의 하남(下男)을 살려 두고 너 가고 십훈 곳으로 가라.”고 화를 낸다. 이들 부모에겐 노동의 가치가 없는 딸보다 남자 하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청비의 부모는 딸에게 부정을 저지른 정수남에게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분노는 노동의 가치가 있는 하인을 죽인 딸에게로 향한다.

14) 이때 정수남의 왼쪽 귀에서는 뽀쪽새가 날아가고, 오른쪽 귀에서는 부엉이가 날아간다. 새의 상징적인 의미는?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부모의 말을 듣기 위해 정수남을 환생시킬 환생화를 찾으러 떠난다. 여기서 자청비는 트릭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표 7> 7번째 트릭	
① 배경	집에서 쫓겨난 후 남북을 한 자청비가 길을 걷다 동자 이인이 싸우는 것을 봄
② 목적(Trickster:Dupe)	환생화를 얻고자 함(자청비:사라대왕)
③ 트릭 발생	붓 두 자루와 부엉이를 바꾼 후, 화살로 부엉이 귀를 관통하여 사라대왕 김정신 후원에 던져 놓음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사라대왕이 자신의 딸과 자청비를 혼인시키려 하나 미뤄두고 환생화를 얻어서 정수남을 환생시킴

자청비가 트릭을 사용하여 정수남을 환생시킨 후 집에 돌아가지만, 부모님은 “집에 잊지 말고 나아가라”며 다시금 자청비를 쫓아낸다. 자청비는 울며 길을 걷다 죄를 지어 매일 일정량의 비단을 짜는 형벌에 처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 비단은 문관선 문도령택으로 올리는 비단이었는데, 자청비는 노인을 도와 비단을 짠다. 문도령은 비단의 품질이 일전보다 좋아졌음을 느끼고 노인을 통해 자청비가 짠 비단임을 알게 된다. 문도령은 노인에게 자청비와의 재회를 주선하길 청한다. 기약한 날이 지났음에도 자청비는 문도령과 재회하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

<표 8> 8번째 트릭	
① 배경	자청비가 문도령과 재회할 날을 기다림
② 목적(Trickster:Dupe)	자청비와의 은밀한 만남을 바람(문도령:자청비)
③ 트릭 발생	문도령이 밤중에 손가락으로 창을 뚫으려고 함
④ 트릭 결과 및 평가	자청비가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름 : 트릭 실패 → 문도령이 떠남

앞선 트릭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8번째 트릭조차 직진 트릭의 연쇄작용으로 작용한다. 해당 단락에서는 트릭스터가 문도령으로 제시된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약속한 재회 날짜에 나타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데, 그렇게 약속을 어긴 문도령이 자청비를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8번째 트릭과 연결된다. 문도령은 자청비와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밤중에 자청비의 방에 찾아가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뚫으려 한다. 바로 이때, 트릭의 세계가 깨져 문도령이 떠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세경본풀이>는 앞서 말했듯 트릭으로 구현되는 세계이다. 여기서 문도령은 자청비를 떠나게 되는데, 자청비가 트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밤중에 누가 손가락으로 창구멍을 뜯부라고 하는데 자청비는 바늘로그-손가락을 찌르니
“날낭내내여, 날피내여. 곱기는 하나 마음이 고약하다.”하고 기적의 업는지라.
자청비는 문을 열고 보니 아무런 것도 안 보이는지라, 이상하다고 그 익일에 노부인의 못그를

“작야에 문도령이 안 오랏드냐?”하니
 “아무런 사람도 오시지 안하얏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적도 업드냐?”하니
 사실대로 말을 하니 노부인이 대노하여
 “그 기적이 문도령 오신 것이다. 네 행실이 그리하니 부모의 눈빛게 닳다. 고약한 계집이니 곧 나
 아가라.”하여 조차부니 (284면)

자청비는 문도령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고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낸다. 이에 문도령이 “마음이 고약하다.”라고 평가하며 홀연히 사라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기존 연구에서 부정적으로 논의되었던 정수남의 트릭에는 아무런 가치평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고약하다”라는 부정적 가치 평가가 제시된 것이다. 즉, 트릭의 속고 속이기로 구현된 세계에서 트릭에 속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낭군을 이별하고 하늘 옥황에게 배우니 승전한 치하를 하고, 땅반 물반을 갈라주고 오곡씨를 주면서 인간에 내려가서 세경이나 맞하살라하니 자청비는 하늘 옥황을 하직하고 인간에 내려오라서 정수남이를 달고 오곡을 심게하고 정수남이는 우마를 보게하니 맞치 모물씨가 업는지라 또 하늘 옥황에 가서 모물씨를 엮고 오라서 심게하니 다른 곡식보담 제일 늦되니 지금 역 다른 곡식보담 늦게되었습니다.그리고 자청비는 세경을 맞호고 정수남이는 우마를 맞하야서 일년 백종이면 말머리 고사를 드립니다. (286-287면)

박봉춘본에서 문도령은 자청비를 떠난다. 말그대로 문도령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여느 <세경본풀이>와 같이 박봉춘본 <세경본풀이> 또한 문도령은 신직을 부여받는다. 여타 이본은 문도령과 자청비의 관계가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세 명이 모두 신직을 맡게 되지만, 문도령(밖세경)과 자청비(안세경)·정수남(하세경)은 철저히 구분된다. 문도령과 자청비·정수남으로 구분지어지는 구체적인 논의는 4장에서 상술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박봉춘본 <세경본풀이>는 트릭의 세계관이 구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8가지 트릭을 통해 보았듯 작품 속에서 트릭을 수행하는 인물은 4명으로 등장한다. 자청비, 정수남, 문도령, 정수덕은 작품 내에서 트릭을 수행하기도, 트릭에 당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설화적 의미의 ‘트릭스터’로 규정할 수 있을까? 단순히 트릭을 행하는 것이 트릭스터가 아니라는 것은 앞선 2장에서 충분히 밝혔다. 따라서 설화적 의미의 ‘트릭스터’는 자청비와 정수남으로 그려질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주요 인물인 자청비와 정수남의 속고 속이기 구조를 두드러지는 이들의 트릭스터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세경본풀이> 속 쌍둥이 트릭스터의 신성성

주지하듯 <세경본풀이>는 특성이 각기 다른 세경신-밖세경·안세경·하세경-의 본풀이이

다. 밖세경인 문도령은 천상의 선관으로, 안세경인 자청비는 양반집 여인으로, 하세경인 정수남은 자청비의 하인으로 제시되며 그 신분조차 다르다. 신분이 다른 각각의 인물이 어떻게 세경신이라는 공통된 신직을 받았을까? <세경본풀이>에 대한 독해는 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문은 <세경본풀이>의 신직에 관한 연구를 촉발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축적된 연구 성과가 이를 방증한다. 정인혁은 세 명의 세경신 가운데 주인공인 자청비가 안세경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된 논의로 삼았다. 그 결과 자청비의 ‘용서’행위를 통해 조화로운 공생의 세계관을 꾸민다고 하였다. 또한 자청비가 문도령과 정수남과 함께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기 실현을 넘어선 우주적 차원의 자기 실현이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세경본풀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상과 지상, 우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조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는 것¹⁵⁾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세 명의 인물이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된 이유를 살핀 것이 아닌, 세 명의 세경신이 각 신직을 부여받은 이유에 대해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의 서사를 통해 왜 이들이 세경신으로 좌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정인혁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수남을 악한 인물로 규정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¹⁶⁾. 과연 정수남이 <세경본풀이>에서 악한 인물로 설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3장에서 전술했듯, 박봉춘본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에 대한 가치 판단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수남은 자신의 욕망을 강력히 표출하고, 자청비와의 관계 속에서 트릭을 행하고 또 트릭에 당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정수남을 어떤 존재로 파악할 수 있을까? 정수남은 트릭스터적 성격¹⁷⁾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트릭스터이기에 선/악이라는 가치 판단에서 벗어난 존재로 나타나며, 마지막에는 하세경이라는 신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수남의 트릭스터적 성격은 단지 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세경본풀이>의 트릭스터는 앞서 언급했듯 자청비와 정수남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단지 이들은 각각의 트릭스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쌍둥이 트릭스터로 그려진다. Claude Levi-Strauss에게 쌍둥이¹⁸⁾는 단지 ‘한 어머니에게서 함께 태어난 두 아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살리시 어족의 신화를 예시로 들며 보다 넓은 의미의 쌍둥이 개념을 제안하였다.

살리시 어족에 속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에는 톱슨 인디언과 오카나곤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화에는 두 명의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는 둘 다 결혼하기에는 분명히 다른 둔 남자의 꾀에 빠집니다. 이들은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습니다. 사실상 그 아들들은 쌍둥이가 아니지요.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윤리적·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까닭에 어느 정도 쌍둥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보면, 이들 판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살리시 어족의 판본은 주인공의 쌍둥이적인 특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쌍둥이는 형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촌이기

15) 정인혁, 앞의 논문, 364~368면.

16) 위의 논문.

17) 정수남의 트릭스터적 성격에 대해 선편을 잡은 논의는 이은희의 앞선 논문이다.

18) Claude Levi-Strauss, 임옥희 옮김, 『신화의 의미』, 이끝리오, 2000.

때문입니다. 다만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매우 비슷할 뿐입니다. 둘 다 속임수 덕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대로입니다. 두 주인공이 실제로 꼭 같은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아메리카 판본에서도 두 주인공은 서로 다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며, 서로 정반대의 성격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61~62면)

그에 의하면 이러한 쌍둥이는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존재로 제시된다. 이렇게 서로 유사하지만 또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두 개체가 쌍둥이로 존재한다. 쌍둥이에 대한 대립되는 시선은 터너의 아프리카 부족 사회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쌍둥이 출생이 자리 부족¹⁹⁾이라는 사회 구조상 모순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부족에서는 쌍둥이를 죽이거나, 혹은 쌍둥이에게 특별한 사회적 신분/신성한 속성을 부여한다.²⁰⁾

김진국이 하는 말이

“중이라는 것은 영청강화주역을 갖도 다닌다고 하니 가졌느냐?”

“네,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로 사나? 자식이 업서 한탄 중이니 우리에게도 유자하겠느냐 무자하겠느냐 보라.”

하니, 중의 오행 팔괘 단수 특갑 김 푸고 영청강화주역을 거더본 직

“사에 수록을 드리면 남자가 낫겠습니다.”

김진국이 질겨

“무엇을 하여 사수록을 드리겠느냐?”

“대병미 일식과 입든 상의장과 은으로 백량 백근량을 저우리고 우리 사로 수록을 드리소서.”

말하야 화주는 도라가고 김진국은 대병미 일식과 입든 상의장을 밧라서 이슬을 맞치고 은백 근근량을 저우리고 거문 암소에 추어 식겨 가지고 동계나무를 향하야 가드니,

엇던 난대 업는 화주가

“소승 제이베요” 하니

김진국이 못기를

“엇던 중이냐?”

“네, 소승은 서계나무 백금사 화주입니다.”

“하고로 이곳을 나렸느냐?”

“소승의 오행팔괘를 드리보니 대감님이 동계나무사 수록가시는 것 갓사오니 나렸습니다. 동계나무사에는 신령이 업고 우리 사에는 신령이 좃사오니 우리사에 사수록을 드리면 조겠습니다.”

김진국은 그 중이 말을 듯고 서계나무사에 가서 붓체님을 향하야 사배를 하고 수록을 드리니, 서계나무 대승이 말이

“귀가 후 현몽이 잇슬 것입니다.”하니

19) “쌍둥이 출산은 분류상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그 어디에서도 한 번의 분만으로 태어난 복수의 자녀들은 신비롭게도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친족체계와 관련된 귀속 결정의 규칙에는 가족 구조나 조직화된 친족집단에 있어서 쌍둥이가 차지할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Victor Turner, 박근원 역,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84면.)

20) 위의 책.

김진국은 중이 말을 못하고 귀가를 하고 동계나무사 대사는 자기 사에 수록을 드린다고 하여두고 서계나무 사에 수록을 드린 시기로 김진국집에 송시를 주자고 생각하여 정수덕이 몸에 환생을 주자고 조화를 부린 직

일일은 김진국이 현몽하니 청감주에 후박안주를 먹어 베니 해몽자를 호출하여 해몽하라 하니 선몽자 왈

“녀자생불하겠습시다.”

정수덕이 또 현몽하였다 하니

“네가 하몽을 보았느냐?”

“소녀는 소주에 제육 안주를 먹는 꿈을 보았습시다.”

그러하니 김진국 영감이 욕을 하니, 해몽자가 말하기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 녀인은 남자를 생불하겠습시다.”

말하야 두고 해몽자는 귀가하여 불고, 김진국 영감의 삼년 후에는 녀자를 생불하니 일흠을 자칭비라고 짓고, 정수덕이도 동년 동월 동일 동시에 남자를 생불하니, 일흠을 정수나무라고 지었다.²¹⁾

자칭비와 정수남이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고 설정되어있는 판본²²⁾은 박봉춘 구연본이 유일하다. 이 둘은 비록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동계나무사 부처에게 점지를 받아 태어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진국은 아들을 점지받기 위해 동계나무사에 수록을 드리기로 약속하지만, 서계나무사 대승의 꼬임에 넘어가 약속을 어기게 된다. 이에 화가 난 동계나무사 대사가 김진국의 하인인 정수덕에게 아들을 점지하고, 김진국에게는 딸을 점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칭비와 정수남은 유사한 방식의 탄생 배경을 통해 쌍둥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들은 쌍둥이로 설정하면 <세경본풀이>에서 주인공인 자칭비 외에 정수남이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신화에서 쌍둥이(형제)가 등장하는 <천지왕본풀이>나 <창세가>의 경우, 쌍둥이의 대립/대결이 주가 되고 결국 신직을 부여받으며 화합을 이뤄내는 것과 연관지어 <세경본풀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을 쌍둥이 트릭스터로 파악한다면,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 문도령이 사라지고 자칭비와 정수남만 남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는 박세경-안세경-하세경이라는 신직명에 의해 밖, 안(목축)의 관계가 새롭게 그려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도령과 자칭비는 8번째 트릭의 실패로 인해 재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밖’과 ‘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문도령과 자칭비가 위치하는 공간은 대립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상세경-중세경으로 그려져 그 대립적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여타 구연본²³⁾과는 달리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는 마지막 서사의 변별성으로 인해 자칭비와 문도령을 대립항으로 설정하여 그에 맞는 신직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21) 274~276면.

22) 문도령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듯하다. 거칠게나마 서술하자면, 농경신이 세 가지로 분류된 것. 결국 이 셋이 하나가 되어야 농신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23) 이달춘본, 강을생본, 안사인본, 한행수본, 강순선본은 고대중본 안사인본 향행수본 강순선본, 이용옥본, 문도령, 자칭비, 정수남의 신직이 각각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으로 명명된다. <세경본풀이>의 각 심방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소윤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이소윤,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낭군을 이별하고 하늘 옥황에게 배우니 승전한 치하를 하고, 땅반 물반을 갈라주고 오곡씨를 주면서 인간에 내려가서 세경이나 맞하살라하니 자청비는 하늘 옥황을 하직하고 인간에 내려오라서 정수남이를 달고 오곡을 심게하고 정수남이는 우마를 보게하니 맞치 모물씨가 업는지라 또 하늘 옥황에 가서 모물씨를 엮고 오라서 심게하니 다른 곡식보담 제일 늦되니 지금 역 다른 곡식보담 늦게되었습니다.그리고 자청비는 세경을 맞히고 정수남이는 우마를 맞아야서 일년 백종이면 말머리 고사를 드립니다. (286-287면)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별하고, 하늘 옥황에게 농경을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얻게 된다. 이때 자연스럽게 하세경인 정수남은 안세경인 자청비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자청비는 정수남과 함께 오곡을 심게 되는데, 이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우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마와 같은 동물은 농경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이는 목축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움에 따라 더욱 풍요로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경의 풍요는 천상이라는 공간에서” 오기에 세경신에게 풍농을 기원한다는 정진희의 논의²⁴⁾와 어느 정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본 논의는 박봉춘 구연 <세경본풀이> 속 세경신을 ‘쌍둥이 트릭스터’로 정의한 후, <세경본풀이> 속 트릭스터의 성격과 이들의 신화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박봉춘 심방 구연본 <세경본풀이> 속 주요 인물인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 여타 이본과 다르게 밖세경·안세경·하세경으로 그려지는 것을 서사적 맥락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자청비와 정수남이 쌍둥이 트릭스터로 역할하며, 이는 농경과 목축이 뿔레야 뿔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과 연결할 수 있었다. 농경생활에 우마와 같은 목축이 사용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서사 무가의 제의적 성격은 인간의 삶과 아주 가까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풍농을 기원하는 이들의 바람이 <세경본풀이>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욕망의 분출을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정수남이 신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청비와 함께 쌍둥이 트릭스터로 그려진 이유를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할 수 있었다.

24) 정진희, 「풍농(豊農)의 원리:<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참고 문헌

- Victor Turner, 박근원 역,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 赤松智城,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96619&searchKeywordTo=
3)
-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 김기호, 「한국트릭스터담 연구-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기호, 「호랑이 설화에서 트릭스터 호랑이의 발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회』 42, 한민족어문학회, 2003.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2009.
- 김영일, 「한국창세신화의 비교(<천지왕본풀이>와 북미 인디언의 ‘쌍둥이’영웅신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10,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경신,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 서대석, 『韓國巫歌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2.;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이소윤, 「<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론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 정인혁, 세경본풀이 의 세계관 재고-‘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정진희, 「풍농(豐農)의 원리:<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 류정월, 「전(傳) 양식에 나타난 문화기호학적 고찰 - 트릭스터담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16, 한국기호학회, 2004.; 임주영, 「한국트릭스터담의 유형 및 성격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희웅, 「트릭스터(Trickster)담 연구」, 『어문학논총』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토론】

쌍둥이 트릭스터로의 삼세경의 트리플 관계를 다시 살피다:
「쌍둥이 트릭스터」로 다시 읽는 <세경본풀이>
-박봉춘 구연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김용선(선문대학교)

이지수 선생님(이하 선생님)의 발표문을 받고 대단히 설렘했습니다. 그 설렘은 신성한 대상을 세속의 시선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경외’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삼세경에 대한 분석을 다음의 흐름으로 정리하셨습니다.

2. ‘트릭’과 ‘트릭스터’
3.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 양상
4. <세경본풀이>에서 발견되는 쌍둥이 트릭스터

사실 2번은 1번의 서론부에서 충분히 서술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문 중에는 각주로 처리하면 더 좋을 법한 구절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논문에서 ‘트릭서사’와 ‘트릭스터담’을 혼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김희이(1999) 선생님은 ‘트릭담’이라고만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러한 모든 용어 정리와 개념 정리는 1장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번~4번은 보다 본풀이에 대한 축출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러한 구성은 어떠할지 싶습니다. 4장에서는 신의 분할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이 보다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요.

1. 서론
2.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 양상
3. <세경본풀이>에서 발견되는 쌍둥이 트릭스터
4. 삼신, 신성의 확장으로의 쌍둥이
5. 결론

본고는 박봉춘 구연 <세경본풀이>에 등장한 삼세경을 ‘쌍둥이 트릭스터’로 파악하고, 이들이 지닌 트릭스터의 성격과 신화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왜 세경신이 한 인물이 아닌 세 인물로 나누어져 작품 속에 제시되었는지, 다시 말해 세경신이 셋으로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박봉춘 심방 구연본 <세경본풀이> 속 주요 인물인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의 성격을 쌍둥이 트릭스터에 기대어 살펴본 후, 왜 세경신이 밖세

경·안세경·하세경으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선생님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레비-스트로스의 ‘쌍둥이 트릭스터’ 개념을 적용하여 삼세경의 신화적 기능 도출 ② 세경신의 삼분에 관한 사연을 학술적으로 고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②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목에 이 목적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지요? “쌍둥이 트릭스터로 본 <세경본풀이>의 신직 삼분에 관한 고찰” 정도는 어떠할지요 다음의 논문들이 참조가 될 법합니다.

임주영,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트릭서사 연구』, 국민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0.

김희이, 「고전소설에 수용된 트릭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²⁵⁾

‘세경본풀이’는 말 그대로 농경신 세경의 내력에 대한 본풀이로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 각각 ‘밖세경’, ‘안세경’, ‘하세경’이라는 삼세경의 신직을 부여받은 내력을 전하는 이야기. 그러나 왜 세경신이 한 인물이 아닌 세 인물로 나누어져 작품 속에 제시되었는지, 다시 말해 세경신이 셋으로 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략) 자청비와 정수남은 유사한 방식의 탄생 배경을 통해 쌍둥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들은 쌍둥이로 설정하면 <세경본풀이>에서 주인공인 자청비 외에 정수남이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신화에서 쌍둥이(형제)가 등장하는 <천지왕본풀이>나 <창세가>의 경우, 쌍둥이의 대립/대결이 주가 되고 결국 신직을 부여받으며 화합을 이뤄내는 것과 연관지어 <세경본풀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을 쌍둥이 트릭스터로 파악한다면,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 서사의 마지막 부분에 문도령이 사라지고 자청비와 정수남만 남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는 밖세경-안세경-하세경이라는 신직명에 의해 밖, 안(목축)의 관계가 새롭게 그려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도령과 자청비는 8번째 트릭의 실패로 인해 재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밖’과 ‘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문도령과 자청비가 위치하는 공간은 대립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상세경-중세경으로 그려져 그 대립적 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여타 구연본과는 달리 박봉춘 구연본 <세경본풀이>는 마지막 서사의 변별성으로 인해 자청비와 문도령을 대립항으로 설정하여 그에 맞는 신직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위는 세경신의 신직 분할에 관한 선생님의 고민 부분입니다. 1번~8번 트릭과 신직 분할에도 상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경본의 트릭들은 신직을 둔 ‘문턱’으로 보이는데요, 휘발된

25) 트릭은 개별 작품 속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한편, 특유의 서사 논리를 바탕으로 흥미와 웃음을 자아내는 독특한 문학제재. 우리 서사문학에는 트릭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트릭을 근간으로 하는 트릭담에서 핵심적인 서사과제로 다루어지는 주인공과 그 상대방의 인물선택 문제, 갈등 대결양상은 당대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 준다. 트릭담은 현실의 서사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산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서사문학에서 트릭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1) 트릭을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 2) 트릭담 자체에 대한 연구, 트릭 원형을 살피고 개념 규정하여 트릭이 서사문학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 타진. 유형 분류, 의미 도출. 설화에서 단 순히 지략담의 하위유형으로 언급되던 트릭담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조동일. 트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사람(Trickster)과 속는 사람(Dupe)이 필수적. 트릭은 트릭 주체의 의도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짐. 트릭 주체는 상대방과 비교시 열세인 상태에 있다. 트릭 주체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진행.

문도령과 잔존한 자청비, 정수남의 의미를 ‘쌍둥이 트릭스터’로만 볼 수 있을지요. 민속서사에서 3과 2는 차등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보다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표 6>에서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죽임을 당함’에 대한 14번 각주에서 “이때 정수남의 왼쪽 귀에서는 뽕꼭새가 날아가고, 오른쪽 귀에서는 부엉이가 날아간다. 새의 상징적인 의미는?”이라는 질문은 작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민속서사에서 사람→동물의 ‘하향변신’의 경우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새’의 상징은 대체로 주인공/보조인물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신형태이지요. 장승 곁을 지키는 솟대의 상징처럼 새는 ‘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친 토론문을 보내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질의와 이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은 발표장에서 세경신의 도움을 받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서 法象 사유와 천인 관계의 구현 방안

- 「繫辭傳」의 法象者를 중심으로 -

지현주(부산대학교)¹⁾

〈目 次〉

- I. 서론
- II. 『주역』에서의 天垂象과 法象 사유
- III. 法象者와 천인 관계의 구현
 1. 『주역』의 법상자, 聖人에서 君子와 人民으로
 2. 법상자의 德行과 禮行
- IV. 법상자의 윤리와 덕행
 1. 效法과 孝
 2. 法象者의 禮容
- V. 결론 : 법상 사유로서 구현된 천인 관계

I. 서론

이 글은 유가에서의 법상 사유를 천인 관계의 구현 방안으로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상이 『역전』의 天垂象의 관점으로 볼 때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근원적인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에서 성인이 천인 관계를 구현한 인간의 대표자가 되었던 까닭을 법상 사유에서 밝히고자 한다. 법상 사유가 천인 관계가 구현되는 핵심인 까닭은 하늘의 상을 법으로 삼은 법상자의 확장에서 비롯될 것이다. 따라서 유가에서 성인만이 아니라 군자와 인민으로 그 법상의 사유가 확장되면서 천인 관계를 구현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선진시기의 유가 경전에서 法象은 『주역』에서 처음 보이는데²⁾ 하늘이 드리운 象을 성인이 法 받은 것을 말한다. 이는 규범으로 삼은 법과 이를 본뜨고 모방하는 뜻을 포함하여 擬象, 效로도 해명된다.³⁾ 『역전』에서의 법상은 『상서』와 『예기』 및 『논어』에서 일월의 출입과 성신의 운행으로도 나타나고 曆象이나 觀象授時하는 관념에서도 드러났다.⁴⁾ 예컨대, 성인은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mywayji@naver.com

2) 여기서 『주역』은 공자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역전』의 내용을 포함하는 뜻이 있다.

3) 『주역』 「계사 상」,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 『예기』 「교특생」, 旗十有二旒 龍章而設日月 以象天也. 天垂象 聖人則之 郊所以明天道也. ; 『管子』 「形勢解」; 『中論』 「法象論」; 『공자가어』 「入官」 등.

‘仰觀於天’하여 무엇을 관찰하였겠는가? 전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드리운 상을 살펴야 했다. 그러므로 성인이 制禮作樂할 수 있었던 이유는 天垂象한 것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이 천상을 살펴 본받아 지상의 예를 제작하고자 본뜨고자 한 사유는 법상에서 비롯된다.

유가에서 敎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모두 하늘을 궁극으로 삼아 그 지극한 道와 法은 天과 동의어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유학은 천인 관계의 당위성을 우주론과 인식론 및 심성론을 통해 하늘이 인간의 본원이 되는 까닭을 밝히고자 하였다. 천지가 서로 높고 낮아서 그사이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를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늘과 인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성인이 아니고서는 천인 관계가 마련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에서 성인은 인민에게 하늘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마련한 이상형이었다. 그래서 허다한 전례는 모두 하늘이 드리운 상이면서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 象을 본받을 수 없고 나아가 예악을 제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민은 어떻게 전례를 배워 행할 수 있었을까? 성인이 법상한 것을 효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이 법상하여 제작한 전례를 군자는 그 법칙을 본떠서 실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자는 성인이 법상하여 제작한 전례를 效法한 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천인 관계는 성인의 법상 사유로 인해 맺어졌지만 법상 사유는 성인부터 군자에게로 이어지면서 천인 관계가 확장된다. 다만 성인이 아니고서는 하늘을 법상할 수 없으나 법상한 전례를 실천하는 군자에게는 그의 덕행이 천인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그렇다면 인민은 어떻게 하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 이러한 군자는 인민의 본보기가 되어 인민이 그를 효법하는 가운데 천인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人道는 天道를 법상한 성인을 본받은 君子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를 효법한 인민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고대 은주 시대에 있었던 天命 관념은 天道 이전에 종교적인 통치 사상과 긴밀하게 유지되어왔다. 은허에서 발견되는 갑골문과 『상서』의 「召誥」편은 그 대표적인 근거이다. 주대 이후로 천명과 함께 德이 중시되면서 덕을 갖춘 군자는 성인과 함께 등장한다. 군자가 성인군자 혹은 도덕군자로 칭해지는 과정에서 덕행이 중시된 까닭도 법상 사유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난다.

오륜은 공자의 ‘君君臣臣 父父子子’⁵⁾의 명분론을 맹자의 五倫⁶⁾으로 계승한 유가의 대표되는 윤리이다.⁷⁾ 오륜의 구성은 인간사회의 범주를 넘지 않는 데 반해 『주역』 序卦⁸⁾는 인간 관계를 넘어 천인 관계로 확장된다. 天地로부터 人道에 이르는 典禮가 순차대로 베풀어졌기

4) 지현주, 「유례절차의 儀器 陳設과 시간 질서」, 『동양학』 제74집, 2019, 119-136쪽 ; 「주비산경 을 통해 본 고대인의 질서관념—천문을 본떠 역산하는 형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고대학』 제59집, 2020, 361-389쪽 ; 「『儀禮』에서 行禮의 방위관념—『사관례』와 『사혼례』의 禮禮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61집, 2021, 277-313쪽 ; 「『儀禮』에서 ‘祭’ 儀節에 관한 法象論的 고찰」, 『철학연구』 제165집, 2023, 233-259쪽.

5) 『論語』 「顏淵」, 齊景公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6) 『맹자』 「등문공」上,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為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7) 안의순, 「五倫과 三綱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본 유가정치사상의 역사적 성격」, 『동양철학연구』 제44집, 2005년, 187-189쪽.

8) 『주역』 「序卦」,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때문이다. 이는 전례가 하늘이 내려준 질서라고 해명한 주희의 견해와도 부합된다.⁹⁾ 이러한 배경에서 법상 사유는 유가 윤리를 대표하는 공자의 儒道를 넘어 천지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확장된 범주에서 재고하게 한다.

『주역』에서 ‘天垂象’이란 天이 드리운 象인데 천문현상과 같이 성인이 자연현상으로 법상한 天道와도 통용된다. 성인이 이를 법 삼은 사유와 모범으로 형상을 본뜨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천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유가에서 천도는 『중용』의 誠을 성인의 지극한 덕으로 말한다. 마치 역학에서의 상과 수가 하늘의 운행 현상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천인 관계의 구현은 천도를 법상한 성인에서 비롯되었고 법상을 사유하는 관점에서는 법상자로 칭해질 것이다. 따라서 법상하는 사유자인 법상자는 성인에서 군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인민에게로 포괄된다.

최근까지 법상 사유에 관한 연구물은 대부분 중화권에서 출간되었다.¹⁰⁾ 중국 학자인 이효춘은 선행연구자로 대표되는데 법상 사유를 중국 사상의 근원적인 사유로서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체용론 및 理一分殊와 나란히 논의하였다. 이효춘은 이러한 法象 사유를 고대인의 근원적인 사유로서 六經을 비롯하여 매우 의미 있는 계열이라고 파악하였다.¹¹⁾ 국내 학자 이봉호의 연구는 조선의 천문역학을 통해 법상 사유의 단서를 제공한 점에서 검토되었다.¹²⁾ 이효춘이 중국 고대의 법상 사유를 서양 논리학과 상호관계에서 철학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던 것¹³⁾과 달리 본 연구자는 직전 연구에서는 法象論을 古禮에서 祭의 의미와 그 형상을 제사의 의절과 구별하였던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¹⁴⁾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천지와 만날 수 없는 이치를 법상 사유에서 살필 수 있었다. 연구자의 또 법상 이론은 성인이 인민에게 전례를 베풀어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방법론으로도 파악되는데 성인으로부터 군자와 인민이 서로 법상하고 효범하는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상 사유는 궁극적으로 천인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다.

한편 유가에서 성인은 인간의 이상형이었지만 인간사회에서 실천하는 본보기는 줄곧 군자의 언행을 통해 보여주었다. 군자는 인민이 효범한 법상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에서의 법상 사유는 군자의 덕행이자 행례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형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9) 『주자어류』 「상서1」, 皇陶謨13, 許多典禮 都是天敘天秩下了 聖人只是因而敕正之 因而用出去而已. <중략> 無一件是聖人自做底.

10) 이효춘, 「中国古代法象思维研究—兼论法象思维, 体用论与理一分殊的相互关系」, 『과학, 경제, 사회』, 제37권 총제 157기, 2019년 제4기; 单姗, 「『黄帝内经』基础理论与法象思维方式研究」, 감숙성 난주대학 연구생 석사학위논문 2018년; 龙鑫, 「法象论」发微—戴震“气化”思想的目的论意义」, 연변대학학보(사회과학판), 제43권 제6기, 2010; 孔令昂·张涛, “法象”天道与“旁通”人道—戴震与焦循易学思想之比较, 江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제53권 제2기, 2020.

11) 이효춘, 「中国古代法象思维研究—兼论法象思维, 体用论与理一分殊的相互关系」, 『과학, 경제, 사회』, 제37권 총제 157기, 2019년 제4기, 9쪽 적요에서.

12) 이봉호, 「『中庸經緯』의 心法과 先後天의 法象」, 『동양고전연구』 제54집, 2014, 103-124쪽.

13) 이효춘은 법상 사유를 체용론과 리일분수의 상호관계에서 중국 고대사상 전체를 거론하였고 법상 사교를 道를 깨닫는 것이라는 점과 서양의 논리학을 비교한 통찰을 보였다.

14)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는 의절의 형상에 주목하여 祭와 祭禮의 차이를 구분하고 제사와 고수례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뜻의 理法’으로 고찰하였다.(지현주, 「『의례』에서 ‘祭’ 儀節에 관한 法象論的 高찰」, 『철학연구』 제165집, 2023, 2.

II. 『주역』에서의 天垂象과 法象 사유

『역』은 고대 중국에서 祭 지내기 전이나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점을 쳐서 결정하였던 占筮의 도구를 통틀어서 말한다. 하은주 삼대에 易이 있었다고 하지만¹⁵⁾ 최근 연구에서 학자들은 『주역』을 서주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였다. 그 『역』을 살펴보면 卦象, 卦辭와 爻辭로 구성되는데 괘효사는 괘효상에 대한 해설이다.¹⁶⁾

애초에 점서였던 『역』에 대해 그 해석서인 『역전』을 통해 하늘이 드리운 象의 관점에서 법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에 태극이 있는데 여기서 양의가 생겨났다.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 팔괘는 길흉을 정하고 길흉은 대업을 낳는다. 이 때문에 법상은 천지보다 큰 것이 없고, 변통은 사시보다 큰 것이 없으며 현상이 밝게 드러난 것은 일월보다 더 큰 것이 없다.¹⁷⁾

위 「계사전」에서 드러나는 역은 천지의 근원에 부합하고 능히 천지의 도를 두루 포괄하는 점에서 天道는 천지의 원리이자 그 현상이다. 자연 만물을 낳는 우주론에 기반하는데 占筮의 卦象과 義理의 卦효사를 양단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문은 우러러 하늘을 관찰한다고 하였고 지리는 구부러 땅의 이치를 살핀다고 하였다.¹⁸⁾

하늘이 드리운 상을 누가 법상할 수 있었는가? 천지 사이의 지극한 인간인 성인이다. 그의 감각과 인식능력으로 천지가 드러낸 현상을 인도의 본보기로 법 삼은 것이다. 그래서 역에서의 법상은 인간의 인식 세계에 그려진 형상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이 드러낸 象과 땅에서의 形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사전」 상권의 첫 장에 象과 形의 개념이 처음 보인다. 다음과 같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해진다. 낮고 높음으로써 배열하니 귀하고 천함이 자리로서 정해진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이로부터 강과 유가 나뉘인다. 방소에 따라 종류가 모이고 사물은 무리로 갈라지며 길하고 흉함이 생겨난다.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체를 이루니 변화가 드러났다.¹⁹⁾

천지가 높고 낮기에 건과 곤이 정해졌고 이로써 배열하니 귀천이 자리로서 정해졌다. 그러므로 인간이 전례로 삼은 위계질서는 천도의 원리를 본뜬 것이다. 그래서 動靜의 법칙으로 剛柔가 나누어지고 나아가는 방향과 처소에 따라 흩어지고 모이는 형상에서 길흉을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의 상과 땅의 형에서 이루어진 것은 천지의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런데도 『주역』의 「계사전」에서의 상과 형은 여전히 추상적인 형상에 머물러 있다. 이런

15) 여명춘외 저/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2009), 18-19쪽.

16) 주백근 저/김학권의 역, 『역학철학사1』, 소명출판, 2012(2016), 50-51쪽.

17) 『주역』 「계사 上」 11장,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是故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莫大乎日月.

18) 『주역』 「계사 上」 4장, 易與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19) 주역 「계사 上」 1장,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까닭에 하늘에서의 상이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어떤 형상으로 본뜰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전』 이후로 역을 인용하여 해석한 전적들을 편찬된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예기』의 내용인데 다음과 같다.

땅은 만물을 싣고 하늘은 상을 드리우고 땅으로부터는 재화를 취하고 하늘로부터는 법을 취하였다.²⁰⁾

위의 글은 천지에 대해 하늘보다 땅이 먼저 언급되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취한 것이다. 성인이 땅으로부터 재화를 취한 데 반해 하늘로부터 법을 취한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규범으로 삼게 된 다음의 글은 좀 더 구체적이다.

기에는 12개의 깃발이 있는데 용이 그려진 데 일월이 갖추어진 것은 하늘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상을 드리우면 성인이 그것을 규범으로 삼으니 교 제사는 천도를 받게 드러낸 까닭이다.²¹⁾

고대에 나라를 세우면 궁궐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세우는 것과 같이 국가에 필요한 예제가 있다. 그중 기의 제도에는 12종의 깃발이 있는데 깃발에 용 문양과 일월 문양은 하늘의 상을 본받아 그려진 것이다. 성인은 하늘의 상을 본떠 예제에 적용하였으니 법상한 자이다.

한편 이효춘은 법상 사유 가운데 ‘법’과 ‘상’에 담긴 가장 주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상 사유 가운데 가장 주된 함의는 일반적인 의미의 형상이 아니다. 혹자는 초월 형상의 정신적인 상이라고 하지만 형상의 함의로서 파생된 더욱 심층적인 함의는 “효법”이다. 이러한 “효법”은 기존 형상의 효법일 수 있고 동일한 종류의 사물 속성과 구조상의 효법이 아닐 수 있기에 오히려 개념적인 추상 계통 간의 효법일 수 있다.²²⁾

그가 이처럼 효법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여긴 것은 법상 사유에서 형상을 본받는 데에²³⁾ 그 핵심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계사전』에는 성인이 천지 사이에 드러났던 상을 법상하여 형상으로 삼는데 그때마다 용어를 달리하는데 다음과 같다.

이런 까닭에 하늘이 神物을 낳으면 성인은 이를 본보기로 삼고, 하늘과 땅이 변화하면 성인이 이를 모형으로 삼는다. 하늘이 상을 드리우면 길흉이 드러나는데 성인이 이를 본뜬다.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니 성인은 이를 본받았다. 역에 사상이 있는 것은 보이는 까닭이고 계사는 알려주는 까닭이며 정하기를 길흉으로 한 것은 결단하는 까닭이다.²⁴⁾

20) 『예기, 교특생』 22장, 地載萬物 天垂象. 取財於地 取法於天.

21) 『예기, 교특생』 24장, 旗十有二旒 龍章而設日月 以象天也. 天垂象 聖人則之 郊所以明天道也.

22) 이효춘, 앞의 논문, 11쪽.

23) 『주역』 「계사 下」 1장, 效也者 效此者也.

24) 『주역』 「계사 上」 1장,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易에서 법상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형상으로 본받아, 본떠서, 모형으로 삼은 때일 것이다. 하늘이 드리운 象을 조금씩 다른 용어로 표현된 것은 일련의 법상의 사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인이 때때로 則之, 效之, 象之한 것이라고 하였다.

성인이 하늘의 상을 법으로 취한 구체적인 진술은 『후한서』의 天文志에도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역에 말하기를, 하늘은 상을 드리우고 성인은 그것을 본뜬다. 포희씨가 천하에 왕노릇할 때 우리러 하늘에서 상을 관찰하고 구부려 땅에서 형상을 살폈다. 하늘에서 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일월성신을 말한다. 땅에서 풀(형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구주로 구분된 물과 땅을 말한다. 아래에서 형성되고 위에서 상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늘이란 북신성(북극성)이 근원과 합하여 빛을 드리우고 상제의 형상을 세우니 선기옥형(북두칠성)을 운행하여 (운행) 도수를 수용하여 길고 많음을 정밀하게 한 것이다. <중략> 천지가 자리를 진설하고 성신의 상이 마련된 것이다.²⁵⁾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으로 취하였기에 성인은 법상하여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맺게 하였다. 성인은 어떻게 법상할 수 있었는가? 우리러 하늘의 상을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이 천문을 관찰하여 천례를 제작한 목적은 무엇일까? 성인은 천하의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하늘이 드리운 상은 일월성신이 아닐 수 없고 땅의 형은 구주로 나누어진 땅과 물이 아닐 수 없다. 일월성신에는 북극을 가리키는 북신성(북극성)이라 불리는 별과 별자리가 있고 선기옥형이라 불리는 북두칠성이 있다. 이러한 별자리의 운행 도수를 살핀 까닭은 역법으로 四時를 바로잡아 인민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 일은 왕의 사업이기에 천지를 법상한 왕은 성왕이라 불린다.

주희는 하늘이 내려준 질서를 典禮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⁶⁾ 이런 까닭에 성인이 법상하여 禮가 제작되었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상이라는 것은 성인이 천하의 심오한 것을 보고서 그 형용을 건주어 본뜨며 사물의 마땅함을 본뜨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 성인이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서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관찰하여 그 典禮를 행한다. 말씀을 붙인 것은 그 길흉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爻라고 한다.²⁷⁾

하늘이 내려준 질서 역시 상이 아닐 수 없다. 성인이 이를 본뜨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용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사물의 마땅함을 본뜬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법상하

洛出書 聖人則之. 易有四象 所以示也. 繫辭焉 所以告也. 定之以吉凶 所以斷也.

25) 『후한서』 「志·天文 上」 『易』曰 天垂象 聖人則之. 庖犧氏之王天下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象於天 謂日月星辰. 觀法於地 謂水土州分. 形成於下 象見於上. 故曰天者北辰星 合元垂耀建帝形 運機授度張百精. (三階九列 二十七大夫 八十一元士 斗, 衡, 太微, 攝提之屬百二十官 二十八宿各布列 下應十二子.) 天地設位 星辰之象備矣.

26) 『朱子語類』 권78, 「尙書1·皋陶謨」, 許多典禮 都是天敍天秩下了.

27) 『주역』 「계사 上」 12장, 是故 夫象 聖人有以見天下之賾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繫辭焉 以斷其吉凶 是故謂之爻.

는 방법은 하늘의 상을 관찰하여 그 형용함을 사물의 마땅함에서 본떴으며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관찰하여 그 전례를 행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

『예문유취』의 「복서」편에는 蓍龜에 이르는 과정을 논하는데 “물이 생겨난 이후에야 상이 생기고 상이 생긴 이후에야 수가 생기며 수가 생긴 이후에야 길흉이 나타난다.”라고 하였다.²⁸⁾ 복서에서 얻어진 길흉의 판단은 나타난 형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상 사유는 천지가 드러낸 상형에 대한 성인의 인식 과정이었다.

이처럼 『주역』 「계사전」에서는 법상 사유를 위로는 성인이 하늘의 상을 본뜨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과 아래로는 땅의 사물 및 인민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데서 살필 수 있다. 성인이 인민의 본보기가 되는 까닭은 하늘의 상을 전례와 길흉으로 본뜬 법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인이 본뜬 상이 인민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인민 역시 하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계승에 따른 본뜻은 법상하는 사유에서 비롯된 효법에서 비롯된다. 효법이 계승된 까닭은 성인이 하늘의 상을 효법하고 성인이 효법한 형상을 군자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상의 파급효과는 성인을 효법한 군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군자의 언행을 본뜬 인민에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성인이 예악을 제작하였다는 설은 사실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성인의 ‘制禮作樂’은 성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드리운 상을 맡아서 제작한 뜻이다. 그래서 성인은 스스로 예악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구절은 법상하여 효법한 뜻으로 파악된다.

Ⅲ. 法象者와 천인 관계의 구현

1. 『주역』의 법상자, 聖人에서 君子와 人民으로

앞장에서 「계사전」를 통해 살폈던 법상 사유에는 성인이 하늘이 드리운 상을 우러러 관찰하였고 이 상을 성인이 척지, 효지, 상지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성인이 법상하는 과정에서 천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따라서 법상 사유는 성인이 하늘과의 관계를 성립시킨 형상과 인식 작용에 의해서였다. 만약 하늘이 상을 드리웠을지라도 이를 법으로 삼는 이가 없으면 법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天垂象’을 법 받았기에 그를 ‘法象者’라고 칭할 수 있다.

성인은 어떤 능력자이기에 하늘이 드리운 상을 본뜬 수 있었을까? 『중용』에 하늘의 도는 ‘誠者’이고 인간의 도는 ‘誠之者’라고 하였다.²⁹⁾ 天道가 性이 되는 까닭은 힘쓰지 않아도 도에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쓰지 않아도 거동이 도에 합치되는 이를 성인이라 하였다.³⁰⁾ 예컨대, 고대 전설의 五帝³¹⁾와 夏商周를 개국한 우, 탕, 문왕

28) 『藝文類聚』 「卷七十五, 方術部, 卜筮 7」, 論〈晉庾闡著龜論〉曰 夫物生而後有象 象而後有數 有數而後吉凶存焉.

29) 『중용』 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30) 『중용』 위와 같은 곳,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과 무왕, 주공 그리고 춘추 말기의 공자가 이에 해당한다.

王文亮은 성인의 본질을 여러 방면으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 인성의 측면에서 성인을 인간과 비교한 점을 간추리면 첫째, 성인은 인간이지 神은 아니다. 다만 명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로서 분류하였다.³²⁾ 둘째, 성인 역시 인간이라고 한 趙岐의 『맹자·고자 상』 해석과 북송의 소옹은 만물의 등급과 서열이 있다고 여겼는데 “인간이란 만물의 지극한 자이고 성인이란 인간의 지극한 자이다.”³³⁾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은 神이 아니나 인간 가운데 가장 정점에 속하는 자이다. 그래서 인성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가장 지극한 단계에 이른 자라고 할 수 있다.

「괘사 상」에는 성인의 道를 통해 성인의 역량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다.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넷 있으니 말하는 자로서 그 괘사를 높이고, 움직이는 자로서 그 변화를 높이며, 도구를 만든 자로서 그 상을 높이고, 복서하는 자로서 그 점을 높였다.³⁴⁾

이처럼 성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제작하고 복서하는 자로서 그 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성인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역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역은 만물을 열고 직무를 이루니 천하의 도를 번성하게 한 것이니 이 같이 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의 뜻과 통하고, 천하의 업무를 정하고, 천하의 의심을 결단한다.³⁵⁾

역이 만물을 열고 직무를 이루니 천하의 도를 번성하게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역이 행하는 곳에서 성인은 천하의 뜻과 통하고 천하의 업무를 정하고 천하의 의심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은 무엇을 위해 이러한 도를 펼치려는 것일까?

이런 까닭에 시초의 덕은 등글면서 신령스럽고 괘의 덕은 모나면서 현명하고 육효의 뜻은 변화로서 이바지한다. (중략) 이로써 하늘의 도를 밝히고 인민의 사정을 살핀 까닭은 신물을 일으켜서 인민의 필요를 베풀기 위해서였다. 성인은 이것으로 재계하여 그 덕을 신으로 밝혔다.³⁶⁾

성인이 위로는 하늘의 도를 밝히고 아래로는 인민의 사정을 살폈다면 성인은 왜 이렇게 하였는가? 인민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성인은 경계하여 삼가는 덕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성인의 덕이 神으로 밝혀진다는 뜻은 무엇인가?

31) 『사기』 「오제본기」에 따르면, 고대 전설의 황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이다. 요순은 당우 시대에 존재하였으나 그 앞의 제왕은 전설 시대에 속한다. (楊建祥, 中国古代官德研究, 286쪽, ①주석 참조.)

32) 王文亮, 『中国聖人論』,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3년, 23쪽.

33) 王文亮, 『中国聖人論』, 24쪽.

34) 『주역』 「괘사 상」 10장,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尚其辭 以動者尚其變 以制器者尚其象 以卜筮者尚其占.

35) 『주역』 「괘사 상」 11장, 子曰 夫易 何為者也. 夫易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 是故 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

36) 『주역』 「괘사 상」 11장, 是故 蓍之德 圓而神 卦之德 方以知 六爻之義 易以貢. (중략) 是以 明於天之道 而察於民之故 是興神物以前民用. 聖人以此齊戒 以神明其德夫.

이런 까닭으로 문을 닫는 것을 곤이라 이르고 문을 여는 것을 건이라 이르니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변이라 말한다. 가고 오는 것이 막히지 않는 것을 통이라 말한다. 보이는 것은 이내 象이라 이르고, 형상은 이내 器라고 말한다.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을 法이라 일컫고, 이익이 나고 드니 인민이 모두 사용하는 것을 神이라고 한다.³⁷⁾

인민의 삶에 이익이 나고 든 것은 모두 인민을 위해 사용되었기에 그 덕행을 신이라고 한 것이다. 역은 변, 통, 상, 기 그리고 법에 이르는 운행을 말하기에 인민을 위한 모든 것은 역의 운행 목적이었다.

성인이 하늘의 상을 본뜬 법상 사유와 그 행위로 인해 천인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성인은 법상자이다. 성인은 또한 역에서의 괘와 사를 통해 천하의 길흉, 회린, 진퇴 그리고 주야의 상을 판단하는데 다음과 같다.

성인이 괘를 세워서 상을 관찰하고 말을 붙여 길흉을 밝혔기에 강유가 서로 밀어서 변화를 생기게 하였다. 이런 까닭에 길흉이란 잃고 얻는 상이고 뉘우침이란 근심하는 상이고 강유란 낮과 밤의 상이다.³⁸⁾

성인이 괘를 세우고 상을 관찰하며 말을 붙여 길흉을 밝혔다면 군자는 어떤 인물로서 말해지는가? 군자는 성인의 도를 깨우쳐 법상을 실천한 인물이다. 「계사전」에서 군자는 성인과 달리 하늘의 상을 직접 법 삼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법상 사유에서 군자의 역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에 군자가 거처한 곳에서 편안한 것은 역의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이고, 즐기고 음미하는 것은 爻의 말이다. 이 때문에 군자가 거처할 때는 (괘효의) 상을 보고 말을 사색하며 그 변화를 관찰하여 그 점을 음미한다. 이런 까닭에 하늘이 스스로 그를 도와 길함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³⁹⁾

군자가 거처하는 곳에서 편안한 까닭은 역의 질서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군자가 역의 질서를 어떻게 알아 순종하였을까? 군자는 이미 성인이 괘효상에 붙인 말을 보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였기에 그 까닭을 음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자는 오직 성인이 이미 밝힌 것과 역의 질서를 따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길하여 이롭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성인은 천도를 마련하는 자이고 군자는 이를 따라 실천한 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상하여 본뜻기에 천인의 관계

37) 『주역』 「괘사 상」 11장, 是故 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見乃謂之象形 乃謂之器. 制而用之 謂之法. 利用出入 民咸用之 謂之神.

38) 『주역』 「괘사 상」 2장, 聖人設卦觀象 繫辭焉而明吉凶 剛柔相推而生變化. 是故 吉凶者 失得之象也. 悔吝者 憂虞之象也. 變化者 進退之象也. 剛柔者 晝夜之象也.

39) 『주역』 「괘사 상」 2장, 是故 君子所居而安者 易之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君子居則觀其象 而玩其辭. 動則觀其變 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40) 『주역』 「괘사 상」 12장, 天之所助者 順也. 人之所助者 信也. 履信思乎順 又以尚賢也. 是以自天祐之吉无不利也.

가 성립되었고 이러한 성인을 법상자라고 칭할 수 있었다. 군자는 성인의 도를 법 삼아 그 상을 본떠 실행하였기에 군자 역시 법상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만이 아니라 그 성인을 본보기로 삼은 군자도 천인 관계를 맺게 한 법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군자를 본받은 인민도 천도를 몸소 실행한 군자의 언행을 통해 천인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효춘에 따르면 법상 사유는 道를 밝게 깨우치는 사유 방식이라고 하였다.⁴¹⁾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의 도는 천도이고 이를 본뜬 전례를 실행하는 군자의 도, 역시 천도를 본떠 효법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군자도 인민의 실제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상 사유에 의해 성립된 천인 관계는 하늘과 성인 관계로부터 군자와 인민에게로 단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상 사유로 출현한 법상자는 성인이 제작한 전례를 실천하는 행례의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2. 법상자의 德行과 禮行

공자가 일찍이 禮는 先王이 天道를 계승한 것이고 인정을 이치로 하여 그것을 잃은 자는 죽고, 얻은 자는 살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인이 예로서 천하를 보여주었으니 국가는 바르게 될 것이라 하였다.⁴²⁾ 화우근에 따르면, “한 무제가 오직 유술을 높여서 『육경』을 표장한 이후에야 유술을 만들었다. 『육경』의 중심 내용은 禮와 義일 뿐이었고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은 모두 禮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육경의 義는 역시 禮로서 더욱 중시되었고 육경이 모두 귀결되는 곳에 예가 있음을 가리켰다.”⁴³⁾고 한다.

공자는 군자가 비록 자기 집에 거처하더라도 그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하였다. 무슨 뜻인가?

공자께서 군자가 자기 집에 거처할 때 말을 선하게 하면 천 리 바깥에서도 응하게 되니 하물며 가까운 데 있어서랴. 그 집에 거처할 때 말을 선하지 않으면 천 리 바깥에서도 어긋남이 있나니 하물며 가까운 데 있어서랴. 말은 자신에게서 나와 인민에게 더해지며 행동은 가까운 데서 발해서 먼 곳까지 드러나니 말과 행동은 군자의 추기요. 추기의 발함이 영화로움과 욕됨의 주인이다. 말과 행동은 군자가 천지를 움직이는 까닭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였다.⁴⁴⁾

군자의 언행은 천지를 움직이는 까닭에 선하고 신중해야 한다. 군자에게 중요 기관의 발함이 영화롭거나 욕됨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따라서 성인이 마련한 도를 군자가 깨달아 실천하는 가운데 천지에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가 중신토록 길한 방법이 德에 있다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41) 이효춘, 앞의 논문, 중국사상이 도를 깨우치는 것이라면 서양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였다.

42) 华友根, 『西汉礼学新论』,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1998, 1쪽.(前言)

43) 华友根, 위의 책, 같은 곳.

44) 『주역』 「괘사 상」 8장, 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 善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慎乎.

공로를 자랑삼지 않으니 군자가 중신토록 길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도 내세우지 않으며 공로가 있어도 덕으로 여기지 않음이 두터움의 지극한 경지이고 그 공로가 있으면서도 남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말한다. 덕은 무성함을 말하고 예는 공손함을 말하니 겸손한 것이다. 지극한 공손함으로 그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다.”⁴⁵⁾

공자는 군자가 성인의 도를 덕행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성인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다. 천도를 실행하는 방법이 덕에 있다는 것이다.

「계사 하」에는 천지의 도에 이어 천지의 큰 덕을 생명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다.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이라 하며 성인의 큰 보배는 자리라고 한다. 무엇으로 자리를 지키는가? 인이라고 한다. 무엇으로 사람을 모으는가? 재물이라 한다. 재물을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금하게 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⁴⁶⁾

천지의 덕인 생명에 대응되는 성인의 덕은 仁에 있다. 하지만 사람을 모으고, 말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금하게 하는 준거는 義에 있었다.

그렇다면 군자가 덕을 닦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① 공자께서 (상략) 정미한 뜻이 신에 들어감은 쓰임을 이루고자 함이요. 쓰임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히 함은 덕을 숭상함이니 이것을 넘어선 것은 알 수 없으니 신묘함을 궁구하고 조화를 아는 것은 덕의 성대함이다.⁴⁷⁾ ② 역에 말하길, 절개가 돌과 같아 종일 걸리지 않으니 길함을 정한다. 절개가 거기에서 돌과 같으니 정녕 종일 쓰인다. 판단이 알만 하구나. 군자가 미미함을 알고 밝게 드러난 것을 알며 부드러운 것을 알고 강한 것을 알아 만인이 우러러볼 것이다.⁴⁸⁾ ③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그 몸을 편안히 하고서 행동하며,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서 말하며, 그 사립을 정하고서 구하니, 군자가 이 세 가지를 닦는 까닭에 온전하다.⁴⁹⁾

군자가 정미한 뜻이 신에 들어감은 인민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⁵⁰⁾ 인민을 이롭게 하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덕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였다. 위의 ①, ②, ③에서 군자가 모두 덕을 닦는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논어 「위령공」편에도 보이는데 공자가 無爲治者를 순임금으로 말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위로 다스린 자는 순임금이실 것이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몸을 공손히 하

45) 『주역』 「괘사 상」 8장, 勞謙君子 有終吉. 子曰 勞而不伐 有功而不德 厚之至也 語以其功下人者也. 德言盛 禮言恭 謙也者 致恭以存其位者也.

46) 『주역』 「괘사 하」 1장,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曰仁 何以聚人曰財. 理財正辭 禁民為非曰義.

47) 『주역』 「괘사 하」 5장, (상략)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過此以往 未之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

48) 『주역』 「괘사 하」 5장, 易曰 介于石 不終日 貞吉. 介如石焉 寧用終日 斷可識矣. 君子知微知彰 知柔知剛 萬夫之望.

49) 『주역』 「괘사 하」 5장, 子曰 君子安其身而後動 易其心而後語 定其交而後求 君子脩此三者 故全也.

50) 앞서 「계사전」에서 神은 이익이 들고 나는 것을 인민이 모두 쓸 수 있는 상태로서 말하였다.

고 남면하였을 뿐이다.⁵¹⁾

앞의 글에서 주희는 무위로 다스린다는 것을 성인의 덕이 융성해져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기 때문에 작위하는 바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⁵²⁾ 여기서 주목할 곳은 ‘恭己正南面’한 구절인데 공기는 자기의 몸을 공손하게(조심스럽게) 하고서 남면하기를 바르게 하는 행위 양식이다. 이는 예기 에 정치는 임금의 자기의 몸을 편안히 하는 것과 반드시 하늘을 본받아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⁵³⁾ 그리고 陳澧가 덧붙여 전례는 하늘의 질서이고 임금의 정치는 반드시 하늘을 근본으로 하였으니 위로부터 본받아 모범으로 삼고 아래에 명령을 베푸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⁵⁴⁾ 그러므로 순임금의 공기는 성왕이 스스로 몸을 공손히 수신하는 것이고 공기한 후에야 하늘의 질서와 법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의 恭己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마땅한 수신의 방도이고 수신 이후에야 비로소 南面할 수 있다는 뜻이다.⁵⁵⁾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성인의 덕은 자기의 몸을 공손하게 한 후에야 남면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군자의 덕은 이를 본떠 실천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성인 이하 범상자의 덕행은 그 언행의 禮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IV. 범상자의 윤리와 덕행

1. 效法과 孝

지금까지 성인이 천도를 범상하여 전례를 제작한 인물이었다면 군자는 이 천도를 깨달아 예제를 실천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군자는 인민에게 널리 본보기가 되는 덕행을 구체적인 언행으로 실천하는 자이다. 앞장에서 파악된 범상자는 성인으로부터 군자와 인민에게 이른다. 사실 군자와 인민이 범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성인의 관계와 같이 천인 관계가 해명되어야 한다.

「계사전」에서의 성인은 하늘의 상을 법 삼은 자이기에 천인 관계가 성립되었다. 동시에 성인은 천수상을 법 삼아 전례를 제작하였고 이를 인민에게 베풀고자 하였다. 성인을 본받은 군자는 어떠했는가? 전례를 실행하는 군자는 그 언행으로 인민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군자 역시 성인을 통해 하늘의 상을 법 삼게 되었다.

「계사전」의 상권과 하권을 살펴보면 범상자의 역할이 성인에서 점차 군자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군자는 성인이 베푸는 형상을 천도의 모범으로 삼았고 성인이 범상한 전례를

51) 『논어』 「위령공」,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52) 『논어집주』 「위령공」, 위와 같은 곳, 無爲而治者 聖人德盛而民化 不待其有所作爲也.

53) 『禮記』 「禮運」 卷9, 故政者君之所以藏身也 是故夫政必本於天敎以降命.

54) 『禮記』 「禮運」 卷9, 위의 같은 곳, 陳澧 注, 典曰天敎 禮曰天秩 是人君之政必本於天 而效法之以布命於下也.

55) 지현주, 「고대 중국에서의 聖人南面과 남면하는 그 시선-曆象授時的 관점에서 본 聖王의 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제44집, 2016, 193쪽.

본받아 실천하였다. 성인은 위로 하늘의 상을 본떠 직지, 효지, 상지한 것에 반해 군자는 이를 효법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에 의해 천인의 관계는 성인에서 군자에게로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범상한 형상을 군자가 실천한 행례는 다시 인민들에게 모범으로 보였으니 군자는 또 다른 범상자가 되었다.

인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모범자는 성인이었다. 이를 통치자로서 본다면 성왕이나 선왕이 될 것이다. 범상하는 사유는 상을 관찰하여 법 삼아 본뜨는 데 이른다. 그런데 그 형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뜨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본뜨는 본받은 형상을 습득하여 행하는 것인데 범상 사유가 계승되는 일종의 규범이다. 『역전』에서는 이를 效法이라 한다. 패효사의 效와도 통하는데 다음과 같다.

낱고 낱는 것을 역이라 하고 상을 이룬 것을 乾이라 하며 법을 본뜬 것을 坤이라고 한다.⁵⁶⁾

위의 글에서 낱고 낱는 우주론적 원리 가운데 상을 이룬 것은 건이라 하니 하늘이다. 이 법을 본뜬 것은 곤이라 하며 땅이다. 그러므로 곤이 건을 효법 한 관계는 천지의 존재 양상을 범상한 이후에야 성립된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관계는 이미 하늘과 성인의 관계 이전에 이미 맺어진 천지 관계이다. 이 같이 하늘이 상을 이룬 것과 땅이 법을 본뜬 것은 형상으로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해진다. 낮고 높게 펼쳐지니 귀하고 천함이 자리한다. <중략> 하늘에는 상을 이루고 땅에는 형체를 이루니 변화가 드러났다.⁵⁷⁾

「계사 상」의 첫 장에는 천지가 높고 낮아 건과 곤이 정해지고 낮고 높게 펼쳐지니 귀천이 자리하였다. 따라서 성인은 하늘의 상과 땅의 형에서 드러난 변화를 범상하여 효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사 상」에서 爻란 변화와 교류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다.

육효의 움직임은 三極의 道이다. 군자가 평상시에 편안한 것은 易의 순서이고 즐기면서 가지고 노는 것은 爻의 말이다. 군자는 그가 처한 상황을 象으로써 살펴 爻辭로써 회롱하고 움직임일 때는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占을 음미한다.⁵⁸⁾

괘에는 삼효와 육효가 있는데 팔괘는 3효로, 육십사괘는 6효로 구성된다. 여기서 삼극의 도는 천, 지, 인을 말한다. 괘는 이 효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괘상을 변화시키는데 이때의 효는 변화와 교류를 뜻한다. 따라서 爻는 交이다.⁵⁹⁾ 반면 「계사 하」에는 爻象을 팔괘의 구성 요소이자 자리로서 해석한다. 또 易이란 象이고 象은 하늘이 드리운 형상이기에 爻란 效로서 본뜨는 뜻이다.⁶⁰⁾ 이처럼 爻가 效인 까닭은 패효가 천지자연의 형상을 본뜨기 때문

56) 『주역』 「계사 상」 5장, 生生之謂易 成象之謂乾 效法之為坤.

57) 「계사 상」 1장,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중략>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58) 「계사 상」 2장,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是故 君子所居而安者 易之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是故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59) 남회근 저/신원봉 역, 『주역계사 강의』, 부키, 2018년, 183쪽.

이다. 다음과 같다.

① 이 때문에 하늘이 신물을 내면 성인은 그것을 법 삼고, 천지가 변화하면 성인은 그것을 본받는다.⁶¹⁾ ② 무릇 건이란 확연한 것이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고 무릇 곤이란 순한 것이 사람에게 간단히 드러나는 것이다. 효라는 것은 이것을 본뜬 것이고 상이란 것은 이를 본받은 것이다. 효와 상은 안에서 움직이고 길흉은 밖에서 나타난다. 공로와 업적은 변화에서 드러나고 성인의 인정은 말에서 나타난다.⁶²⁾

앞의 ①은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 삼아 그 변화를 본받은 것이다. ②에서 효란 그 드러난 것을 본뜬 것이다. 성인이 상을 법 삼고 이를 본뜨는 과정에 천인 관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천인 관계의 윤리적 맥락이 검토된다. 쫓는 건과 곤의 확연하고 순한 것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효는 본보기이면서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이 가르침은 또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백호통의』의 三教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교란 무엇이라 하는가? 가르침이란 본받음이다. 위에서 한 것을 아래에서 그것을 본받는다. 백성에게는 질박한 본성이 있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효경』에 ‘선왕이 가르치게 하여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였다.⁶³⁾

위의 글은 가르침의 본질을 위에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것은 직접적인 훈령이기보다는 본받아 저절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다. 윗사람이 보인 것을 아랫사람이 본받게 하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다.

삼교는 일체이고 나누어서는 단일하게 행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왕노릇 하는 자는 행동에 선후가 있다. 어찌하여 삼교라고 말하는가? 더불어 단일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 경, 문으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데 가르침이 세 가지인 까닭은 무엇인가? 천지인이 안으로는 충을, 밖으로는 경을 걸으려는 문을 법 삼는다. 그러므로 세 가지가 갖추어진다. 그런즉 천지인을 법 삼아 각각 어떻게 시행하는가? 충은 사람을 법 삼고 경은 땅을 법 삼고 문은 하늘을 법 삼는다. 인도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을 주장하여 지극한 도로서 사람을 가르쳐서 충의 지극함에 이른다. 사람이 충으로서 가르치기 때문에 충은 사람의 가르침이 된다. <중략>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가르침이란 본받음이다.⁶⁴⁾

위의 글에서 충, 경, 문은 천지인이 법 삼은 세 가지 가르침이다. 사람은 충을, 땅은 경을,

60) 「계사 하」 1장, 八卦成列 象在其中矣. 因而重之 爻在其中矣. ; 爻也者 效此者也. 象也者 像此者也. ; 3장, 是故 易者 象也. 象也者 像也. 象者 材也. 爻也者 效天下之動者也.

61) 「계사 상」 1장,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62) 「계사 하」 1장, 夫乾 確然示人易矣. 夫坤 隤然示人簡矣. 爻也者 效此者也. 象也者 像此者也. 爻象動乎內 吉凶見乎外. 功業見乎變 聖人之情見乎辭.

63) 『백호통의』 권8, 三教, 教者 何謂也. 教者 效也. 上為之 下效之. 民有質朴 不教不成. 故 孝經 曰先王見教之可以化民.

64) 『백호통의』 권8, 三教, 三教一體 而分不可單行 故王者行之有先後 何以言三教 竝施不可單行也 以忠敬文無可去者也 教所以三何 法天地人 內忠外敬文飾之 故三而備也 即法天地人各何施 忠法人 敬法地文法天 人道主忠人 以至道教 人忠之至也 人以忠教 故忠為人教也 <중략> 教者何謂也教者效也.

하늘은 문을 법 삼은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법 삼는 근본이었고 이를 본받는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침이란 본받음이다.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본받음은 仁의 근본이 되는 孝와 悌에서 효와 그 뜻이 통한다. 이 효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맹의자가 효에 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김이 없다. 번지가 선생님을 모실 때 선생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에 관해 물었는데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김이 없다고 하였다. 번지가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서는 예로서 모시고 죽어서 장례 지내기를 예로서 하고 제지내기를 예로서 하라고 하셨다.⁶⁵⁾

『논어』 爲政篇에서는 맹의자가 孝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는 禮에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주희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음이라 해석하였다.⁶⁶⁾ 그렇다면 여기서 예란 무엇인가? 일상과 의식에서 행해지는 儀禮이다. 효가 예에 어김이 없게 하려면 예에 합당한 행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희가 허다한 전례를 모두 하늘이 드리운 질서라고 하였던 점에서 예를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늘이 드리운 상을 살펴 본받아야 했다. 따라서 효가 예에 어김이 없게 하려면 예가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본뜬 전례로서 드러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자 관계에서의 孝는 마치 성인이 하늘의 상을 법 삼아 인민에게 그 모범을 보이고 군자는 이 형상을 효법하여 실천하였으니 인민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러한 천인 관계처럼 부자 관계도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법 삼아 효법하는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도를 效法 하였기에 孝가 이루어진 것이다.

孝가 效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유친을 성인이 하늘의 상을 법상하여 효법하는 천인 관계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효행의 孝가 사실 效法과 무관하지 않다면 『논어』 里仁篇에서 孝가 본뜸의 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삼 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음은 孝라고 말할 만하다.⁶⁷⁾

공자는 孝와 悌를 仁의 근본이라 하였는데 유가 윤리에서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로서 효는 어버이와 조상에 대해 위를 향하는 덕행이다. 반면에 제는 형제의 우애와 같이 동료와 아랫사람을 향하는 덕행이다. 父道는 살아 있는 어버이에 대한 봉양, 존경, 복종과 돌아가신 어버이나 조상에 대한 추모로 파악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를 효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자는 아버지가 살아서 섬길 때나 죽어서 장사지낼 때 그리고 제 지낼 때도 그가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을 孝라고 여길까 공자께서 염려하였다고 하였다.⁶⁸⁾ 이런 까닭에 공자는 禮로서 행한다고 덧붙인 것이라 하였다. 주희는 이 예를 바로 이치(천리)의 질문이라

65) 『논어』 「위정」,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66) 『논어』 「위정」, 위와 같은 곳, 주자 주, 無違 謂不背於理.

67) 『논어』 「리인」, 子曰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68) 『논어』 「위정」,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주자주, 夫子以懿子未達而不能問 恐其失指而以從親之令爲孝 故語樊遲以發之.

하였다.⁶⁹⁾ 그렇다면 효자는 아버지의 도를 법 삼아 예로서 효법한 자이다.

고대 제왕의 덕은 인민의 교화를 중시하였고 이를 통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다. 그 가르침의 묘수는 위에서 모범을 몸소 보여주는 것에 있다. 그래서 효는 본받음이라고 하였다. 『효경』에는 실제로 선왕이 먼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인민을 교화시킬 수 있었다. 또 천자라야 비로소 지극한 효를 행할 수 있으며, 천자의 효는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 효경은 사람의 도리인 효를 천지의 이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⁷⁰⁾ 따라서 효행은 아들이 아버지를 효법하는 관계에서 성립되었다. 나아가 효는 위로 부모와 조상을 향하는데 이는 저 너머의 하늘과 성인의 효법하는 관계를 본뜬 것에 닿는다.

2. 法象者の 禮容

성인은 하늘이 드리운 상을 법 삼고 본뜬 자이기에 법상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군자는 하늘이 드리운 상을 직접 법 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군자는 이를 몸소 실행한 자로서 말해진다. 전례는 성인이 제작한 것이기에 이를 실행하는 군자도 하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자도 성인이 보여준 천도를 법상하였으니 법상자가 되었다.

『순자』는 성인과 군자 및 士人の 계층을 각각 인지하고 행동하는 관점에서 비교하게 된다. 다음과 같다.

저 배운 자가 행하기를 士라고 한다. 사모하기를 돈독히 하는 이는 군자이다. 이를 아는 자는 성인이다. 윗사람으로는 성인이 되고 아랫사람으로는 선비와 군자가 된다.⁷¹⁾

전국시대의 순자는 배워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분을 사라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여 돈독히 하는 이를 군자라고 하며 이것을 아는 이는 성인이라 하였다.

그런데 후한말의 서간은 그의 저서 『중론』에서 군자를 덕행과 연결하는데 먼저 「치학」에서 옛날 군자를 언급하면서 본래 군자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옛날의 군자가 덕을 이루고 행실을 세우는 까닭은 신체가 없어져도 이름은 썩지 않기 때문이다.⁷²⁾

서간이 말하는 옛 군자가 덕행을 이루는 까닭은 영원히 썩지 않을 이름을 남기는 것에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서간의 『중론』은 전체 20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장에는 治學을, 둘째 장에는 法象을 각각 실었다. 다음은 법상의 머리말이다.

무릇 법상을 세운 것은 군자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법상이란 용모를 바르게 하고 위엄있는 거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유로 선왕이 예를 제작하였다.⁷³⁾

69) 『논어』 「위정」,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주자주, 禮則理之節文也.

7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같은 책, 11-12쪽.

71) 『순자』 「儒效」, 彼學者 行之 曰士也. 敦慕焉 君子也. 知之 聖人也. 上為聖人 下為士 君子.

72) 『중론』 「治學」, 昔之君子成德立行 身沒而名不朽.

서간은 법상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군자를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서간에 따르면 법상이 세워진 이유가 옛 군자를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무릇 용모란 사람의 용모이다. 용모가 바르기 때문에 정서와 성품이 다스려지고 정서와 성품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인의가 존재하게 되며 인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덕이 왕성하게 드러난다. 성덕이 드러나기 때문에 법상(상을 본받을) 수 있게 되니 이를 군자라고 한다.⁷⁴⁾

서간의 논리는 예용이 정서와 성품을 바르게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용모가 바르면 정서와 성품이 다스려지고 정서와 성품이 다스려지면 인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덕이 왕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성덕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민이 본받아 법상할 수 있다고 한다. 군자가 위로는 천도를 본떠 천성을 드러내고 덕을 행하면 아래로 인도의 모범이 된다고 한다. 만민이 그 군자의 덕행을 본떠 행할 수 있으면 군자와 인민 간에도 법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자가 천도를 본받아 덕행을 실행하였으니 만민은 이 군자를 본받아 예용을 행하는 방도로 삼았다.

이러한 서간의 법상론은 천인 관계를 구현하는 방도를 마련하게 한다. 그래서 『중론』의 「考僞」에서는 군자의 생각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추』에 말하였다. 도적 그 「전」에서 말하였다. ”이 때문에 군자가 움직이면 예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의리를 생각한다.“⁷⁵⁾

유가에서는 성인과 군자를 유사하면서도 다른 면모로서 해명한다. 예컨대 성인은 하늘과 대적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중용』에 誠者는 하늘의 도이고 誠之者는 인간의 도라고 하였다.⁷⁶⁾ 성인은 지극히 이상적이면서 지극히 높아서 끌어 잡아서 오를 수가 없다.⁷⁷⁾ 하늘과 대적하는 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자는 어떠한가? 『중용』에는 성인과 다른 군자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군자가 움직이면 세상에 천하의 도가 만들어지고, 행동하면 천하의 법이 만들어지고, 말하면 세상에 천하의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멀다면 바라보고 가깝다면 싫증 내지 않는다.⁷⁸⁾

대개 군자와 성인을 비교하면 성인은 지극하여 하늘과 견줄 수 있는 반해 군자의 도는 그의 몸에서 나온 언행으로 천하의 기준을 만들었다. 성인의 덕을 모범으로 삼았기에 군자는 현실에서 그 덕을 실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자의 움직임은 천하 만민에게 道, 法, 則이 되는 까닭이었고 그의 모든 언행은 禮에 꼭 들어맞았다.

73) 『중론』 「法象」, 夫法立所以為君子 法者莫先乎正容貌 慎威儀 是故先王之制禮也.

74) 『중론』 「法象」, 夫容貌者 人之符表也. 符表正故情性治 情性治故仁義存 仁義存故盛德著 盛德著故可以為法象 斯謂之君子矣.

75) 『중론』 「考僞」, 『春秋』書之曰盜 其『傳』曰 是故君子動則思禮 行則思義.

76) 『중용』 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77) 왕문량, 앞의 책, 301쪽.

78) 『중용』 30장, 是故君子動而世為天下道 行而世為天下法 言而世為天下則. 遠之則有望 近之則不厭.

성인이 출현하여 천지자연을 범상하고 효범할 때 그는 예의와 범절을 갖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성인은 완벽한 인물이기에 천명을 알고 하늘의 성품을 본받으려 한다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천자와 같은 태생이 귀하지 않더라도 군자는 하늘이 드러낸 형상을 따라 백성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덕행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인민도 군자를 본받아 그 언행을 따른다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서간에 따르면 군자는 禮容을 통해 天道를 구체적으로 본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天道를 본떠 人道로서 禮制가 이루어졌다면 예를 행한 길은 천인 관계를 구현하는 방도가 될 것이다.

만약 성인이 천상을 법 삼아 본뜨기 전에는 천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의 『상서』에는 하늘이 드리운 상을 차례로 삼은 범상 사유가 있다.

하늘의 차례에 법이 있고 우리 오전을 바로 잡아 다섯 가지를 도답게 하셨다. 하늘의 질서에는 오레가 있고 우리 오레로부터 떳떳함이 있게 하셨다.⁷⁹⁾

하늘의 차례에 법이 있고 오전과 오돈이 있으며 오레가 있어 오레로부터 떳떳함이 있게 한 사유의 주체가 있었다. 오레의 떳떳함은 성인의 범상 사유에서 살필 수 있었다.

한편 성인이 예악을 제작하였다는 해석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예악을 제작하였다는 주장은 당대의 한유의 문장에서 볼 수 있다.⁸⁰⁾ 당송 이후 남송의 주희는 위의 『상서·虞書』의 고요모를 다음과 같이 주 달았다.

허다한 전례는 모두 하늘이 내린 질서이다. 성인이 다만 이것으로써 바르게 다스려 사용하였을 뿐이다. 대개 관혼상제의 예는 전장제도, 문물예악, 거여의복과 더불어 말해지는데 한 가지도 성인이 스스로 지은 것이 없다.⁸¹⁾

이처럼 주희의 글은 『역전』의 易垂象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관혼상제도 이러한 상을 본받아 제작하였고 성인이 법 삼은 목적은 그 천도를 인민에게 베풀어주기 위한 것에 있었다. 따라서 허다한 전례는 단 한 가지도 성인이 스스로 제작한 것이 없으며 하늘이 드리운 상을 본떠 제작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상이 하늘이 드리운 상을 본받은 범상자의 사유라면 이러한 사유는 아래로 파급되는 가운데 관계의 확장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범상 사유는 위아래의 효범하는 관계에서 윤리적 상하관계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 드리운 상에 대한 성인의 범상 사유가 군자와 인민에게로 파급되면서 천인의 관계도 구현될 수 있었다.

79) 「尙書 一」 臯陶謨, 天敘有典 敕我五典五惇哉 天秩有禮 自我五禮有庸哉.

80) 이에 관한 단서는 당대 韓愈의 문장을 통해서 대체로 송학 이전의 과도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시미다 겐지의 주자학과 양명학, 34-36쪽.)

81) 『주자어류』 「尙書 一」 臯陶謨, 天敘有典 敕我五典五惇哉 天秩有禮 自我五禮有庸哉. 朱子注, 許多典禮都是天敘天秩下了 聖人只是因而敕正之 因而用出去而已. 凡其所謂冠昏喪祭之禮 與夫典章制度 文物禮樂 車輿衣服 無一件是聖人自做底.

V. 결론 : 법상 사유로서 구현된 천인 관계

지금까지 유가에서의 법상이 천인 관계를 맺게 한 근원적인 사유이고 그 관계가 구현되는 방안으로 법상자의 효법을 함께 살펴보았다. 역전 의 「계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법상 사유에는 법상을 효법하는 덕행이 예고되었다. 법상은 천지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였듯이 이 천지 간에서 법상의 단초가 생겨났다. 천지 이후 천인 관계는 인간의 대표자인 성인에 의해 天垂象을 법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성인이 하늘이 드리운 상을 본떠 전례를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에서 비롯된 법상 사유는 법상자의 확장으로 천인 관계를 이어 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성인은 하늘의 상을 법 삼아 본뜬 전례를 제작하는 데에 이르게 하였다. 허다한 전례는 하늘이 내리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듯이 성인이 법상한 까닭은 전례를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계사전」에서의 성인은 군자와 함께 논의되는데 성인이 법상한 전례를 몸소 실행하는 자로서 등장한다. 성인이 하늘과 직접적인 관계를 피하였다면 군자는 성인이 법상하여 형상화한 것을 본받아 실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런 까닭에 성인만이 아니라 군자 역시 전례를 실행하는 가운데 법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자는 성인이 법상하여 제작한 전례를 본떠 실행하였기에 그 역시 법상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 삼지 않았다면 천인 관계는 맺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법상자는 천인 관계를 구현시킨 주체가 된다. 성인이 아닌 군자는 어떻게 법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늘이 내린 전례를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군자가 전례를 실행할 수 있었던 준거는 그의 덕행에 있었다. 덕은 천도를 본뜬 것이었기 때문이다. 천도는 하늘이 드리운 상을 천문현상으로 해명되는데 천수상이 일월성신이라면 천도는 그 운행의 이치를 말하였기 때문이다. 역학에서의 천도를 괘효사 및 그 도수로서 말하였다. 따라서 의례가 천도를 본뜬 것이라 한 것은 형상과 도수로서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계사전」에서 군자가 법상자가 되는 덕목에는 효법이 있었다. 법상 사유는 효법을 통해 실행되어야 법상이 이루어진다. 효법은 본떠 실행하는 덕행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법상하여 천인 관계를 맺은 주체라면 군자는 이를 본떠 실천하여 인민의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군자가 그 법상을 효법하였기에 그 역시 법상자가 되었다. 후한 말의 학자 서간은 법상이 세워진 까닭을 군자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군자가 곧 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천도를 본뜬 제도일지라도 이러한 본보기 없이는 법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천인 관계도 구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효법은 법상에 뒤따르는 중요한 덕행이다.

서간은 법상이란 용모를 바르게 하고 위의를 신중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 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선왕이 예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용모란 인간의 외모이고 외모와 태도가 바르기 때문에 성정이 바르게 다스려졌다. 성정이 바르게 다스려지는 것은 인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의가 존재하는 것은 성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덕을 갖춘 군자라야 비로소 (만인)의 법상이 되고 인민들이 그를 효법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군자를 법상으로 삼은 까닭은 인민에게 성덕을 기르게 하는 방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 시작은 용모가 바르게 다스려지는 예용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역전』에서 후한말의 서간에 이

르기까지의 법상은 성인에서 비롯된 법상자와 그 확장으로 천인 관계가 구현될 수 있었고 군자를 만들고자 한 까닭도 법상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성인이 법상하여 전례를 제작한 이유는 인민에게 천도를 전하여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천도를 본뜬 인도는 구체적이어야 했다. 다만 전례는 군자에 의해 몸소 실행하여 본보기가 되어야 인민이 본떠서 실천할 수 있다. 군자가 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준거는 그의 덕행이었다. 덕행은 군자의 올바른 언행이니 인도의 모범이 되었다. 덕이 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용이라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예가 하늘이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덕행이다. 따라서 군자가 법상이 되는 까닭은 군자의 언행이 예에 적중하여 만민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상이 유가에서 천인 관계를 맺게 하였던 매우 근원적인 사유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법상이 파생되고 확장되는 사유의 주체를 법상자로 칭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천인 관계가 확장될 수 있었던 까닭은 법상자가 효법하는 관계에 있었다. 효법이 법상을 본떠 덕행으로 실천하는데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법, 즉 법 삼은 것들 본뜨는 데는 상호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효법하는 법상자의 범위는 성인에서부터 군자와 인민에게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인민도 천인 관계를 이루게 하는 법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상이 세워진 것은 군자로 삼기 위해서라고 한 서간에 따르면 결국 군자는 성덕을 이루었기에 법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상 사유에서 법상자가 천인 관계를 구현할 수 있었다면 서간에 따른 법상은 법 삼을 수 있는 대상이며 「계사전」의 법상자는 법 삼아 본떠 효법하는 주체가 된다. 「계사전」의 법상은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 삼아 전례를 제작하여 이를 본받게 하였다. 반면 서간의 법상은 용모를 바르게 하여 궁극에는 성덕에 이르는 자를 군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법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성인에서 비롯된 법상은 하늘이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 삼은 사유이면서 전례를 효법하게 하였다. 둘째, 서간의 법상은 용모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우선 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기에 외모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성정이 다스려지고 인의가 존재하기에 성덕이 드러난다고 한다. 따라서 성덕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상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서간은 법상이 되는 과정을 인간의 태도, 성정, 존재, 덕성의 신체화 과정으로 해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계사전」의 법상 사유는 하늘이 직접 드리운 상을 성인이 법 삼아 전례를 제작하게 하였다. 서간의 법상은 이미 인간에게 내재된 덕성을 그의 외모로부터 다스려 성덕을 드러내게 하여 법상을 이루게 하였다. 따라서 「계사전」과 서간의 법상이 천인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전례와 성덕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그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론】

「유가에서 法象 사유와 천인 관계의 구현 방안 - 「繫辭傳」의 法象者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이동식(경북문화재단 이사)

지현주 박사님의 발표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가 경전에서 法象은 주역에 처음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법상이란 말을 사실 이번에 처음 접합니다. 생소하기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들은 자연과 천체의 운행질서를 보면서 하늘이라 개념을 찾아내었는데, 하늘이 보여주고 드러내는 상징이나 형상을 성인들이 어떻게 본받아 내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이러한 하늘의 뜻은 주역에서 시작해서 상서와 예기 논어 등으로 차례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드리운 象을 보고 그 뜻을 읽고 이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성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늘뿐 아니라 땅과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형상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은 그런 하늘을 올려다 보며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유가 사상의 시원이자 시발이라 생각되는데, 지현주 박사님은 이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동아시아고대학회를 통해서도 그 연구를 나눌 수 있음은 기쁜 일입니다.

잘 알다시피 유가에서 敎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모두 하늘을 궁극으로 삼고 있기에 그 지극한 道와 法은 天, 곧 하늘과 동의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학은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우주론과 인식론 및 심성론을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는 서로 높고 낮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의 존재자체가 인식되지 못하고 그 존재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 그 사이의 인간이라는 관계를 맺어주는 데는 성인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주역에서 ‘天垂象’이란 말이 나오고 그것은 곧 하늘(天)이 드리운 상(象)인데 그 드리운 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성인입니다. 성인은 천문현상이나 자연현상을 통해 큰 법을 배우고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서 하늘의 도(天道)를 드러냅니다. 하늘의 도는 동(動)과 정(靜)의 법칙으로 강(剛)과 유(柔)가 나누어지고 나아가는 방향과 처소에 따라 흩어지고 모이는 형상에서 길흉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이 이러한 천도를 법상하여 인간의 도까지를 함께 밝힙니다. 인간이 전례로 삼은 위계질서는 천도의 원리를 본뜬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어떻게 법상할 수 있었는가? 우리리 하늘의 상을 관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천문을 관찰하여 마땅한 도의 방법론, 곧 전례(典禮)를 제작한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서 발표자는 그것은 천하의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규정합니다. 성인이 이를 본뜨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늘의 형용을 본받고 사물의 마땅함을 본뜬 것이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은 하늘의 상을 관찰하여 사물의 마땅함, 그것이 이(理)인데, 이가 모이고 통하는 것을 관찰하여 그 전례를 행하는 데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인은 어떤 능력자이기에 하늘이 드리운 상을 본뜬 수 있었을까? 발표자는 여기에서 중용이란 경전의 개념을 주목합니다. 중용에 "하늘의 도는 '誠者'이고 인간의 도는 '誠之者'라고 하였다"라는 대목을 보면 天道가 誠이 되는 까닭은 힘쓰지 않아도 道에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성인은 애쓰지 않아도 거동이 도에 합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군자는 또 무엇이고 어떤 인물인가? 군자는 곧 성인의 도를 깨우쳐 법상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성인의 도를 법 삼아 그 상을 본떠 실행하였기에 군자 역시 법상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만이 아니라 그 성인을 본보기로 삼은 군자도 천인 관계를 맺게 한 법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군자를 본받은 인민도 천도를 몸소 실행한 군자의 언행을 통해 천인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과 군자, 군자와 인민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말이 주역에 나오는 유명한 문귀입니다.

공자께서 말하셨다

군자가 자기 집에 거처할 때 말을 선하게 하면 천 리 바깥에서도 응하게 되니 하물며 가까운 데 있어서랴.

그 집에 거처할 때 말을 선하지 않으면 천 리 바깥에서도 어긋남이 있나니 하물며 가까운 데 있어서랴.

말은 자신에게서 나와 인민에게 더해지며 행동은 가까운 데서 발해서 먼 곳까지 드러나니 말과 행동은 군자의 추기요. 추기의 발함이 영화로움과 욕됨의 주인이다.

말과 행동은 군자가 천지를 움직이는 까닭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인이 마련한 도를 군자가 깨달아 실천하면 그것이 천지에 영향력을 미쳐 天地가 움직이고 감동되는 것이니 군자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보면 공자는 성인이고 성인인 공자가 군자에게 성인의 도를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곧 덕을 기르고 키워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의 큰 덕이 성인을 통해 규범적인 형태로 정의되면 성인은 그것을 군자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군자는 그것의 실천을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 확산되므로서 이 세상이 도덕으로 바로 서

는, 참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곧 이러한 천지의 큰 덕이 곧 생명이고 성인은 그 자리를 잘 지니는 것이 그것이 곧 인(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게 하며, 재물을 잘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의(義)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생각을 받아 다른 유가들은 구체적으로 성인과 군자, 군자와 일반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가들도 이런 가르침에 따라 마음에 내재하는 인(仁)을 추구하고 천리를 실천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군자와 성인을 비교하면

성인은 지극하여 하늘과 견줄 수 있는 반해
군자의 도는 그의 몸에서 나온 언행으로 천하의 기준을 만들었다.
성인의 덕을 모범으로 삼았기에 군자는 현실에서 그 덕을 실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자의 움직임은 천하 만민에게 道, 法, 則이 된다.
인민도 군자를 본받아 그 언행을 따른다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유가들의 생각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백호통에서는 이런 말도 인용합니다.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가르침은 본받음이다. 위에서 한 것을 아래에서 그것을 본받는다. 백성에게는 질박한 본성이 있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효경에 ‘선왕이 가르치게 하여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고대 제왕의 덕은 인민의 교화를 중시하였고 가르침을 통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가르침이란 곧 위에서 모범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지극한 효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효는 위로 부모와 조상을 향하는데 이는 저 너머의 하늘과 성인의 법을 본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가들이 보는 세계관이 확실하게 정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자가 받은 하늘의 명이 성인을 통해 군자에게 전해지고 군자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면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됩니다. 주역에서 시작해서 상서와 예기 논어 등 경전, 나아가서는 유가들의 저술 등에서 이 개념이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유가들의 생각은 모든 백성들이 군주와 그 위계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기존 유학사상의 시원이 어떻게 인민에게까지 전해졌는가 하는 점을 잘 밝혀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러한 하늘 사상이 왕조시대 계급사회를 고착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공자를 성인으로 하고 그 뒤의 유학자들이 군자가 되어 백성들의 삶을 규정

한 것이 이론에 치우쳤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을 검증해 곁들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숙종 때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지요. 박세당은 『사변록(思辨錄)』에서 유가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인(仁)에 대해, 공자가 말하는 ‘인’이란 인간과 동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조화(自然調和)의 심정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비판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맹자의 인에 대하여도, 맹자의 차마 할 수 없는 심정인 불인지심(不忍之心)으로서의 ‘인’이 도살장과 부역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일 뿐, 살생의 잔인성은 건드리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유가들의 경전과 저술을 통해, 그 속에 흐르는 법상이란 방법론을 통해 유가들의 근본사상을 잘 추출해 내신 데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기왕이면 그 생각이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를 앞으로 더욱 천착해주시면 후학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유학 전공자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읽고 건방지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 사죄를 구하면서 토론문 발표를 마칩니다.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 형식 : 80년대 임진택 연출 <밥>의 틀거리

김종희(동국대학교)

〈目 次〉

- I. 머리말
- II. 마당극의 전통수용과 실험성
 - 1. 전통수용의 실험과 서사적 요소
 - 2. 70·80년대 마당극의 원리와 양식의 변이
- III. <밥>의 틀거리와 서사형식
 - 1. 틀거리와 관중개입
 - 2. 역할 전환과 재판장면
- IV. 맺음말

I. 머리말

7.80년대 한국현대연극에 대한 논의는 전통수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전통수용에는 주류연극과 마당극이라는 마지널리티(marginality)¹⁾가 존재한다. 특히 전통수용이 가지고 있는 현대연극의 변화에 주목하자면 마당극은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마당극의 현장성은 현실정치 무대의 연장선으로 전통을 적극 활용하였다. 대학생 운동은 마당극 발생을 이끌었고, 정치적 이슈의 토론장을 매개로 한 텍스트의 생성과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시도하며 판소리의 서사적 기능과 탈춤, 그리고 굿 등의 원리를 현대연극의 전통수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연극에서 전통수용의 범위를 판소리, 탈춤, 굿에 한정한다면, 마당극이 시도한 전통수용의 서사적 요소가 과연 새로운 연극술에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70년대와 80년대 마당극의 원리와 양식에 대한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마당극의 양식과 원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마당극의 양식에 주목하면서 마당극의 출발로부터 7년 뒤인 1980년대 마당극 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원인을 기성

1) 마지널리티(marginality) 주변성. 마지널리티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심이 아닌 중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면과 또 다른 면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마지널리티는 '다리(Bridge)'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 주변성에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원리를 제시한다.

연극계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따른 이론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 그 만큼 기성 연극계에서 주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마당극과 서사극의 원리에 대한 연구는 비교연구 방법의 토대가 되기 시작하였다. 마당극의 전통 수용에 의미를 두고 서사극의 구조와 형식 그리고 극의 방향성에서 대중성과 정치성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유사점에서 마당극 <덕산골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사극적 요소를 도입 부분과 해설자 활용, 에피소드 삽입 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마당극을 한 시대의 실패한 이념극으로 비판하면서 연극 미학적 자체에 대해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반박의 논리로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 있다.³⁾

서구 실험극 계열에서 마당극의 장르적 특징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80년대 실험연극의 미학적 전통과 연극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마당극의 양식 실험과 서사극의 수용 방식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계승하면서 한국 실험연극의 토착화와 대중화에 대한 담론⁴⁾과 민중성, 놀이성, 및 마당극의 정신과 더불어 에피소드식 구성, 반복되는 구조나 대사, 음악의 활용, 구어체 대사, 관객과의 열린 구조와 같은 전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수용한 마당극이 현대극에서 확고한 장르로 명명되었다는 실험적 의의⁵⁾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후 연구는 담론적 연구보다는 마당극이 서구관점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공연미학을 가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당극 양식의 새로운 발전 모색을 위한 전제 과제로서 마당극 <밥>, <녹두꽃>을 중심으로 서양연극의 실험적 기법들을 연구했다.⁶⁾

이어서 1980년대 한국 실험연극에서 나타난 현대연극의 전통 수용 및 한국연극의 정체성 담론에서 마당극의 연극적 양식원리와 형식적 특성을 재정리하고 연출자 입장에서 연기연출 방법으로 임진택 작품을 분석하였다.⁷⁾

이상과 같이 마당극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은 마당극의 양식과 원리, 서사극 원리, 80년대 실험연극에서의 서사극 수용, 서양연극의 실험적 기법들, 공연양식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임진택 연출의 <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실험연극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서구실험 연극의 트렌드를 도입하여 마당극 양식을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한 바는 분명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현대연극에서 결여된 한국의 전통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빠져있다. 또한 서사극을 계통적으로 논한 논저와 막연히 서사극과 비교한 논문은 구분되어야만 할 것이다.

마당극의 연극적 양식원리에서도 ‘연극적 양식원리’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진 바가 없거니

2) 배선애(2003), 「1970년대 마당극의 양식 정립과정 연구」, 『한국극예술연구』18, 한국극예술학회.

3) 김성현(2004), 「마당극에 내재된 서사극적 기법 고찰 - <덕산골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32, 중앙어문학회.

4) 백로라(2011), 「1980년대 실험연극의 담론 연구-마당극의 연극적 양식화 및 서사극 수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화사학회.

5) 이미원(2012), 「마당극: 전통수용의 현대적 양식화」, 『한국예술연구』제6집,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6) 이원현, 「한국 마당극에 나타나는 서양연극의 실험적 기법들」, 『한국극예술연구』22, 한국극예술학회, 2005. pp. 151-184.

7) 서상규(2018), 「마당극의 공연양식적 특성에 기반한 연기연출방법 연구」, 『연기예술연구』13, 연기예술학회.)

와 양식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하다. 한국의 서사적 요소가 새로운 연극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80년대 임진택 연출 <밥>의 틀거리를 중심으로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형식을 밝히고자 한다.

II. 마당극의 전통수용과 실험성

마당극의 전통 수용과 실험성은 전통적인 연회 형식과 현대적 요소의 융합을 통해 나타난다. 마당극은 주로 탈춤, 굿, 판소리 등 전통 연회의 형식을 현대극에 통합하여 민중성과 놀이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통의 수용은 과거의 연극적 요소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메시지와 결합하여 비판적이면서도 대중적 성격을 띠는 공연으로 발전했다. 또한, 극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실험성을 지닌다.

1. 전통수용의 실험과 서사적 요소

마당극의 성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전통 수용의 가치를 지니며, 현대극에서 한국적 고유의 연극 양식을 지닌 유일한 극 형태라는 사실이다. 마당극은 70년대 전후 한국 연극계에서 전통 수용에 대한 실험적 모색이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한국 연극사에 큰 의미를 남겼다. 따라서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전통'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 마당극의 전통 수용 실험과 서사적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문조의 논문 「전통과 사회변동」에서는 전통의 특성을 독자성, 영속성, 구성성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전통이란 단순히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유형이나 이미지가 기억, 대화, 기록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영향력을 미칠 때 실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은 창조자와 수용자 간에 독자성을 지니며, 오랜 기간 존속해 온 영속성과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재창조될 수 있는 구성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속성에 비추어, 한국 현대 연극계에서 전통 연회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러 연극 단체와 연극인들이 전통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실험하였다. 초기 한국 현대극의 전통 수용 방식은 탈춤이나 굿을 도용하였다. 극단 '자유'는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한 패러디와 각색 창작극을 통해 즉흥성과 유연성의 놀이극 양식을 만들었고, 허규의 '민예극장'은 전통 연회의 기술을 연마하여 극 속에 그 정신을 통합하는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동랑 레퍼토리극단'은 전통극을 현대적 감각과 기법으로 탈바꿈시켜 현대 관객과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전통극과 서구 실험극이 결합된 총체극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듯 기성 연극계는 전통극을 되돌아보고 현대극의 새로운 양식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러한 전통수용은 한국연극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과정에서 마당극의 주목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당극은 극장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공연될 수 있는 극 형태로, 탈춤과 가면과 춤사위, 그리고 삽화연결식 구

조를 갖추고 있다. 마당극은 의도적으로 전통 연희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내용으로는 정치적 소통, 형식적으로는 탈춤, 굿 등의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한 놀이적이며 민중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굿의 공동체적 성격과 함께 신명나는 공연으로 표현된다.

전통의 재창조와 현대화는 단순히 복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공연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통의 현대화는 현실 지향적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통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 규범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마당극은 이러한 전통적 연희의 요소를 전통적 공간에서 또는 현대적 공간에서 유연하게 표현하는 극 형태로,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는 예술이다. 마당극은 관객에게 전통 문화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이슈를 경쾌하게 다루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연극에서 전통의 현대화는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으며, 연극인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마당극은 전통 연희의 요소를 현대적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민중성과 놀이성을 강조하는 극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연극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당극의 서사적 요소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 가부키의 몽타주 기법과도 연관성을 보여준다. 가부키는 강렬한 시각적 상징을 사용하여 각 장면이 독립적으로 기억에 남도록 구성함으로써, 관객이 각 장면의 사회적 메시지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마당극은 전통 연희의 놀이적 요소를 통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풍자와 비유를 사용하여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마당극은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객에게 더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마당극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마당극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2. 70·80년대 마당극의 원리와 양식의 변이

이미영의 <양주별산대 놀이> 논문⁸⁾에 따르면, 애사당 범고놀이는 양주별산대 놀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공연 형식이다. 이 공연은 대사와 춤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감정을 풍자와 유머로 표현하며, 단순한 오락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범고놀이는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즉흥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마당극의 연극적 양식은 이러한 전통극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객의 목소리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8) 이미영(2001), 「탈놀이 교육 실천 연구- <양주별산대 놀이>중 ‘애사당 범고 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마당극의 연극적 양식 원리는 민중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체적 경험을 강조하며, 즉흥성과 참여를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전통 연희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사회 문제를 다루며, 해학과 풍자를 통해 권력 비판과 민중의 억압을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중적 서사 구조를 통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연극 경험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적 서사는 주로 사회적, 정치적 억압을 겪는 민중의 삶과 투쟁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일상적인 경험과 갈등을 다루며, 민중의 저항과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관객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반영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느낀다. 또한, 민중적 서사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은 정서적 반향을 일으키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III. <밥>의 틀거리와 서사형식

마당극 <밥>의 틀거리⁹⁾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 극 구조와는 다른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작품은 단일 플롯 대신 세 개의 독립적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마당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첫 번째 마당은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마지막 마당은 극의 마무리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는 시간의 연속성을 배제하며, 보다 유동적인 서사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밥>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다루며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한국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현재와의 연계를 보여준다.

<밥>의 서사형식은 틀은 판소리와 탈춤의 형식으로 전통적인 몸짓과 표현방식을 따르고 내용으로 동시대 민중이 겪고 외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서사 형식을 띠고 있다.

1. 틀거리와 관중 개입

연극의 기원에서 관객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공연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당극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공연 틀거리를 통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마당극 <밥>은 임진택이 김지하의 수필집 밥을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으로, 처음에는 소극장에서 공연되었으나, 지방 순회 공연 중 정부 검열로 인해 대학 캠퍼스 야외 무대에서 공연되었다. 이후 1987년부터는 미리내 극장에서 실내 무대와 야외 무대를 병행하여 공연되었다.

<밥>에서 관객은 야외 공연에서는 무대가 훤히 드러나며, 실내 공연에서는 조명이 객석을 비추어 객석이 배우에게 노출된다. 이러한 설정은 관객과 배우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

9) 마당극에서 틀거리와 줄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틀거리가 나와야 줄거리를 전개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있어야 틀거리를 구상할 수 있다. 사실 넓게 보면 자연주의라는 연극사조는 사건과 행동을 순차적으로 무대상에 재현시키는 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좁게 보면 탈춤의 양반 과장도 한계층의 인물이 다른 지배계층의 인물들을 끌고 나와 관중 앞에 위선을 폭로하는 틀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틀거리는 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그에 알맞은 형태로 담아낼 수 있는 각종의 그릇 곧 양식적 모형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출처, 임진택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비평사, 1990.)

리고 관객이 공연에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관객은 공연 시작과 함께 배우와 악사와 호흡을 맞추고, 극 중간에 배우에 의해 무대에 이끌려 극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무대로 올라와 배우와 함께 뒤풀이를 하며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즉, 관객과 배우는 공연 시작부터 대화를 주고받으며 극의 틀거리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공연 중에는 즉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배우가 관객에게 추임새를 가르쳐주며, 관객은 다양한 역할로 변모한다. 어떤 관객은 잡초가 되거나 벼가 되어 병든 벼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법정 장면에서는 법정 관객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빈 무대에서 관객은 무대 공간 또는 배우의 역할을 맡아 무대의 빈틈을 채운다.

관객의 참여는 탈춤의 얼러대기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관객에게 직접 묻거나 반감을 유발하여 극을 새로운 국면으로 비약시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밥>의 첫째 마당 ‘똥이 밥이다’에서 농부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며 극의 틀거리를 형성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농부는 혼자서 허리를 주무르며 관객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방 농부가를 즐겁게 부르고 그렇게 농사일이 마냥 즐거운 줄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신디...”라고 말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와 같이 마당극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극을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며, 관객은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공연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관객이 공연 리허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본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의 지시에 따라 무대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극의 의도에 맞춰 참여한 관객은 작품의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마당극은 탈춤과 같은 전통 연희의 양식을 계승하며, 관객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공동체 세계로 동화될 수 있다. 특히 임진택의 <밥>에서 관중 개입은 공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관객이 무대에 참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와 정신을 공유하고 공동체적 공감을 이루고자 했다. 셋째 마당에서 언급된 ‘밥이 곧 하늘이다.’와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라는 주제는 관객이 극중 내용과 공감하게 만들어주며, 두려움 없이 극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국의 탈춤에서 보여준 신명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신명은 흥겨운 신이나 멋을 뜻하며, ‘놀이적 마당극’의 미학과 연결된다.

세크너는 관객의 참여가 공연자가 독점하던 무대 위 행동을 공유하는 ‘민주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관객 참여를 ‘이야기에 참가하기’라고 불렀다. 마당극 <밥>은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며 현실의 문제를 풍자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공연으로, 정치적 의식의 각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역할 전환과 재판장면

임진택 연출의 마당극 <밥>에서는 단지 5명의 배우가 거의 30명의 인물들을 맡아 연기한다. 심지어 그들은 자연물의 역할까지도 담당하는데 모든 자연물이 음악 악기와 병렬됨으로 악기에 따르는 개별적 의미를 갖게 된다.(쟁과리=해, 북=비, 징=바람, 장고=땅). 이것은 한국의 전통악기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자연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의 특정한 방향, 계열과도 상응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¹⁰⁾

마당극 <밥>은 공연 시작과 더불어 배우는 관객에게 말을 건네며 공연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긴장감을 풀어준다. 심지어 관객들을 잡초에 비유하기도 하고 도열병에 걸린 병에 취급을 하며 격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넨다. 관객과의 친밀감을 조성하며 재미를 준다. 극이 시작되는 첫째 마당에서 우춘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땅으로부터 '똥이 밥'임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대비를 통해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자연의 순리를 깨닫는다. 마당극 <밥>의 화두인 밥이 똥이 되고 바로 밥이 되는 자연의 순환 법칙을 관객에게 전하고 있다.

마당극 <밥>은 관객과 배우 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시작된다. 공연 도입부에서 배우는 관객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긴장을 풀며 다가가 공연 참여를 유도하며, 관객을 잡초나 병든 병에 비유하는 등의 유머로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하게 된다. 첫째 마당에 등장하는 우춘삼은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밥과 똥의 순환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장면은 마당극 <밥>의 중요한 주제인 자연과 인간의 연결, 생명과 순환의 의미를 전달한다.

둘째 마당에서 배우들은 여러 인물을 맡아 역할을 유연하게 전환한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였던 배우가 마을의 교사로 변신하고, 경찰서장은 젊은이로, 아나운서는 늙은 마을 여인으로 바뀌는 등 다양한 역할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닌, 배우들의 깊은 연기력이 바탕이 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이는 배우들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당극의 연출 기법이기도 하다.

셋째 마당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죄수들로 역할 전환된 배우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통해 사회 구조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들은 "너나 나나 똑같은 밥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표출하며 서로의 연대감을 강조한다. 호구거사, 창녀, 무허가 상인 등 다양한 인물들은 사회의 밑바닥 민중을 대표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에는 관객 참여를 유도하며 개벽굿으로 마무리되며, 이들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함께 나누는 존재로 거듭난다. 또한 이 마당에서는 역할 전환이 이루어져, 각 배우가 죄수뿐만 아니라 판사, 증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연기력의 성과로 이어진다.

마당극 <밥>에서 법정 장면은 사회 비판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브레히트의 법정 장면과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브레히트의 소격효과는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반면, <밥>은 전통 연희의 놀이적 요소를 활용해 관객과 더 친밀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형식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브레히트는 관객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소격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밥>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법정 장면을 놀이화하며 감정적이고 참여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마당극은 탈춤과 굿 같은 한국 전통 형식을 차용해 공연자와 관객 간의 경계를 허물며, 법정 장면에서 사회적 이슈를 보다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밥>은 한국적인 민중적, 놀이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여 브레히트의 정치적 연극과는 문화적 배경에서 차별화된다.

10) 임진택,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비평사, 1990.

<밥>의 법정 장면은 자연의 순리와 인간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며 관객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반면, 브레히트의 법정 장면은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 구조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론적으로, <밥>과 브레히트의 작품 모두 법정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지만, <밥>은 놀이적이고 민중적인 방식으로, 브레히트는 논리적이고 소격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V. 맺음말

마당극은 전통 한국 민속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관객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극 형식을 창출했다. 판소리와 탈춤, 민담 등 전통 구비문학이 서사 구조와 표현 방식에 기여하며, 특히 탈춤의 서사적 기법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했다. 이러한 접근은 집단성과 즉흥성을 현대 극예술에 접목시켜, 관객이 극의 진행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감정적 공감을 높였다. 이로 인해 마당극은 비선형적인 서사 구조와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연극술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한국 연극에서 그 여운을 남기고 있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김미도, 『한국 현대극의 전통수용』, 연극과 인간, 2006.
- 이영미, 『마당극 양식의 원리와 특성』.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시공사, 1996.
- _____, 『마당극 · 리얼리즘 · 민족극』.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시공사, 1997.
- 이상일, 『축제와 마당극』, 조선일보선서, 1986. 139쪽
- 임진택,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비평사, 1990.

학술지

- 김월덕(2000), 「마당극의 공연학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11, 한국극예술학회, 349-378쪽.
- 김재석(2002), 「마당극 정신의 특질」, 『한국극예술연구』 16, 한국극예술학회, 345-361쪽.
- 배선애(2003), 「1970년대 마당극의 양식 정립과정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8, 한국극예술학회.
- 서상규(2018), 「마당극의 공연양식적 특성에 기반한 연기연출방법 연구」 『연기예술연구』 13, 연기예술학회.
- 이미원(2012), 「마당극: 전통수용의 현대적 양식화」, 『한국예술연구』 제6집,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이성재(2018), 「프랑스 68운동의 혁명적 연술과 새로운 연극」,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47, 한국세계문화사학회, 143-175쪽.
- 이원현(2003), 「바흐친의 이론을 통해 본 마당극」, 『한국연극학』 20, 한국연극학회.
- _____(2005), 「한국 마당극에 나타나는 서양연극의 실험적 기법들」, 『한국극예술연구』 22, 한국극예술학회.
- _____(2009), 「마당극적 관점을 통해 본 Rock뮤지컬 <지하철 1호선> 연구」, 『드라마연구』 30, 드라마학회.
- 김경미, 김훈, 김희남, 이말희, 이설숙, 이영옥, 이혜림, 임선영, 최진희(1984), 「마당극과 Brecht 敍事劇과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회

학위논문

- 김현민(1992), 「1970년대 마당극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은영(2020), 「극단 학전의 소극장 뮤지컬 실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이미영(2001), 「탈놀이 교육 실천 연구 - <양주별산대 놀이> 중 ‘에사당 범고 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토론】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 형식 : 80년대 임진택 연출 <밥>의 틀거리」에 대한 토론

이성재(충북대학교)

저자는 1980년대 임진택 연출의 <밥>의 틀거리를 중심으로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형식’을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형식에 대한 논문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새로운 주장을 들려줄 것인지 기대를 갖고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원고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종종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다보면 일정에 쫓겨 완성되지 않은 논문을 보내는 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고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저자가 서론의 마지막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마당극의 한국적 서사형식’이 기존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관객과의 소통’, ‘풍자와 비유를 사용한 사회 비판’, ‘관객의 적극적 참여’, ‘역할의 전환’과 같은 내용은 기존 논문들에서 이미 다 다루어져온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원고를 열심히 읽었지만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다 읽은 후에 원고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논문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글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3줄의 “어떤 관객은 잡초가 되거나 벼가 되어 병든 벼가 되기도 하고”, 같은 페이지 밑에서 3줄의 “관객들을 잡초에 비유하기도 하고 도열병에 걸린 벼 취급을 하며,” 그리고 8페이지 “관객을 잡초나 병든 벼에 비유하는 등”과 같은 문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동어 반복적인 표현들에 대한 분석 내용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존에 출간된 논문들 몇 편을 정리하면서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았습니다. 아쉽지만 이에 대한 각주표기도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원고에는 각주에 책과 논문의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원고는 구체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4페이지에서 “허규의 ‘민예극장’은 전통 연희의 기술을 연마하여 극 속에 그 정신을 통합하는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하지만 어떤 전통 연희의 기술인지를 이 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8페이지에서도 “호구거사, 창녀, 무허가 상인 등 다양한 인물들은 사회의 밑바닥 민중을 대표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마치 여러 논문들의 결론을 늘어놓은 것 같은 인상마저 줍니다.

네 번째로, 글에 비문이 많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은 문장들, 표현 자체가

오류인 문장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글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극의 출발로부터 7년 뒤인 1980년대”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출발이 언제인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7년 뒤에 1980년대’라는 표현도 오류입니다. 머리글에서부터 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용어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히트의 소격효과는 이미 한국브레히트학회에서 논의를 통해 ‘생소화 효과’로 쓰기로 정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월덕, 김재석, 배선애, 백로라, 이미원, 이원현 선생님들의 글을 정리하는 것이 논문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선생님만의 독창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담긴 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